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漢語 中古音과 訓民正音의
音韻 研究

- 粵語 · 梵語 · 『東國正韻』 漢字音의 音韻 比較를 통하여 -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 中文學科

文聲皓

2020年 8月

漢語 中古音과 訓民正音의 音韻 研究

- 粵語 · 梵語 · 『東國正韻』 漢字音의 音韻 比較를 통하여 -

指導教授 金 恩 希

文 聲 皓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8月

文聲皓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安在哲_____

委 員 _李滢鎬_____

委 員 _裴泳煥_____

委 員 _金恩柱_____

委 員 _金恩希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0年 8月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동기와 목적	1
2.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	4
II. 漢語 中古音과 粵語·梵語·『東國正韻』 漢字音	7
1. 한어 중고음	7
1) 切韻系 운서	7
2) 切韻系 운도	21
2. 粵語	33
1) 음운 체계	34
2) 한어 중고음의 청·탁과 월어의 음조·양조	41
3. 梵語	46
1) 悉曇	47
2) 한어 중고음의 청·탁과 悉曇의 무성음·유성음	52
4. 『東國正韻』 漢字音	57
1) 『東國正韻』	59
2) 한어 중고음의 청·탁과 『東國正韻』 23자모의 청·탁	68
3) 한어 중고음과 『東國正韻』 漢字音의 대응 관계	74
III. 한어 중고음과 훈민정음의 음운 연구	105
1. 喻母·爲母와 ‘ㅇ’	105
1) 喻母·爲母와 ‘ㅇ’의 음가 추정	105
2) 음가 표기 고찰	120
2. 影母와 ‘ㅇ’	127
1) 影母와 ‘ㅇ’의 음가 추정	127
2) 음가 표기 고찰	137

3. 疑母와 ‘ㅇ(옛이응)’	147
1) 반야심경의 진언 ‘gate gate’의 음역 비교	148
2) 유성 무기음 ‘諷’	156
4. 日母와 ‘△’	166
1) 半舌音·半齒音의 ‘半’의 음성적 특징	166
2) 日母와 ‘△’의 음가 추정	168
5. 중고음의 陰聲韻尾와 『東國正韻』의 중성·종성	173
1) 운미 [-i]와 중성 ‘ᄃ’	174
2) 운미 [-u]와 종성 ‘ᄇ’	179
6. 중고음의 청·탁, 월어의 성조, ‘ㅇ’·‘ᄇ’·‘ㅇ(옛이응)’	190
1) 청취적 관점에서의 성조	191
2) ‘ㅇ’·‘ᄇ’·‘ㅇ(옛이응)’으로 살펴본 월어의 9성 6조	195
IV. 결론	200
참고문헌	204
【ABSTRACT】	211
【부록】 1. 『東國正韻』·『全韻玉篇』·현재음·중고음·월어·보통화 표	213
2. 각종 월어병음방안	228
3. 『東國正韻』 한자음과 월어의 음색 비교	230

I. 서론

1. 연구 동기와 목적

한어 중고음은 일반적으로 魏晉南北朝에서 唐代까지의 어음을 가리키며 한국과 일본의 한자음 확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어 중고음은 北宋의 『廣韻』까지 절운계 운서의 증보본의 성격으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비슷한 시기의 『集韻』부터 현실음이 반영되기 시작하여 元대의 『古今韻會舉要』(이하 『韻會』)·『中原音韻』, 明代의 『韻略易通』·『韻略滙通』을 거치며 중국 북방의 현실 어음을 반영한 조기 관화의 성격으로 변모한다. 이후 청대에 顧炎武를 기점으로 古音學이 연구되고, 陳澧는 『切韻考』에서 반절계련법으로 『廣韻』의 자모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스웨덴의 언어학자 칼그렌(Bernhard Karlgren)은 清代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中國音韻學研究』에서 비교언어학의 방법으로 한어 중고음의 음계를 분석했는데, 한자음을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여 어음의 특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음을 예로 들면, 전청은 무성 무기음 [k], 차청은 무성 유기음 [kʰ], 전탁은 유성음(유성 무기음, 유성 유기음) [gʰ]으로 표기한 칼그렌의 분석 방식은 음소 표기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 명쾌하여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마치 한어 중고음의 청·탁과 범어의 무성음·유성음의 대응 관계를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한어 중고음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전탁자를 유성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전탁자의 실체가 유성음이라기보다는 표기상의 방편으로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 현재 한·중·일의 어음에서 유럽어의 유성음의 발성 습관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을 한자로 음역하는 과정은 한자음의 음운 분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음절 분석에 따른 반절과 운도의 활용이 그것이다. 하지만 범어에는 있는 음소이지만, 한어에는 없는 음소를 음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특히 범어의 유성음은 성대 깊숙한 곳에서 발성하는 묵직한 소리로, 한어에서 이에 대응하는 음소를 체계적으로 음

역하기 위해 어떤 한자음의 특징을 대응시켰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범어의 유성음에 대응하는 한어 중고음의 전탁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한어 중고음의 전탁자를 『東國正韻』 23자모에서 ‘ㄱ, ㄷ, ㅂ, ㅈ, ㅊ, ㅎ’로 표기하고 있는 훈민정음 각자병서의 창제 목적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한어 중고음의 음운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어 중고음의 청·탁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월어의 성조에서 한어 중고음의 청·탁과 명확한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청·탁을 현재 초분절자질로 분석되는 월어의 성조에 따라 달라지는 음색의 차이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월어의 9성 6조는 입성을 제외하면 6개의 조치를 갖는데, 1·2·3성은 ‘음조’라고 하며 조치가 높고, 4·5·6성은 ‘양조’라고 하며 조치가 낮다. 조치는 가상의 음높이로 성조를 판단하는 것으로, 음조와 양조를 공명장을 기준으로 구분하자면 1·2·3성은 구강에서 비강까지의 공명을 포괄하며, 4·5·6성은 후두강 주변에서의 공명이라 할 수 있다. 『廣韻』 41성모의 반절상자를 기준으로 월어의 음조는 한어 중고음의 청음에 대응하고, 월어의 양조는 한어 중고음의 탁음에 대응한다. 월어의 ‘6조’라는 조치의 개념은 趙元任의 오도표기법 이후 명명한 것으로, 과거에 월어의 성조가 어떻게 묘사되고 정의되었는지 현재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월어의 4·5·6성이 후두강을 위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 것은 예일 로마자 표기법 및 黃錫凌의 병음방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아음 ‘ㄱ·ㅋ/ㄱ·ㅇ(옛이음)’, 설음 ‘ㄷ·ㅌ/ㄷ·ㄴ’, 순음 ‘ㅂ·ㅍ/ㅂ·ㅁ’, 치음 ‘ㅈ·ㅊ/ㅈ, ㅊ/ㅈ’, 후음 ‘ㅎ·ㅎ/ㅎ·ㅇ’을 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¹⁾ 이는 곧 『東國正韻』 23자모에서 각각 아·설·순·치·후의 청·탁으로, 한어 중고음의 청·탁과 대응한다. 차탁 반설음·반치음인 ‘ㄱ’·‘ㅌ’을 추가하면 곧 『東國正韻』 23자모가 된다.

범어의 무성음·유성음, 한어 중고음의 청·탁, 월어의 음조·양조, 『東國正韻』 23자모의 청·탁이 명확한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을 통해 현재 음가의 실체가 불분명한 한어 중고음의 影母와 喻母 및 이에 대응하는 훈민정음의 초성 ‘ㅎ’과 ‘ㅇ’의 음가를 분석할 수 있다.

범어의 무성음·유성음의 조음 방식은 중고 한어 36字母에서 청·탁을 구분 짓게 한

1)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ㄱㄷㅂㅈㅊㅎ爲全清, ㅋㅌㅍㅊㅎ爲次清, ㄱㄷㅂㅈㅊㅈㅈ爲全濁, ㅇㄴㅁㅇㄴㅁ爲不清不濁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범어의 무성음은 청음으로, 유성음은 탁음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표기상의 목적과 음소의 실체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월어의 음조·양조는 현재 성조로 표기되지만, 과거에는 음색의 개념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는 월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언어를 성조의 개념으로 분석하지 않고, 청취 측면에서 느껴지는 자질로 구분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월어의 음조·양조는 한어 중고음의 청·탁의 실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훈민정음의 창제에는 중국의 성운학뿐만 아니라 범어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東國正韻』을 통해 한자음의 정음을 추구했고,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서적이 불경언해에 치우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창제 당시의 훈민정음은 한어 중고음 분석에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은 음소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로 설음을 예로 들면 한어 중고음의 전청·차청·전탁·차탁을 ‘ㄷ·ㅌ·ㄸ·ㄴ’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바탕으로 형상화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칼그렌이 국제음성기호로 표현한 [t]·[tʰ]·[d]·[n]보다 직관적이다. 다만 로마자와 달리 세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특히 한어 중고음의 전청 影母와 차탁 喻母를 ‘ㅎ’과 ‘ㅇ’로 制字하여, ‘ㅎ’를 설내입성 ‘ㄸ’로 활용하고 ‘ㅇ’을 순경음 ‘ㄹ’로 활용한 것에서 ‘ㅎ’과 ‘ㅇ’의 음가를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훈민정음에서 보이는 한어 중고음의 影母와 喻母에 대한 음가 분석의 정교함은 현재 국제음성기호를 통한 影母와 喻母에 대한 분석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분절 자질이 위주가 되는 국제음성기호의 음소로 한어 중고음을 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한어 중고음의 청·탁, 월어의 음조·양조, 『東國正韻』 23자모의 청·탁이 대응 관계를 이루는 점을 확인하고 『訓民正音』 「解例本」 및 『東國正韻』 한자음을 근거로, 한어 중고음의 影母·喻母 및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ㅎ’과 ‘ㅇ’의 음가를 분석한다. 나아가 한글에서 탈락한 ‘ㅇ(옛이응)’·‘ㅅ’의 창제 목적 및 음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2.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

『東國正韻』은 조선 전기에 한자음 正音의 정립을 위해 편찬된 운서로서, 한자음의 중성을 한어 중고음의 운미 8개에 대응시키고 있다. 당시 우리말 한자음에는 드러나는 않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t]·[-u(w)]·[-i]를 ‘ㅈ’·‘뫼’·‘ᄃ’와 같이 표기함으로써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일치시키고 있는 점은 세종이 생각하는 한자음의 ‘정음’이 한어 중고음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東國正韻』의 23字母²⁾에서 우리말에서 변별되지 않는 이유로 중고 한어 36字母³⁾와 달리 순중·순경, 설두·설상, 치두·정치음을 구분하지 않지만, 아·설·순·치·후·반설·반치음에서 청·탁의 구분은 명확히 하고 있음을 『廣韻』의 41성모 반설상자와의 대응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廣韻』의 전탁자를 『東國正韻』 한자음에 대비시켰을 때 『東國正韻』 한자음의 초성에서 전탁자 ‘ㄱ, ㄷ, ㅂ, ㅈ, ㅊ, ㅎ’를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의 전탁자는 현재 월어의 양조와 대응하므로 ‘ㄱ, ㄷ, ㅂ, ㅈ, ㅊ, ㅎ’는 조음할 때, 후두강을 위주로 발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음색은 자연스레 두터워지게 되어 있다. 한어 중고음·월어·『東國正韻』 한자음 주음에 사용된 훈민정음을 상대 비교하면 한어 중고음의 음가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훈민정음 ‘ㄱ’, ‘ㅇ’⁴⁾, ‘ㅇ(엷이음)’, ‘△’의 사용 목적 및 음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ㄱ’·‘ㅇ’·‘ㅇ(엷이음)’은 성대 진동의 공명강에 작용하는 음색 차이 외에 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ㄱ’·‘ㅇ’·‘ㅇ(엷이음)’을 통해 월어의 9성 6조가 구분되는 원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한어 중고음이 어떻게 분석되는지에 관하여 논하기로 하는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어 중고음의 음계를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어 중고음은 절운계 운서와 절운계 운도를 위주로 하여 분석하지만, 중국 방언 및 주변국의 한자 독음과의 관계를 다각도에서 고찰할 때 더욱 면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월어의 음조·양조가 한어 중고음의 청·탁과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고, 월어의 음운 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월어의 음운 체계는 한국 한자음과의 유사성 때문에 선행연구⁵⁾에서 이미 검토된 바가 있는데, 월어와 『東國正韻』 한자음을 비교한 연구

2) 중고 한어 36字母의 순음에서 4개 자모, 설음에서 4개 자모, 치음에서 5개 자모 총 13자모를 제외하면 『東國正韻』 23자모와 일맥상통한다.

3) 중고 한어 36字母는 중국의 특정 지역의 어음만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4) 『東國正韻』 한자음 초성에 사용된 ‘ㅇ’을 가리킨다.

5) 선행연구로 조연정, 「현대 월방언 연구, 광주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임려, 「중국 월어방언과 한국어의 대조연구, 음운 체계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2집, 2011. 박종만, 「

는 아직 없다. 중고 한어 36字母의 청·탁과 실담의 무성음·유성음과의 대응 관계를 살피기로 하는데, 실담은 중고 한어 36字母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東國正韻』 한자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東國正韻』 한자음의 음운 체계에 대해 살피고, 『東國正韻』 23자모의 청·탁이 한어 중고음의 청·탁 및 월어의 음조와 양조에 대응함을 확인한다. 『東國正韻』 한자음이 사용된 『釋譜詳節』, 『月印釋譜』의 序의 한자음 및 『月印釋譜』에 수록된 世宗御製訓民正音의 序의 한자음을 한어 중고음과 비교하여, 『東國正韻』 한자음의 성모와 운미가 일률적으로 한어 중고음과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을 확인한다.

한어 중고음·월어·『東國正韻』 한자음의 대응 관계가 일률적임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한어 중고음의 喻母·影母·日母와 훈민정음 ‘ㅇ’·‘ㅎ’·‘ㅅ’의 음가에 대해 고찰하고, 疑母에 대응하는 ‘ㅇ(옛이응)’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訓民正音』 「解例本」에서 ‘ㅇ’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ㅇ’은 한어의 零聲母와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喻母와 ‘ㅇ’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어에서 비음 뒤에 모음이 위치해도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ㅇ’의 구체적인 음가를 추정한다.

우리말에서 ‘ㅎ’은 ‘ㅇ’과 구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ㅎ’을 설계한 목적에 대해 분석한다. 『訓民正音』 「解例本」을 보면 ‘ㅎ’은 전칭임에도 불구하고 엉기지 않는 소리로 전탁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소리가 성대 깊숙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리가 성대에서 나오는 점은 ‘ㅇ’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자질이 ‘ㅎ’을 구성하는 요소인지 분석한다.

‘ㅇ(옛이응)’은 성대 진동음의 무게중심이 비강에 있으므로 자질이 뚜렷하여 음가 추정에 이견이 없지만, 초성에서의 사용은 우리말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훈민정음에서 ‘ㅇ(옛이응)’을 설계한 목적에 대해서 고찰한다. 초성에서의 ‘ㅇ(옛이응)’은 한어 중고음의 疑母에 대응하며 불경 음역에서도 사용 목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야심경의 진언 ‘gate gate’를 우리나라 최초의 진언집인 안심사본 『眞言集』에서 ‘아제아제’(초성 옛이응)로 음역하지 않고 ‘아제아제’로 음역한 이유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한국어와 중국 광둥어의 중성 발음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양현, 「한국어와 광둥어의 어휘·문법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문성호, 「광둥화 연구, 음성학적 관점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여홍령, 「한국어와 중국어 월방언의 음운 체계 대조 연구」, 한국학연구, 제48집, 2018. 하취화, 「한국어와 광둥어의 음절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등이 있다.

日母는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학자 간의 견해가 다른데, 이에 관해 어음의 기준을 북방과 남방 어느 쪽에 두는지에 따라 추정음이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해 살펴본다. 『訓民正音』 「解例本」에서 반치음 ‘△’과 반설음 ‘ㄹ’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반’이 지닌 음성적 특징에 대해 고찰한다.

한어 중고음의 陰聲韻尾 [-i]와 [-u(w)]에 대응시키기 위해, 『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과 중성에 각각 ‘ᄀ’와 ‘ᄂ’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본다. 운미 [-i]를 표기하기 위해 중성자와 결합하고 있는 ‘ᄀ’를 활용하고 있으며, 운미 [-u(w)]를 표기하기 위해 『東國正韻』 23자모에는 포함되지 않는 ‘ᄂ’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東國正韻』에서 한자음의 기준을 한어 중고음에 맞추면서도 우리 한자음과 구분지어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ㅇ’·‘ㅎ’·‘ㅇ(옛이응)’은 성대 진동 외에 다른 장애가 없으므로 공명강에서의 무게중심의 위치를 설명하기 수월하며, 훈민정음의 문자 디자인에서 그 원리를 유추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세종과 『東國正韻』 편찬자는 清代 반절계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廣韻』 41성모의 특징을 알고 있었고, 중고 한어 36字母의 전청, 차청, 전탁, 차탁을 구분 짓는 음성적 원리를 꿰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과 훈민정음의 음운을 현대 음운학에서 정하는 논리 이외에, 전통 음운학에서 논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II. 漢語 中古音과 粵語·梵語·『東國正韻』 漢字音

1. 한어 중고음

1) 切韻系 운서

(1) 한어 중고음의 분기 및 기본 자료

상고음·중고음·현대음의 음운 체계가 중국어 音韻史에서 세 축을 이루며,⁶⁾ 이 중 한어 중고음은 일반적으로 절운계 운서로 대표되는 음계를 가리킨다. 한어 중고음의 시기 구분과 관련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른데,⁷⁾ 何大安은 음절 구조⁸⁾에 근거하여 중고 한어 시기를 魏晉南北朝부터 隋唐(AD200-1000)까지의 약 800년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800년이라는 시기의 음계를 일률적으로 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 분석하는 한어 중고음은 『廣韻』 및 『韻鏡』에 반영된 唐末의 어음을 대상으로 하며, 6-7세기의 음계는 이와 구분하여 前期 중고음이라고 한다. 중고음에서 근대음으로의 과도기적 단계를 지칭할 때는 董同龢의 분기를 근거로 근고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董同龢가 漢語 語音史를 다섯 시기로 구분한 것은 다음과 같다.

(a) 上古音(先秦語音): 『詩經』을 주체로 하고, 『詩經』의 用韻한 것과 諧聲字⁹⁾에 근거하

6)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21쪽.

7) 칼그렌은 六朝에서 唐까지를 중고 한어로 보았고 宋代를 근고 한어로 보았다. 魏建功은 상고·중고·근고로 나눌 것이 아닌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총 7기로 구분했는데, 중고 한어와 관련한 시기로 3期 魏晉南北朝, 4期 隋唐五代, 5期 宋을 들 수 있다. 王力(1958)은 4세기에서 12세기(南宋前半)를 중고 한어로 보았고, 12·13세기를 과도기라 정의했다. 羅常培는 魏晉을 兩漢 및 齊梁과 다르다고 하여 과도기로 보았고, 齊梁陳隋(479-617년)를 절운계 운서로 보았다. 丁邦新은 魏晉을 상고음과 구분하여 고음이라 했고, 齊梁陳을 중고 전기, 隋唐을 중고 후기로 보았다. 坂井健一은 秦漢시대를 중고 전기로, 魏晉南北朝·隋를 중고 후기로 보았고, 唐宋을 근고 전기, 元明을 근고 후기로 보았다. 李新魁는 중고 한어를 6-13세기로 보았고, 王力(1985)는 魏晉南北朝 음계와 中唐음계를 중고 한어로 분류했다.

8) 중고 한어의 상한선으로 東漢 이전에는 복성모가 사용되었지만, 魏晉 이후 복성모가 사용되지 않는 점을 들어 魏晉으로 삼을 수 있고, 하한선으로 6세기 이후 洛陽·金陵 土人の 독서음이 長安 표준음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중고음의 하한선을 9세기로 잡는다. 10세기부터 早期 북방 관화어음이 주류가 된다. 張渭毅, 『中古音論』, 河南大學出版社, 2006, 266쪽.

9) 諧聲은 六書 중의 하나로, 形聲이라고도 한다. 形聲字는 뜻을 나타내는 形符(義符)와 글자의 소리를 나타내는 聲符로 구성되어 있다. 『詩經』의 압운자를 분석했을 때, 해성자의 성부와 독음이 부합한다는 결론에 도달

여 고찰해 낸 어음 계통은 周代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諧聲字의 예로 ‘河字從可字, 翁字從公字, 江字從工字, 楷字從皆字’ 등을 들 수 있으며, 상고음 시기에 운서가 편찬된 기록이 없으므로 同源詞¹⁰⁾ 등도 상고음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b) 中古音(隋唐宋初): 『切韻』이 대표하는 음계로 隋와 唐初가 중심이 된다. 早期韻圖는 『切韻』과 같은 계통의 운서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니 『切韻』을 고증하는데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불경의 번역은 唐代에 가장 성하였고 梵漢對音 중에는 唐代 語音의 흔적도 적지 않다. 현대 방언은 『切韻』 계통에서 연원된 것이며, 『切韻』 음류의 실제 음가는 산 재료 중에서 측량하여 얻을 수 있다. 域外 譯音도 역시 唐音의 결가지 別派로 현대 방언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다.

(c) 近古音(宋末·元初): 『韻會』로 대표되는 음계로, 『韻會』는 표면상으로는 전통적인 운서의 체계를 쓰고 있지만, 각 韻 안에는 오히려 等韻의 지식을 이용하고 있고, 모든 글자를 다시 새롭게 주음을 하고 있고, 새로운 배열을 가한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실제 어음 계통을 아주 똑똑하게 볼 수 있어서 『韻會』의 어음이 중고에서 근대를 이어 주는 교량이라고 할 수 있다.

(d) 近代音(元末·清初): 『中原音韻』으로 대표되는 음계로, 元代에 민간 문학인 北曲이 크게 유행했는데, 元曲을 위하여 만든 『中原音韻』은 이 까닭으로 전통적인 운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었고, 당시의 실제 어음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북방 관화의 始祖인 것이다.

(e) 現代音: ‘國語’(普通話)는 오늘날 전국의 표준어이다. 국어 어음의 연구는 이미 상당히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방언의 연구는 근 이삼십 년 동안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전란을 겪는 동안 조사 작업의 진행이 방해되어 이 까닭으로 우리들의 지식은 아직 풍부하지 못하다.¹¹⁾

할 수 있는데 清代의 段玉裁는 ‘同聲必同部’라는 법칙으로 귀납하였다. 이 밖에 김경숙(2002)에서는 “우리들이 상고음을 연구하기 위하여 諧聲字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단지 시각적 문자로서만이 아닌 청각적인 언어 실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비록 동일한 聲符로 諧聲된 글자들이지만, 그 중에는 방음지역에서 조사되어 서로 다른 음가를 지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불규칙 音變으로 처리되거나, 무리한 해석 혹은 단지 의문으로만 남겨놓은 상당수의 諧聲字에 대한 음운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자료의 부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고방음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경숙, 「해성자에 반영된 상고한어의 방음연구」, 『중어중문학』, 31, 한국중어중문학회, 2002, 70쪽.

10) 同源詞는 形·音·義가 같거나 비슷한 한자음의 부류로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形은 달라도 音과 義가 같은 경우로 洪·鴻·宏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形·音·義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로 沓·腋·掖을 예로 들 수 있다.

11) 董同龢 著, 공재석 譯, 『漢語音韻學』, 汎學韻書, 1975. 1975, 22-23쪽을 요약 및 보충하였다.

董同龢가 한어 중고음의 시기 구분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중고 한어를 연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본 자료에 대한 내용과 비슷한데, 이를 살펴본 바로는 다음과 같다.

唐宋시대의 韻書 『經典釋文』¹²⁾, 『切韻』, 『廣韻』 등의 활용
 韻書에 근거해서 편찬한 韻圖 『韻鏡』, 『七音略』 등의 활용
 南北朝와 隋唐詩人の 用韻 활용
 漢語 方言에 남아있는 中古 漢語 흔적 (官話·吳語·客家話·粵語 등)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의 한자 독음 비교
 梵漢, 藏漢의 대비되는 음 비교 연구 및 梵語, 藏語의 漢字音譯 연구

본고에서 절운계 운서와 절운계 운도를 통한 한어 중고음의 분석은 기존 여러 학자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을 참조하되, 국제음성기호 이외의 어음 분석에 있어서는 월어(粵語), 범어(梵語), 『東國正韻』 한자음의 상호 대응 관계를 살펴도록 한다. 훈민정음의 창제 및 『東國正韻』 편찬은 시기적으로 파스파문자(八思巴文字)¹³⁾와 『蒙古字韻』보다 늦지만, 한어 중고음을 분석하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은 한어 중고음의 음성운·양성운·입성운¹⁴⁾에 일률적으로 대응한다. 반면 『蒙古字韻』에서는 입성이 소실되고 음성 운미 [-i]의 대응이 훈민정음 주음보다 체계적이지 못하다.¹⁵⁾ 『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에서는 조선 전기 우리말 한자음에서 사용되지 않는 입성운 [-t]와 음성운 [-u(w)]·[-i/]를 주음하고 있으므로 한어 중고음의 연구에 기본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훈민정음은 『訓民正音』 「解例本」에서 자모의 음성적 특징 및 칭·탁에 대해 상

12) 陸德明(南朝梁陳-唐初)이 저술한 30권 분량의 책으로, 여러 경전의 音義(字音·字義) 및 문자의 異同을 수집하였다.
 13) 1265년 몽골 원나라 국사인 파스파가 쿠빌라이 칸(세조)의 명을 받아 몽골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든 문자로, 몽골신자, 몽골국자, 방형몽골문자라고도 한다. 몽골어뿐 아니라 한어(漢語),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튀르크어 등 몽골 통치 아래 있던 여러 민족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공용문자로 고안되어 1269년 완성·공표되어 1352년까지 원나라의 공식 문자로 사용되었다.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4) 어떠한 운미자음도 없는 韻을 통명하여 ‘陰聲韻’, 운미자음이 비음인 것을 통명하여 ‘陽聲韻’, 운미자음이 塞音인 것을 ‘入聲韻’이라 한다. 董同龢 著, 공재석 譯, 『漢語音韻學』, 汎學韻書, 1975, 166쪽.
 15) 『蒙古字韻』은 기존 운서들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四聲으로 分韻하지 않았고 分韻이 十五운부로 간략하며 入聲운부가 없다. 최영애, 『최영애 교수의 중국음운학 논집』, 학교방, 2011년, 325쪽.

세히 밝히고 있다.¹⁶⁾ 반면 『蒙古字韻』에는 『訓民正音』 「解例本」과 같이 자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해설본이 없다. 훈민정음은 자질 문자로서 자모의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훈민정음과 한어 중고음과의 대응 관계를 분석할 때, 창제 당시 훈민정음의 자모에 의도된 음성적 특징을 더욱 상세히 분석할 수 있다.

셋째, 훈민정음은 현재 한글로 변화·발전했지만, 『蒙古字韻』은 기록으로만 전해진다. 한국 한자음에는 6-8세기 한어 중고음의 흔적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고, 『東國正韻』에서 인위적으로 교정한 한자음을 제외할 경우, 『東國正韻』의 정음과 『全韻玉篇』의 정·속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음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자모의 탈락 및 변천 과정이 조선 시대의 각종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넷째, 훈민정음은 각자병서를 기본 글자의 범주에 포함하면, 총 23자로 정음으로 여기는 어음과 중국어 음역에만 사용되는 문자를 명확히 구분했다. 『洪武正韻譯訓』에서 중국어 음역에만 사용한 문자 ‘非^ㅍ, 奉^ㅍ, 微^ㅍ 17), 照^ㅈ, 穿^ㅈ, 牀^ㅈ, 審^ㅈ, 禪^ㅈ’가 그 예이다. 따라서 훈민정음 23글자는 창제자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말 어음에서 음성적으로 발견할 수 있거나 정음이라 여겨져 음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소리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파스파문자는 모든 언어를 轉寫할 수 있게 하여, 각종 변체가 생겨 자모가 56개까지 늘어났지만,¹⁸⁾ 변화·발전하지 못했다.

(2) 切韻系 운서

『東國正韻』 한자음의 자모는 『廣韻』의 반절상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廣韻』은 『切韻』의 증보본으로, 『切韻』의 형성에서 『廣韻』까지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

16) 훈민정음은 창제자가 직접 해설서인 『訓民正音』 「解例本」을 펴내어 훈민정음 문자의 일차자료로서 많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주고 있으나, 파스파자에는 이러한 해설서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인용한 『元史』의 단편적 기록 몇 조가 몇 가지 단순한 사실만을 전할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훈민정음과 파스파자를 각각 생과사의 갈림길로 인도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전하는 자료도 많지 않고 사자가 된지도 수백년이 지난 지금 파스파자를 정확히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영애, 『최영애 교수의 중국음운학 논집』, 학교방, 2011년, 325쪽.

17) ‘ㅍ’은 『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에 사용되었지만, 초성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18) 파스파문자는 몽고어만 적는 몽고어 일개 언어의 문자가 아니라, ‘譯寫一切文字’할 수 있는 문자로서 탄생하였다. 일종의 ‘국제음성부호’같은 만국음표기체계로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몽고어뿐만 아니라, 티베트어, 산스크리트(梵語), 위그르어 등 당시 원나라에서 쓰이던 일체 언어문자를 표기할 수 있는 전천후 문자체계였던 것이다. 모든 문자를 전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파스파문자는 특정 언어를 전사하기 위하여 수시로 자모를 변통하여 증감하였기 때문에 문헌상의 총자모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최영애, 『최영애 교수의 중국음운학 논집』, 학교방, 2011년, 329-330쪽.

다.

① 隋(581-618년) 『切韻』

『切韻』은 隋代(隋文帝, 601년) 陸法言이 편찬한 운서로 총 5권에 11,500자를 수록하고 있으며 평·상·거·입 도합 193韻이다. 『切韻』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운서이지만,¹⁹⁾ 문헌의 기록으로 살필 수 있는 最古 운서는 삼국시기 魏나라의 李登이 지은 『聲類』(220-265년)이고, 이후 대표 운서로 晉代 呂靜이 편찬한 『韻集』(265-317년)과 南朝 梁나라 沈約의 『四聲譜』(441-513년)가 있다.

『切韻』의 序를 통해 『切韻』 이전에 이미 다량의 운서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切韻』은 운서의 편찬이 활발했던 魏晉南北朝²⁰⁾의 운서를 집대성한 운서라 평가 받는다. 陸法言은 운서의 편찬에 앞서 음운학자인 顏之推 등 8명과 함께 음운에 대해 토론을 하여,²¹⁾ 종래 논란이 되고 의심스러웠던 것을 해결하였다고 평가했다. 東漢末·魏晉南北朝 시기 운서의 출현 배경으로 고전 문학이 성숙기로 접어들어 韻文의 제작이 성행한 것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불전의 번역으로 梵語의 음소를 한어로 표기하기 위한 반절법이 고안된 것을 들 수 있다.²²⁾

『切韻』 음계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切韻』은 古今南北을 동시에 포괄한다는 ‘종합음계설’과 다른 하나는 吳音, 洛陽音, 長安音 등 한 지역의 음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단일음계설’이다. 『切韻』 序의 내용 및 『切韻』의 分韻이 아주 세밀한 점,²³⁾ 『切韻』이 계속해서 증보본의 형식으로 『唐韻』·『廣韻』으로 계승된 점을 봤

19) 원서는 실전하였지만, 증보본이 현전한다.

20) 三國(220-265년), 西晉(265-316년), 東晉(317-420년), 南北朝(420-589년)

21)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시 각지의 方言에 대해 분석을 하고, “남북간의 옳고 그름, 고금간의 통하고 통하지 않음을 논하였다(論南北是非, 古今通塞)”. 그런 이후에 어떤 어음체계를 표준으로 할 것인지를 확정하여, “정밀하고 정확한 반절자를 골라 선택하고, 엉성하고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하였다(揀選精切, 除削疏緩)”, 즉 표준과 서로 부합하는 정밀한 반절을 선택하고, 옛날부터 있었던 운서의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여, “종래 논란이 되고, 의심스러웠던 것을 모두 해결하였고(向來論難, 疑處悉盡), 과거의 의심스럽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명확하게 하였다. 顧義生·楊亦鳴, 한중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288-289쪽.

22) 운서의 탄생 배경에는 불교 및 불경의 전래라는 문화적 요인이 깔려있다. 중국어와는 판이하게 다른 표음 문자체계를 갖고 있는 산스크리트와 산스크리트 음운학은 중국의 문인들에게 자기 언어의 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장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불경의 역경사업은 東晉에는 절정에 달하여, 東晉 말의 구마라십(鳩摩羅什, 350-409년)은 華嚴經 등 불경 300여권을 한어로 번역하였다.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34쪽.

23) 『切韻』의 증보본 『刊謬補缺切韻』의 韻目 목차 밑에는 『切韻』과 『切韻』 序에서 거론된 五家 운서의 分韻의 異同이 각주로 달려있어서 서로 비교해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切韻』이 가장 정밀하게 分韻되어있다. 이윽고 唐初에 官韻으로 정해져서 수 백 년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을 때, 『切韻』은 실제 어음을 기초로 한 종합 음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② 唐(618-907년) 『唐韻』

唐代의 운서로 『切韻』의 증보본인 王仁煦의 『刊謬補缺切韻』(706년)과, 孫愐의 『唐韻』(732년, 失傳)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刊謬補缺切韻』은 평·상·거·입 도합 195韻으로, 唐代의 『切韻』 증보본으로서는 유일하게 완본이 현전한다.²⁴⁾ 『唐韻』 역시 195韻으로 孫愐 개인의 저술이지만, 書名은 관청의 성질을 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唐韻』이 唐代에 영향력이 컸던 운서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²⁵⁾ 『唐韻』序에서 “오직 陸法言의 『切韻』만이 세상에서 성행하였지만, 隨侯의 明月珠가 아직 결점이 있고, 和氏의 옥도 여전히 결함이 있듯이, 注에는 착오가 있고, 문자는 누락되고 틀린 곳이 있는데, 만약 잘못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토론할 수 있겠는가?”라 하여,²⁶⁾ 『切韻』에 글자를 증보하고 주를 보충하였는데, 『刊謬補缺切韻』과 『唐韻』은 운서임과 동시에 辭書 및 字典의 기능까지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③ 宋(960-1279년) 『廣韻』

北宋²⁷⁾의 황제 眞宗은 『切韻』을 새롭게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陳彭年, 丘雍 등이 1008년에 『廣韻』을 편찬하였는데 『廣韻』의 정식 명칭은 『大宋重修廣韻』이며 增字·加注로 ‘넓혀진 절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廣韻』은 26,194자를 수록하고 있으며, 주석에 사용한 글자는 191,692자로 운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字典의 역할도 겸할 수 있다. 『廣韻』은 중국 최초의 官撰 韻書로, 책 전체는 다른 절운계 운서와 마찬가지로 上平聲·下平聲·上聲·去聲·入聲의 5권으로 206운으로 구성되었다. 『廣韻』의 206운은 『切韻』의 193운

2000, 34쪽.

24) 이 운서는 현재까지 3종이 발견되었는데, 1947년 고궁박물관에서 발견된 唐寫本完本을 ‘王三’이라고 칭하기도 하며, 『王三本』은 唐代의 『切韻』 증보본으로서는 유일한 완본으로 宋代 『廣韻』과 함께 『切韻』 음의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34쪽.

25) 『康熙字典』에 실린 『唐韻』은 서현(徐鉉)이 『說文解字』에 注한 反切이다. 이 『唐韻』이 곧 孫愐의 『唐韻』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清代의 학자가 徐鉉의 반절을 고증한 결과, 운의 수가 『廣韻』과 같게 나온 것을 보면, 徐鉉의 反切은 天寶本 『唐韻』과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徐鉉의 『說文解字字彙韻譜』에 인용한 ‘절운’은 곧 『唐韻』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唐韻』이 唐代에 영향력이 컸던 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34-35쪽.

26) “惟陸生『切韻』盛行于世, 然隨珠尚類, 虹玉仍瑕, 注有差錯, 文復漏誤, 若無刊正, 何以討論”, 顧義生·楊亦鳴, 韓中교 譯, 『漢語音韻學入門』, 학교방, 1999, 291-292쪽.

27) 북송(960-1127년), 남송(1127-1279)

보다 13개의 운이 많지만, 이는 어음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分音의 처리 문제로 생각되어진다. 唐代의 『刊謬補缺切韻』이 현전하므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廣韻』은 『刊謬補缺切韻』을 계승한 것으로, 『切韻』의 반절과 『廣韻』의 반절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廣韻』을 통해 『切韻』의 어음 체계를 대체적으로 고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청대의 陳澧(1810-1882년)는 『切韻考』(1842년)에서 反切系聯法을 창안하고 이를 운용하여 『廣韻』의 聲類 40류·韻類 311류를 분류했다.

『切韻』 이후 이를 底本으로 하여 增字·加注한 『唐韻』과 『廣韻』 등은 곧 陸法言의 『切韻』 음계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일컬어 절운계 운서라 하며 한어 중고음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²⁸⁾ 이상 『切韻』의 성격에 관해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보면, 隋가 이백년 만에 다시 통일 왕조로 등장한 정치적 상황에서, 남북방언음의 통일이라는 문제의식이 뜻 있는 지식인 사이에 등장하게 되었고, 5·6세기에 걸쳐 南北朝의 여러 왕조들이 흥망을 거듭하는 혼란 시기에 성립된 여러 지역의 운서들이 남북방언의 혼란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은 洛陽語와 金陵語를 주요 근거로 엄격한 음의 분석 과정을 거쳐 표준음으로 재구성해내었는데 그 체계가 바로 『切韻』인 것이다. 따라서 『切韻』은 6세기(또는 광범하게 六朝)의 규범적 독서음 체계 즉 문학 언어음의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周祖謨 등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切韻』이 齊梁陳詩의 用韻이나 『玉篇』의 운류와 일치하는 것은 곧 『切韻』이 당시의 문인들이 통용하던 실제음에 근거했다는 반증이 된다. 그러므로 『切韻』이 어느 한 지방의 실제 구어체계의 기술이 아니고, 남북·고금의 차이를 어느 정도 고려한 체계라 해도 이와 같이 어디까지나 실제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6세기 중국어음을 대표하는 중고음 자료가 되며, 현대 방언들의 來源으로 삼고, 또한 상고음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 중국역사음운학의 중심축으로서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는다.²⁹⁾

한편 『廣韻』과 비슷한 시기의 운서인 『禮部韻略』(1037년), 『集韻』(1037년)에는 宋代 음운변화의 양상이 반영되며, 『平水新刊禮部韻略』(1229년)은 106운, 『壬子新刊禮部韻略』(1252년)은 107운, 『古今韻會舉要』(1297년)는 107운으로, 金代 이후 운의 대폭적인 병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8) 이돈주, 『漢字學總論』, 박영사, 1994, 582쪽.

29)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53쪽.

(3) 성모 체계

① 前期 절운계 운서

『廣韻』은 『切韻』을 계승한 운서이므로 6-7세기에 36개의 성모가 존재했을 것이라 여겨지며, 성모에 대한 추정음은 다음과 같다.³⁰⁾

<표1> 절운계 운서(6-7세기)의 36字母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중순음	幫 p	滂 p ^h	並 b	明 m		
설두음	端 t	透 t ^h	定 d	泥 n		
설상음	知 t	徹 t ^h	澄 d			
치두음	精 ts	淸 ts ^h	從 dz		心 s	邪 z
정치음	莊 tʂ	初 tʂ ^h	崇 dʒ		生 ʂ	俟 ʒ
	章 tɕ	昌 tɕ ^h	船 dz		書 ɕ	禪 ʒ
아 음	見 k	溪 k ^h	羣 g	疑 ŋ		
후 음	影 ʔ	曉 x	匣 ɣ	喻 ø		
반설음				來 l		
반치음				日 j		

6-7세기 『切韻』 음계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輕唇音이 없는 것이다. 한어 음운사에서 순음이 重唇音과 輕唇音으로 분화된 것은 8-9세기 이후의 일이다. 6-7세기 『切韻』 음계에는 정치음이 10개의 자모로 구성되었다. 즉 정치음 10개의 자모는 후에 5개의 자모로 병합되고, 4개의 순음은 8개의 순음으로 분화된 것이다.

본고에서의 논의 전개를 위해 전통 음운학 용어인 청·탁과 七音を 일반 언어학 용어에 대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³¹⁾ 청음(전청·차청)과 탁음(전탁·차탁)을 전통 음운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본고의 핵심 논의로, 전청·차청·전탁·차탁이 현대 음운학에서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표2> 청·탁과 관련한 현대 음운학 용어

전통	전청	차청	전탁	차탁
현대	무성 무기음	무성 유기음	유성 파열음	공명음
			유성 마찰음	유음
			유성 파찰음	비음

30) <표1>은 김태경, 『상고 중국어 음운 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기원』, 학고방, 2017, 25쪽을 인용했다.

31) 용어풀이는 김태경, 『상고 중국어 음운 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기원』, 학고방, 2017, 24-27쪽을 인용했다.

<표3> 조음 방식

파열음 (plosive, stop)	파열음은 어느 한 발음 기관이 완전히 붙었다가 파열되면서 나는 소리
마찰음 (fricative)	조음 기관의 사이가 아주 좁혀진 상태에서 마찰되어 나는 소리
파찰음 (affricate)	조음 기관이 폐쇄되었다가 파열될 때 파열음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져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소리
비음 (nasal)	기류가 구강뿐 아니라 비강을 통해서도 빠져나가는 소리

절운계 운서(6-7세기)의 36字母에 대한 추정음을 예로 들면, 전청, 차청, 전탁, 차탁은 현대 음운학에서 각각 무성 무기음, 무성 유기음, 유성음(무기음·유기음), 비음(유음·공명음)로 분석된다. 국제음성기호의 무성음과 유성음, 무기음과 유기음이라는 분석 수단은 범어와의 대응 관계를 설명하기에 효과적이지만, 현대 중국어의 중순음·설두음·설상음·치두음·정치음·아음에서 유성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어 중고음의 청·탁이 유럽어 혹은 범어의 무성음·유성음과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곧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정의되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비는 인도·유럽어족의 언어에서 드러나는 특징으로, 한·중·일의 발성습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본고에서 청음·탁음은 범어의 무성음·유성음의 특징과 유사하여 서로 음역이 가능한 범주의 어음상의 특징일 것으로 판단하며, 한어 중고음 청·탁의 음운 자질을 한어의 발성 습관에서 찾는다.

청·탁을 무성음·유성음의 수단으로만 분석한다면, 후음 影母와 喻母의 대응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데, 실제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影母와 喻母에 관한 추정은 학자 간의 견해가 갈리며, 납득할 만한 설명도 확인하기 어렵다. 影母와 喻母는 한어 중고음의 청음·탁음이 단순히 무성음·유성음의 발성 원리로 구분되는 범주의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계속해서 전통 음운학의 조음 위치에 해당하는 七音을 현대 음운학 용어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4> 조음위치와 조음방법

전통	현대	系	설 명
중순음	양순음	幫系	두 입술이 맞닿아 내는 소리
설두음	치조음	端系	혀끝을 윗니 뒤의 치조에 붙이거나 접근시켜 내는 소리

설상음 ³²⁾	권설 파열음	知系	권설음은 혀를 들어 올리고 혀끝을 치조 돌기 뒷부분에 접근 시켜 내는 소리
치두음	치음과 치조음의 중간	精系	혀끝을 윗니 뒤에 접근시켜 내는 소리
정치음	권설 파찰음	莊系(照2系)	권설음은 혀를 들어 올리고 혀끝을 치조 돌기 뒷부분에 접근 시켜 내는 소리
	치조 경구개 파찰음	章系(照3系)	혀끝을 윗니 뒤의 치조에 붙이거나 접근시켜 내는 소리
아음	연구개 파열음	見系	인후나 입이 아니라 폐로부터 발생기관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폐장 기류 소리
후음	성문 파열음	影系	목에 힘을 주면 성문이 닫히는데, 그 때 목의 힘을 빼면서 공기를 밖으로 나가게 하면 나는 소리
반설음	치조음	來系	혀끝을 윗니 뒤의 치조에 붙이거나 접근시켜 내는 소리
반치음	비음	日系	기류가 구강뿐 아니라 비강을 통해서도 나가는 음

전통 음운학의 七音은 아·설·순·치·후·반설·반치음을 가리키는데 影母와 喻母를 제외하고 조음 위치에서 뚜렷한 장애가 발생하므로 현대 음운학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影母와 喻母의 추정에 있어서 아음과 후음의 경계가 국제음성기호에서 구분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36字母

중고 한어 36字母는 한어 중고음의 성모 체계를 대표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唐末의 승려 守溫의 30字母에서 비롯되었다.

<표5> 守溫의 30字母

脣音	不	芳	並	明	
舌頭音	端	透	定	泥	
舌上音	知	徹	澄	日	
牙音	見(君)	溪	羣	來	疑
齒頭音	精	清	從		

32) 설상음의 음가에 대해 칼그렌, 陸志韋 등은 설면 파열음, 즉 치조 경구개 파열음으로 보았다. 반면 羅常培는 범어의 권설 파열음을 설상음 知系 글자들로 음역한 것에 근거하여 권설 파열음이라는 주장을 내놓았고, 周法高 등이 이에 동의하였다. 김태경, 『상고 중국어 음운 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기원』, 학고방, 2017, 26쪽.

正齒音	審	穿	禪	照	
喉中音清	心	邪	曉		
喉中音濁	匣	喻	影		

守溫의 30字母³³⁾를 보면 절운계 운서(6-7세기)와 마찬가지로 重脣·輕脣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기 韻圖 『韻鏡』의 기원은 唐末의 守溫 이전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했고, 수운의 30字母는 梵文뿐 아니라 藏文(티베트 문자)에서 유래하여, 藏文이 한어와 梵語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견해도 있다.³⁴⁾ 특히 수운의 30字母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淸·탁의 용어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운의 30字母에서 보이는 淸·탁은 중고 한어 36字母의 淸음(전淸·차淸), 탁음(전탁·차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수운의 30字母에 후대 宋人에 의해 경순음 非·敷·奉·微와 설상음 娘, 정치음 牀을 증보한 것이 중고 한어 36字母이며, 아래 <표6>·<표7>에서 자모와 추정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표6> 중고 한어 36 字母(9-11세기 추정) 표

		전淸	차淸	전탁	차탁	전淸	전탁
순음	重脣	幫	滂	並	並		
	輕脣	非	敷	奉	微		
설음	舌頭	端	透	定	泥		
	舌上	知	徹	澄	娘		
치음	齒頭	精	淸	從		心	邪
	正齒	照	穿	牀		審	禪
아음		見	溪	羣	疑		
후음		影	曉	匣	喻		
반설					來		
반치					日		

33) 字母의 의미는 唐代부터 정식으로 사용되었으며, 宋·元대의 등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래는 東漢 이후 불교가 유입되면서 梵文의 佛經에 나타난 字母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唐代 이전에는 특수한 명칭이 없이 雙聲과 疊韻의 원리와 반절을 이용하여 音을 표기하였으나, 唐代 이후 두 개의 雙聲 관계의 字를 한 개의 聲母로 나타낸 助紐字를 더욱 간소화하여 한 개의 字로서 한 개의 聲母를 나타내는 字母가 생산되었다. 反切에서 시작되어 助紐字를 거쳐 字母의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된 이후, 五音을 이용하여 漢語의 聲母를 나눈 사람은 唐末의 守溫이라 할 수 있다. 守溫의 音韻學 殘卷은 聲母의 발음부위와 발음방법을 분석하여 나누었는데, 36字母와 비교하면 聲母의 분류에 합리성이 부족하나 기본적으로 36字母와 동일한 체계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30字母는 宋代에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서 36字母로 늘어난 것이다. 오길룡, 「36字母와 등운의 관계」, 『중국인문과학』, 제17집, 중국인문학회, 1998, 71-72쪽.

34)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108쪽.

위의 36字母 표에 대한 추정음은 여러 학자³⁵⁾에 의해 국제음성기호로 표기되었는데, 아래 <표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7> 중고 한어 36字母 추정음 비교 표, 아·설·순·치·후 순서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1	見	k	k	k	k	k	k	k	k	k	k	k
2	溪	k ^h	k ^h	kh	k ^h							
3	羣	g ^h	k ^h	g	g ^h	g	g	g	g	g	g ^h	g
4	疑	ŋ	ŋ	ng	ŋ	ŋ	ŋ	ŋ	ŋ	ŋ	ŋ	ŋ
5	端	t	t	t	t	t	t	t	t	t	t	t
6	透	t ^h	t ^h	th	t ^h							
7	定	d ^h	d	d	d ^h	d	d	d	d	d	d ^h	d
8	泥	n	n	n	n	n	n	n	n	n	n	n
9	知	t̚	t̚	t	t̚	t̚	t̚	t̚	t	t	t̚	t
10	徹	t̚ ^h	t̚ ^h	th	t̚ ^h							
11	澄	d̚ ^h	d̚	d	d̚ ^h	d	d̚	d̚	d	d	m	d
12	娘	n	n	ŋ	n	ŋ	n	n	ŋ	ŋ	ŋ̚	ŋ
13	幫	p	p	p	p	p	p	p	p	p	p	p
14	滂	p ^h	p ^h	ph	p ^h							
15	並	b ^h	b	b	b ^h	b	b	b	b	b	b ^h	b
16	明	m	m	m	m	m	m	m	m	m	m	m
17	非	p	p	p	p	p	p	p	p	p	pf	p
18	敷	p ^h	p ^h	ph	p ^h	pf ^h	p ^h					
19	奉	b ^h /p ^h	b	b	b ^h	b	b	b	b	b	bv ^h	b
20	微	m	m	m	m	m	m	m	m	m	ŋ	m
21	精	ts	ts	ts	ts	ts	ts	ts	ts	ts	ts	ts
22	清	ts ^h	ts ^h	tsh	ts ^h							
23	從	dz ^h	dz	dz	dz ^h	dz	dz	dz	dz	dz	dz ^h	dz
24	心	s	s	s	s	s	s	s	s	s	s	s
25	邪	z	z	z	z	z	z	z	z	z	z	z
26	照	te	te	tś	te	te	te	te	c	te	te	te
27	穿	te ^h	te ^h	tś ^h	te ^h	te ^h	te ^h	te ^h	c ^h	te ^h	te ^h	te ^h
28	牀	dz̚ ^h	d̚	dz̚	d̚ ^h	dz̚	d̚	d̚	dz̚	d̚	d̚ ^h	dz̚
29	審	e	e	ś	e	e	e	e	e	e	e	e
30	禪	z	z	dz	z	z	z	dz	dz	dz	z	dz
31	影	?	∅	·	?	?	?	?	?	?	?	?
32	曉	x	h	x	x	x	x	x	h	h	x	h
33	匣	ɣ	ɣ	ɣ	ɣ	ɣ	ɣ	ɣ	fi	fi	ɣ	fi
34	喻	∅	j	ji	∅	∅	∅	∅	j	j	∅	j
35	來	l	l	l	l	l	l	l	l	l	l	l
36	日	n̚z	r	ńz	n̚	n̚	n̚	n̚	n̚	n̚	nz	n̚

36字母에 대한 추정음을 살펴보면 전청·차청이 무성 무기음·무성 유기음으로 추정되는 것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칼그렌·董同龢·陳新雄이 전탁자를 유성 유기음으로 추정하는 반면 다른 학자는 전탁자를 유성 무기음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고 한어 36자모를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은 36자모에 대한 추정음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한자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다. 성모에 대한 추정음은 운모·운미의 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7>의 31번째 影母에 관해서 王力과 李方桂가 零聲母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학자는 모두 성문 파열음인 [ʔ]로 추정하고 있는데, [ʔ]이 뜻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기 어렵다. [ʔ]이 성문 파열음이므로 성대 진동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성 소실을 나타내는 후색음을 뜻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ʔ]이 성대 진동음을 뜻하는 것이라면 영성모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고, [ʔ]이 후색음을 뜻한다면 이는 한어의 발성에 부합하지 않은 입성 소실을 나타내기 위한 추정음일 뿐이다. [ʔ]는 한·중·일의 어음에서 분절 자질로 드러나지 않는 실체가 불분명한 소리로, 성대 진동음을 위한 표기인지, 후두강에서의 마찰을 뜻하는 후색음인지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사용상의 혼동을 없앨 수 있다.

喻母는 영성모 ‘ø’와 경구개 접근음 [j]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성모는 중국어에서 성모 없이 운모만 발성할 때, 목젓 부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 혹은 마찰음을 가리키며, 경구개 접근음 [j]은 성대 진동음이 경구개로 접근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마찰을 가리킨다. 이를 구강 방향으로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影母와 喻母의 추정음에서 영성모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影母와 喻母는 뚜렷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성대 진동음이라는 공통 자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影母의 추정음으로 [ʔ]이, 喻母의 추정음으로 [j]이 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影母는 후두강과 관련된 소리이고 喻母는 경구개 접근음과 관련된 소리로 생각하기 쉬울 수 있으나, 이는 청·탁이 전하는 소리의 음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影母는 후음·전청이고 喻母는 후음·차탁이

35) 칼그렌(高本漢, Klas Bernhard Johannes Karlgren, 1889-1978년, 스웨덴), 왕력(王力, 1900-1986년, 廣西), 이방계(李方桂, 1902-1987년, 廣州), 董同龢(董同龢, 1911-1963년, 雲南), 주법고(周法高, 1915-1994년, 江蘇), 이영(李榮, 1920-2002년, 浙江), 소영분(邵榮芬, 1922-, 安徽), 플리블랭크(蒲立本, Edwin George Pulleyblank, 1922-2013년, 캐나다), 정장상방(鄭張尙芳, 1933-2018년, 浙江), 진신웅(陳新雄, 1935-, 臺灣), 반오운(潘悟雲, 1943-, 浙江)

므로, 청·탁에 맞게 影母와 喻母의 자질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청과 차탁의 관계가 성립되도록 음가 표기가 정립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성대 진동음은 유럽어에서 모음 혹은 유성 자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국제음성기호에서 성대 진동음을 따로 표기하는 기호가 없다. 반면 전통 중국 성운학에서 현대 음운학의 모음은 단독 음절이 아닌 성모와 운모의 결합이다. 중국 성운학의 관점에서 현대 음운학의 모음은 성대 진동음의 성모와 운모가 결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성대 진동음은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따라 影母와 喻母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반치음의 추정음에 있어서도 학자의 견해가 다른데, 본고에서는 影母·喻母·日母를 기본 자료, 중국 방언의 어음,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에 근거하여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③ 『廣韻』 41성모

<표8> 『廣韻』 41성모 표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순음	重脣	幫	滂	並	明		
	輕脣	非	敷	奉	微		
설음	舌頭	端	透	定	泥		
	舌上	知	徹	澄	娘		
치음	齒頭	精	清	從		心	邪
	正齒(2)	莊	初	牀		疏	
	正齒(3)	照	穿	神		審	禪
아음		見	溪	羣	疑		
후음		影	曉	匣	喻		
후음					爲		
반설					來		
반치					日		

『廣韻』 41성모는 전통적인 36字母와 비교하여 정치음 ‘莊·初·牀·疏’ 4개와 후음 ‘爲’ 1개가 증가한 것이다. 41성모는 『廣韻』의 반절 상자와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중고음의 성모 체계를 한눈에 살피기에 편리하다.

절운계 운서의 성모 체계를 종합해 보면 6-7세기 및 수운의 30자모에 이르기까지 순음에서 重脣音과 輕脣音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36字母에서부터 분화되기 시작했다. 다시 『廣韻』에서 正齒 2등이 분화되고 喻母가 ‘喻母와 爲母’로 분화되어 41성모가 됨

을 알 수 있다.

2) 절운계 운도

(1) 等韻圖

等韻學의 발전 혹은 等韻圖의 제작은 실담장(悉曇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로 승려에 의해 주도되었다. 초기 운도로 宋의 『韻鏡』과 『七音略』이 있으며, 『七音略』의 저자 鄭樵는 反切·字母·韻圖는 모두 西域에서 전해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운도의 제작은 운서 출현 이후이며 운서의 盛行과 관련이 깊다. 唐代는 운서 편찬과 불경 번역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시기로, 反切 응용이 성숙하고, 실담학이 유행했다. 敦煌에서 출토된 수운의 音韻學 殘券에서 ‘四等輕重例’가 보이므로 등운학은 唐代 후기 이미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等’의 구분은 먼저 성모의 輕重·淸濁에서 비롯되어 운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므로,³⁶⁾ 36字母와 등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³⁷⁾

‘等韻’은 한어 어음 체계를 반영한 聲·韻·調(성모·운모·성조)의 구분이고, 이것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等韻圖이다. 等韻圖는 운서의 반절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도표의 격식으로 반절이 표시하는 字音を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字音은 韻目, 평·상·거·입에 따라 4개의 네모 칸으로 나누었고, 각 네모 칸은 4개의 층으로 나누었으며, 위에서 아래로 1·2·3·4등을 표시한다. 운도를 통해 성모의 발음 부위·발음 방법과

36) 등운학상의 자모와 등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상황으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切韻』 음계는 어떠한 字母가 等韻과 결합할 때 음절 결구상의 제약을 받아 일정한 규칙이 있다. 등운학자들이 字母의 分等を 정리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2·3·4등과 결합 : 見·溪·疑·幫·滂·並·明·曉·影·來, 1·2·4등과 결합 : 匣, 2·3등과 결합 : 知·徹·澄·娘, 1·4등과 결합 : 端·透·定·泥·精·淸·從·心, 2등과 결합 : 照·穿·床·審(莊·初·崇·山), 3등과 결합 : 非·敷·奉·微·日·羣·照·穿·床·審(章·昌·船·書)·禪·喻(云)4등과 결합 : 邪·喻(以). 오길룡, 「36字母와 등운의 관계」, 『중국인문과학』, 중국인문학회, 제17집, 1998, 69쪽.

37) 36字母와 운서의 반절 체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等韻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反切上字에서 洪細를 따지는 것은 介音과 等位가 音節의 첫 부분인 聲의 等位를 정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모를 등으로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36字母의 성격과 역할에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等韻의 이론을 도입하였으며, 宋代이후 여러 운서와 운도를 편찬할 때 ‘等韻字母’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等韻字母는 어느 지역 어느 시기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의 반절로부터 전해 온 음을 모아 운서의 반절 체계에 적용하였으며, 운도의 편찬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등의 차이에 따라 음치가 달랐다. 清代에 江永이 “三十六母不但爲切字之本原, 凡五方之音孰正孰否, 皆能辨之”, “辨等之法, 須于字母辨之”라고 한 견해는 36字母에 등을 나누어 聲類 혹은 성모에 등의 개념을 부여한 것이며, 古今南北의 각 지역의 음을 통합하여 36字母의 等位를 처리한 것이다. 요컨대, 운도는 36字母를 가지고 宋代 역사 시기의 한어 성모의 聲類를 표시한 것이며, 운도와 운서를 통합하여 편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자, 운서의 실제어음을 운도의 형식에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길룡, 「36字母와 등운의 관계」, 『중국인문과학』, 중국인문학회, 제17집, 1998, 71-72쪽.

운모의 운두 및 운복의 전후, 고저 등을 이해할 수 있어 『廣韻』과 접목시켰을 경우 206운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³⁸⁾

『韻鏡』과 『七音略』의 소수는 총 43개의 도표로 구성되어 있다. 43개의 도표는 바로 43轉을 가리키며 『韻鏡』에서 43轉에 나열된 운의 수는 『廣韻』과 같은 206운이므로 『韻鏡』의 저자는 206운 체계가 확립된 절운계 운서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韻鏡』과 『七音略』 보다 약간 뒤에 나온 『四聲等子』와 『切韻指南』 등의 운도는 206운을 16攝으로 병합하였는데, 攝 내의 운은 서로 음이 비슷하며 운미는 같다. 아래 <표9>³⁹⁾에서 43轉과 16攝 및 각 攝이 포함하는 『廣韻』의 61개韻目を 확인할 수 있다.

<표9> 16攝과 『廣韻』의 운목

十六攝	『廣韻』韻目
1. 通攝(內轉第一二)	1.東 2.冬 3.鐘
2. 江攝(外轉第三)	4.江
3. 止攝(內轉第四五 六 七 八 九 十)	5.支 6.脂 7.之 8.微
4. 遇攝(內轉第十一 十二)	9.魚 10.虞 11.模
5. 蟹攝(外轉第十三 十四 十五 十六)	12.齊 13.祭 14.泰 15.佳 16.皆 17.夬 18.灰 19.哈 20.廢
6. 臻攝(外轉第十七 十八 十九 二十)	21.眞 22.諄 23.臻 24.文 25.欣 27.魂 28.痕
7. 山攝(外轉第二十日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26.元 29.寒 30.桓 31.刪 32.山 33.先 34.仙
8. 效攝(外轉第二十五 二十六)	35.蕭 36.宵 37.肴 38.豪
9. 果攝(內轉第二十七 二十八)	39.歌 40.戈
10. 假攝(外轉第二十九 三十)	41.麻
11. 宕攝(內轉第三十日 三十二)	42.陽 43.唐
12. 梗攝(外轉第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44.庚 45.耕 46.清 47.青
13. 曾攝(內轉第四十二 四十三)	48.蒸 49.登
14. 流攝(內轉第三十七)	50.尤 51.侯 52.幽
15. 深攝(內轉第三十八)	53.侵
16. 咸攝(外轉第三十九 四十 四十一)	54.覃 55.談 56.鹽 57.添 58.咸 59.銜 60.嚴 61.凡

조기 운도는 한어 중고음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후기 운도 중 『四聲等子』와 『切韻指掌圖』에서부터 운의 합병이 반영되어 남송 시기의 어음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10>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8) 顧義生·楊亦鳴, 한중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384-385쪽.

39) 顧義生·楊亦鳴, 한중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396쪽.

<표10> 초기 운도와 후기 운도

	『韻鏡』	『七音略』	『四聲等子』	『切韻指掌圖』
시기	성립 : 唐末 편찬 : 오대시기-남송	남송 ⁴⁰⁾	남송	1176-1203 추정
작자	미상	鄭樵	미상	미상
체제	절운계 운서 206운	절운계 운서 206운	‘운’의 합병이 생김. 『오음집운』에 맞춰 설계 됨	음계가 실제 어음과 가까움, 후대에 영향
轉/攝	43轉(도표)	43轉(도표) 16섭 분류 (추정)	용어 ‘攝’의 최초 사용 20개도표, 13攝	13攝
특징	중고음 연구자료	중고음 연구자료	실제 어음 반영	실제 어음 반영
구분	조기운도	조기운도	후기운도	후기운도

한어 중고음을 연구할 때는 『廣韻』과 『韻鏡』의 접목을 통한 분석이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인용문을 참조한다.

플리블랭크는 韻書와 韻圖 자료는 시대와 지역이 다르므로 분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논리는 타당하지만 실제 분석 작업에서는 이 두 가지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韻圖의 도움이 없이 韻書만으로 中古音을 연구하기는 불가능하다. 칼그렌도 『廣韻』과 더불어 『切韻指掌圖』를 기본 자료로 하여 중고음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료로 삼은 『切韻指掌圖』는 『切韻』의 체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後期韻圖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선택이라고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접할 수 있는 운도 중에서 시기가 가장 이른 운도는 『韻鏡』·『七音略』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韻鏡』을 中古音 연구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韻鏡』의 편찬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그 성립 시기는 守溫의 30字母가 성립된 850년경 이후 즉 대략 唐末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切韻』과는 2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韻鏡』의 편찬자가 근거한 방언도 『切韻』과 다른 당시의 실제 방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韻鏡』의 체제를 고찰해 보면, 절운계 운서의 체계를 그대로 따라 운서의 운과 반절을 이용하여 도표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도표에 수록한 글자들은 『廣韻』의 小韻字와 거의(약 87%) 일치한다. 따라서 『韻鏡』은 운서의 오류를 정정하고 韻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한 董同龢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다.⁴¹⁾

40) 북송(960-1127년), 남송(1127-1279년)

41)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87-88쪽.

훈민정음 창제 시기는 1443년이지만, 『東國正韻』 편찬자들이 참조한 운서가 꼭 당시 운서·운도에 국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⁴²⁾ 오히려 근고음을 대표하는 운서인 『古今韻會舉要』에서 입성의 소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한자음의 정음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을 수 있다.

(2) 운도를 활용한 『廣韻』 206운의 분석

『廣韻』은 한어 중고음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서, 한어 중고음 추정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므로 『廣韻』의 206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11>은 206운 및 四聲相配와 獨用·同用の 상황을 배열하고 후기 等韻圖의 十六攝과의 대조를 나타낸 것이다.⁴³⁾ 206운 중, 평성은 57운, 상성은 55운, 거성은 60운, 입성은 34운이다. 만약 四聲을 따지지 않는다면, 206운은 61개의 운류로 나눌 수 있다.

<표11> 광운 206운 표와 후기 등운도의 十六攝 대조

	16攝	上(28)下(19)平聲 · 57 운	上聲 · 55운	去聲 · 60운	入聲 · 34운
1	通攝	一東 獨用	一董 獨用	一送 獨用	一屋 獨用
2		二同 鐘同用		二宋 用同用	二沃 燭同用
3		三鐘	二腫 獨用	三用	三燭
4	江攝	四江 獨用	三講 獨用	四絳 獨用	四覺 獨用
5	止攝	五支 脂之同用	四紙 旨止同用	五寘 至志同用	음성운미 /-i/
6		六脂	五旨	六至	
7		七之	六止	七志	
8		八微 獨用	七尾 獨用	八未 獨用	
9	遇攝	九魚 獨用	八語 獨用	九御 獨用	음성운미
10		十虞 模同用	九麌 同用	十遇 暮同用	
11		十一模	十姥	十一暮	

42) 『東國正韻』 편찬 당시에 참고할 운서는 『韻會』뿐이 아니었다. 고려말과 조선초에는 이미 『禮部韻略』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었고, 宋代 초기 운도인 『七音略』도 수입되었다는 추론도 유력하다(강신항 2000). 이들 운서와 운도는 중고음 계통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므로, 대표적인 중고음 운서인 『切韻』이나 『廣韻』의 존재를 몰랐을 리는 없다. 또 근고음 계통에 속하는 『洪武正韻』도 이미 전해진 상태였다. 본문에서 밝히겠지만 『東國正韻』은 비록 『韻會』를 저본으로 한다고 인정할 면이 있지만, 그 음운체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원리에 따른 대응관계 혹은 배제관계가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세종과 『東國正韻』 편찬자들이 역사적 음운 변화에 대한 일정한 원칙을 체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東國正韻』은 그 결실이라 할 수 있으니, 거꾸로 『東國正韻』과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철저히 분석하면 당시 운학가들의 운학 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익중, 「東國正韻式 漢字音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6-27쪽.

43) <표11>는 顧義生·楊亦鳴, 한중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296-297쪽을 참조했고, 설명은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59쪽을 참조하여 攝과 음성운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재구성하였다.

12	蟹攝	十二齊 獨用	十一齋 獨用	十二霽 祭同用	음성운미 /-i/
13				十三祭	
14				十四泰	
15		十三佳 皆同用	十二蟹 駭同用	十五卦 怪夬同用	
16		十四皆	十三駭	十六怪	
17				十七夬	
18		十五灰 哈同用	十四賂 海同用	十八隊 代同用	
19		十六哈	十五海	十九代	
20				二十廢 獨用	
21	臻攝 (元은 예외로 山攝)	十七眞 諄臻同用	十六軫 準同用	二十一震 稇同用	五質 術櫛同用
22		十八諄	十七準	二十二稇	六術
23		十九臻			七櫛
24		二十文 欣同用	十八物 隱同用	二十三問 獨用	八物 獨用
25		二十一欣	十九隱	二十四歛 獨用	九迄 獨用
26		二十二元 魂痕同用	二十阮 混很同用	二十五願 恩同用	十月 沒同用
27		二十三魂	二十一混	二十六恩	十一沒
28		二十四痕	二十二很	二十七恨	
29	山攝	二十五寒 桓同用	二十三旱 緩同用	二十八翰 換同用	十二曷 末同用
30		二十六桓	二十四緩	二十九換	十三末
31		二十七刪 山同用	二十五漕 產同用	三十諫 禫同用	十四黠 鍇同用
32		二十八產	二十六產	三十一禫	十五鍇
33		下平聲 一先 仙同用	二十七銑 獮同用	三十二霰 線同用	十六屑 薛同用
34		二仙	二十八獮	三十三線	十七薛
35	效攝	三蕭 宵同用	二十九筱 小同用	三十四嘯 笑同用	음성운미 /-u(w)/
36		四宵	三十小	三十五笑	
37		五肴 獨用	三十一巧 獨用	三十六效 獨用	
38		六豪 獨用	三十二皓 獨用	三十七號獨用	
39	果攝	七歌 戈同用	三十三哿 果同用	三十八箇 過同用	음성운미
40		八戈	三十四果	三十九過	
41	假攝	九麻 獨用	三十五馬 獨用	四十禡 獨用	음성운미
42	宕攝	十陽 唐同用	三十六養 蕩同用	四十一漾 宕同用	十八葑 鐸同用
43		十一唐	三十七蕩	四十二宕	十九鐸
44	梗攝	十二庚 耕清同用	三十八梗 耿靜同用	四十三映 諍勁同用	二十陌 麥昔同用
45		十三耕	三十九耿	四十四諍	二十一麥
46		十四清	四十靜	四十五勁	二十二昔
47		十五青 獨用	四十一迥 獨用	四十六經 獨用	二十三錫 獨用
48	曾攝	十六蒸 登同用	四十二拯 等同用	四十七證 嶝同用	二十四職 德同用
49		十七登	四十三等	四十八嶝	二十五德
50	流攝	十八尤 侯幽同用	四十四有 厚黝同用	四十九宥 候幼同用	음성운미 /-u(w)/
51		十九侯	四十五厚	五十候	
52		二十幽	四十六黝	五十一幼	
53	深攝	二十一侵 獨用	四十七寢 獨用	五十二沁 獨用	二十六緝 獨用

54	咸攝	二十二覃 談同用	四十八感 敢同用	五十三勘 闕同用	二十七合 盍同用
55		二十三談	四十九敢	五十四闕	二十八盍
56		二十四鹽 添同用	五十琰 忝同用	五十五艷(木忝)同用	二十九葉 帖同用
57		二十五添	五十一忝	五十六(木忝)	三十帖
58		二十六咸 銜同用	五十二賺 檻同用	五十七陷 鑿同用	三十一洽 狎同用
59		二十七銜	五十三檻	五十八鑿	三十二狎
60		二十八嚴 凡同用	五十四儼 范同用	五十九釅 梵同用	三十三業 乏同用
61		二十九凡	五十五范	六十梵	三十四乏

61운을 분석하기 위해 후기 등운도의 16섭의 개념을 활용하면 효율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우선 平聲 57운에 去聲 뿐인 祭·泰·夬·廢 4운을 합한 61운을 순서대로 적절히 16뭉음으로 묶어 외우고 나서, 여기에 上去入聲운을 상응시켜 외우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廣韻』의 206운 즉 61운 세트의 순서는 음이 가까운 것끼리 서로 곁하여 배열되었으며, 이러한 『廣韻』 내지는 절운계 운서의 韻目 순서가 음의 재구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후기 等韻圖에서 나타난 운의 범주를 가리키는 十六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61운을 순서대로 묶은 16뭉음이 바로 十六攝의 범주와 일치하므로, 이 방법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⁴⁴⁾

攝은 섭내의 음의 운미가 같은 것을 뜻하므로, 攝을 통해 61운류에서 평·상·거성과 입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다. 입성운은 『廣韻』에서 양성운과만 짝을 이룬다. 『廣韻』의 通攝·江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ŋ]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k]이다. 止攝은 음성 운미로 운미에 [-i]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일률적이지는 않다. 遇攝은 음성 운미로 단운모에 가깝다. 蟹攝은 음성 운미 [-i]를 지닌다. 臻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n]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t]이다. 山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n]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t]이다. 效攝은 음성 운미로 운미가 [-u(w)]이다. 果攝은 음성 운미로 단운모에 가깝다. 假攝은 음성 운미로 단운모에 가깝다. 宕攝·梗攝·曾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ŋ]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k]이다. 流攝은 음성 운미로 운미가 [-u(w)]이다. 深攝·咸攝은 평·상·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m]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p]이다.

44)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59쪽.

한어 중고음의 운모는 운미의 특징을 근거로 陰·陽·入의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청대의 음운학자인 戴震, 孔廣森 등이 발견한 것이다.⁴⁵⁾ 한편, 『東國正韻』에서 한어 중고음의 陰·陽·入을 모두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東國正韻』 편찬자는 일찌감치 한어 중고음의 陰·陽·入을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말 한자음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소 문자인 훈민정음으로 구현해내고 있다.

(3) 운도를 활용한 『廣韻』의 운모 분석

『廣韻』 206운을 반절 계련의 방법을 통해 분석했을 때, 하나의 韻 내에 다른 운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韻 내에 다른 韻母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이들 韻母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는지는 운서 자체에만 의지해서는 알 수 없고, 等韻圖를 통해서만 분석할 수 있다. 반절 계련을 통해 분석한 300여 개의 小韻類에 等韻圖의 정보를 활용하여, 성조가 만들어 낸 차이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음운 자질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廣韻』의 206운은 61개의 韻類와 142개의 韻母로 분석할 수 있다. 아래 <표12>⁴⁶⁾에서 『廣韻』 142개의 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표12> 『廣韻』 142개의 운모 표

韻類	韻	開合	재구음	韻母	韻	開合	재구음	韻母
1	東	合一	[uŋ]	1	屋	合一	[uk]	2
		合三	[iŋ]	3		合三	[iuk]	4
2	冬	合一	[uoŋ]	5	沃	合一	[uok]	6
3	鐘	合一	[iwoŋ]	7	燭	合三	[iwok]	8
4	江	開二	[ɔŋ]	9	覺	開三	[ɔk]	10
5	支	開三	[ie]	11				
		合三	[iwe]	12				
6	脂	開三	[i]	13				
		合三	[wi]	14				

45) 청대의 과재(戈載)는 운미를 直喉, 展輔, 斂脣, 閉口, 抵腭, 穿鼻 여섯 종류로 나누었다. 현대 음운학의 용어로 해석하면, ‘직후’는 음성운 중 운미가 없는 한 종류이고, ‘전보’는 음성운 중 [i]로 끝을 맺는 한 종류이다. ‘염순’은 음성운 중 [u]로 끝을 맺는 한 종류이고, ‘폐구’는 양성운 중 [m]으로 끝을 맺는 한 종류이다. ‘저악’은 양성운 중 [n]으로 끝을 맺는 한 종류이고, ‘천비’는 양성운 중 [ŋ]으로 끝을 맺는 한 종류이다. 입성운은 양성운과 서로 짝을 이룬다. 색음 [-p]·[-t]·[-k]의 발음 부위는 각각 비음 [-m]·[-n]·[-ŋ]과 같기 때문에, [p]로 끝을 맺는 입성운은 ‘폐구’에 예속될 수 있고, [t]로 끝을 맺는 입성운은 ‘저악’에 예속될 수 있으며, [k]로 끝을 맺는 입성운은 ‘천비’에 예속될 수 있다. 그러나 ‘천비’는 아주 형상적인 말이다. 이러한 명칭은 발음 방법에 착안하여 정립된 것인데, ‘천비’를 사용하여 [k]로 끝을 맺는 운을 일컫는 것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근대의 당월급(唐鉉給)는 [k]를 별도로 ‘嚙喉’라는 명칭을 세웠다. 顧義生·楊亦鳴, 한중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124쪽.

46) 顧義生·楊亦鳴, 한중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309-311쪽.

7	之	開三	[ie]	15				
8	微	開三	[iəi]	16				
		合三	[iwəi]	17				
9	魚	合三	[iuo]	18				
10	虞	合三	[iu]	19				
11	模	合一	[u]	20				
12	齊	開四	[iei]	21				
		合四	[iwei]	22				
13	祭	開三	[iei]	23				
		合三	[iwəi]	24				
14	泰	開一	[ai]	25				
		合一	[uai]	26				
15	佳	開二	[ai]	27				
		合二	[wai]	28				
16	皆	開二	[ei]	29				
		合二	[wəi]	30				
17	夬	開二	[əi]	31				
		合二	[wəi]	32				
18	灰	合一	[uəi]	33				
19	哈	開一	[ɔi]	34				
20	廢	開三	[iei]	35				
		合三	[iwei]	36				
21	眞	開三	[iěŋ]	37	質	開三	[iět]	39
		合三	[iwěŋ]	38		合三	[iwět]	40
22	諄	合三	[iuěŋ]	41	術	合三	[iuět]	42
23	臻	開三	[iēŋ]	43	櫛	合三	[iět]	44
24	文	合三	[iuən]	45	物	合三	[iuət]	46
25	欣	開三	[iən]	47	迄	開三	[əit]	48
26	元	開三	[iēŋ]	49	月	開三	[iět]	51
		合三	[iwēŋ]	50		合三	[iwět]	52
27	魂	合一	[uən]	53	沒	合一	[uət]	54
28	痕	開一	[ən]	55	麤	開一	[ət]	56
29	寒	開一	[an]	57	曷	開一	[at]	58
30	桓	合一	[uan]	59	末	合一	[uat]	60
31	刪	開二	[an]	61	鏃	開二	[at]	62
		合二	[wan]	63		合二	[wat]	64
32	山	開二	[æn]	65	黠	開二	[æt]	66
		合二	[wæn]	67		合二	[wæt]	68
33	先	開四	[ien]	69	屑	開四	[iēt]	70
		合四	[wien]	71		合四	[wiet]	72
34	仙	開三	[iēŋ]	73	薛	開三	[iět]	74
		合三	[iwēŋ]	75		合三	[iwět]	76
35	蕭	開四	[ieu]	77				
36	宵	開三	[ieu]	78				
37	肴	開二	[au]	79				
38	豪	開一	[au]	80				
39	歌	開一	[a]	81				
40	戈	合一	[ua]	82				
		開三	[ia]	83				

		合三	[iua]	84					
41	麻	開二	[a]	85					
		開三	[ia]	86					
		合二	[wa]	87					
42	陽	開三	[iaŋ]	88	葯	開三	[iak]		
		合三	[iwaŋ]	89		合三	[iwak]		
43	唐	開一	[aŋ]	92	鐸	開一	[ak]		
		合一	[uaŋ]	93		合一	[uak]		
44	庚	開二	[eŋ]	96	陽	開二	[ek]	100	
		開三	[ieŋ]	97			[iek]	101	
		合二	[weŋ]	98			開三	[wæk]	102
		合三	[iweŋ]	99			合二		
45	耕	開二	[æŋ]	103	麥	開二	[æk]	105	
		合二	[wæŋ]	104		合二	[wæk]	106	
46	清	開三	[ieŋ]	107	昔	開三	[iek]	109	
		合三	[iweŋ]	108		合三	[iwæk]	110	
47	青	開四	[ieŋ]	111	錫	開四	[iek]	113	
		合四	[iweŋ]	112		合四	[iwæk]	114	
48	蒸	開三	[iəŋ]	115	職	開三	[iək]	116	
				合三		[iwək]	117		
49	登	開一	[əŋ]	118	德	開一	[ək]	120	
		合一	[uəŋ]	119		合一	[uək]	121	
50	尤	開三	[iəu]	122					
51	侯	開一	[əu]	123					
52	幽	開三	[iəu]	124					
53	侵	開三	[iɛm]	125	緝	開三	[iɛp]	126	
54	覃	開一	[ɔm]	127	合	開一	[ɔp]	128	
55	談	開一	[am]	129	盍	開一	[ap]	130	
56	鹽	開三	[iɛm]	131	葉	開三	[iɛp]	132	
57	添	開四	[iɛm]	133	帖	開四	[iɛp]	134	
58	咸	開二	[ɛm]	135	洽	開二	[ɛp]	136	
59	銜	開二	[am]	137	狎	開二	[ap]	138	
60	嚴	開三	[iɛm]	139	業	開三	[iɛp]	140	
61	凡	合三	[iweɪm]	141	乏	合三	[iweɪp]	142	

韻은 개음을 포괄하지 않은 개념이고, 韻母는 개음을 포괄한 개념으로 韻母를 통한 韻의 분석이 더욱 세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음은 특정 조음 위치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과 동시에 韻이 시작될 시점의 개함·등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等韻圖에서 성모와 결합하는 운모를 開口 1·2·3·4等, 合口 1·2·3·4等으로 체계화하고 있는데, 개음을 현대 음운학의 모음 사각도에서 분석하는 모음의 개념으로 묘사했을 때, 운의 ‘시작되는 소리’에 대한 대략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韻母는 韻頭(개음)·韻腹(주요 원음)·韻尾로 구분하며,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韻頭는 운의 시작 지점의 소리이고, 韻腹은 운의 중간 소리이며 韻尾는 운이 끝나는 모습의 소리이다. 하지만 韻母에 대

한 위와 같은 분석은 중국 방언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개음에 관한 문제

운모는 성모가 만들어낸 소리의 진동에 입술 모양 혹은 혀의 高低前後의 정보가 겹쳐 파장하는 진동의 모양이라 할 수 있기에, 운모를 인식하는 데 있어 중국 내에서도 지역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음에서 보통화와 월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화에서 개음은 /i-/·/u-/·/ü-/ 3개가 있는데, 이 중 개음 /i-/는 한어 중고음의 開口 3·4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어 중고음의 江攝(ɔŋ)·臻攝(ən, jən, jĕn, jən)·果攝(a, ja)·假攝(a, ja), 曾攝(əŋ, jəŋ)·流攝(u, ju, jəu)·深攝(jem)에서는 개음 /i-/를 발견할 수 없고, 『中原音韻』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는 개음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라기 보다는 『中原音韻』에 개음 /i-/의 표기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江攝, 咸攝의 한어 중고음에서 보통화로의 변천 과정을 아래 <표13>, <표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3> 江攝의 음운 변천과정

攝	等	聲母	中原音韻	韻略易通	韻略匯通	國語		
江	1	幫系	aŋ, iaŋ, uaŋ					
		端系						
		精系						
		見系						
		影系						
	ɔŋ	2		幫系	aŋ	ieŋ	aŋ	
				知系				
				莊系				uaŋ
				見系				
	3.4	3.4		影系	iaŋ, aŋ	ieŋ, eŋ	iaŋ	
				幫系				
				端系				
				精系				
				莊系				
				知系				
章系								
		見系						
		影系						

47) 안재철, 『『韻略匯通』의 音價 推定, 『韻略易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140-141쪽.

한어 중고음의 江攝은 개구 2등에서 [ɔŋ]으로 추정되며 개음 /i-/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中原音韻』부터 개음 /i-/가 드러나며, 『韻略易通』부터 見系·影系の 2등에서만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보통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 월어의 江攝에 해당하는 한자음에서 한어 중고음과 마찬가지로 개음 /i-/를 발견할 수 없고, 이는 『東國正韻』 한자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14> 咸攝의 음운 변천과정

攝	等	聲母	中原音韻	韻略易通	韻略匯通	國語			
咸	Am am	1	幫系	am,iam	am	an	an		
			端系						
			精系						
			見系						
	em am	2	幫系	am,iam	am	ian	ian		
			知系						
			莊系						
			見系						
	jæm jem , iem	3.4	幫系	ien:yen	ien	ien	ian		
			端系		iem				
			精系						
			莊系						
			知系	ien:yen	iem			ien	an
			章系						ian
見系									
影系	ien, an								

한어 중고음의 咸攝은 개구 1·2등에서 개음 /i-/가 드러나지 않고, 3·4등에서 개음 /j-/와 /i-/가 드러난다. 『中原音韻』부터 개음 /i-/가 1·2·3·4등에서 모두 드러나지만, 『韻略易通』부터 見系·影系の 2등과 3·4등에만 보이고 현재 보통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 월어의 咸攝에 해당하는 한자음에서 개음 /i-/를 확인할 수 없다. 반면 『東國正韻』 한자음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1·2·3·4등의 형태가 그대로 반영되는데, 咸攝 1·2등은 『東國正韻』에서 제14운류 ‘甘 感 紺 閤(감 :감 ·감 ·갑)’로 반영되고 중성·종성의 예로 ‘남 납’이 있다. 咸攝 3·4등은 『東國正韻』에서 제15운류 ‘箝 檢 劔 劫(검 :검 ·검 ·겁)’로 반영되고 중성·종성의 예로 ‘ئم ئم ئم ئم’이 있다.

한어 중고음 咸攝의 3·4등에서 추정되는 개음 /i-/는 현재 보통화의 개음 /i-/보다는 /j-/에 가까운 소리였거나, 등운도 시기를 기준으로 중국 중원 및 북방의 어음을 통틀어 표기한 것일 수 있다. 이 밖에 한어 중고음 咸攝의 운미 /-m/은 현재 월어의 운미와 『東

國正韻』 한자음의 종성에 대응하지만, 『中原音韻』부터 /-n/으로 변화였고 현재 보통화로 이어진다.

보통화의 개음 /i-/·/u-/·/ü-/ 중에서도 특히 개음 /i-/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u-/·/ü/는 반모음의 성격으로 월어와 한국어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개음 /i-/는 월어와 한국어에서는 단일 모음이지 개음이 아니다.

개음 문제와 관련한 중국 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李新魁는 古音에는 개음이 없다고 했으며, 후대의 [i] 혹은 [j]·[w]·[u]는 상고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鄭張尚芳은 티베트, 미얀마 등의 古文字와 비교한 결과, 상고음에는 元音性 개음이 없고, 오직 輔音性 개음인 [w]·[j]·[r]·[l]만 있다고 분석했는데, 3等 개음은 상고음의 단모음에서 유래하여 후기에 나타난 것이고, 4等운은 개음이 아닌 주요원음 [i], [e]라고 했다. 斯塔羅斯金(Sergei Anatolyevich Starostin)도 상고음에는 [w]·[j]·[r] 3개의 개음만 있었을 것이라 추정했고, 蒲立體(Edwin G.Pulleyblank) 역시 개음 [i]와 [j]에 대해 상고음의 장모음에서 유래하여 비교적 후기에 나온 것이라 하여 상고와 중고 사이일 것이라 했다.⁴⁸⁾ 潘悟云은 『浙南吳語與閩語中魚韻的歷史層次』에서 3等 개음은 후기에 나온 것이라 했다. 무엇보다 개음 /i-/와 관련해서 학자 간의 견해가 크게 갈리는데, 현재 개음 /i-/의 사용은 월어와 구분되는 보통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廣韻』에 보이는 142개의 운모는 절운계 운서가 단일 음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수 있고,⁴⁹⁾ 현재의 보통화와 월어에서 보이는 개음에 대한 인식 차이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粵語

48) 李新魁(1986)認為古音中不存在介音, 後代的[i]或[j]·[w]·[u], 在上古都不存在. 鄭張尚芳(2003)參照藏緬等兄弟語言古文字得出結論, 上古漢語沒有任何元音形介音, 只有輔音性介音[w]·[j]·[r]·[l]. 鄭張尚芳(1987)同蒲立體一樣, 也認為三等介音是後來產生的, 但來自上古的短元音, 而非蒲立體所認為的長元音, 四等是主元音本身為[i],[e]. 斯塔羅斯金(1989)實際上給上古漢語構擬了3個介音[w]·[j]·[r]. 蒲立體(1962)則把-i/-j-看作是後起的, 認為它們是在上古和中古之間發展出來的, 可能來自於早期的長元音. 潘悟云(2000)對這一分類提出了質疑, 他在『浙南吳語與閩語中魚韻的歷史層次』一文中運用浙江南部吳語與閩語的文白異讀材料證明了三等介音是後起的, 較有說服力. 林海鷹, 「斯塔羅斯金與鄭張尚芳古音系統比較研究」, 首都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11쪽.

49) 한 시기 한 지역의 단일 음계는 이렇게 많은 운모를 갖출 수 없다. 이 142개의 운모는 아마 中古의 어떤 지역 방언을 기초로 한 공통어의 어음체계를 포괄하였고, 또 각 지역 방언과 고음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것이다. 李涪의 『刊誤』, 慧琳의 『一切經音義』 등과 같은 많은 고대의 문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정보를 암시하고 있다. 顧義生·楊亦鳴, 韓宗高 역, 『漢語音韻學入門』, 學高堂, 1999, 312쪽.

월방언의 개괄적인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방언의 초기 형성은 기원전 221년 진시황의 전국시대 통일과 관련이 깊다. 기원전 214년 진시황은 嶺南地區⁵⁰⁾를 점령하고 南海郡, 桂林郡, 象郡 三郡을 세웠다. 기원전 203년 진시황 사후 진승·오광의 난과 유방과 항후의 초한 전쟁으로 중원 무대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진나라 장수 趙佗가 桂林郡과 象郡에 南越國을 세웠다. 南越國의 뿌리는 진나라로, 영남 지방에 진나라의 선진 문물을 전파했다. 후에 漢高祖 유방이 중원을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우자 南越國은 漢의 속국이 되었다. 이후 南越國에 다시 중원의 선진 문물이 전해져 월방언의 초기 형태가 형성되었다.

魏晉南北朝 時期에 전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많은 수의 인구가 중원 무대를 떠나 영남으로 이동했다. 이때 다시 한번 당시 중원 무대의 문화와 古粵語가 혼합하여 粵方言은 다시 한번 새롭게 변천한다. 唐 전성시대에 영남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百越族의 漢化가 진행되어 粵方言은 중고 한어의 발음과 결합하고 어휘, 어법 면에서의 변화가 생겼다. 宋代에도 중원 무대에서 전쟁을 피해 남으로 인구가 대량 유입되어 중원 한어와 粵方言의 차이는 한층 더 좁혀졌다. 이후 元代 몽고족이 수도를 지금의 북경으로 삼고 그 지방의 언어를 官話로 삼으면서 지배 세력 한어와 粵方言 사이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粵方言은 독립적인 변천 과정을 거쳐 明清시기를 지나 현대 粵方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⁵¹⁾

1) 음운 체계

월어는 廣東話, 廣府話, 唐話, 白話라고 부르기도 하며,⁵²⁾ 광주화를 표준음으로 한다. 보통화를 제외하고 중국 이외의 대학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되는 방언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광동어’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나, 월어·광주화·광동화라는 용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월어 혹은 백화는 관습적으로 광동어를 칭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고, 광주화는 월어의 음운 체계를 논할 때 학술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는 용어이다. 광동화는 광동 지역의 언어를 통틀어 가리킬 때 쓰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50) 영남(嶺南)은 중국 남방의 오령(五嶺)의 남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현재의 광둥·광서 지역 및 호남과 강서성의 일정부분을 포함한다.

51) 문성호, 「廣州話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45쪽.

52) 粵語(Cantonese), 又稱廣東話, 廣府話, 唐話, 俗稱白話. 廣州話(Cantonese)是粵語的代表, 而廣州話是粵語的典型代表, 屬漢藏語系漢語族粵語廣府片, 是粵語各方言中最為強勢和最具影響力的語言, 也是公認的粵語標準音. <https://baike.baidu.com/item/%E7%B2%A4%E8%AF%AD/266782?fr=aladdin>

월어를 가리키며 광둥 지방의 다른 방언을 칭할 때는 객가화, 조주화등과 같이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월어는 1960년 광둥성 교육부에서 공표한 廣東方言拼音方案이 나오면서 로마자로 표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표음 방안은 1980년대 饒秉才에 의해 대폭 수정되면서 廣州話拼音方案으로 대체되게 된다. 이 밖에 홍콩에서는 Yale Romanization(예일 로마자표기법, 1970, 황백비·Gerald P.Kok)과 Jyutping(粵拼, 1993, 香港語言學會) 등이 사용되고 있다.⁵³⁾ 월어의 표음에 관해 광주와 홍콩의 병음 방안이 다르지만, 1980년대부터 체계가 확립되어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하여 『廣州話正音字典』(2002)을 완성하며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⁴⁾

월어와 보통화는 음운 체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보통화의 성조가 4성 체계인 반면, 월어의 성조는 9성 6조 체계이다. 보통화에는 성모와 주요원음 사이에 개음 /i-/·/u-/·/ü-/가 올 수 있지만, 월어에는 개음이 없다. 월어에 개음이 없다는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학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월어의 한자음은 성모, 운복(元音), 운미(元音·輔音)로 구성된다. 운복은 운미 없이 음절을 이룰 수 있는 元音 7개와 운미가 있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는 元音 2개([ɛ]·[ə]) 로 구성되어 총 9개가 있다.

월어에 개음이 없으므로, 월어에서 한자음의 음절은 ‘성모+운복+운미’로 분석된다. 이는 『東國正韻』 한자음의 ‘초성+중성+종성’과 비슷한 개념이다.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w]·[j]의 흔적은 찾아볼 수 있지만, 개음 [i-]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유사한 점이다. 월어에서 보통화의 개음 /u-/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성모 [w] 혹은 운모 [u]가 있고, 보통화의 개음 /ü-/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성모 [j] 혹은 운모 [y]가 있다.

월어의 음운 체계는 병음 방안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병음 방안은 현재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월어병음방안, 광주화병음방안, 예일로마자표기법 3개가 주로 사용된다.⁵⁵⁾ 월어의 성모 20개, 운복 9개, 운미 8개 및 운모 56개와 성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성모 19개+영성모

53) 조은정, 「한국인을 위한 광둥어 발음표기 방안」, 『중국어문논총』, 53권, 중국어문연구회, 2012, 32쪽.

54) 『廣州話正音字典』 經歷漫長歲月最終总算完成的事實, 反映出粵、港、澳的同道們是如何關注粵語應用的問題, 也反映出各地粵語學者愿意齊心協力、同心同德, 使粵語研究能更好地為海內外的粵語使用者提供有效的服務. 詹伯·甘於恩, 『廣府方言』, 2011, 35쪽.

55) 병음 방안은 본고의 부록에서 소개하고 있다.

월어의 성모는 19개로 영성모를 포함할 경우 20개이다. 월어에는 권설음(설첨 후음)이 없으며, 원순설근음 [kw]·[k'w]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15> 성모

N 56)	순음				설첨음				설면음				설근음			후음	원순 설근음	반모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例	八	跑	美	法	多	他	南	羅	知	痴	詩	哥	卡	我	好	關	誇	也	華	安
IPA	p	p'	m	f	t	t'	n	l	ʃ	ʃ'	ʃ	k	k'	ŋ	h	kw	k'w	j	w	∅
광	b	p	m	f	d	t	n	l	z/j	c/q	s/x	g	k	ng	h	gu	ku	y	w	
월	b	p	m	f	d	t	n	l	z	c	s	g	k	ng	h	gw	kw	j	w	
예	b	p	m	f	d	t	n	l	j	ch	s	g	k	ng	h	gw	kw	y	w	

<표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월어의 성모 체계는 『東國正韻』 23자모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東國正韻』 23자모에 원순설근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대응 관계를 이룬다. 각자병서 ‘ㄱ, ㄷ, ㅁ, ㅂ, ㅅ, ㅎ’는 월어의 성모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k]·[t]·[p]·[ʃ]·[ʃ]·[h]를 월어의 양조에 해당하는 4·5·6성으로 발음할 때의 음색과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 운복 9개

운복 9개는 운미 없이 성모와 단독으로 결합할 수 있는 원음 7개와 운미와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운복 2개로 구성된다.

<표16> 운미 없이 성모와 단독으로 결합할 수 있는 원음 7개

例字	他	車	衣	歌	靴	夫	書
IPA	a	ɛ	i	ɔ	œ	u	y

<표17> 운복 9개

N	1	2	3	4	5	6	7	8	9
예자	三	心	車	衣	開	靴	區	夫	書
국제음	a	e	ɛ/e	i/I	ɔ/o	œ	e	u/o	y

56) N은 순서를 가리키고, 例, IPA, 광, 월, 예는 각각 예자, 국제음성기호, 광주화병음방안, 월어병음방안, 예일 로마자표기법을 가리킨다.

[ɛ]·[ə]는 단독으로 성모와 결합할 수 없고 운미와 함께 운모를 구성한다. [ɛ]·[ə]는 월어의 특징이 드러나는 음운 자질로, 월어가 모국어인 경우 [a]와 [ɛ], [ɔ/o]와 [ə]의 차이를 변별 자질로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3) 운미 8개

아래 <표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월어의 운미는 8개로 한어 중고음의 입성운·양성운·음성운이 모두 남아있다.

<표18> 운미

	음성운미		양성운미			입성운미		
병음	-i	-u	-n	-m	-ng	-p	-t	-k
IPA	-i/-y	-u	-n	-m	-ŋ	-p	-t	-k

운미의 특징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운의 자질이 명확한 것이다. 월어의 여러 병음 방안의 표기에서도 일치하고, 국제음성기호와도 표기가 일치한다.

(4) 운모 56개

운복과 운미(음성 운미·양성 운미·입성 운미)가 결합하여 56개의 운모를 형성한다.

<표19> 운모

원음 운미	a	ɛ	ɛ/e	i/i	ɔ/o	æ	ə	u/o	y	자성 음절	개수
	a		ɛ	i	ɔ	æ		u	y		
음성	-i	ai	ei	ei	ɔi		əy	ui			6
	-u	au	eu	eu	iu	ou					5
양성	-n	an	en		in	ɔn		ən	un	yn	7
	-m	am	em	em	im					m	5
	-ŋ	aŋ	eŋ	eŋ	iŋ	ɔŋ	æŋ		oŋ	ŋ	8
입성	-p	ap	ep	ep	ip						4
	-t	at	et		it	ot		ət	ut	yt	7
	-k	ak	ek	ek	ik	ɔk	æk		ok		7
개수	9	8	7	8	7	3	3	6	3	2	56

<표19>에서는 例字 없이 국제음성기호로만 제시하고, 부록에서 성모와 운모의 여러 변음 방안의 표기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월어의 운모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ai-ei’, ‘au-eu’, ‘an-en’, ‘am-em’, ‘aŋ-eŋ’, ‘ap-ep’, ‘at-et’, ‘ak-ek’과 ‘oi-ey’, ‘on-en’, ‘ot-et’ 및 ‘oŋ-oŋ’이 서로 구별이 명확한 음운 자질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ai’와 ‘ei’의 차이가 다음절 속에서 구분되어 서로 겹치지 않는 소리라면 크게 특이할 점이 없지만, [a]와 [e]의 대비가 뚜렷한 음운 자질로 활용될 때, 변별 자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a]는 장음이고, [e]는 단음으로 설명되지만,⁵⁷⁾ [a]와 [e]는 실제로 장음과 단음으로 구별되는 자질이 아니다. 장음과 단음이라면 시간상의 길고 짧음의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a]와 [e]는 시간상에서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장음이라 하고 [e]를 단음이라 하는 이유는 청취 측면에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a]를 발음할 때는 공명장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발음하고, [e]를 발음할 때는 공명장을 닫아준다는 느낌으로 발음하면 되는 것이다.

(5) 성조

월어의 성조는 9성 6조 체계이며, 9성은 6조에 입성 3개를 더한 것이다. 입성의 음높이는 陰平(1성)·陰去(3성)·陽去(6성)와 일치하므로, 음높이를 기준으로 월어는 6개의 조치를 갖는다. 6개의 조치 중 평조는 3개인데, 3개의 평조 중 하나의 성조를 단번에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음높이 이외의 다른 정보가 성조 구분에 활용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공명장에 작용하는 힘의 무게중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음색이라 할 수 있으며, 언어생활에서 음높이보다는 음색 차이가 실질적인 성조 구분에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음계를 구분하려면 이론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소리에 대한 노출이 필요한데, 언어생활에서는 음높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높이는 성조의 표기를 명확히 해주고, 음색은 청취 측면에서 구분되는 성조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월어의 6조의 조치는 각각 1성(55), 2성(35), 3성(33), 4성(21), 5성(13), 6성(22)이며 이를 <표20>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월어의 성조 표기는 변음 방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숫자 1·2·3·4·

57) 운미와 결합되지 않고 모음 단독으로 쓰이는 장모음 [a]는 예일로마자표기법에서는 ‘a’로 표기하지만 월어변음방안에서는 ‘aa’로 표기한다. 조은정, 「한국인을 위한 광둥어 발음표기 방안」, 『중국어문논총』, 53권, 중국어문연구회, 2012, 39쪽.

5·6으로 나타낸다. ‘예일로마자표기법’과 ‘황석릉’에서는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화처럼 부호로 나타냈는데, 이 중 주목할 점은 예일 로마자표기법에서 양조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 ‘h’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0> 여러 병음 방안의 6조 표기

香港語言學學會	耶魯	耶魯(正統)	黃錫凌	萬國音標	廣州話	劉錫祥
1	1	-	'	1	1	1
2	2	/	/	2	2	2
3	3		-	3	3	3
4	4	\ h	'	4	4	4
5	5	/ h	/	5	5	5
6	6	h	-	6	6	6

월어의 6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음조와 양조이다.⁵⁸⁾ 음조는 상대적으로 높은 음으로 1성·2성·3성에 해당하며, 양조는 상대적으로 낮은 음으로 4성·5성·6성에 해당한다. 음조가 높게 들리는 이유는 실제 음이 높아서라기보다는 발성의 무게중심이 구강 혹은 구강에서 비강에 있기 때문이고, 양조가 상대적으로 낮게 들리는 이유는 발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 있기 때문이라 분석할 수 있다. 예일로마자표기법에서 양조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 ‘h’는 발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洪武正韻譯訓』 범례 제2조를 보면 중국 북방 근대 한어의 전탁음의 특징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미루어 한어 중고음의 전탁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全濁上去入三聲之字 今漢人所用 初聲如清聲相近 而各有清濁之別
전탁의 상성, 거성, 입성의 字는 지금 한인이 사용하는 바로는 초성에 있어서는 청성과 서로 가까우나, 각각 청·탁의 분별이 있다.⁵⁹⁾

58) 운모에 ‘h’가 있을 때 성조 陽調를 나타낸다. 운모에 ‘h’가 없을 때는 陰調이다. 韻母中的‘h’是調號, 代表陽調; 如果韻母中沒有‘h’, 則爲陰調. 吳偉平, 『粵語速成』, 香港商務印書館, 2015, X X(20쪽).

59)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42-43쪽.

해석하자면 전탁에 상성, 거성, 입성의 구별이 있었고, 기록 당시의 중국인에게서는 초성에서의 전탁의 소리가 청성과 가깝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전탁자의 자질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어에서 전탁음의 변화를 아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한다.

한어에서 근대음 이후 원래의 전탁음은 몇 개의 방언(吳語, 湘語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청음과 차청음으로 변하여 분절음인 성모 자체로서는 변별성을 잃었으나, 원래의 전탁자는 청음으로 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정한 성조류에 해당되어 역사적 원형을 귀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⁶⁰⁾

* 한어에서 전탁음의 변화(북방 관화의 성조의 유래)

조건	평	상	거	입
전청	음평	상	거	평·상·거
차탁	양평	상	거	거
전탁	양평	거	거	양평·거

위와 같은 변화는 『中原音韻』의 저자 周德清이 중고음의 平聲을 성모의 청·탁에 따라 陰平과 陽平으로 나눈 것에서 비롯되는데,⁶¹⁾ 平聲에서 중고음의 전청자·차청자는 근대음에서 陰平에 속하고, 중고음의 전탁자·차탁자는 근대음에서 陽平에 속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이것은 지금의 북경음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⁶²⁾ 현대 보통화에서 음평·양평·상성·거성은 각각 1성·2성·3성·4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고음의 평·상·거·입과는 다른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고음의 평·상·거·입의 조치는 현재 알 수 없는 것이며, 周德清이 사용한 ‘평·상·거’라는 용어는 중고음의 평·상·거·입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조기관화의 실제 조치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0)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44쪽.

61) 옛날 平聲字의 반절은, 그 반절하자가 오늘날 陰平으로 읽히든 혹은 陽平으로 읽히든 간에, 반절상자가 옛날 清聲母의 글자이기만 하면, 被切字의 성조는 오늘날 陰平으로 읽는다. 반절상자가 옛날 濁聲母의 글자이기만 하면 被切字의 성조는 오늘날 陽平으로 읽는다. 왜냐하면 평성의 반절 중에서, 被切字의 성조는 그 성모의 청·탁에 따라 결정되고, 성모의 청·탁은 또 반절상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절상자가 清聲母이면, 被切字는 陰平으로 읽고, 반절상자가 濁聲母이면 被切字는 陽平으로 읽는다. 顧義生·楊亦鳴, 한중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365쪽.

62) 顧義生·楊亦鳴, 한중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360-3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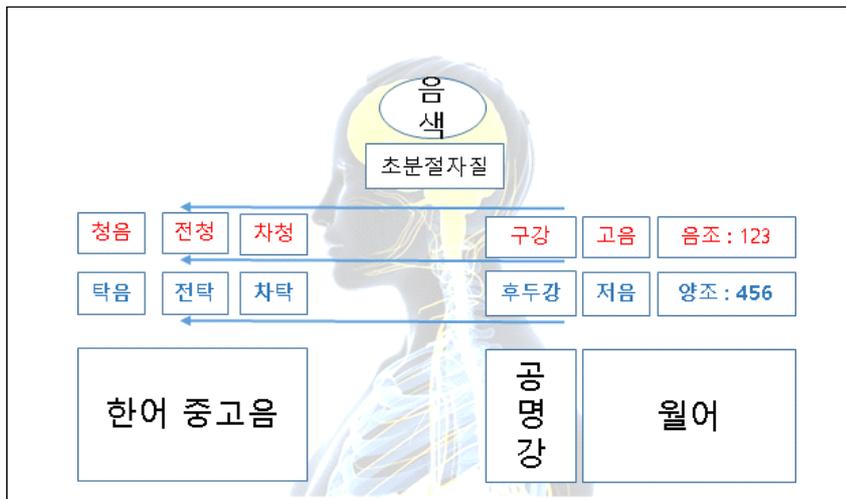
월어의 성조도 陰平·陰上·陰去·陽平·陽上·陽去·陰入·中入·陽入⁶³⁾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이는 현재 월어의 성조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명명한 것으로, 중고음의 평·상·거·입과의 관련성은 향후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고음의 평·상·거·입에 대해 조치로 접근할 방법은 현재 없으며, 대신 청·탁의 분석을 통해 성모의 음색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음의 청·탁과 가장 명확한 대응관계를 보이는 중국 방언은 월어이다.

2) 한어 중고음의 청·탁과 월어의 음조·양조

(1) 대응 관계

월어의 음조·양조는 한어 중고음의 청·탁과 일률적인 대응 관계를 이룬다.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전청·차청·전탁·차탁과 월어의 음조·양조의 대응 관계를 살피기에 앞서, 아래 그림을 통해 청·탁과 음조·양조가 대응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표21> 청음·탁음과 음조·양조



한어 중고음의 전청·차청, 전탁·차탁과 일률적인 대응 관계를 보이는 월어의 음조, 양조를 간과하기 어렵다. 특히 성대 진동음으로 마찰이 없는 影母와 喻母의 음운 자질을 변별함에 있어, 공명강에 작용하는 무게중심에 따라 결정되는 ‘음색’이 변별 자질로 작용할 수 있음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63) 월어의 성조 및 예자: 陰平(詩xi¹)·陰上(史xi²)·陰去(試xi³)·陽平(時xi⁴)·陽上(市xi⁵)·陽去(事xi⁶)·陰入(色sik⁷)·中入(錫sik⁸)·陽入(食sik⁹)

청·탁은 한자음의 음색과 관련한 용어로 본고에서 淸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濁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이는 1차적으로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효과이기도 하지만, 언어생활에 활용할 경우 청취 측면에서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따라 달라지는 ‘음색’을 음운 자질로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2) 청음과 음조의 대응 관계

<표22>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전청자와 월어의 성조 비교

1	見	見	古	公	過	各	格	兼	姑	佳	詭	居	舉	九	俱	紀	幾
		3	2	1	1	3	3	1	1	1	2	1	2	2	1	2	2
2	端	端	都	丁	多	當	得	德	冬								
		1	1	1	1	1	1	1	1								
3	知	知	陟	竹	知	張	中	猪	微	追	卓	珍					
		1	1	1	1	1	1	1	2	1	3	1					
4	幫	幫	博	北	布	补	边	伯	百	巴	哺						
		1	3	1	3	2	1	3	3	1	1						
5	非	非	方	甫	府	必	彼	卑	兵	分	封	并	笔	界	鄙		
		1	1	2	2	1	2	1	1	1	1	3	1	2	2		
6	精	精	子	即	作	則	將	祖	臧	資	姉	遵	茲	借	醉		
		1	2	1	3	1	1	2	1	1		1	1	3	3		
7	心	心	蘇	息	先	相	私	思	桑	素	斯	辛	司	速	雖	悉	寫
		1	1	1	1	1	1	1	1	3	1	1	1	1	1	1	2
8	莊	莊	側	莊	阻	鄒	簪	仄	爭								
		1	1	1	2	1	1	1	1								
9	照	照	之	職	章	諸	旨	止	脂	征	正	占	支	賁			
		3	1	1	1	1	2	2	1	1	1	1	1	2			
10	審	審	式	書	失	舒	施	傷	識	賞	詩	始	試	矢	釋	商	
		2	1	1	1	1	1	1	1	2	1	2	3	2	1	1	
11	影	影	烏	伊	一	安	烟	鷲	愛	挹	哀	握	於	乙	衣	央	紆
		2	1	1	1	1	1	1	3	1	1	1	1	3	1	1	1

<표22>를 통해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전청에 해당하는 한자를 현재의 월어의 성조에 대응시켜 보았을 때, 모두 음조에 해당한다.⁶⁴⁾ 모든 한자가 월어의 음조에 일률적으

64) 전청자 : 見gin3 古gu2 公gung1 過gwol 各gok3 格gaak3 兼gim1 姑gul 佳gaail 詭gwai2 居geoil 舉geoi2 九gau2 俱geoil 紀gei2 幾gei2 規kwail 吉gat1/ 端dyun1 都dou1 丁ding1 多do1 當dong1 得dak1 德dak1 冬dung1/ 知zil 陟zik1 竹zuk1 知zil 張zoeng1 中zung1 猪zyul 微zi2 追zeoil 卓zoek3 珍zan1/ 幫bong1 博bok3 北bak1 布bou3 补bou2 边bin1 伯baak3 百baak3 巴baa1 哺bou1/ 非feil 方fong1 甫fu2 府fu2 必bit1 彼bei2 卑bei1 兵bing1 分fan1 封fung1 并bing3 笔bat1 界bei2 鄙pei2/ 精

로 대응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다. 이는 차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3>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차청자와 월어의 성조 비교

1	溪	溪	苦	口	康	枯	空	恪	牽	謙	楷	客	可	去	丘	區	墟
		1	2	2	1	1	1	3	1	1	2	3	2	3	1	1	1
		起	驅	羌	綺	欽	傾	窺	詰	祛	豈	曲					
2	透	透	他	吐	土	託	湯	天	通	臺							
		3	1	2	2	3	1	1	1	4							
3	徹	徹	丑	敕	恥	癡	楮	楮	抽								
		3	2	*	2	1	2	2	1								
4	滂	滂	普	匹	滂	譬											
		1	2	1	1	3											
5	敷	敷	芳	敷	撫	孚	披	妃	峯	拂	丕						
		1	1	1	2	1	1	1	1	1	1						
6	清	清	七	倉	千	此	親	采	蒼	麤	青	醋	遷	取	且	雌	
		1	1	1	1	2	1	2	1	1	1	3	1	2	2	1	
7	初	初	楚	測	又	芻	廁	創	瘡								
		1	2	1	1	1	3	1	1								
8	穿	穿	昌	尺	充	赤	處	叱	春	姝							
		1	1	2	1	3	2	1	1	1							
9	曉	曉	呼	火	荒	虎	海	呵	馨	花							
		2	1	2	1	2	2	1	1	1							

<표23>을 통해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차청에 해당하는 한자를 현재의 월어의 성조에 대응시켜 보았을 때, 모두 음조에 해당한다.⁶⁵⁾ 오직 臺만 4성으로 양조에 해당한다.

zeng1 子zi2 即zik1 作zok3 則zak1 將zoeng1 祖zou2 臧zong1 資zi1 姊* 遵zeon1 茲zi1 借ze3 醉zeoi3/ 心sam1 蘇sou1 息sik1 先sin1 相soeng1 私sil 思sil 桑song1 素sou3 斯sil 辛san1 司sil 速cuk1 雖seoil 悉sik1 寫se2 胥seoil 須seoil/ 莊zong1 側zak1 莊zong1 阻zo2 鄒zau1 簪zaam1 仄zak1 爭zang1/ 疏so1 所so2 山saan1 疎sol 色sik1 數sou2 砂沙saa1 疏sol 生sang1 史si2/ 照ziu3 之zi1 職zik1 章zoeng1 諸zyu1 旨zi2 止zi2 脂zil 征zing1 正zing1 占zim1 支zil 賁zyu2/ 審sam2 式sik1 書syu1 失sat1 舒syu1 施sil 傷soeng1 識sik1 賞soeng2 詩sil 始ci2 試si3 矢ci2 釋sik1 商soeng1/ 影jeng2 烏wu1 伊jil 一jat1 安ngon1 烟jin1 鷺jil 愛ngoi3 挹jap1 哀oi1 握ak1 於jyu1 乙jyut3 衣jil 央joeng1 紆jyu1 憶jik1 依jil 憂jau1 謁jit3 委wail.

65) 차청자 : 溪kail 苦fu2 口hau2 康hong1 枯ful 空hung1 恪kok3 牽hin1 謙him1 楷 kaai2 客haak3 可ho2 去heoi3 丘jau1 區keoil 墟heoil 起hei2 驅keoil 羌goeng1 綺ji2 欽jam1 傾king1 窺kwail 詰kit3 祛keoil 豈hei2 曲kuk1, 透tau3 他taa1 吐tou2 土tou2 託tok3 湯tong1 天tin1 通tung1 臺toi4/ 徹cit3 丑cau2 敕* 恥ci2 癡cil 楮cyu2 楮cyu2 抽cau1, 滂pong1 普pou2 匹pat1 滂pong1 譬pei3/ 敷ful 芳fong1 敷ful 撫fu2 孚ful 披pei1 妃feil 峯fung1 拂fat1 丕pei1/ 清ceng1 七cat1 倉cong1 千cin1 此ci2 親can1 采coi2 蒼cong1 麤cou1 青ceng1 醋cou3 遷cin1 取ceoi2 且ce2 雌cil/ 初col 初col 楚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臺를 ‘ㄷ’가 아닌 ‘ㄸ’로 주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어 중고음에서 臺는 유기음 혹은 무기음의 여부를 떠나 차청이 아닌 전탁자일 가능성이 있다.

(3) 탁음과 양조의 대응 관계

<표24>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전탁자와 월어의 성조 비교

1	羣	羣 4	其 4	巨 6	求 4	奇 4	暨 3	白 5	衢 4	强 4	具 6	狂 4						
2	定	定 6	徒 4	杜 6	特 6	度 6	唐 4	同 4	陀 4	堂 4	田 4	地 6						
3	澄	澄 6	直 6	除 4	丈 6	宅 6	持 4	柱 5	池 4	迟 4	治 6	场 4	佇 5	馳 4	墜 6			
4	並	並 6	蒲 4	薄 6	傍 6	步 6	部 6	白 6	裴 4	捕 6								
5	奉	奉 6	符 4	扶 4	房 4	皮 4	毗 4	防 4	平 4	縛 3	附 6	苻 4	馮 4	浮 4	父 6	便 6	婢 6	
6	從	從 4	昨 6	徂 4	疾 6	才 4	在 6	慈 4	秦 4	藏 4	自 6	匠 6	漸 6	情 4	前 4	酢 6		
7	邪	邪 4	徐 4	似 5	祥 4	辭 4	詳 4	寺 6	辭 4	隨 4	旬 4	夕 6						
8	牀	牀 4	士 6	仕 6	鋤 4	鉏 4	牀 4	查 4	雛 4	助 6	豺 4	崇 4	崩 6	侯 6	榮 4			
9	神	神 4	食 6	神 4	实 6	乘 4												
10	禪	禪 6	时 4	常 4	市 5	是 6	承 4	视 6	署 5	氏 6	殊 4	寔 6	臣 4	殖 6	尝 4	蜀 6	成 4	
11	匣	匣 6	胡 4	戶 6	下 6	侯 6	何 6	黃 4	乎 4	護 6	懷 4							

<표24>를 통해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전탁에 해당하는 한자를 현재의 월어의 성조에 대응시켜 보았을 때, 모두 양조에 해당한다.⁶⁶⁾ 전탁자를 현대 음운학에서 유성음의

co2 測cak1 又caal 芻co1 廁ci3 創cong1 瘡cong1/ 穿cyun1 昌coeng1 尺ce2 充cung1 赤cek3 處cyu2 叱cik1 春ceon1 姝zyu1/ 曉hiu2 呼fu1 火fo2 荒fong1 虎fu2 海hoi2 呵ho1 馨hing1 花faal.

66) 전탁자 : 羣kwan4 其kei4 巨geoi6 求kau4 奇kei4 暨gi3 白kau5 衢keoi4 强koeng4 具geoi6 狂kwong4/ 定deng6 徒tou4 杜dou6 特dak6 度dou6 唐tong4 同tung4 陀to4 堂tong4 田tin4 地dei6/ 澄dang6 直zik6 除ceoi4 丈zoeng6 宅zaak6 持ci4 柱cyu5 池ci4 迟ci4 治zi6 场coeng4 佇cyu5 馳ci4 墜zui6/ 並bing6 蒲pou4 薄bok6 傍bong6 步bou6 部bou6 白baak6 裴pui4 捕bou6/ 奉fung6 符fu4 扶fu4 房fong4 皮pei4 毗pei4 防fong4 平peng4 縛bok3 附fu6 苻fu4 馮pang4 浮fau4 父fu6 便pei5 婢pei5 弼bat6/ 从cung4 昨zok6 徂cou4 疾zat6 才coi4 在zoi6 慈ci4 秦ceon4 藏cong4 自zi6 匠zoeng6 漸zim6 情cing4 前cin4 酢zok6, 邪ce4 徐ceoi4 似ci5 祥coeng4 辭ci4 詳coeng4 寺zi6 辭ci4 隨ceoi4 旬ceon4 夕zik6/ 牀cong4 士si6 仕si6 鋤co4 鉏co4 牀cong4 查co4 雛co4 助caai4 豺caai4 崇sung4 崩sik6 侯

범주에서 분석하지만, 유럽어에서의 무성음과 명확히 대비되는 유성음의 발성 습관을 한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전탁자와 월어의 양조가 명확히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전탁자의 실체는 전청·차청과 마찰 자질로 구분되는 발음이 아니라, 전청 혹은 차청의 발음이 후두강에서 발음되는 음색 즉 초분절자질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한어 중고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탁자는 유성음이라는 공식은 한어 중고음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曠은 3성으로 음조에 속하므로 예외 글자인데,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전탁자인 ‘ㄱ’로 주음하고 있으므로, 한어 중고음의 양조가 현재 월어에서 3성으로 변화한 예로 분석할 수 있다.

<표25>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차탁과 월어의 성조 비교

1	疑	疑 4	五 5	吾 5	研 4	俄 4	魚 4	語 5	牛 4	宜 4	虞 4	疑 4	擬 4	愚 4	遇 6	危 4	玉 6
2	泥	泥 4	奴 4	乃 5	那 6	諾 6	內 6	妳 5									
3	娘	娘 4	女 5	尼 4	拏 4	穠 4											
4	明	明 4	莫 6	模 4	謨 4	摸 6	慕 6	母 5	彌 4	眉 4	靡 5	明 4	美 5	綿 4			
5	微	微 4	武 5	亡 4	無 4	文 4	巫 4	望 6									
6	喻	喻 6	以 5	羊 4	余 4	餘 4	與 4	弋 6	夷 4	予 4	翼 6	營 4	移 4	悅 6			
7	爲	爲 4	于 4	王 4	雨 6	爲 6	羽 5	云 4	永 5	有 5	雲 4	筠 4	遠 5	韋 4	洧 5	榮 4	蓮 5
8	來	來 4	盧 4	郎 4	落 6	魯 5	來 4	洛 6	勒 6	賴 6	練 6	力 6	良 4	呂 5	里 5	林 4	離 4
9	日	日 6	而 4	如 4	人 4	汝 5	仍 4	兒 4	耳 5	儒 4							

<표25>를 통해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차탁에 해당하는 한자를 현재의 월어의 성조에 대응시켜 보았을 때, 모두 양조에 해당한다.⁶⁷⁾ 차탁은 공명음, 유음, 비음을 포함하

hau6 齏ci4/ 神san4 食sik6 神san4 实sat6 乘sing4, 禪sin6 时si4 常soeng4 市si5 是si6 承sing4 視si6 署syu5 氏si6 殊syu4 寔sat6 臣san4 殖zik6 植zik6 尝soeng4 蜀suk6 成seng4/ 匣haap6 胡wu4 戶wu6 下haa6 侯hau6 何ho6 黃wong4 乎wu4 護wu6 懷waa4.
67) 疑ji4 五ng5 吾ng4 研jin4 俄ngo4 魚jyu4 語jyu5 牛ngau4 宜ji4 虞jyu4 疑ji4 擬ji4 愚jyu4 遇jyu6 危ngai4 玉juk6/ 泥nai4 奴nou4 乃naai5 那naa6 諾nok6 內noi6 妳nei5/ 娘noeng4 女nei5 尼nei4 拏

는데, 疑母의 성모에서의 사용은 ‘五ng5, 吾ng4, 俄ngo4, 牛ngau4, 危ngai4’와 같이 월어에서 확인할 수 있고, 微母의 반절상자의 월어 발음은 微mei4, 武mou5, 亡mong4, 無mou4, 文man4, 巫mou4, 望mong6으로 경순음 [m]을 확인할 수 있다. 日母의 반절상자의 월어 발음은 병음 방안에서는 [j]으로 통일시켰지만, 국제음성기호에서는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 해당하는 [n̥]을 확인할 수 있다.

월어는 ‘唐話’ 혹은 ‘살아있는 언어 화석’이라고 자주 언급되기도 하는데, 월어의 음운 체계를 살펴봤을 때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어 중고음의 운미 8개는 월어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四聲七音의 체계도 월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월어는 오어·민남어·객가어 등과 같이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방언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어와의 상관관계도 깊다. 월어와 한국 한자음은 상고음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唐代에 확립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유사한 점이 많다.

3. 梵語

음성학은 인도에서 크게 발달하였고,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 음운 분석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⁶⁸⁾ 불경 번역은 구역과 신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역은 후한부터 시작되어 범어를 모국어로 한 인도 승려들이 한어를 습득한 이후 진행한 번역을 주로 가리키며, 북조의 인도 승려 구마라집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645년 현장이 인도에 다녀와 불경을 당시 언어 상황에 맞게 재번역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역이라고 하는데, 唐代에 불경 음역 작업이 다량으로 이루어졌고, 범어에는 있지만 한어에는 없는

naa4 穰nung4/ 明ming4 莫mok6 模mou4 謨mou4 摸mok6 慕mou6 母mou5 彌mei4 眉mei4 靡mei5 明ming4 美mei5 綿min4/ 微mei4 武mou5 亡mong4 無mou4 文man4 巫mou4 望mong6/ 喻jyu6 以ji5 羊joeng4 余jyu4 餘jyu4 與jyu4 弋jik6 夷ji4 予jyu4 翼jik6 營jing4 移ji4 悅jyut6/ 爲wai4 于jyu4 王wong4 雨jyu6 爲wai6 羽jyu5 云wan4 永wing5 有jau5 雲wan4 筠wan4 遠jyun5 韋wai4 洧fui2 榮wing4 蘆jyun5/ 來lai4 盧lou4 郎long4 落lok6 魯lou5 來lai4 洛lok6 勒lak6 賴lai6 練lin6 力lik6 良loeng4 呂leoi5 里lei5 林lam4 離lei4 連lin4 縷lau5/ 日jat6 而ji4 如jyu4 人jan4 汝jyu5 仍jing4 兒ji4 耳ji5 儒jyu4.

68) 반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설이 분분하지만, 서역(西域)의 범문문법과 화엄(華嚴)42자모는 중국 음운학과 운문(韻文)의 발전을 촉진하였고, 인도의 고대 언어인 범문은 육조(六朝)시기에 중국의 음운학에 영향을 주었으며 당대(唐代)에 더욱 두드러진 영향을 주었기에 반절의 방법이 개발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한중호, 「沈括 夢溪筆談의 等韻理論 小考」, 『중국언어연구』 20, 중국어문학연구회, 2005, 263쪽.

음소를 번역하는 방법 및 불경 음역 전반에 관한 체계화가 이루어진다.⁶⁹⁾ 또한 불경의 진언을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음역해야 했기 때문에 음역할 때의 규칙 등을 만들었고,⁷⁰⁾ 점차 전통의 반절법을 보완할 수 있는 자모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광의 『悉曇字記』에서 실담 문자의 51자문⁷¹⁾을 자모를 사용하여 대응시키고 있으며, 反切·近音·輕音·重音 등으로 소리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 실담 문자를 한자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수운의 30자모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중고 한어 36자모 형성의 토대가 된다.

1) 悉曇

실담⁷²⁾은 크게는 중국에 전래된 인도 범자를 총칭하는 불교 용어로 사용되고,⁷³⁾ 작게는 실담 문자로서 약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북인도에서 사용된 브라흐미 계통의 문자를 가리킨다.⁷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온 많은 불경들이 실담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실담은 천축, 즉 인도의 문자로 현장(602-664)의 『大唐西域記』 내용을 요약하면,⁷⁵⁾ 겹초에 범왕께서 天·地·人 三才를 다스리기 위하여 만든 모음 12자와 자음 35자, 총 47개의 글자라고 설명하고 있으며,⁷⁶⁾ 지광의 『悉曇字記』序의 기록을 통해 인도의 어음은

69) 범어를 한어로 대역할 때, 범어에 없고 한어에만 있는 음소는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범어에는 있지만 한어에 없다면, 한어에만 있는 어떤 특별자질을 이용하여 반드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안재철, 『梵漢對音方式 考察』, 『대학원연구논집』, 제7집,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4, 69-70쪽.

70) 불경경전이 중국에 들어가 번역될 때, 어떤 단어는 의역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음역의 방법을 썼다. 특히 현장은 ‘오불번(五不翻)’으로 ‘秘密故, 含多義故, 此無故, 順古故, 生善故’의 다섯 가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음역을 사용하고 의역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안재철, 『梵漢對音方式 考察』, 『대학원연구논집』, 제7집,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4, 64쪽.

71) 12모음(通摩多), 4모음(別摩多), 35자음(體文)

72) 실담어는 범어 또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의 경전들을 표기하기 위한 산스크리트어의 변형된 문자이다. 원래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베다』와 『우파니샤드』 경전을 쓴 베다 산스크리트어와 기원전 4세기경 파니니가 쓴 ‘아스타드야이’라고 하여 ‘여덟 장으로 만든 문법서’를 기초로 한 고전 산스크리트어가 정형화된 것이다. 산스크리트 경전들은 선형적인 절대적 지식을 기록한 수르티 경전이라고 하여 인도의 다른 많은 경전 외에도 불교의 경전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중적으로 속어화되기도 하였는데 프라크리티어와 팔리어가 그것이다. 그 중 팔리어는 초기 불교의 경전들을 기록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었다. 굽타 문자라고도 알려진 실담어 경전들은 문자가 6-7세기경 불교의 동아시아에 보급되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졌다. 실담은 산스크리트어로 ‘완성된 언어’라는 의미이다. 박지명·이서경, 『산스크리트 반야심경』, 동문선, 2010, 72쪽.

73) 중국에 전래된 인도 범자를 총칭하는 불교용어.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74) 전순환,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 지식과 교양, 2012, 43쪽.

75) “詳其文字, 梵天所制, 原始垂則, 四十七言也. 寓物合成, 隨事轉用. 流演枝派, 其源浸廣, 因地隨人, 微有改變, 語其大較, 未異本源, 『大唐西域記』, 卷第二.

76) 강대현, 『실담자기 역해』, 올리브그린, 2017, 33쪽.

오천축 등지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⁷⁷⁾ 문자의 유래는 실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범한대음 방식

한어에 없는 梵字만의 특징에 해당하는 長短音, 送氣濁音, 複輔音, 梵字 ‘r’과 ‘v’ 등의 對音方式에 대한 것을 인용문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⁷⁸⁾

① 長短音의 對音方式

梵語는 長短音의 구분이 있으나, 漢語에는 長短音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長音으로 읽히는 梵語를 漢語로 옮길 때는, 반드시 短音을 對譯할 때와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方式은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梵語에는 없으나 漢語에만 있는 聲調를 이용하여 구분하는 方式⁷⁹⁾과 ‘引’이나 ‘引聲’과 같은 標識를 사용하여 구분하는 方式이다.⁸⁰⁾

② 送氣音의 對音方式

중국의 中古音에는 清音은 送氣音과 不送氣音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만, 濁音은 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梵語에는 清音이나 濁音을 막론하고 모두 送氣音과 不送氣音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梵語를 漢語로 對音할 때, 梵語의 送氣濁塞音을 만나면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標識(重)를 이용하는 方式

譯經家는 일반적으로 상관이 있는 對音字의 뒤에 ‘重’을 標識하여 그 送氣의 특징을 돌출시킨다.⁸¹⁾

77) 이 47자의 글자 각각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그 수가 늘어나고, 같은 글자끼리의 결합 내지 다른 글자와의 결합등으로 변용되어, 원래의 글자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이 글자의 갈래가 두루 퍼져나가게 된 것이며, 더욱이 이를 쓰는 오천축 등지의 지방이나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임으로써 그 원류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천축 지방이 특히 상세하고 정확한 반면 주변국의 사람들은 중천축과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글자도 대대로 쓰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쓰는 언어와 문자도 넓게는 중천축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강대현, 『실담자기 역해』, 올리브그린, 2017, 33쪽.

78) 인용문과 각주 79에서 85까지는 안재철, 「梵漢對音方式 考察」, 『대학원연구논집』, 제7집,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4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79) 漢語의 入聲은 促迫하고, 上聲도 短調이므로, 대체로 梵語의 短音을 번역하고, 平聲·去聲은 長調이고, 去聲은 더욱 길기 때문에, 대체로 梵語의 長音을 번역하는 데 쓰인다고 할 수 있다.

80) ‘摩賀(引)鉢囉(二合)枳孃(二合)播(引)囉(轉舌)彌多’(/mua-ɣa-puat-la-teīe-nīaŋ-pua-la-mīe-ta/)

81) 伽(渠賀反, 伽字去聲, 重), 醯(嵯賀反, 引聲, 重) : ‘伽(/gīa/)’는 梵語 ‘gha’의 對譯이고, ‘醯(/dza/)’는 ‘jha’의 對譯으로 送氣音이다.

(b) 入聲字를 이용하는 方式

梵語의 送氣音(kh, gh, th)과 ‘kṣ, h, s’ 등의 앞에는 흔히 入聲字를 쓰는데, 그러한 예는 玄奘과 慧琳에서 모두 많이 보인다.⁸²⁾ 對譯한 漢語에서 入聲字의 뒤에 쓰이는 나오는 글자는 대체로 ‘氣’의 성분과 마찰 성분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③ 複輔音의 對音方式

(a) ‘二合’

漢語에는 複輔音이 없어서 梵語의 複輔音을 그대로 對譯할 수 없다. 이런 경우 漢語에서는 흔히 ‘二合’이라는 標識를 써서 對譯하되, 앞글자는 聲母만을 취하고 뒤 글자는 聲母와 韻母를 모두 취하여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方式을 이용한다.⁸³⁾

(b) ‘三合’

梵語에는 複輔音이 단지 두 글자가 이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 글자 이상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漢語에서는 ‘三合’ 등의 標識를 써서 對譯하되,⁸⁴⁾ 앞의 글자들에서는 聲母를 취하고 맨 마지막 글자는 聲母와 韻母를 모두 취하여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方式을 이용한다.

역경가들이 범어를 한자로 음역하는 방식을 고찰하는 것을 통해, 범어가 한자로 음역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梵字 ‘v’를 對譯하기에는 漢語의 微母字가 가장 합당할 것 같지만,⁸⁵⁾ 실제 상황은 微母字뿐만 아니라 唇音의 거의 모든 글자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⁸⁶⁾ 자모의 개념이 형성되었던 시기에도 범한대음 방식에 따라 선택하는 한자가 자의적이었을 수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표 26>⁸⁷⁾에서 확인할 수 있다.

82) 예를 들어 “*“鬘羯他託契”*, /øiei-kʰet-tʰa-tʰak-kʰiei/, ‘ekatha-thakhe’”에서, ‘羯’과 ‘託’은 모두 入聲이고, 入聲은 ‘-t’와 ‘-k’로 분별되지만, 梵語를 對音할 때 어떤 梵字도 보이지 않아, ‘鬘羯他託契’은 ‘ekatha-thakhe’의 對音으로 사용된다.

83) ‘*薩怛嚩(二合引)南(引)*’(/sat-tat-bua-nəm/)은 梵語 ‘sattvānām’을 對音한 것으로, 그 중 梵語 ‘-tvā-’은 漢語의 ‘*怛嚩(二合引)*’로 對譯하였다. 즉 梵語 ‘-tv-’는 複輔音이므로, 漢語는 ‘*怛*’에서 聲母를 취하고, ‘*嚩*’에서 聲母와 韻母를 취하여, 하나의 소리로 하되, 元音은 長音으로 읽기 때문에 ‘*二合引*’이라고 표시한 것이다.

84) ‘*三麻耶薩恒鏗(三合)*’(/sam-ma-jīa-sat-tat-mam/)은 梵語 ‘Samayas tvam’의 對譯이다. 梵語와 漢語의 對音을 대조해 보면 ‘*薩*’는 ‘s’를 ‘*怛*’은 ‘t’를 ‘*鏗*’은 ‘vam’을 나타내어, ‘*薩*’과 ‘*怛*’은 첫소리인 輔音만을 취하고, ‘*鏗*’은 輔音과 元音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5) 黃仁瑄의 『*唐五代佛典音義研究*』를 요약하면 梵字의 ‘p, ph, b, bh, m, v’ 등의 梵字는 각각 漢語字母의 ‘*滂幫, 並明幫奉來, 並奉心幫, 明微幫並泥, 並奉微明匣邪心以云幫非來*’ 등으로 對音하였다.

86) 안재철, 『*梵漢對音方式 考察*』, 『*대학원연구논집*』, 제7집,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4, 92쪽.

<표26> 梵語 子音의 梵漢對譯 관계

	破裂音				鼻音	齒擦音	氣音	半元音
	無聲無氣	無聲有氣	有聲無氣	有聲有氣				
ka	k	kh	g	gh	ṅ		h	
	見群溪娘 幫曉章	溪群	群疑見匣 以	群見	疑		匣曉奉 明群書	
ca	c	ch	j	jh	ñ	ś		y (ø)
	章精書澄	昌清章	禪從日澄 船見群書 以章邪	從	泥娘日 章見	書心禪初 日生溪章		以見從邪 影匣幫以
ta	t	th	ḍ	ḍh	ṇ	ṣ		r
	知澄來從 端	徹知端	澄泥娘徹 定來端知	澄徹	娘泥定	生書以		來匣泥
ta	t	th	d	dh	n	s		l
	端定知章 澄來匣以	透定	定泥端澄 昌奉群	定泥透	泥娘日 定	心書生來 並邪		來娘
pa	p	ph	b	bh	m			v
	幫並非奉 匣云	滂幫	並明幫奉 來	並奉心幫	明徹幫 並泥			並奉微明 匣邪心以 云幫非來

본고에서는 범어의 무성음·유성음 자모에 대비되는 한어 중고음의 청·탁을 살피는데 집중하므로 『悉曇字記』의 51자문 및 불공 및 공해가 음역한 범한대음 한자의 청·탁을 살피도록 한다.

(2) 지광의 『悉曇字記』 51자문

인도의 범어 문자로 기록된 불교 경전이 중국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인도의 문자는 실담이란 말로 총칭되었고, 더불어 이 실담의 범어 문자와 한자를 대비하여 불교의 용어를 기록한 『翻梵語』, 『唐梵文字』와 같은 책들도 나타났다. 그렇지만 실담이란 말이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승려 지광이 『悉曇字記』(794-806년)를 저술한데 기인한다. 이 『悉曇字記』는 표의문자인 중국어로서 표음문자인 범어의 음운 체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음성학적 체계를 갖는 이 실담 범자에 대해 『悉曇字記』는 전체 18장에 걸쳐 발음과 문자의 결합 체계를 밝히고 있다.⁸⁷⁾ 아래 <표27>, <표28>, <표29>에서 실담 문자의 기본 자음

87) 안재철, 「梵漢對音方式 考察」, 『대학원연구논집』, 제7집,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4, 67쪽의 표를 인용한 것이다.

과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⁸⁹⁾

<표27> 25體文(25자음, 五類聲)

	무성 무기음		무성 유기음		유성 무기음 (輕音)		유성 유기음 (重音)		비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牙聲		迦		佉		迦		伽		哦
연구개음	全淸	(ka)	次淸	(kha)	全淸	(ga)	全濁	(gha)	次濁	(ña)
齒聲		者		車		社		社		若
경구개음	全淸	(ca)	次淸	(cha)	全濁	(ja)	全濁	(jha)	次濁	(ña)
舌聲		吒		佉		茶		茶		拏
반설음	全淸	(ta)	次淸	(tha)	全濁	(da)	全濁	(dha)	次濁	(na)
喉聲		多		他		陀		陀		那
치조음	全淸	(ta)	次淸	(tha)	全濁	(da)	全濁	(dha)	次濁	(na)
脣聲		波		頗		婆		婆		麼
순음	全淸	(pa)	次淸	(pha)	全濁	(ba)	全濁	(bha)	次濁	(ma)

<표28> 12통마다(12모음)와 4별마다(助音)

通摩多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短阿 (a)		長阿 (a)		短伊 (i)		長伊 (i)		短甌 (u)		長甌 (ū)
		短藹 (e)		長藹 (ai)		短奧 (o)		長奧 (au)		短音 (am)		長痾 (ah)
別摩多		紆理(r)		紆梨(ṛ)		里(l)		梨(l)				

『悉曇字記』에서 실담 문자의 발음을 묘사함에 있어, 현재의 유성 무기음을 輕音이라 설명하고 있고, 유성 유기음을 重音이라 설명하고 있다. 아음 유성 무기음 ‘迦’을 제외하

88) 제1장 가가장(迦迦章), 제2장 기야기야장(枳也枳也章), 제3장 가략가략장(迦略迦略章), 제4장 가라가라장(迦攞迦攞章), 제5장 가부가부장(迦嚩迦嚩章), 제6장 가마가마장(迦麼迦麼章), 제7장 가나가나장(迦那迦那章), 제8장 아룩아룩장(阿勒阿勒章), 제9장 아룩기야장(阿勒耶耶章), 제10장 아룩가략장(阿勒迦略章), 제11장 아룩가라장(阿勒迦攞章), 제12장 아룩가부장(阿勒迦嚩章), 제13장 아룩가마장(阿勒迦麼章), 제14장 아룩가나장(阿勒迦那章), 제15장 양가장(盪迦章), 제16장 글리장(訖里章), 제17장 아색가장(阿索迦章), 제18장 아파다장(阿波多章).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89) 강대현에서 각 장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진행하였으며, <표>는 『실담자기역해』, 2017, 26-27쪽을 참조하여, 로마자를 덧붙인 것이다.

고 청·탁이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迦’는 전청으로 무성 무기음일 경우 [ka], 유성 무기음에 대응할 경우 [ga]로 발음된다. 『悉曇字記』에서 ‘迦’는 “餘國有音疑可反”이라 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ŋa]로 발음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悉曇字記』 편찬 이전에 불공은 이미 유성 무기음 ‘𑖀’을 ‘誡’로 음역했다.

<표29> 편구성(遍口聲)

遍口聲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𑖀	也 (ya)	𑖀	囉 (ra)	𑖀	羅 (la)	𑖀	囉 (va)	𑖀	奢 (śa)
	𑖀	沙 (ṣa)	𑖀	娑 (sa)	𑖀	訶 (ha)	𑖀	濫 (llaṃ)	𑖀	叉 (kṣa)

『悉曇字記』序를 보면 지광이 반야보리에게서 실담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고, 꼼꼼히 살펴본 결과, 씨줄(杼), 날실(軸), 배(科)로써 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고, 오천축의 음은 楚夏(중국)와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운도의 형성에 실담장(悉曇章)이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⁹⁰⁾

2) 한어 중고음의 청·탁과 실담어의 무성음·유성음

(1) 불공(不空, 705-774)의 25 체문(자음) 한문 음역

『高麗大藏經』내에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 1권에 불공의 실담장 50자문을 제시하고 있다.⁹¹⁾ 이 중 25체문의 한자 음역 및 청탁을 <표30>에서 살펴도록 한다.

<표30> 불공의 25 체문 한문 음역의 청·탁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비음
牙聲	迦(上) ka	佉(上) kha	誡(上) ga	伽(去引) gha	仰(鼻呼) ŋa
中古	kʰja	kʰja	ŋa	gʰja	ŋjaŋ
清濁	全清	次清	次濁	全濁	次濁
齒聲	左 ca	磋(上) cha	惹 ja	鄼(去) jha	穰(上) ŋa

90) 이와 같은 실담장의 자모표의 형식은 한자의 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당시 중국인에게는 더할 수 없는 복음이었을 것이다. 운서가 유행하고 反切로 음을 익힌다 하지만, 반절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비효율적이던 차에 실담장의 틀을 빌어 가로는 성모를 세로는 운모를 함수로 하여 만든 도표에 모든 반절의 음을 집어넣어 중국어자모표(운도)를 만들었으니 반절에 비하여 얼마나 쉽게 또 정확히 음을 익힐 수 있었으랴.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97쪽.

91) 안주호,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연구」, 배달말 31권, 배달말학회, 2002, 177쪽.

中古	tsa	ts ^h a	ŋja	dz ^h uan	ŋ jaŋ
清濁	全清	次清	次濁	全濁	次濁
舌聲	吒 _(上) ʈa	咤 _(上) ʈha	拏 _(上) ɖa	茶 _(去) ɖha	拏 _(尼爽反) ŋa
中古	ʈa	ʈ a	n a	ɖ ^h a	n a
清濁	全清	次清	次濁	全濁	次濁
喉聲	多 _(上) ta	他 _(上) tha	娜 da	馱 _(去) dha	囊 na
中古	ta	t ^h a	n a	d ^h a	n aŋ
清濁	全清	次清	次濁	全濁	次濁
脣聲	跋 pa	頗 pha	摩 ba	婆 _(去重) bha	莽 ma
中古	p ua	p ^h ua	m ua	b ^h ua	m uo
清濁	全清	次清	次濁	全濁	次濁

불공 25체문의 한문 음역에서는 『悉曇字記』와 달리 한자의 음소 표기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 범어에는 있지만 한어에는 없는 음소를 표기하기 위한 방법을 체계화한 것으로 아음을 예로 들면 /ka/·/kha/·/ga/·/gha/·/ŋ/의 한자음은 迦·佉·譏·伽·仰로 음소 표기가 겹치지 않게 음역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자음의 청·탁이 범어의 무성음과 유성음에 명확히 대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무성 무기음과 무성 유기음은 한어 중고음의 전청과 차청에, 유성 무기음·비음은 차탁에, 유성 유기음은 전탁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2) 공해(空海, 774-835년)의 25 체문(자음) 한문 음역

지광의 『悉曇字記』는 宋 이후 중국 내에서 더이상 유행하지 않게 되었는데, 일본의 진언종의 개조인 공해(空海)에 의해 일본에 전해져, 종예(宗叡, 809-886)의 『悉曇私記』, 안연(安然, 841-901)의 『悉曇藏』, 순우(淳祐, 890-953)의 『悉曇集記』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실담학’이 정립되어 실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오늘날까지 계속 되고 있다.

<표31> 공해의 25 체문 한문 음역의 청·탁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비음
牙聲	迦 _(上聲呼) ka	佉 _(上呼) kha	哦 _(上呼) ga	伽 _(去重引) gha	仰 _(鼻聲呼) ŋa
中古	k ^h a	k ^h a	ŋa	g ^h a	ŋjaŋ
清濁	全清	次清	次濁	全濁	次濁
齒聲	遮 _(上聲) ca	磋 _(上聲) cha	惹 ja	鄒 _(上重) jha	穰 _(上聲) ŋa
中古	tsa	ts ^h a	ŋja	dz ^h uan	ŋ jaŋ
清濁	全清	次清	次濁	全濁	次濁
舌聲	吒 _(上聲) ʈa	咤 _(上) ʈha	拏 _(上) ɖa	茶 _(去重) ɖha	拏 _(尼爽反) ŋa
中古	ʈa	ʈ a	n a	ɖ ^h a	n a

清濁	全清	次清	次濁	全濁	次濁
喉聲	多(上) ta	他(上) tha	娜 da	馱 dha	囊 na
中古	ta	t ^h a	n a	d ^h a	n aŋ
清濁	全清	次清	次濁	全濁	次濁
脣聲	跛 pa	頗 pha	摩 ba	婆(重上呼) bha	莽 ma
中古	p ua	p ^h ua	m ua	b ^h ua	m uo
清濁	全清	次清	次濁	全濁	次濁

『悉曇字記』는 일본에 전해져 실담학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지만, 공해의 실담 자모에 대한 범한 대응 한자 음역은 불공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한자음의 청·탁이 범어의 무성음과 유성음에 명확히 대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은 중국 성운학을 바탕으로 하고, 음소 표기에서는 파스파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훈민정음에서 기본 글자를 설명할 때 사용된 ‘初發聲’이라는 용어도 종예(宗叡)의 『悉曇私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⁹²⁾ 훈민정음 창제에 범어의 영향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⁹³⁾

(3) 조선의 『眞言集』

동아시아에서 실담학이 『悉曇字記』를 중심으로 연구 전송된 데 비해, 조선에는 『悉曇字記』의 전적이 전해진 예는 없지만 그 대신 실담 범자를 연구한 전통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 시대에 간행된 『眞言集』으로, 이 『眞言集』에는 실담 범자의

92) 훈민정음 자음의 음가를 제시하는데 ‘初發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초발성’이라는 용어는 훈민정음 창제자의 독창으로 보기 어렵다. 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일본 종예(宗叡, 809-884)의 『실담사기(悉曇私記)』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발성’의 용어를 고찰함으로써 훈민정음과 범어실담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종예의 『실담사기』는 범어실담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지광(智廣)의 『실담자기(悉曇字記)』를 해석하는 책이다. ‘실담’이라는 것은 ‘실담장(Siddha vastu)의 줄인 말로서 『범장』(Brahama vastu)이라 이르는 綴字書의 제일장을 이룸인데 종래 이것을 범어 또는 범어의 대명사 같이 써 온 것이다(김윤경 1936). 동양에서 실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광이 찬술한 『실담자기』가 그 효시이고, 일본에서 실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실담학’의 전개는 『실담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안주호·이태승 2009). 섭보매, 「훈민정음의 음절합자 원리와 범어의 연관성에 대하여」, 『한국언어학회학술대회지』,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016, 181쪽.

93) 범자 음운에 대한 사상성의 적용은 이미 고대인도의 베다 등에서부터 유래하였지만, 특히 6세기 이후 인도의 밀교가 중국에서 크게 발달하면서 種子字로서의 성스러운 범자의 관념을 더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혜균이라는 백제의 승려가 지은 『大乘四論玄義記』에서 실담장을 기술한 「十四音義」가 최근에서야 발견되어 고대 한국에서 실담장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세 한국에서는 고려대장경[재조대장경]에서 실담범자가 나타나고 있고, 신라 義湘(625-702)의 『華嚴一乘法界圖』를 주석한 『法界圖記叢髓錄』에서 실담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강대현, 「『반야경』 범자 42자문의 반야공성 고찰」, 『한국불교선리연구원』, 19권, 선문화연구, 2015, 262쪽.

발음과 범자의 사상적 의미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전하고 있다. 『眞言集』에서 실담 범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 고려 시대를 통해 실담 문자에 대한 연구 내지는 서사의 전통이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⁹⁴⁾

① 안심사본 『眞言集』

안심사본 『眞言集』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진언집으로 1569년에 간행되었다. 1569년은 『訓蒙字會』(1527년) 간행 이후 42년이 지난 시점으로, 안심사본 『眞言集』에서는 『東國正韻』 한자음이 아닌 우리말 한자음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2> 안심사본 『眞言集』 훈민정음의 청·탁

		1행	2행	3행	4행	5행
아음	梵語	迦 ka	佉 kha	誡 ga	伽 gha	仰 ña
	中古	迦 ^{khja} 全清	佉 ^{khja} 次清	誡 ^{ŋa} 次濁	伽 ^{ghja} 全濁	仰 ^{ŋjaŋ} 次濁
	訓民	가 마 거 그	카 마 커 크	:아 :으 :어 :으	·가 ·마 ·거 ·그	·향 ·웅 ·영 ·웅
	東國	ㄱ 全清	ㅋ 次清	ㅇ 不清不濁	ㄱ 全清	ㅇ 不清不濁
치음	梵語	左 ca	差 cha	惹 ja	社 jha	攘 ña
	中古	左 tsa 全清	差 ^{tʃha} 次清	惹 ^{nja} 次濁	社 ^{zja} 全濁	攘 ^{njaŋ} 次濁
	訓民	자 즈 저 즈	차 츠 처 츠	:샤 :스 :셔 :스	·자 ·즈 ·저 ·즈	·샹 ·슉 ·영 ·슉
	東國	ㅈ 全清	ㅊ 次清	ㅇ 不清不濁	ㅈ 全清	ㅇ 不清不濁
설음	梵語	吒 ta	佉 tha	拏 da	茶 dha	囊 na
	中古	吒 ^{ta} 全清	佉 ^{tʰa} 次清	拏 ^{na} 次濁	茶 ^{dʰa} 全濁	囊 ^{naŋ} 次濁
	訓民	다 드 더 드	타 트 터 트	:나 :느 :너 :느	·다 ·드 ·더 ·드	·낭 ·농 ·녕 ·농
	東國	ㄷ 全清	ㅌ 次清	ㄴ 不清不濁	ㄷ 全清	ㄴ 不清不濁
후음	梵語	多 ta	佉 tha	那 da	馱 dha	娜 na
	中古	多 ^{ta} 全清	佉 ^{tʰa} 次清	那 ^{na} 次濁	馱 ^{dʰa} 全濁	娜 ^{na} 次濁
	訓民	다 드 더 드	타 트 터 트	:나 :느 :너 :느	·다 ·드 ·더 ·드	·낭 ·농 ·녕 ·농
	東國	ㄷ 全清	ㅌ 次清	ㄴ 不清不濁	ㄷ 全清	ㄴ 不清不濁
순음	梵語	波 pa	頗 pha	摩 ba	婆 bha	莽 ma
	中古	波 ^{pua} 全清	頗 ^{pʰua} 次清	摩 ^{mua} 次濁	婆 ^{bʰua} 全濁	莽 ^{muo} 次濁
	訓民	바 브 버 브	파 프 퍼 프	:마 :므 :머 :므	·바 ·브 ·버 ·브	·마 ·몽 ·명 ·몽
	東國	ㅂ 全清	ㅍ 次清	ㅁ 不清不濁	ㅂ 全清	ㅁ 不清不濁

안심사본 『眞言集』의 훈민정음 주음에서 전탁자를 확인할 수 없다. 범어의 유성 유기 음 및 한어 중고음의 전탁의 자리에 훈민정음의 전탁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

94)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시 우리말에서 훈민정음의 전탁자를 음운 자질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ㅇ(옛이응)’을 써야 할 자리에 ‘ㅇ’으로 주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ㅇ(옛이응)’은 범어의 ‘ga’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인데, ‘ㅇ(옛이응)’을 사용하지 않고 ‘ㅇ’을 사용함으로써 범어의 ‘ga’를 ‘아’로 표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② 망월사본 『眞言集』

한국에서의 실담 연구가 총체적으로 완성된 형태는 망월사본 『眞言集』으로, 이 망월사본의 범자 설명은 1777년에 간행된 만연사본 『眞言集』을 총체적으로 수정하여 완성된 실담 연구의 총 집성이라고 할 수 있다.⁹⁵⁾

<표33> 망월사본 『眞言集』 훈민정음의 청탁

		1행	2행	3행	4행	5행
아음	梵語	迦 ka	佉 kha	誡 ga	伽 gha	仰 ña
	中古	迦k ^h ja 全清	佉k ^h ja 次清	誡ŋa 次濁	伽g ^h ja 全濁	仰ŋjaŋ 次濁
	訓民	가 마 거 그	카 쿨 커 크	:아 :으 :어 :으	·까 ·까 ·꺼 ·끄	·앙 ·응 ·영 ·응
	東國	ㄱ 全清	ㅋ 次清	ㅇ 不清不濁	ㄱ 全濁	ㅇ 不清不濁
치음	梵語	左 ca	差 cha	惹 ja	社 jha	攘 ña
	中古	左 tsa 全清	差 tʃ ^h a 次清	惹 ŋja 次濁	社 zja 全濁	攘 ŋjaŋ 次濁
	訓民	자 즈 저 즈	차 츠 처 츠	:사 :스 :셔 :스	·짜 ·쯔 ·져 ·쯔	·샹 ·응 ·영 ·응
	東國	ㅈ 全清	ㅊ 次清	ㅇ 不清不濁	ㅈ 全濁	ㅇ 不清不濁
설음	梵語	吒 ta	佗 tha	拏 da	茶 dha	囊 na
	中古	吒 t ^h a 全清	佗 t ^h a 次清	拏 na 次濁	茶 d ^h a 全濁	囊 naŋ 次濁
	訓民	다 드 더 드	타 투 터 트	:나 :느 :너 :느	·따 ·땨 ·떠 ·뜨	·낭 ·응 ·영 ·응
	東國	ㄷ 全清	ㅌ 次清	ㄴ 不清不濁	ㄷ 全濁	ㄴ 不清不濁
후음	梵語	多 ta	佗 tha	那 da	馱 dha	娜 na
	中古	多 ta 全清	佗 t ^h a 次清	那 na 次濁	馱 d ^h a 全濁	娜 na 次濁
	訓民	다 드 더 드	타 투 터 트	:나 :느 :너 :느	·따 ·땨 ·떠 ·뜨	·낭 ·응 ·영 ·응
	東國	ㄷ 全清	ㅌ 次清	ㄴ 不清不濁	ㄷ 全濁	ㄴ 不清不濁
순음	梵語	波 pa	頗 pha	摩 ba	婆 bha	莽 ma
	中古	波 pua 全清	頗 p ^h ua 次清	摩 mua 次濁	婆 b ^h ua 全濁	莽 muo 次濁
	訓民	바 브 버 브	파 프 퍼 프	:마 :므 :머 :므	·빠 ·뵤 ·뵤 ·뵤	·마 ·몽 ·명 ·몽
	東國	ㅂ 全清	ㅍ 次清	ㅁ 不清不濁	ㅂ 全濁	ㅁ 不清不濁

망월사본 『眞言集』은 훈민정음 주음에 있어 『東國正韻』 한자음의 음운 체계를 사용하여 수정한 것으로, ‘ㅇ(옛이응)’과 전탁자의 사용이 부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월사본 『眞言集』을 따를 경우 四聲七音 체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범한대음의 한자를 훈민

95)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음으로 주음할 때도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해진다.

안심사본 『眞言集』에서 전탁자의 사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망월사본 『眞言集』에서 전탁자 ‘ㄱ, ㄷ, ㄹ, ㅁ’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말 위주로 어음을 반영하고 있는 안심사본 『眞言集』에서 전탁자의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1500년대에 한글의 된소리는 음성적으로는 확인되었을지 몰라도 문자 생활에서 음운 자질로는 인식되지 못했을 것이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부활시키고 있는 망월사본 『眞言集』에서 전탁자 ‘ㄱ, ㄷ, ㄹ, ㅁ’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1700년대 말에도 훈민정음의 전탁자는 현재의 된소리에 해당하는 음운 자질로는 인식되거나 의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東國正韻』 한자음을 부활시켰다는 뜻은 전탁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전탁자에 담긴 음운 자질은 청음에 대비되는 탁음으로서, 한글의 된소리가 지닌 음운 자질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4. 『東國正韻』 한자음

『東國正韻』은 1447년(세종29년)에 완성된 훈민정음으로 주음한 최초의 운서이다. 『東國正韻』에서는 우리말 한자음뿐만 아니라, 중국 한자음도 일정 부분 교정의 방식으로 훈민정음으로 주음하고 있어, 훈민정음 창제자인 세종이 훈민정음에서 의도한 소리의 원형 및 세종이 생각한 바른 한자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연구할 수 있게 해준다. 『東國正韻』에 수록된 한국 한자음은 反切, 韻書, 韻圖 등 중국 성운학을 기초로 주음되고 있어 현재 한국 한자음의 모습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린다. 하나는 『東國正韻』은 현실음을 바탕으로 주음한 것으로 정음의 기준을 중국 한자음에 맞춰 일정 부분 교정을 가한 운서라는 것이고,⁹⁶⁾ 다른 하나는 『東國正韻』이 당시 현실음 중심이 아닌 운서와 운도로 만들어진 이상적인 운서라는 것이다.⁹⁷⁾ 『東國正

96) 1972년 이후 연구의 특색은 무엇보다 『東國正韻』과 15세기 현실한자음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姜信沆(1992, 1997년)에 힘입은 바 있다. 姜信沆(1997년)은 『東國正韻』 음운 체계가 15세기 현실한자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전 시기 연구와는 차별을 둬으로써 『東國正韻』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었다. 차익중, 「東國正韻式 漢字音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8쪽.

97) 끝내 조선의 한자음을 ‘正道’로 이끌지 못한 것은, 당시의 현실음 중심이 아닌 韻書와 韻圖로부터 만들어진 체계였기 때문이다. 이현선, 『『東國正韻』 한자음 연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韻』 한자음은 겉으로 보기에 분명 현재 한국 한자음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일면을 하나씩 걷어내 보면 세종과 집현전 학자의 음성·음운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 한자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한자음에 대한 정보를 일정 부분 추가하는 방식으로 주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이 과거시험에 활용된 것으로 보아,⁹⁸⁾ 『東國正韻』은 단순히 한국 한자음만을 기록할 목적을 넘어 중국 운서의 기능까지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작시(作詩)를 할 때는 운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어 중고음의 운미를 기준으로 세종 시기에 우리말 한자음은 [-t]가 [-l]로 변해 있었고, 한어 중고음의 운미 [-u(w)]는 우리말 한자음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東國正韻』에서 ‘ㅈ’·‘ㅉ’을 사용하여 한어 중고음의 운미까지 주음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ㅇ’을 ‘ㅈ’의 일부로 설내입성으로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한국 한자음 ‘ㄹ’과 구분되도록 설계한 것과 ‘ㅉ’를 한국 한자음의 중성(ㄱ, ㅋ, ㆁ, ㆅ) 아래에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설계한 것이다. 또한 ‘ㅇ’은 중성자와 결합하고 있는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東國正韻』의 중성 8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8개와 명확한 대응 관계를 이룬다.

『東國正韻』은 과거시험에 활용된 예를 제외하고 대부분 불경언해와 국문 불경에 활용되었다. 『東國正韻』 편찬의 외면적 동기로는 성리학의 음양오행의 이론에 입각하여 만든 운서를 통해 한자의 정음을 국음화하여 조정과 유교계에 적극적으로 유통·보급하고, 나아가 일반 대중에게 정음 표기를 통하여 정음과 함께 한자음을 익히고, 의미까지 파악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면적 동기로는 국문 불경이나 불경언해의 한자음을 주음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인도의 범어 원전을 한역한 원음을 한자음으로 음사한 진언·다라니 등은 국역할 때에 반드시 그 원음·한자음을 그대로 전사해야 하기에, 『東國正韻』 한자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⁹⁹⁾

96쪽.

『東國正韻』은 편집 방침과는 달리 송나라 등운학과 명나라 『洪武正韻』의 언어 정책을 지나치게 따랐으므로 현실음과 거리가 있는 규범적인 우리 한자 발음 사전으로 남게 되었다. 『東國正韻』의 한자음은 불경 언해서의 한자음 표기를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가 16세기 초기부터는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박형익, 『한국사전의 역사』, 역락, 2012, 170쪽.

98) 예조(禮曹)에서 진사(進士)의 시취 조건(試取條件)을 아뢰었다. [중략] 『동국정운(東國正韻)』은 이미 고금(古今)의 운서(韻書)를 참작하여 정한 것이므로 운(韻)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障礙)가 없으니, 빌건대 『예부운(禮部韻)』과 같이 대략 주해(注解)를 내어서 거자(擧子)로 하여금 압운(押韻)하는 데 쓰도록 하소서.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4일,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99) 사계동, 『纂經 『東國正韻』의 編緯와 活用樣相 史在東』, 『국학연구론총』, 제13권, 태민국학연구원, 2014, 11-12쪽.

1) 『東國正韻』

(1) 선행 연구

『東國正韻』과 중국 운서·운도의 비교 연구는 홍기문(1946년), 김철현(1958년), 유창균(1965년), 남광우(1966년), 이동립(1967년) 등에서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유창균은 『東國正韻』과 각종 운도 및 『韻會』의 字母韻을 비교하여 대응 관계를 살펴냈는데, 『東國正韻』의 편찬은 『韻會』의 자모운의 성질과 완전히 부합함을 알 수 있다고 하여, 『七音略』이나 『切韻指掌圖』, 『聲音唱和圖』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유력한 배경으로 『韻會』에 나타난 字母韻을 꼽았다. 즉 『東國正韻』의 韻目에 채택된 字韻은 『韻會』의 字母韻에 해당하고 그것은 동시에 等韻圖에 근원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十五攝의 분류나 91韻의 설정이 전통적인 운서나 等韻의 분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¹⁰⁰⁾

이에 대한 반론으로 차익중은 “제1운류인 ‘扼, 肯, 巨, 亟’은 (성조와 성모를 제외하면) ‘응, 옥, 익, 잉, 익’이라는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韻會』의 字母韻은 ‘扼, 京, 經’으로 이들의 재구음은 각각 ‘əŋ, ɪəŋ/iəŋ, ɪəŋ/iəŋ’이다. 『東國正韻』이 실제로 『韻會』의 字母韻을 참고했다면, 『東國正韻』 음은 ‘영, 영’으로 나타나야 했을 것이지만, ‘영, 영’이라는 한자음은 『東國正韻』의 제7운류인 ‘京景敬隔’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불일치하는 현상은 91韻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여 『韻會』를 『東國正韻』의 저본으로 지적할 경우, 이는 『韻會』의 자모운이 『東國正韻』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표면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¹⁰¹⁾

강신항은 『東國正韻』의 음운체계는 15세기 현실 한자음에 대응하는 면이 많다고 했으며,¹⁰²⁾ 이현선은 韻書·韻圖에 의해 형성된 『東國正韻』의 漢字音은 당시의 현실음을 반영했다고는 할 수 없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체계이며, 分韻 기준에 대해서 거의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하여, 조선의 잘못된 한자음을 바로 잡고자 했으나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쓰이지 않았던 것은 현실음과는 동떨어진 체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¹⁰³⁾

100) 유창균, 「東國正韻研究-其二, 九十一韻의 成立과 그 背景」, 『진단학보』, 제28호, 진단학회 1965.

101) 차익중, 「東國正韻式 漢字音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4쪽.

102) 강신항, 조운성 등이 지적한 대로 『東國正韻』의 음운체계는 『韻會』의 자모운(속 체계)이 아니라 15세기 현실한자음에 대응하는 면이 많다. 차익중, 「東國正韻式 漢字音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4쪽.

103) 이현선, 『『東國正韻』 한자음 연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東國正韻』의 체계는 『韻會』를 바탕으로 할지라도, 음운 체계는 근고음으로 대표되는 『韻會』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한어 중고음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권혁준은 『東國正韻』의 한자음이 『韻會』의 字母韻보다는 반절음에 대응하며, 시기적으로 중고 후기의 중국어와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¹⁰⁴⁾ 박경송은 『東國正韻』 한자음과 한어 중고음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간략히 비교하여 조선 전기 음운학자들이 제시한 음가는 몇몇 자모 이외에 모두 중국음인 字音에 대해 우리말 어음체계에 맞게 대역한 한자음이라고 했다.¹⁰⁵⁾ 왕옥지는 『東國正韻』의 음운체계가 『蒙古字韻』과 깊은 관계가 없으니, 『蒙古字韻』의 음운체계와 거의 일치하는 『韻會』의 내적음운체계와도 관계를 맺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했다.¹⁰⁶⁾

조운성은 『東國正韻』의 운모 체계는 『大宋重修廣韻』과 『集韻』의 206운, 『韻會』의 韻類와 字母韻, 그리고 당시 현실 한자음의 중성 및 중성과 비교하면, 당시의 현실음을 바탕으로 하되 개합과 운미, 그리고 특수한 자에 한해서만은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였고, 운모 체계를 중고음과 비교한 결과 『東國正韻』의 한자음은 唐 말의 長安音이 그 기초가 되었다고 추정했다.¹⁰⁷⁾ 또한 『集韻』(그리고 『韻會』)의 반절하자를 계련하여 얻은 296류가 보여주는 운모 체계의 특징을 중심으로, 『東國正韻』의 192운류와 전반적으로 비교해보았는데, 그 결과 4등 아·후음이 세음으로 반영되는 등 일부 대응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東國正韻』의 음운 체계는 『韻會』의 반절을 따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차익중은 『東國正韻』과 『韻會』를 비교 연구하여, 한자음의 관계를 운서의 영향 관계 중 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수록자의 획정에 관계되었다는 점만으로 『韻會』가 『東國正韻』의

104) 차익중, 「東國正韻式 漢字音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9쪽.

105) 박경송, 「『東國正韻』에 나타난 조선음운학자들의 중고한어 음운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15권, 한국중국언어학회, 2002.

106) 왕옥지, 「『동국정운』과 『몽고자운』의 실제분운체계 비교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3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8.

107) 첫째 1등운과 2등운이 거의 대부분 합쳐져 있다. 둘째 4등운은 3등운과 나뉘지 않는다. 그리고 중뉴(重紐)가 일부 남아 있으며, 3등운은 설·치음의 A류와, 아·순·후음의 B류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莊계는 대부분 같은 섭(攝)의 1등운과 합쳐지거나 독립되었다. 넷째 3등운인 東3운의 순음이 같은 섭의 1등운과 합쳐졌다. 다섯째 江섭과 宕섭이 합쳐졌는데, 江운의 知·莊계와 來모는 합구가 되었다. 여섯째 果섭과 假섭이 합쳐졌는데, 馬3운과 戈3운 개구는 독립되어 ‘양’로 주음된다. 일곱째 순음을 빼면 淸섭과 梗섭의 개구는 뚜렷이 구분되지만, 합구는 대부분 섞여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어 중고 음에서 근대음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보이는 것으로, 앞으로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명확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당(唐)말의 장안음(長安音)이 그 기초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조운성, 「『동국정운』 한자음의 성모와 운모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쪽.

底本이라 개념화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또한 『韻會』를 『東國正韻』의 저본으로 지적할 경우, 이는 『韻會』의 자모음이 『東國正韻』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표면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¹⁰⁸⁾

(2) 편찬자 및 편찬 경위

『東國正韻』의 편찬과 관련하여 『韻會』의 번역본을 탈바꿈시킨 것이 『東國正韻』 편찬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이 알려졌지만,¹⁰⁹⁾ 훈민정음 창제 이후 『韻會』의 번역을 명했다는 사실 외에, 편찬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현재로서는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설령 『韻會』의 번역본을 탈바꿈시킨 것이 『東國正韻』 편찬으로 이어졌다 할지라도, 반대로 그것은 『韻會』의 한자음이 세종이 생각하는 정음과 달라 우리의 운서를 우리의 기준으로 편찬함과 동시에 정음이라 여겨지는 것을 지켜내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韻會』 번역 사업은 잠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韻會』 번역에 대한 어떤 記事도 문헌에 나오지 않거니와, 그 이후 발간된 『洪武正韻譯訓』도 『韻會』와 큰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 이 사업을 지시한 직후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올린 일도 있었지만, 유생들의 반대보다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번역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본래 중국 운서에서 한자음을 표시하는 주요 방법은 반절이었기 때문에, 『韻會』의 번역이란 곧 새로 만든 훈민정음으로 이 반절을 표음하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절을 그대로 표음하는 것은 『韻會』가 나타내는 중국 한자음을 그대로 한국어 문자로 옮기는 것일 뿐, 한국에서 구현할 한자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세종과 운회 번역자들은 『韻會』의 한자음이 당시 한국 현실음과 너무도 양상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당시 중국에서 ‘正音’을 지향하여 편찬된 『洪武正韻』과 큰 거리가 있으므로 한자음의 표준을 정립하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과 『韻會』 번역자들은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조

108) 차익중,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문헌 속의 동국정운 미수록자(未收錄字)와 그 주음(注音)」, 『관악어문연구』, 제37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2, 158쪽.

109) 『東國正韻』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韻會』의 번역본을 탈바꿈시킨 것이 『東國正韻』일 가능성이 있다. 즉, 『韻會』의 반절음을 우리나라 음으로 번역하여 훈민정음으로 표음하고, 훈민정음의 초성 차례에 따라 글자들의 배열을 바꾸어놓은 것이 『東國正韻』이라는 것이다.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의 전승 한자음을 철저히 분석하여 새로운 운서를 만드는 일로써, 『東國正韻』이 그 결실이었다. 둘째, 번역의 대상을 『洪武正韻』으로 바꾸어, 『洪武正韻譯訓』을 발간한 것이다. 이로써 세종은 조선의 현실 한자음을 교정하기 위한 『東國正韻』과 중국과 통교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한자음을 정리한 『洪武正韻譯訓』이라는 두 가지 결실을 얻게 되었다. 세종 27년 1월부터 신숙주 등을 요동에 보내 성운학과 중국음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했던 것도 이 두 가지 사업을 겸하기 위한 것이었다(정경일 2000).¹¹⁰⁾

『東國正韻』의 23자모의 청·탁과 운미는 한어 중고음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는 『廣韻』의 41성모 및 반절상자와 명확히 대응한다. 한자음을 규정하는 것이 운서의 본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東國正韻』에서 목표로 한 정음은 절운계 운서로 대표되는 한어 중고음일 것이다.

(3) 불교와 『東國正韻』 한자음

창제 당시의 훈민정음이 원형으로 사용된 『東國正韻』 한자음은 주로 불경언해에 활용되었다. 불경언해의 기록 및 세조 사후 진행된 권력의 이동을 살펴봤을 때, 원형으로서의 『東國正韻』 한자음은 세조까지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59년의 『月印釋譜』는 『東國正韻』 한자음이 사용된 대표적인 서적이다. 세조 7년인 1461년에는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여 불경 간행을 주도했는데,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서적은 『東國正韻』 한자음으로 언해한 것으로, 아래 <표34>¹¹¹⁾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34> 초기 불경언해의 초간본과 중간본

왕 이름	연도	초간	중간
세종	1447(세종29)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1449(세종31)	『사리영응기』	
세조	1459(세조5)	『월인석보』, 『몽산법어언해』 * 간경도감 설치	
	1461(세조7)	『능엄경언해』, 『아미타경언해』	
	1462(세조8)	『능엄경언해』	
	1463(세조9)	『법화경언해』	
	1464(세조10)		『영가집언해』, 『아미타경언해』, 『금강경언해』, 『반야심경언해』,

110) 차익중, 『東國正韻式 漢字音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6쪽.

111) 김슬옹,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2015, 68쪽.

			『상원사중창권선문』
	1465(세조11)	『원각경언해』, 『원각경구결』 ¹¹²⁾	
	1467(세조13)	『목우자수심결언해』, 『사법어언해』	
성종	1471(성종 2)	* 간경도감 폐지	
	1472(성종 3)		『법화경언해』, 『능엄경언해』, 『원각경언해』, 『반야심경언해』, 『몽산법어』, 『사법어언해』, 『영가집언해』
	1476(성종 7)	『오대진언』·『영험약초』	
	1482(성종13)	『금강경삼가해』, 『남명집언해』	
	1485(성종16)	『불정심경언해』	『오대진언』·『영험약초』
연산군	1495(연산군1)		『법화경언해』, 『능엄경언해』, 『금강경언해』, 『반야심경언해』, 『영가집언해』, 『월인석보』
	1496(연산군2)	『육조법보단경언해』, 『진언권공』·『삼단시식문』	

세조 사후, 1471년 성종이 즉위하자 간경도감(刊經都監)은 이듬해 곧 폐지되었고, 이후 성종을 왕으로 만든 여성 지식인이자 권력자인 인수대비에 의해 『東國正韻』 한자음은 우리말 한자음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성종 시기의 『五大眞言』은 『東國正韻』 한자음을 따르지 않은 최초의 서적이라 평가받으며, 『靈驗略抄』, 『南明集諺解』 등에는 『東國正韻』 한자음이 우리말 한자음으로 변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인다. 연산군 시기의 『六祖法寶壇經諺解』는 우리말 한자음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¹¹³⁾

(4) 음운체계

『東國正韻』의 음운체계는 91운 23자모로 대표되며,¹¹⁴⁾ 『東國正韻』 한자음과 한어 중고

112) 『원각경구결(圓覺經口訣)』은 편찬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113) 이 언해본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현실 한자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책 간행 이전에도 단편적으로 현실 한자음이 쓰이기는 하였다.) 국어사 자료로서의 특징을 대략 말하면, 첫째 방점 표기는 일관성이 없으며, 둘째 초기 훈민정음 문헌에 쓰였던 ‘병, ㅇ’자와 각자병서 날자가 모두 사라졌으며, 셋째 합용병서 날자 ‘시, 시, 씨, 비, 비, 씨, 비’ 등은 쓰였으나, ‘시, 씨’은 보이지 않으며, 넷째 중성 표기는 훈민정음 해례 중성해에 규정한 8중성과 ‘△’이 쓰였으며, 다섯째 사잇소리 글자는 ‘ㅅ’으로 동일되었으며, 여섯째 분절(分綴)표기가 일부에서 보인다. 김무봉, 『역주육조법보단경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 2쪽.

114) 『東國正韻』의 序: 乃因古人編韻定母, 可併者併之, 可分者分之, 一併一分、一聲一韻, 皆稟宸斷, 而亦各有考據. 於是調以四聲, 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 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 이에 사성(四聲)으로써 조절하여

음과의 대응 관계는 명확하다. 박경송에서 작성한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 한어 중고음의 섭의 대조 표¹¹⁵⁾를 참조하여, 『東國正韻』 91운(26운류)과 한어 중고음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35> 『東國正韻』 91운(26운류)

	『東國正韻』韻目	『東國正韻』字音	한어 중고음	중성·중성
1	捩 肯 亘 亟	궁 : 궁 · 궁 · 곡	登蒸庚(二)耕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2	觥 礦 橫 貌	굉 : 굉 · 횡 · 괴	梗攝(合口)	ᄃᆞᆫ ᄃᆞᆫ
3	肱 國	굉 · 괴	曾攝(合口)	ᄃᆞᆫ ᄃᆞᆫ
4	公 拱 貢 穀	궁 : 궁 · 궁 · 곡	東冬鐘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5	江 講 絳 覺	강 : 강 · 강 · 각	江攝·宕攝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6	弓 重 誇 匆	궁 : 뽕 · 쿵 · 곡	東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7	京 景 敬 隔	경 : 경 · 경 · 격	庚(三)淸靑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8	根 懇 良 訖	근 : 근 · 근 · 굽	痕臻眞欣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9	昆 袞 論 骨	곤 : 곤 · 곤 · 굽	魂	ᄃᆞᆫ ᄃᆞᆫ
10	干 筭 吁 葛	간 : 간 · 간 · 갱	寒桓山刪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11	君 攬 擻 屈	군 : 군 · 군 · 굽	臻攝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12	鞬 蹇 建 訖	견 : 견 · 견 · 겹	山攝(三四)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13	簪 痒 譖 戢	즘 : 슴 · 즈 · 즈	深攝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14	甘 感 紺 閤	감 : 감 · 감 · 갑	咸攝(一二)	ᄃᆞᆫ ᄃᆞᆫ
15	箝 檢 劔 劫	검 : 검 · 검 · 겁	咸攝(三四)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16	高 杲 誥	굉 : 굉 · 굉	效攝	ᄃᆞᆫ ᄃᆞᆫ
17	鳩 九 救	궁 : 궁 · 궁	流攝	ᄃᆞᆫ ᄃᆞᆫ
18	賁 紫 恣	중 : 중 · 중	止攝(開口)· 咍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19	傀 隗 儉	굉 : 횡 · 굉	蟹攝(合口)	ᄃᆞᆫ
20	佳 解 蓋	개 : 개 · 개	蟹攝(一二)	ᄃᆞᆫ ᄃᆞᆫ
21	媯 軌 媿	굉 : 굉 · 굉	止攝	ᄃᆞᆫ ᄃᆞᆫ
22	雞 啓 闕	개 : 쨌 · 쨌	蟹攝(三四)	ᄃᆞᆫ ᄃᆞᆫ
23	孤 古 顧	공 : 공 · 공	模	ᄃᆞᆫ
24	歌 哿 箇	강 : 강 · 강	果·假攝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25	拘 矩 屨	궁 : 궁 · 궁	虞	ᄃᆞᆫ ᄃᆞᆫ
26	居 舉 據	경 : 경 · 경	魚	ᄃᆞᆫ ᄃᆞᆫ

『東國正韻』의 체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운의 배열 순서이다. 운은 평·상·거·입의 ‘운류’로 묶여 중성의 아·설·순·(치)¹¹⁶⁾·후의 순으로 배열되고 있으며, 각 운은 훈민

91운(韻)과 23자모(字母)를 정하여 가지고 어제(御製)하신 훈민정음으로 그 음을 정했다.
115) 박경송, 「『東國正韻』에 나타난 조선음운학자들의 중고한어 음운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15권, 한국중국어학회, 2002, 331-332쪽.

정음으로 주음되고 있다. 같은 운미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攝(섭)’의 개념을 적극 도입한 것으로 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임을 알게 해준다.¹¹⁷⁾ 같은 섭 내에서 한자음의 배열은 중성·초성의 순서이다.

제1운류에서 제7운류까지는 양성운 [-ŋ]이며, 입성운은 [-k]가 된다. 양성운 [-ŋ]과 입성운 [-k]의 음성적 관계에 대해, 청대의 학자 戈載는 양성운 [-ŋ]을 ‘穿鼻’라고 명명했는데, 穿鼻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k]로 끝을 맺는 운을 일컫는 것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고 했고, 근대의 唐鉞給은 [-k]를 별도로 ‘嚥喉’라 했다. 반면, 세종은 일찌감치 양성운 [-ŋ]과 입성운 [-k]의 음성적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아음 ‘ㅇ(옛이음)’은 ‘ㄱ’과 짝이 되어 ‘ㅇ(옛이음)’을 급하게 내면 ‘ㄱ’으로 변하고, ‘ㄱ’을 느리게 발음하면 ‘ㅇ(옛이음)’으로 변한다.”¹¹⁸⁾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ㅇ(옛이음)’과 ‘ㄱ’으로 문자화하여 조음 원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ŋ]과 [-k]의 조음 원리에 관한 세종의 설명은 음운의 영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음운을 음성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제8운류에서 제12운류까지는 양성운 [-n]이며, 입성운은 [-t]가 된다. 『東國正韻』에서는 우리말 한자음의 중성 ‘ㄹ’ 옆에 ‘ㅎ’을 사용하여, 한어 중고음의 설내입성 [-t]를 ‘ㄹ’로 표기하고 있다.

제13운류에서 제15운류까지는 양성운 [-m]이며, 입성운은 [-p]가 된다.

제16운류에서 제17운류까지는 음성운 [-u(w)]이다. 『東國正韻』에서 한어 중고음의 效攝과 流攝의 운미 [-u(w)]를 표기하기 위해, 순경음 ‘몽’을 우리말 한자음에 덧붙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운류에서 제22운류까지는 음성운 [-i]이다. 止攝에는 음성 운미 [-i]가 일률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蟹攝에서는 음성 운미 [-i]를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한어 중고음의 음성 운미 [-i]를 표기하기 위해, 중성자와 결합하는 ‘-’를

116) 한자음 주음에서 치음은 중성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117) 운서의 편찬 목적은 어디까지나 문인들의 작시의 押韻 참고용이므로 『切韻』은 齊梁陳詩의 押韻 습관을 규범적으로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原本 『玉篇』, 玄應의 『一切經音義』뿐 아니라 음률을 엄격히 추구하는 永明體 같은 시문체의 韻類와도 일치했을 것이다. 그들이 추구한 남북과 고금을 통섭하는 이상적인 표준음체계의 재구는 口語보다는 讀書音에 근거했을 것이 분명하다. 讀書音은 보다 보수적이므로 보다 古音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보다 보편적으로 널리 통용되어 『切韻』 편찬자들의 주요과제였던 ‘南北是非, 古今通塞’ 문제의 해결도 비교적 수월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52-53쪽.

118)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如牙之ㅇ與ㄱ爲對，而ㅇ促呼則變爲ㄱ而急，ㄱ舒出則變爲ㅇ而緩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3운류에서 제26운류까지는 음성운 果攝·遇攝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 학계에서는 이를 특정 운미로 다루지 않는다. 한어 중고음에서 운미라고 하는 것은 단운모가 아닌, 주요원음 뒤에 오는 輔音 혹은 元音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어 중고음의 운미는 8개이다.

‘섭’이라는 용어는 후기 운도인 『四聲等子』에서 최초로 확인할 수 있지만, 『東國正韻』에서 섭의 개념을 활용했다고 해서 『東國正韻』에서 지향하는 한자음이 곧 후기 중고음을 뜻한다고 할 수는 없다. 『東國正韻』 편찬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자료를 통해, 특정 시기의 중고음이 아닌, 예로부터 전해져 온 중고음을 정음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東國正韻』에서 운도를 활용하여 『廣韻』의 운모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4·5·6·7·12·15·24·26운류에서 보이는 ‘ㄱ’ 혹은 ‘ㅋ’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ㄱ’와 ‘ㅋ’는 개음 [j]를 확인하고 있는 증거로서, 운도를 통한 운모의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東國正韻』 서문의 “‘東’운을 ‘冬’운에도 쓰고, ‘江’운을 ‘陽’운에도 씬과 같은 따위이니, 어찌 운(韻)이 구별된다하여 서로 통하여 맞추지 못할 것이라.”¹¹⁹⁾는 개음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개음이 달라도 결국 ‘운’은 같다고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東國正韻』 한자음 어디에서도 개음 [-i-]에 관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i-]는 『東國正韻』 한자음과 월어에서는 주요원음으로만 받아들여졌다. 계속해서 아래 <표36>을 통해 『東國正韻』 23자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36> 『東國正韻』 23자모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	전청	전탁
아음	君 ㄱ	快 ㅋ	虬 ㄱ	業 ㅇ		
설음	斗 ㄷ	吞 ㅌ	覃 ㄷ	那 ㄴ		
순음	弊 ㅍ	漂 ㅍ	步 ㅍ	彌 ㅍ		
치음	卽 ㅈ	侵 ㅉ	慈 ㅉ		戍 ㅈ	邪 ㅉ
후음	挹 ㅎ	虛 ㅎ	洪 ㅎ	欲 ㅎ		

119) 蓋古之爲詩也，協其音而已。自三百篇而降，漢、魏、晉、唐諸家，亦未嘗拘於一律，如東之與冬、江之與陽之類，豈可以韻別而不相通協哉! 대개 옛적에 시(詩)를 짓는 데에 그 음을 맞출 뿐이었는데, 3백편(三百篇)으로부터 내려와 한(漢)·위(魏)·진(晉)·당(唐)의 모든 작가(作家)도 또한 언제나 같은 운율에만 구애하지 아니 하였으니, ‘동(東)’운을 ‘동(冬)’운에도 쓰고, ‘강(江)’운을 ‘양(陽)’운에도 씬과 같은 따위이니, 어찌 운(韻)이 구별된다 하여 서로 통하여 맞추지 못할 것이라.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반설				閏 ㄹ		
반치				穰 △		

훈민정음 초성 17자에 각자병서(各字並書) 6글자를 더하면 『東國正韻』 23자모와 일치하게 된다. 『東國正韻』 23자모의 四聲七音 체계는 중고 한어 36字母와 동일하며, 다만 『東國正韻』에서 중순·경순, 설두·설상, 치두·정치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음에서 4개 자모, 설음에서 4개 자모, 치음에서 5개 자모, 총 13개의 자모를 제외시키면 『東國正韻』 23자모가 된다. 『東國正韻』 23자모의 四聲七音은 중고 한어 36字母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東國正韻』 23자모에서 성모의 한자를 중고 한어 36字母와 다르게 한 것은, 중순·경순, 설두·설상, 치두·정치에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東國正韻』 23자모의 성모의 한자를 중고 한어 36字母와 같게 할 경우, 순음·설음·치음에서 중순·경순, 설두·설상, 치두·정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東國正韻』에서 순음·설음·치음에서의 分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우리말에서 구분되지 않기 때문으로, 『東國正韻』 서문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且字母之作，諧於聲耳。如舌頭舌上、唇重唇輕、齒頭正齒之類，於我國字音，未可分辦，亦當因其自然，何必泥於三十六字乎？

자모(字母)를 만든 것이 소리에 맞출 따름이니, 설두(舌頭)·설상(舌上)과 순중(唇重)·순경(唇輕)과 치두(齒頭)·정치(正齒)와 같은 따위인데, 우리 나라의 글자 음에는 분별할 수 없으니 또한 마땅히 자연에 따라 할 것이지, 어찌 꼭 36자(三十六字)에 구애할 것이라.

『東國正韻』의 序에서 『東國正韻』 편찬자가 자모의 分韻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청·탁에 관해서는 엄격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東國正韻』의 序에서 발췌한 것은 다음과 같다.

我國語音，其清濁之辨，與中國無異，而於字音獨無濁聲，豈有此理
우리나라의 말소리에 청탁(淸濁)의 분별이 중국과 차이가 없는데, 글자음에는 오직 탁성(濁聲)이 없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 것인가.
莫不受天地之氣，而聲音，生於氣者也。淸濁者，陰陽之類，而天地之道也

사람이 날 때에 천지의 가운을 받지 않은 자가 없는데 성음(聲音)은 기운에서 나는 것이니, 청탁(淸濁)이란 것은 음양(陰陽)의 분류(分類)로서 천지의 도(道)이요,

自正音作而萬古一聲，毫釐不差，實傳音之樞紐也。 淸濁分而天地之道定

훈민정음이 제작됨으로부터 만고(萬古)의 한 소리로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실로 음(音)을 전하는 중심줄[樞紐]인지라. 청탁(淸濁)이 분별되매 천지의 도(道)가 정하여진다.

계속해서 『東國正韻』 23자모의 청·탁, 한어 중고음의 청·탁, 월어의 음조·양조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겠다.

2) 한어 중고음의 청·탁과 『東國正韻』 23자모의 청·탁

(1) 한어 중고음의 청·탁, 월어의 음조·양조, 『東國正韻』 23자모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청·탁, 『東國正韻』 23자모의 청·탁, 월어의 음조·양조가 명확한 대응관계를 보임을 아래 <표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37> 한어 중고음의 청·탁, 『東國正韻』의 청·탁, 월어의 음조·양조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전청자를 기준으로 『東國正韻』 23자모의 전청자, 월어의 음조의 대응 관계를 아래 <표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廣'은 『廣韻』 41성모의 반

절상자, ‘粵’은 월어의 성조, ‘東’은 『東國正韻』의 자모를 가리킨다.

<표38>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전청자, 월어의 음조, 『東國正韻』 전청자 비교

1	見	廣	見	古	公	過	各	格	兼	姑	佳	詭	居	舉	九	俱	紀	幾
		粵	3	2	1	1	3	3	1	1	1	2	1	2	2	1	2	2
2	端	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廣	端	都	丁	多	當	得	德	冬								
3	知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廣	知	陟	竹	知	張	中	猪	徵	追	卓	珍					
4	幫	東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廣	幫	博	北	布	补	邊	伯	百	巴	哺						
5	非	東	*	ㅍ	ㅍ	ㅍ	*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廣	非	方	甫	府	必	彼	卑	兵	分	封	并	笔	界	鄙		
6	精	東	*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廣	精	子	即	作	則	將	祖	臧	資	姉	遵	茲	借	醉		
7	心	東	*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廣	心	蘇	息	先	相	私	思	桑	素	斯	辛	司	速	雖	悉	寫
8	莊	東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廣	莊	側	莊	阻	鄒	簪	仄	爭								
9	疏	東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廣	疏	所	山	疎	色	數	砂	沙	疏	生	史					
10	照	東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廣	照	之	職	章	諸	旨	止	脂	征	正	占	支	賁			
11	審	東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廣	審	式	書	失	舒	施	傷	識	賞	詩	始	試	矢	矢	商	
12	影	東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廣	影	烏	伊	一	安	烟	鷺	愛	挹	哀	握	於	乙	衣	央	紆

『東國正韻』 23자모의 전청자는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전청자에 예외 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음 見은 ‘ㄱ’으로, 설두음 端·설상음 知는 ‘ㄷ’으로, 중순음 幫·경순음 非는 ‘ㅍ’으로, 치두음 精·정치(2등) 莊·정치(3등) 照은 ‘ㅊ’으로, 치두음 心·정치(2등) 疏·정치(3등) 審은 ‘ㅈ’으로, 후음 影은 ‘ㅇ’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9>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차청자, 월어의 음조, 『東國正韻』 차청자 비교

1	溪	廣	溪	苦	口	康	枯	空	恪	牽	謙	楷	客	可	去	丘	區	墟
		粵	1	2	2	1	1	1	3	1	1	2	3	2	3	1	1	1
		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	ㄱ
		廣	起	驅	羌	綺	欽	傾	窺	詰	祛	豈	曲					
		粵	2	1	1	2	1	1	1	3	1	2	1					
		東	ㄱ	*	ㄱ	ㄱ	ㄱ	*	*	ㄱ	ㄱ	ㄱ	ㄱ					
2	透	廣	透	他	吐	土	託	湯	天	通	臺							
		粵	3	1	2	2	3	1	1	1	4							
		東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3	徹	廣	徹	丑	敕	恥	癡	楮	楮	抽								
		粵	3	2	*	2	1	2	2	1								
		東	ㅌ	ㅌ	*	ㅌ	ㅌ	ㅌ	ㅌ	ㅌ								
4	滂	廣	滂	普	匹	譬												
		粵	1	2	1	3												
		東	ㅍ	ㅍ	ㅍ	ㅍ												
5	敷	廣	敷	芳	敷	撫	孚	披	妃	峯	拂	丕						
		粵	1	1	1	2	1	1	1	1	1	1						
		東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6	清	廣	清	七	倉	千	此	親	采	蒼	麤	青	醋	遷	取	且	雌	
		粵	1	1	1	1	2	1	2	1	1	1	3	1	2	2	1	
		東	*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7	初	廣	初	楚	測	叉	芻	厠	創	瘡								
		粵	1	2	1	1	1	3	1	1								
		東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8	穿	廣	穿	昌	尺	充	赤	處	叱	春	姝							
		粵	1	1	2	1	3	2	1	1	1							
		東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9	曉	廣	曉	呼	火	荒	虎	海	呵	馨	花							
		粵	2	1	2	1	2	2	1	1	1							
		東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東國正韻』 23자모의 차청자는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차청자에 예외 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 서에서의 “아음(牙音)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모(溪母)의 글자가 태반(太半)이 견모(見母)에 들어갔으니, 이는 자모(字母)가 변환 것이고, 계모(溪母)의 글자가 혹 효모(曉母)에도 들어갔으니, 이는 칠음(七音)이 변환 것이다. 우리나라의 말에서는 계모(溪母; ㄱ첫소리)를 많이 쓰면서 글자 음에는 오직 ‘쾌(夬)’라는 한 글자의 음뿐이니, 이는 더욱 우스운 것이다.”¹²⁰⁾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음 溪는 ‘ㄱ’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설두음 透·설상음 徹는 ‘ㅌ’으로, 중순음 滂·경순음

120) 若以牙音言之, 溪母之字, 太半入於見母, 此字母之變也; 溪母之字, 或入於曉母, 此七音之變也. 國語多用溪母, 而字音則獨夬之一音而已, 此尤可笑者也.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數는 ‘고’으로, 치두음 淸·정치(2등) 初·정치(3등) 穿은 ‘츠’으로, 후음 曉은 ‘ㅎ’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40>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전탁자, 월어의 양조, 『東國正韻』 전탁자 비교

1	羣	廣	羣	其	巨	求	奇	暨	白	衢	强	具	狂						
		粵	4	4	6	4	4	3	5	4	4	4	6	4					
		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2	定	廣	定	徒	杜	特	度	唐	同	陀	堂	田	地						
		粵	6	4	6	6	6	4	4	4	4	4	4	6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3	澄	廣	澄	直	除	丈	宅	持	柱	池	迟	治	场	佇	馳	墜			
		粵	6	6	4	6	6	4	5	4	4	6	4	5	4	6			
		東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	ㄸ	*	ㄸ	ㄸ			
4	並	廣	並	蒲	薄	傍	步	部	白	裴	捕								
		粵	6	4	6	6	6	6	6	4	6								
		東	ㅃ	ㅃ	ㅃ	ㅃ	*	ㅃ	ㅃ	ㅃ	ㅃ								
5	奉	廣	奉	符	扶	房	皮	毗	防	平	縛	附	苻	馮	浮	父	便	婢	
		粵	6	4	4	4	4	4	4	4	3	6	4	4	4	6	6	6	
		東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	ㅍ	ㅍ	ㅍ	ㅍ	ㅍ	ㅍ	ㅍ	
6	從	廣	從	昨	徂	疾	才	在	慈	秦	藏	自	匠	漸	情	前	酢		
		粵	4	6	4	6	4	6	4	4	4	6	6	6	4	4	6		
		東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	ㄸ	ㄸ	ㄸ		
7	邪	廣	邪	徐	似	祥	辭	详	寺	辭	随	旬	夕						
		粵	4	4	5	4	4	4	6	4	4	4	6						
		東	ㄸ	ㄸ	ㄸ	ㄸ	*	*	ㄸ	*	*	*	ㄸ						
8	牀	廣	牀	士	仕	鋤	鉏	牀	查	雛	助	豺	崇	崩	侯	釐			
		粵	4	6	6	4	4	4	4	4	6	4	4	6	6	4			
		東	ㄸ	ㄸ	ㄸ	ㄸ	ㄸ	ㄸ	*	ㄸ	ㄸ	ㄸ	ㄸ	ㄸ	ㄸ	ㄸ			
9	神	廣	神	食	神	实	乘												
		粵	4	6	4	6	4												
		東	ㄸ	ㄸ	ㄸ	*	ㄸ												
10	禪	廣	禪	时	常	市	是	承	视	署	氏	殊	寔	臣	殖	尝	蜀	成	
		粵	6	4	4	5	6	4	6	5	6	4	6	4	6	4	6	4	
		東	*	*	ㄸ	ㄸ	ㄸ	ㄸ	*	ㄸ	ㄸ	ㄸ	ㄸ	ㄸ	ㄸ	*	ㄸ	ㄸ	
11	匣	廣	匣	胡	戶	下	侯	何	黃	乎	護	懷							
		粵	6	4	6	6	6	6	4	4	6	4							
		東	ㅎ	ㅎ	*	ㅎ	ㅎ	ㅎ	ㅎ	ㅎ	ㅎ	ㅎ							

『東國正韻』 23자모의 전탁자는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전탁자에 예외 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의 序에서 우리말에는 탁성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전탁자는 세종이 한어 중고음을 염두에 두고 창제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4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탁자는 현재 한글의 경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소리를 목적으로 두고 창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탁자는 현대 음운학에서 국제음성기호로 유성음으로 표기되지만, 한국인의 발성을 고려했을 때 세종이 유럽어의 유성음을 두고 전탁자를 창

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탁자의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월어의 양조 외에는 찾기 힘들다. ‘ㄱ’은 전청이지만, ‘ㄱ’이 겹쳐 ‘ㄱ’일 경우 소리가 엉겨, 후두강을 무게중심으로 한 음색, 낮게 깔리는 소리가 조음되는 원리이다.

최세진의 『訓蒙字會』 및 최초 진언집인 안심사본 『眞言集』에서도 전탁자의 사용을 찾을 수 없고, 『全韻玉篇』의 정·속음에서도 전탁자의 사용을 찾을 수 없다. 『東國正韻』 한자음 이후의 우리말 한자음에서 전탁자의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전탁자가 의도된 대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탁자의 사용 목적은 한자음의 표기에 있었던 것이지, 우리말의 된소리를 표기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탁자의 중세 국어에서의 사용도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말 한자음의 방향으로 막 전환될 때에는 전탁자의 사용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¹²¹⁾

아음 羣은 ‘ㄱ’으로, 설두음 定·설상음 澄는 ‘ㄷ’으로, 중순음 並·경순음 奉는 ‘ㅃ’으로, 치두음 從은 ‘ㅈ’으로, 정치(2등) 邪·정치(3등) 神·치두음 邪·정치(3등) 禪은 ‘ㅉ’으로, 후음 匣은 ‘ㅎ’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41>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차탁자, 월어의 양조, 『東國正韻』 차탁자 비교

1	疑	廣	疑	五	吾	研	俄	魚	語	牛	宜	虞	疑	擬	愚	遇	危	玉
		粵	4	5	5	4	4	4	5	4	4	4	4	4	4	6	4	6
2	泥	東	○	○	○	○	○	○	○	○	○	○	○	○	○	○	○	○
		廣	泥	奴	乃	那	諾	內	妳									
3	娘	粵	4	4	5	6	6	6	5									
		東	ㄴ	ㄴ	ㄴ	ㄴ	ㄴ	*	ㄴ									
4	明	廣	明	莫	模	謨	摸	慕	母	彌	眉	靡	明	美	綿			
		粵	4	6	4	4	6	6	5	4	4	5	4	5	4			
5	微	東	□	□	□	□	□	□	□	□	□	□	□	□	□			
		廣	微	武	亡	無	文	巫	望									
6	喻	粵	6	5	4	4	4	4	6	4	4	6	4	4	6			
		廣	喻	以	羊	余	餘	與	弋	夷	予	翼	營	移	悅			

121) 필사본 『금강경언해』에 나타난 표기법상의 특징으로는 우선 간경도감본의 각자병서와 ‘△’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간경도감본의 ‘이럴씨’·‘여희울 꺾’·‘-홀제’·‘-띠니’ 등의 각자병서가 필사본에는 각각 ‘이럴식’·‘여희울 것’·‘-홀 제’·‘-디니’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의 경우는 ‘ㅁ스미’·‘-ㅎ습논’·‘처섬’·‘드사’ 등이 ‘ㅁ스미’·‘-ㅎ습논’·‘처섬’·‘드사’ 등과 같이 모두 ‘ㅁ’으로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필사본의 한자음은 권수제의 “금강반야바라밀경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에서 알 수 있듯이, 간경도감본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다. 김기중, 『필사본 『금강경언해』와 『월인석보』의 관계』, 『서지학연구』, 제56집, 한국서지학회, 2013, 488쪽.

	東	○	○	○	○	○	○	○	○	○	○	○	○	○				
7	爲	廣	爲	于	王	雨	爲	羽	云	永	有	雲	筠	遠	韋	洵	榮	蓮
	粵	4	4	4	6	6	5	4	5	5	4	4	5	4	2	4	5	
	東	○	○	○	○	○	○	○	○	○	○	○	○	○	○	○	○	
8	來	廣	來	盧	郎	落	魯	來	洛	勒	賴	練	力	良	呂	里	林	離
	粵	4	4	4	6	5	4	6	6	6	6	6	6	4	5	5	4	4
	東	ㄹ	ㄹ	*	ㄹ	ㄹ	ㄹ	ㄹ	ㄹ	ㄹ	*	ㄹ	ㄹ	ㄹ	ㄹ	ㄹ	ㄹ	*
9	日	廣	日	而	如	人	汝	仍	兒	耳	儒							
	粵	6	4	4	4	5	4	4	5	4								
	東	△	△	△	△	△	△	△	△	△								

『東國正韻』 23자모의 차탁자는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차탁자에 예외 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음 疑는 ‘ㅇ(옛이음)’으로, 설두음 泥·설상음 娘는 ‘ㄴ’으로, 중순음 明·경순음 微는 ‘ㄹ’으로, 후음 喻·爲은 ‘ㅇ’으로 반절음 來는 ‘ㄹ’로, 반치음 日은 ‘△’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東國正韻』 한자음·한어 중고음·월어의 성모 비교

『東國正韻』 서문에서 우리말에 탁성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우리말에서 전탁의 음색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중 차탁 ‘業ㅇ(옛이음)’, ‘那ㄴ’, ‘彌ㄹ’, ‘欲ㅇ’, ‘閻ㄹ’, ‘穰△’은 탁성의 자질을 떠나, 조음 위치에 따라 단일 음가를 갖게 되므로 우리말이 지닌 어음의 특징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탁자 ‘蚩ㄱ’, ‘覃ㄷ’, ‘步ㅃ’, ‘慈ㅈ’, ‘邪ㅉ’, ‘洪ㅎ’는 청음의 발음과 겹치기 때문에, 세조 이후 우리말 한자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東國正韻』의 전탁자를 본고에서 논의하는 자질로 판단하였을 경우, 『東國正韻』 한자음, 중고 한어, 월어의 성모가 명확한 대응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상고음 19성모와도 대응 관계를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표42>에서 살펴본다.

<표42> 『東國正韻』 한자음·한어 중고음·월어의 성모비교

		동국정운(23) /중고 한어	월어(20)	상고음 19성모	한글 자음(19)
1	아음	君 ㄱ / 見 [k]	哥 [k]	見 [k]	ㄱ 기역 [k/g]
2		快 ㅋ / 溪 [kʰ]	卡 [kʰ]	溪 [kʰ]	ㅋ 키음 [kʰ]
3		蚩 ㄱ / 羣 [gʰ]	초분절자질·양조		ㄱ 쌍기역 [k*]
4	설음	業 ㅇ / 疑 [ŋ]	我 [ŋ]	疑 [ŋ]	
5		斗 ㄷ / 端 [t]	多 [t]	端 [t]	ㄷ 디글 [t/d]
6		吞 ㅌ / 透 [tʰ]	拖 [tʰ]	透 [tʰ]	ㅌ 티을 [tʰ]
7		覃 ㄷ / 定 [dʰ]	초분절자질·양조	定 [d]	ㄷ 쌍디글 [t*]
8		那 ㄴ / 泥 [n]	挪 [n]	泥 [n]	ㄴ 니은 [n]

9	반설	閩 ㄹ/ 來 [l]	羅 [l]	來 [l]	ㄹ 리을 [l/r]
10	순음	驚 ㅍ/ 幫 [p]	波 [p], 科 [f]	幫 [p]	ㅍ 비읍 [p/b]
11		漂 ㅍ/ 滂 [pʰ]	婆 [pʰ]	滂 [pʰ]	ㅍ 피읍 [pʰ]
12		步 ㅃ/ 並 [bʰ]	초분절자질·양조	並 [b]	ㅃ 쌍비읍 [p*]
13		彌 ㅃ/ 明 [m]	摸 [m]	明 [m]	ㅃ 미읍 [m]
14	치음	卽 ㅈ/ 精 [ts]	左·知 [tʃ]	精 [ts]	ㅈ 지읒 [tʃ/dʒ]
15		侵 ㅈ/ 淸 [tsʰ]	初·雌 [tʃʰ]	淸 [tsʰ]	ㅈ 치읓 [tʃʰ]
16		慈 ㅈ/ 從 [dzʰ]	초분절자질·양조	從 [dz]	ㅈ 쌍지읒 [tʃ*]
17		戍 ㅅ/ 心 [s]	梳·思 [ʃ/s]	心 [s]	ㅅ 시읒 [s]
18		邪 ㅅ/ 邪 [z]	초분절자질·양조		ㅅ 쌍시읒 [s*]
19	반치	穰 ㄷ/ 日 [n]	실제어음에서 사용		
20	후음	挹 ㅎ/ 影 [ʔ]	也 [j], 華 [w]	影 [ʔ]	
21		虛 ㅎ/ 曉 [x]	何 [h]	曉 [x]	ㅎ 히읗 [h]
22		洪 ㅎ/ 匣 [ɣ]	초분절자질·양조	匣 [ɣ]	
23		欲 ㅇ/ 喻 [Ø]	亞 [Ø]		ㅇ 이응 [Ø/-ŋ]
24				姑 [kw]	
25			箍 [kʷ]		

『東國正韻』의 전탁자가 우리말에서 음운 자질로 변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탁자가 특정 마찰 자질이 아닌, 공명강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 있는 발음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 방법을 적용했을 때, 상고음 추정음에서 아음과 치음에 전탁자가 없고, 후음에 차탁이 없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청·탁은 대응이 되어야 비로소 청·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청·탁으로 구분되는 자질이 음운 이론으로 명확해진 것은 범어를 체계적으로 음역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탁의 체계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고대로부터 내려온 초분절자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고음에도 청·탁의 구분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예를 들어 아음에는 전탁자가 없으나, 설음에는 전탁자가 있는 식의 추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한어 중고음과 『東國正韻』 漢字音의 대응관계

『東國正韻』 한자음이 사용된 『釋譜詳節』, 『月印釋譜』의 序에 수록된 한자 745자와 『月印釋譜』 첫머리에 실려있는 世宗御製訓民正音¹²²⁾의 序에 수록된 62자 중에서, 중복되지

122) 훈민정음언해(세종 29년, 1447추정), 잘 알려진 대로 『월인석보』 권두에 실려 있는 문헌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월인천강지곡』과 함께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처음 시도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동국정운』 간행(1448)보다는 이르지만 주음 내역을 살펴보면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물론 그러한 표기 방식까지 철저히 따랐다고 인정된다. 우선 훈민정음언해본이 ‘ㄹ’중성을 사용하고 舌內入聲의 以影補來 표기를 철저히 따랐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이 연구가 파악한 바로는 『동국정운』 미수록자가 없으며 『동국정운』 불일치음도 찾기 어렵다. 특히 복수음을 가진 『동국정운』 한자음 중 훈민정음언해본에서 문헌음으로 선택된 것들은 『월인석보』와 『석보상절』 등에서 발견되는 한자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차익중, 『東國正韻式 漢字音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4쪽.

않는 463자에 대해 한어 중고음 추정음과 훈민정음 주음과의 대응 관계를 살핀 결과, 초성·중성·종성에서 일률적인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 8개는 ‘그치는 소리’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가 명확했으며, 『東國正韻』에서 교정의 방법을 통해 표기하고 있는 舌內入聲 ‘ㄷ’과 순경음 ‘ㄹ’은 각각 한어 중고음의 입성 운미 [-t]와 음성 운미 [-u(w)]에 대응하는데, 본 절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음성 운미 [-i]에 대응시키기 위해 중성자와 결합한 ‘ㅣ’를 사용한 것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와 더불어 월어의 대응 관계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 현재 중국 남방 방언에 한어 중고음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어 중고음의 운미 8개가 현재 월어에서 온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한어 중고음 추정음은 董同龢의 추정음을 참조했는데, 그 이유로 董同龢는 『東國正韻』 체제와 관련이 깊은 『韻會』를 근고음의 기준으로 삼아 중고음 시기와 구분했고,¹²³⁾ 반치음 日母를 『東國正韻』 한자음·현재 한국 한자음·월어와 관련이 있는 [n_r]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董同龢의 추정음을 기준으로 대조하되, 초성의 비교에서는 여러 학자의 추정음을 함께 대조한다. 『東國正韻』 한자음과 한어 중고음 추정음의 대응관계가 명확하다면, 『東國正韻』은 체제상 『韻會』를 따르지만 어음은 한어 중고음을 따르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董同龢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과 『東國正韻』 23字母를 대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¹²⁴⁾

<표43> 『東國正韻』 23자모와 董同龢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전청	君 ㄱ k	斗 ㄷ t	驚 ㅍ p	卽 ㅈ ts/ te	搨 ㅎ ?		
차청	快 ㅋ kh	吞 ㅌ th	漂 ㅍ ph	侵 ㅊ tsh/te ^h	虛 ㅎ x		
전탁	蚪 ㄱ gh	覃 ㄷ dh	步 ㅍ bh	慈 ㅈ dz ^h /d ₃ ^h	洪 ㅎ ɣ		
불청불탁	業 ㅇ ɲ	那 ㄴ n	彌 ㅁ m		欲 ㅇ 0	閏 ㄹ l	穰 △ n _r
전청				戌 ㅅ s			
전탁				邪 ㅈ z			

123) ① 切韻系韻書와 早期韻圖가 표현하는 中古音은 隋와 唐初를 중심 시기로 한다. ② 宋 후의 韻書, 韻圖와 『古今韻會舉要』에 표현된 近古音은 宋代를 대표한다. ③ 『中原音韻』이 표현한 近代音은 元 이후를 대표한다. ④ 現代音은 國語와 方言이다. 董同龢, 공재석 역, 『漢語音韻學』, 汎學韻書, 1975, 217쪽.

124) 聲母의 開合(洪細)과 平仄에 따라 추정음은 달라질 수 있다.

『東國正韻』 23字母에 대한 董同龢의 추정음은 日母(穰母)를 제외하고 칼그렌과 일치한다. 칼그렌은 日母를 [n̥z]로 추정하였는데, 현재 한국 한자음에서 日母는 ‘ㅇ’이고,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월어¹²⁵⁾에서 日母는 [n̥]·[j]로 한국인의 음운 관념에서는 역시 ‘ㅇ’으로 들려 뚜렷한 마찰이 있는 소리라고 보기 어렵다.¹²⁶⁾ 본고에서는 穰母 받침 ‘△’과 대응하는 한어 중고음의 日母는 董同龢가 추정한 [n̥]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¹²⁷⁾ 이 경우 월어의 文白異讀에서 나타나는 [n̥]·[ŋ]·[j]의 교차 독음이 설명되어지는 것도 하나의 근거이다.

『訓民正音』 「解例本」 中聲解에서 “ ㄱ於深淺闔關之聲，並能相隨者，以其舌展聲淺而便於開口也”라 하여, ‘ㄱ’가 깊고, 얇고, 닫히고, 열리는 소리에 두루 능히 서로 따를 수 있는 것은 ‘ㄱ’ 소리가 혀가 퍼지고 소리가 얇아서 입을 여는 데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ㄱ’를 설명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한어중고음의 운미 [-i]를 염두에 둔 설명이라고 분석한다. 반면 二字合用者인 ‘과, 까, 거, 께’에 관해서는 “以其同出而爲類，故相合而不悖也”라 하여 같은 것으로부터 나와 같은 무리가 되므로 서로 어울려도 어그러지지 않는다 고 하여 성격이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표44>부터 <표66>까지 『東國正韻』 한자음의 초성은 한어 중고음의 성모(자음)와, 중성은 한어 중고음 운모의 元音(모음)과, 종성은 한어 중고음 운미(자음·모음)와 대응 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개의 순서는 『東國正韻』의 23字母의 순서에 따랐고, <표> 안의 한자는 『東國正韻』의 배열 순서인 중성·중성·초성 순서에 따라, 중성은 아·설·순·치·후의 순서인 ‘ㅇ(옛이음), ㄱ, ㄴ, ㄷ, ㅁ, ㅂ, ㅃ, ㅅ, ㅇ’의 순으로, 종성은 ‘·, 一, 丨, 丨, ㄱ, ㄴ, ㅃ, ㅅ, ㅈ, ㅊ, ㅋ, ㆁ, ㄷ, ㅌ, ㄱ, ㅋ, ㆁ, ㆁ’의 순으로,

125)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광동어로 칭하는 말을 월어로 부르기로 한다.
 126) 한국 한자음 표기에 쓰인 △이 소리값이 없었다는 견해는, 우리말 표기에 쓰인 △이 소리값을 갖지 않고 이상적 표기 체계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글에서만 아니라, 우리말 표기에 쓰인 △이 음소를 표시하는 글자라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인 남광우(1959), 서연범(1964), 박병채(1968), 이승녕(1956)의 글에서도 보인다. 조용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7쪽.
 127) 兪昌均, 허웅을 비롯한 학자들의 ‘△’의 음가를 [z]로 보는 견해에는 하나의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미 앞에서 全濁音과 관련하여 漢語音의 全濁音이 有聲音임이 인정되어지는데, 우리 語音에서는 비변별적인 관계로 15세기 한자음에서는 全濁音이 없음을 보았다. 그런데 兪昌均이나 허웅 등 학자들의 견해대로 ‘△’를 ‘ㅅ’에 대한 有聲音인 [z]로 본다면, 어찌하여 ‘邪’母에 ‘ㅅ’대신 ‘△’으로 對譯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로 할 것이다. 다시 말해 漢語音의 ‘日’母에 대응시킨 ‘穰’母의 ‘△’를 有聲音인 [z]로 본다면, 漢語音의 有聲音에 대응시킨 ‘邪’母의 ‘ㅅ’도 [z]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굳이 ‘邪’母와 ‘穰’母를 분리시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홍용기, 「훈민정음 초성 표기 한자음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4쪽.

18	見	견	견	kien 開四去	ㄱ/k	ㄷ/ie	ㄴ/-n	gin3	kin
19	券	권	권	k ^h juen 合三去	ㄱ/k ^h	ㄷ/jue	ㄴ/-n	gyun3	kyn
20	括	괄	궤	kuat 合一入	ㄱ/k	ㅍ/ua	ㅌ/-t	kut3	k ^h ut
21	結	결	궤	kiet 開四入	ㄱ/k	ㄷ/ie	ㅌ/-t	git3	kit
22	今	금	금	kjem 開三平	ㄱ/k	ㅇ/je	ㅁ/-m	gam1	kem
23	感	감	감	kAm 開一上	ㄱ/k	ㅍ/A	ㅁ/-m	gam2	kem
24	減	감	감	kem 開二上	ㄱ/k	ㅍ/e	ㅁ/-m	gaam2	kam
25	兼	겸	겸	kiem 開四平	ㄱ/k	ㄷ/ie	ㅁ/-m	gim1	kim
26	劫	겁	궤	kjɛp 開三入	ㄱ/k	ㄷ/jɛ	ㅍ/-p	gip3	kip
27	教	교	궤	kau 開二去	ㄱ/k	ㅍ/a	ㅍ/-u	gaau3	kau
28	久	구	궤	kju 開三上	ㄱ/k	ㅍ/ju	ㅍ/-u	gau2	kɛu
29	究	구	궤	kju 開三去	ㄱ/k	ㅍ/ju	ㅍ/-u	gau3	kɛu
30	疚	구	궤	kju 開三去	ㄱ/k	ㅍ/ju	ㅍ/-u	gau3	kɛu
31	己	기	경	ki 開三上	ㄱ/k	ㅇ/?	ㅣ/-i	gei2	kei
32	畿	기	경	g ^h jəi 開三平	ㄱ/g ^h	ㅇ/jə	ㅣ/-i	gei1	kei
33	既	기	경	kjəi 開三去	ㄱ/k	ㅇ/jə	ㅣ/-i	gei3	kei
34	冀	기	경	kjɛi 開三去	ㄱ/k	ㅇ/je	ㅣ/-i	kei3	k ^h ɛi
35	界	계	경	kei 開二去	ㄱ/k	ㅍ/e	ㅣ/-i	gaai3	kai
36	解	해	경	kæi 開二上	ㄱ/k	ㅍ/æ	ㅣ/-i	gaai2	kai
37	蓋	개	경	kai 開一去	ㄱ/k	ㅍ/a	ㅣ/-i	goi3	kɔi
38	歸	귀	경	kjuəi 合三平	ㄱ/k	ㅍ/juə	ㅣ/-i	gwai1	kuəi
39	貴	귀	경	kjuəi 合三去	ㄱ/k	ㅍ/juə	ㅣ/-i	gwai3	kuəi
40	繼	계	경	kiei 開四去	ㄱ/k	ㄷ/ie	ㅣ/-i	gai3	kɛi
41	繫	계	경	k ^h iei 開四平	ㄱ/k ^h	ㄷ/ie	ㅣ/-i	hai6	hɛi
42	故	고	공	kuo 合一去	ㄱ/k	ㅍ/uo		gu3	ku
43	瞽	고	공	kuo 合一上	ㄱ/k	ㅍ/uo		gu2	ku
44	固	고	공	kuo 合一去	ㄱ/k	ㅍ/uo		gu3	ku
45	家	가	강	ka 開二平	ㄱ/k	ㅍ/a		gaal	ka
46	加	가	강	ka 開二平	ㄱ/k	ㅍ/a		gaal	ka
47	駕	가	강	ka 開二平	ㄱ/k	ㅍ/a		gaa3	ka
48	過	과	광	kua 合一去	ㄱ/k	ㅍ/ua		gwol	kuo
49	句	구	궁	ku 開一平	ㄱ/k	ㅍ/u		gau1	kɛu
50	居	거	경	kjo 開三平	ㄱ/k	ㄷ/jo		geoi1	kœy
51	據	거	경	kjo 開三去	ㄱ/k	ㄷ/jo		geoi3	kœy

『東國正韻』의 전청자 초성 ‘ㄱ’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무기음 [k]에 대응하며,¹²⁹⁾ 한어 중고음의 전청, 월어의 음조(1·2·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들의 추정음은 [k]로 일치하며, 중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 44> 31-41의 한자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己·畿·既·冀·歸·貴는 止攝에 속하는 한자이고, 界·解·蓋·繼·繫는 蟹攝에 속하는 한자이다. 중성자와 결합한 ‘ㅣ’가 실제 어떻게 발음되

129)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1	見	k	k	k	k	k	k	k	k	k	k	k

있을지 현재까지의 기록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ㄷ’·‘ㅁ’과 마찬가지로 중고음의 운미 ‘ㅣ’와 대응 관계를 이루기 위해 설계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의 음성 운미 [-u(w)]와 [-i]는 현재 월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45> 2. 차청 아음 快·ㅋ·k^h - 월어의 음조 1성·2성·3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52	頃	경	형	k ^h juεŋ 合三平	ㅋ/k ^h	ㅉ/juε	ㅇ/-ŋ	king2	k ^h εŋ
53	廓	과	·곽	k ^h uak 合一入	ㅋ/k ^h	ㅊ/ua	ㄱ/-k	kwok3	k/k ^h uo k
54	考	고	꺠	k ^h au 開一上	ㅋ/k ^h	ㅊ/au	ㅇ/-u	haau2	h/k ^h au
55	窟	굴	·꺠	k ^h uət 合一入	ㅋ/k ^h	ㅊ/uət	ㅍ/-t	fat1	f/k/w/ ue t
56	棄	기	깅	k ^h jei 開三去	ㅋ/k ^h	ㅣ/jei		hei3	hei
57	起	기	깅	k ^h i 開三上	ㅋ/k ^h	-/?	ㅣ/-i	hei2	hei
58	豈	기	깅	k ^h jai 開三上	ㅋ/k ^h	-/jə	ㅣ/-i	hei2	h/k ^h ei
59	開	개	깅	k ^h Ai 開一平	ㅋ/k ^h	ㅊ/A	ㅣ/-i	hoi1	hoi
60	慨	개	깅	k ^h Ai 開一去	ㅋ/k ^h	ㅊ/A	ㅣ/-i	koi2	k ^h ɔi
61	啓	계	깅	k ^h iei 開四上	ㅋ/k ^h	ㅊ/iei	ㅣ/-i	kai2	k ^h ei
62	苦	고	꺠	k ^h uo 合一上	ㅋ/k ^h	ㅊ/uo		fu2	fu
63	可	가	꺠	k ^h a 開一上	ㅋ/k ^h	ㅊ/a		ho2	hɔ
64	去	거	커	k ^h jo 開三上	ㅋ/k ^h	ㅊ/jo		heoi3	høɣ

『東國正韻』의 차청자 초성 ‘ㅋ’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유기음 [k^h]에 대응하며,¹³⁰⁾ 한어 중고음의 차청, 월어의 음조(1·2·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간의 추정음은 [k^h]로 일치하며, 종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45> 56의 棄는 종성 ‘ㅣ’로 주음되고 있는데, 한어 중고음으로 止攝에 속하고 추정음은 [jei]이다. <표45> 57-61의 한자의 종성은 한 글자로 된 종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起·豈는 止攝에 속하는 한자이고, 開·慨·啓는 蟹攝에 속하는 한자이다.

<표46> 3. 전탁 아음 𪛗·ㄱ·g^h - 월어의 양조 4성·5성·6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65	共	공	꺠	g ^h juoŋ 合三去	ㄱ/g ^h	ㅊ/juo	ㅇ/-ŋ	gung6	koŋ

130)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2	溪	k ^h	k ^h	kh	k ^h							

66	窮	궁	꿩	g ^h juŋ 合三平	ㄱ/ḡ ^h	ㄷ/ju	ㅇ/-ŋ	kung4	k ^h oŋ
67	競	경	경	g ^h jeŋ 開三去	ㄱ/ḡ ^h	ㄷ/je	ㅇ/-ŋ	ging6	keŋ
68	近	근	근	g ^h jən 開三上	ㄱ/ḡ ^h	-/jə	ㄴ/-n	gan6	kən
69	群	군	꾼	giuən 合三平	ㄱ/g	ㄷ/iuə	ㄴ/-n	kwan4	k ^h uən
70	舊	구	꿩	g ^h ju 開三去	ㄱ/ḡ ^h	ㄷ/j	몽/-u	gau6	keu
71	求	구	꿩	g ^h ju 開三平	ㄱ/ḡ ^h	ㄷ/j	몽/-u	kau4	k ^h eu
72	其	기	깅	ki 開三平	ㄱ/k	-/?	ㅣ/-i	gei6	k/k ^h ei
73	忌	기	깅	g ^h i 開三去	ㄱ/ḡ ^h	-/?	ㅣ/-i	gei6	kei
74	期	기	깅	g ^h i 開三平	ㄱ/ḡ ^h	-/?	ㅣ/-i	kei4	k/k ^h ei

『東國正韻』의 전탁자 초성 ‘ㄱ’은 대체로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유기음 [g^h]에 대응하며,¹³¹⁾ 한어 중고음의 전탁, 월어의 양조(4·5·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유성 유기음 [g^h]과 유성 무기음 [g]를 두고 견해가 다르지만, 유성 음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46> 57-61의 한자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其·忌·期는 모두 止攝에 속한다.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는 단모음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東國正韻』 한자음에서는 중성자와 결합한 ‘ㅣ’로 표기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47> 4. 불청불탁 아음 業·ㅇ·ŋ - 월어의 양조 4성·5성·6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중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75	仰	양	양	ŋjaŋ 開三上	ㅇ/ŋ	ㅌ/ja	ㅇ/-ŋ	ngong5	ŋoŋ
76	王	왕	왕	ɣjuaŋ 合三平	ㅇ/ɣ	ㅌ/jua	ㅇ/-ŋ	wong4	wɔŋ
77	榮	영	형	ɣjuəŋ 合三平	ㅇ/ɣ	ㅌ/juə	ㅇ/-ŋ	wing4	wiŋ
78	永	영	형	ɣjuəŋ 合三上	ㅇ/ɣ	ㅌ/juə	ㅇ/-ŋ	wing5	wiŋ
79	岸	안	안	ŋan 開一去	ㅇ/ŋ	ㅌ/a	ㄴ/-n	ngan6	ŋɔn
80	眼	안	안	ŋæn 開二上	ㅇ/ŋ	ㅌ/æ	ㄴ/-n	ngaan5	ŋan
81	雲	운	운	ɣjuən 合三平	ㅇ/ɣ	ㄷ/juə	ㄴ/-n	wan4	wen
82	運	운	운	ɣjuən 合三去	ㅇ/ɣ	ㄷ/juə	ㄴ/-n	wan6	wen
83	言	언	언	ŋjən 開三平	ㅇ/ŋ	ㅌ/je	ㄴ/-n	jin4	jin
84	研	연	연	ŋien 開四平	ㅇ/ŋ	ㅌ/ie	ㄴ/-n	ngaan4	j/ŋ in/an
85	爰	원	원	ŋjuen 合三平	ㅇ/ŋ	ㅌ/juə	ㄴ/-n	jyun4	jyn
86	源	원	원	ŋjuen 合三平	ㅇ/ŋ	ㅌ/juə	ㄴ/-n	jyun4	jyn

131)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3	羣	g ^h	g	g	g ^h	g	g	g	g	g	g ^h	g

87	願	원	원	ŋjuen 合三去	○/ŋ	꺾/jue	ㄴ/-n	jyun6	jyn
88	月	월	·월	ŋjuet 合三入	○/ŋ	꺾/jue	ㅌ/-t	jyut6	jyt
89	曰	왈	·월	ɣjuet 合三入	○/ɣ	꺾/jue	ㅌ/-t	jyut6	jyt
90	業	업	·업	ŋjep 開三入	○/ŋ	ㄷ/je	ㅍ/-p	jip6	jip
91	有	유	·울	ɣju 開三上	○/ɣ	ㄷ/j	ㅍ/-u	jau5	jeu
92	又	우	·울	ɣju 開三去	○/ɣ	ㄷ/j	ㅍ/-u	jau6	jeu
93	疑	의	·잉	ŋi 開三平	○/ŋ	-/?	ㅣ/-i	ji4	ji
94	宜	의	·잉	ŋjē 開三平	○/ŋ	-/?	ㅣ/?	ji4	ji
95	矣	의	·잉	ɣi 開三上	○/ɣ	-/?	ㅣ/-i	ji5	ji
96	義	의	·잉	ŋjē 開三去	○/ŋ	-/?	ㅣ/?	ji6	ji
97	謂	위	·잉	ɣjuəi 合三去	○/ɣ	ㄷ/juə	ㅣ/-i	wai6	wei
98	五	오	·웅	ŋuo 合一上	○/ŋ	ㄷ/uo		ng5	ŋ
99	我	아	·앙	ŋa 開一上	○/ŋ	ㄷ/a		ngo5	ŋo
100	御	어	·잉	ŋjo 開三去	○/ŋ	ㄷ/jo		ngaa6	jy
101	語	어	·잉	ŋjo 開三上	○/ŋ	ㄷ/jo		jyu5	jy
102	于	우	·웅	ɣjuo 合三平	○/ɣ	ㄷ/juo		jyu4	jy
103	愚	우	·웅	ŋjuo 合三平	○/ŋ	ㄷ/juo		jyu4	jy

『東國正韻』의 불칭불탁자 초성 ‘ㅇ(엣이웅)’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비음 [ŋ], 유성 연구개 마찰음에 대응하며,¹³²⁾ 한어 중고음의 차탁, 월어의 양조(4·5·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ŋ]로 일치하며 중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유성 연구개 마찰음 [ɣ]로 추정되고 있는 王·榮·永·雲·運·曰·有·又·矣·謂는 云母에 속하는 것으로 王力·董同龢¹³³⁾를 제외한 학자의 추정음은 [j]이다. 한국 한자음의 독음을 고려했을 때, 云母의 추정음으로 유성 연구개 마찰음 [ɣ]은 납득하기 어렵다.¹³⁴⁾ 본고에서의 묘사 방법으로 云母에 대해 기술한다면, 云母는 무게중심이 연구개에 있는 성대 진동음이라고 할 수 있다. 疑母와 云母는 엄밀히 말하자

132)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4	疑	ŋ	ŋ	ng	ŋ	ŋ	ŋ	ŋ	ŋ	ŋ	ŋ	ŋ

133) 董同龢는 상고 시기부터 『切韻』 이전까지 匣모와 云모는 한 종류로 네 등이 모두 갖추어진 연구개 마찰음 성모 ɣ-였다가 云모 뒤의 구개음 개음으로 인해 云모가 ɣj-로 분리되었다고 보았다. 김태경, 『상고중국어 음운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어원』, 학고방, 2017, 71쪽.

134) 云모의 『切韻』 시기 음가에 대해서는 云모의 일본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신피는 云모의 음가를 j로 재구했는데, 앞에서 匣모자들 가운데 합구 글자들이 일본 오음에서 영성모로 실현되었고 다른 匣모 글자들은 모두 g-음으로 실현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匣모에서 갈라져 나온 云모 글자들이 일본 오음에서 영성모로 읽히는 것과는 달리, 『切韻』에서 云모와 상보적 분포를 하는 匣모의 글자들은 오음에서 모두 g-로 실현되었다. 일반적으로 『切韻』에서 匣모와 云모가 상보적 분포를 하기 때문에 당시 두 성류의 음이 같았다고 보는데, 일본 오음을 참고하면 云모는 당시 이미 마찰음을 잃고 영성모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한자음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匣모의 글자들은 ‘ㅎ’ 초성이지만 云모의 글자들은 대부분 ‘ㅇ’ 초성으로 실현되었다. 18세기 간행된 『전운옥편』에는 筠의 음이 ‘윤俗균’으로 표기되어 있다. ‘윤’은 중국 운서의 반절을 고려한 소위 정음이고 ‘균’이 당시의 실제 음을 반영하는 통용음으로 상고음 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상고중국어 음운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어원』, 학고방, 2017, 71쪽.

면 서로 다른 자질이지만 『東國正韻』에서는 모두 ‘ㅇ(옛이응)’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東國正韻』의 자모가 곧 단일 음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하다.

최세진의 『訓蒙字會』에서 오직 ‘ㅇ(옛이응)’의 초성과 ‘ㅇ’을 대충은 서로 엇비슷하게 일컫기 때문에 세속에서 초성으로 쓰이면 모두 ‘ㅇ’ 음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ㅇ(옛이응)’은 당시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中原音에서 초성 [ŋ-]이 소실되고, 적어도 중세 국어 시기에 초성 [ŋ-]은 한국인에게 ‘ㅇ’과 구별되는 음운 자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東國正韻』에서 ‘ㅇ(옛이응)’을 사용한 것은, ‘ㅇ(옛이응)’의 사용 목적을 悉曇章 유성 무기음 ‘識’의 梵漢對音에서 찾을 수 있다.¹³⁵⁾

<표47> 93, 95, 97의 한자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하지만, 宜와 義는 董同龢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자의 추정음에서도 운미 [-i]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월어와 보통화에서 宜와 義가 단운모일지라도 운모가 [i]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일본어의 宜와 義의 발음이 ‘ㅣ’로 모음 [-i]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東國正韻』 편찬자가 宜와 義에서 의도한 음은 최소한 운미 자리에 [-i]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48> 5. 전청 설음 斗·ㄷ·t - 월어의 음조 1성·2성·3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04	中	중	똥	tjuŋ 合三平	ㄷ/ㄷ	ㅍ/ju	ㅇ/-ŋ	zung1	tsoŋ
105	丁	정	뎡	tieŋ 開四平	ㄷ/t	ㄷ/ie	ㅇ/-ŋ	ding1	teŋ
106	得	득	·득	tək 開一入	ㄷ/t	ㅡ/ə	ㄱ/-k	dak1	tek
107	德	득	·득	tək 開一入	ㄷ/t	ㅡ/ə	ㄱ/-k	dak1	tek
108	頓	돈	돈	tuən 合一去	ㄷ/t	ㄱ/ua	ㄴ/-n	deon6	tən
109	典	진	뎡	tien 開四上	ㄷ/t	ㄷ/ie	ㄴ/-n	din2	tin
110	轉	전	뎡	tjuæn 合三上	ㄷ/ㄷ	ㅍ/juæ	ㄴ/-n	zyun2	tsyn
111	沾	침	뎡	tjæm 開三平	ㄷ/ㄷ	ㄷ/jæ	ㅁ/-m	zim1	tsim
112	輒	첩	·뎡	tjæp 開三入	ㄷ/ㄷ	ㄷ/jæ	ㅂ/-p	zip3	tsip
113	知	지	뎡	tje 開三平	ㄷ/ㄷ	ㅣ/je		zi1	tsi
114	智	지	뎡	tje 開三去	ㄷ/ㄷ	ㅣ/je		zi3	tsi

135) 不空의 漢文音譯은 ‘識’이고, 空海의 漢文音譯은 ‘哦’로, ‘識’, ‘哦’의 추정음은 모두 [ŋa]이다. 不空(705년-774년)은 인도의 승려로 중국 唐으로 건너가 불경 번역과 포교활동에 힘썼다. 4대 번역가의 한 사람으로 범어와 한자의 음운의 대응조직을 확립하여 번역사에 큰 공을 세웠다. 空海(774년-835년)은 일본의 승려로 804년 唐으로 건너가 밀교를 배워, 귀국후 眞言宗을 창시하였다. 만다라를 통하여 卽神成佛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115	致	지	딩	tje 開三去	ㄷ/ㄷ	ㅣ/je		zi3	tsi
116	追	추	똥	tjuei 合三平	ㄷ/ㄷ	ㅍ/jue	ㅣ/-i	zeo1	tsœy
117	都	도	동	tuo 合一平	ㄷ/t	ㅍ/		dou1	tou
118	多	다	당	ta 開一平	ㄷ/t	ㅍ/a		do1	tə

『東國正韻』의 전청 초성 ‘ㄷ’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무기음 [t], [t̚]에 대응하며,¹³⁶⁾ 한어 중고음의 전청, 월어의 음조(1·2·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간의 추정음은 [t]로 일치하며 중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 中國을 ‘똥꺅’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당시 ‘ㄷ’이 단일 음소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표48>을 보면, 문자상으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 구개음화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개음화가 일어날 조건인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에서는 현재 음에서 ‘ㅈ’으로 바뀌었고,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을 조건인 ‘똥, 돈, 동, 당’에서는 현재음에서 ‘ㄷ’으로 읽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丁, 典’을 제외하고 월어 병음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이 발간되어 표기법을 규정하기 전에 우리 언어생활 및 한자음에서 ‘ㄷ’은 단일 음소가 아니었다. 1937년 발간된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2장 성음에 관한 것, 제3절 구개음화, 제5항에서 “한글의 자모는 다 제 음가대로 읽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ㄷ, ㄷ, ㄷ, ㄷ, ㄷ’를 ‘자, 저, 조, 주, 지’로나, ‘타, 터, 토포,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¹³⁷⁾ 이 말은 바꿔 말하면, ‘ㄷ, ㄷ, ㄷ, ㄷ, ㄷ’를 ‘자, 저, 조, 주, 지’로 읽었고, ‘타, 터, 토포,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기록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보다 앞선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보통학교 용언문철자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거기에 보면 “경성어를 표준으로 하고 표기법은 표의주의에 의하며 발음에서 먼 역사적 표기법은 피하되 한자음은 종래의 표기법을 채용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각론에서 순수 조선어에 대하여는 ‘·’를 사용하지 않고 ‘ㄷ, ㄷ’

136)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5	端	t	t	t	t	t	t	t	t	t	t	t

137)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구개음화하는 것을 특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附記一], [附記二]에서 확인할 수 있다. [附記一] ‘ㄷ, ㅌ’으로 끝난 말 아래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적에는 그 ‘ㄷ, ㅌ’이 구개음화 하는 것을 특례로 인정한다. 甲을 취하고, 乙을 버린다. 이하 갑/을 : 굳이/구지, 땀받이/땀받지, 해돋이/해돋지, 같이/가치, 밭이/바치, 활이다/ 활치다, 걸히다/거치다, 닫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附記二] ‘ㄴ, ㄹ’은 ‘ㄱ, ㅋ, ㆁ, ㆅ, ㅍ, ㅍ’ 위에서 구개음화하는 것을 인정한다. 가더냐, 저녁, 누구뇨, 송늱, 바구니, 개갈량, 달력, 팔룽, 일류, 멀리.

등을 ‘자, 차’로, ‘쟈, 찌’ 등도 ‘자, 차’로 표기한다고 하면서, 단 한자어를 언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한자의韻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³⁸⁾ 즉 언어생활에서 ‘ㄷ’을 ‘ㅈ’으로 읽기도 했던 것을, 표기상에서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자음에서는 읽기와 상관없이 표기는 기존의 것을 존중해서 ‘ㄷ’을 ‘ㅈ’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조선 후기 한자음에서 ‘ㄷ’을 ‘ㅈ’으로 읽기도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 ‘ㄷ’을 어떻게 읽었는지 현재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에서 한자음에 구개음화 표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 이전에, 『全韻玉篇』에서 이미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아래 인용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全韻玉篇』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된 예:

池 지, 長 장, 忠 충, 中 중, 朝 조

『全韻玉篇』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예:

地 지, 點 뎀, 電 댐, 定 뎅, 天 텨

주시경이 ‘忠信’은 ‘충신’으로 표기하고(忠의 원래음은 ‘퉁’이었다) ‘天地’는 ‘텨디’로 표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주시경은 『全韻玉篇』에 제시되어 있는 한자음을 본음이라고 여기고서 그에 따라 한자음을 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訓蒙字會』를 한자음 표기의 전거로 삼았다면 ‘忠信, 朝鮮, 長短’이 ‘퉁신, 도션, 당단’으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全韻玉篇』을 한자음 표기의 전거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은 ‘충신, 조선, 장단’으로 표기되었던 것이다.¹³⁹⁾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개음화는 표기상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ㄷ’의 실제 발음과 관련해서는 기록상으로 『全韻玉篇』 이전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뜻이다. 『訓蒙字會』의 ‘퉁신, 도션, 당단’을 당시 어떻게 읽었는지 현재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하지만 『四聲通解』와 『洪武正韻譯訓』 및 『東國正韻』의 한자 어음을 면밀히 분석하면 표기상의 설계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138) 송철의,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233쪽.

139) 송철의,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235쪽.

<표48> 116의 追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追는 止攝에 속한다. 반면 <표48> 113-115의 한자는 止攝에 속하지만 다른 중성과의 결합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중성 ‘ㅣ’로,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에서 운미 [-i]를 확인할 수 없다. ‘ㅣ’가 다른 중성과 결합 없이 단독으로 쓰일 경우 한어 중고음에서 止攝에 대응하게 되고 운미에서 [-i]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49> 6. 차청 설음 ㅈ·ㅊ·ㅌ - 월어의 음조 1성·2성·3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19	通	통	통	tʰuŋ 合一平	ㅌ/ʰ	ㅈ/ɯ	ㅇ/-ŋ	tung1	tʰoŋ
120	統	통	통	tʰuoŋ 合一去	ㅌ/ʰ	ㅈ/uo	ㅇ/-ŋ	tung2	tʰoŋ
121	剔	척	·턱	tʰiek 開四入	ㅌ/ʰ	ㅋ/ie	ㄱ/-k	tik1	tʰek
122	天	천	턴	tʰien 開四平	ㅌ/ʰ	ㅋ/ie	ㄴ/-n	tin1	tʰin
123	脫	탈	·뿔	dʰuat 合一入	ㅌ/dʰ	ㅈ/ua	ㅌ/-t	tyut3	tʰyt
124	添	첨	텨	tʰiem 開四平	ㅌ/ʰ	ㅋ/ie	ㅁ/-m	tim1	tʰim
125	泰	태	탱	tʰai 開一去	ㅌ/ʰ	ㅈ/a	ㅣ/-i	taai3	tʰai
126	體	체	텨	tʰiei 開四上	ㅌ/ʰ	ㅋ/ie	ㅣ/-i	tai2	tʰai
127	提	제	뎡	dʰiei 開四平	ㅌ/dʰ	ㅋ/ie	ㅣ/-i	tai4	tʰai
128	土	토	통	tʰuo 合一上	ㅌ/ʰ	ㅈ/uo		tou2	tʰou

『東國正韻』의 초성 ‘ㅌ’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대체로 무성 유기음 [tʰ]에 대응하며,¹⁴⁰⁾ 한어 중고음의 차청, 월어의 음조(1·2·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간의 추정음은 일치하며, 종성에서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49> 125-127의 泰, 體, 提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표49> 125의 泰는 開口 一等이지만 중성이 ‘ㅌ’인 이유는 ‘ㅈ’+ 운미 ‘ㅣ’가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49> 126의 體는 開口 四等으로 ‘ㅋ’는 ie에 대응하며, ‘ㅋ’는 ‘ㅋ’+ ‘ㅣ’로 운미 ‘ㅣ’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泰, 體, 提는 모두 蟹攝에 속한다.

140)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6	透	tʰ	tʰ	th	tʰ							

<표50> 7. 전탁 설음 覃·ㄷ·ㄷ^h - 월어의 양조 4성·5성·6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29	同	동	똥	d ^h uŋ 合一平	ㄷ/ㄷ ^h	ㄷ-/u	ㅇ/-ŋ	tung4	t ^h oŋ
130	動	동	똥	d ^h uŋ 合一上	ㄷ/ㄷ ^h	ㄷ-/u	ㅇ/-ŋ	dung6	toŋ
131	長	장	땅	d ^h jaŋ 開三平	ㄷ/ㄷ ^h	ㅌ-/ja	ㅇ/-ŋ	zoeng6	ts/ts ^h æŋ
132	膽	등	똥	d ^h əŋ 開一平	ㄷ/ㄷ ^h	ㄷ/ə	ㅇ/-ŋ	tang4	t ^h ɛŋ
133	停	정	명	d ^h ieŋ 開四平	ㄷ/ㄷ ^h	ㅌ/ie	ㅇ/-ŋ	ting4	t ^h ɛŋ
134	直	직	·떡	d ^h jək 開三入	ㄷ/ㄷ ^h	ㅣ/je	ㄱ/-k	zik6	tsek
135	獨	독	·뚝	d ^h uk 合一入	ㄷ/ㄷ ^h	ㄷ-/u	ㄱ/-k	duk6	tok
136	讀	독	·뚝	d ^h uk 合一入	ㄷ/ㄷ ^h	ㄷ-/u	ㄱ/-k	duk6	tok
137	著	작	·딱	t ^h iak 開三入	ㄷ/ㄷ ^h	ㅌ/ia	ㄱ/-k	zoek6	tsæk
138	軸	축	·뚝	d ^h juk 合三入	ㄷ/ㄷ ^h	ㅍ/ju	ㄱ/-k	zuk6	tsok
139	塵	진	띤	d ^h jen 開三平	ㄷ/ㄷ ^h	ㅣ/je	ㄴ/-n	can4	ts ^h ɛn
140	誕	탄	판	d ^h an 開一上	ㄷ/ㄷ ^h	ㅌ/a	ㄴ/-n	daan6	tan
141	達	달	·땡	d ^h at 開一入	ㄷ/ㄷ ^h	ㅌ/a	ㄷ ^h /-t	daat6	tat
142	湛	담	땡	d ^h jem 開三平	ㄷ/ㄷ ^h	ㅌ/je	ㅁ/-m	daam1	tam
143	覃	담	땡	d ^h Am 開一平	ㄷ/ㄷ ^h	ㅌ/A	ㅁ/-m	taam4	t ^h am
144	道	도	똥	d ^h au 開一上	ㄷ/ㄷ ^h	ㄷ-/a	ㅇ/-u	dou6	tou
145	地	지	땡	d ^h jei 開三去	ㄷ/ㄷ ^h	ㅣ/jei		dei6	tei
146	大	대	땡	d ^h ai 開一去	ㄷ/ㄷ ^h	ㅌ/a	ㅣ/-i	daai6	tai
147	渡	도	똥	d ^h uo 合一去	ㄷ/ㄷ ^h	ㄷ-/uo		dou6	tou
148	途	도	똥	d ^h uo 合一平	ㄷ/ㄷ ^h	ㄷ-/uo		tou4	t ^h ou
149	住	주	똥	d ^h juo 合三去	ㄷ/ㄷ ^h	ㅍ/juo		zyu6	tsy

『東國正韻』의 초성 ‘ㄷ’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유기음 [d^h]에 대응하며,¹⁴¹⁾ 한어 중고음의 전탁, 월어의 양조(4·5·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유성 유기음 [d^h]과 유성 무기음 [d]를 두고 견해가 다르지만, 유성음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표50> 146의 大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표49> 125의 泰와 마찬가지로 開口 一等이지만 중성이 ‘ㄱ’인 이유는 ‘ㅌ’+ 운미 ‘ㅣ’가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大는 蟹攝에 속한다. <표50> 145의 地는 止攝에 속하고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은 ‘ㅣ’로 운미 [-i]가 있지만,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았기에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 경우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은 ‘ㅣ’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대응할 수도 있고,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곧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은 ‘ㅣ’의 음가 범위라고 분석할 수 있다. <표50> 144의 道는 開口 一等으로 음성 운미 [-u(w)]가 있는데, 『東國正韻』에서 순경음 ‘ㅁ’이 사용된 한자음의 중성에 ‘ㅌ’는 없으므로 ‘ㄱ’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41)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7	定	d ^h	d	d	d ^h	d	d	d	d	d	d ^h	d

<표51> 8. 불청불탁 설음 那·ㄴ·n - 월어의 양조 4성·5성·6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50	能	능	능	nəŋ 開一平	ㄴ/n	-/ə	ㅇ/-ŋ	nang4	neŋ
151	寧	녕	녕	nieŋ 開四平	ㄴ/n	ɨ/ie	ㅇ/-ŋ	ning4	neŋ
152	難	난	난	nan 開一平	ㄴ/n	ㅏ/a	ㄴ/-n	naan4	nan
153	年	년	년	nien 開四平	ㄴ/n	ɨ/ie	ㄴ/-n	nin4	nin
154	念	념	념	niem 開四去	ㄴ/n	ɨ/ie	ㅁ/-m	nim6	nim
155	納	납	납	nAp 開一入	ㄴ/n	ㅏ/A	ㅂ/-p	naap6	nap
156	乃	내	냉	nAi 開一上	ㄴ/n	ㅏ/A	ㅣ/-i	naai5	nai

『東國正韻』의 초성 ‘ㄴ’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치경 비음 [n]에 대응하며,¹⁴²⁾ 한어 중고음의 차탁, 월어의 양조(4·5·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일치하며 종성에서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1> 156의 乃의 종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開口 一 등이지만 중성이 ‘ㅣ’인 이유는 ‘ㅏ’+ 운미 ‘ㅣ’가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乃是 蟹攝에 속한다.

<표52> 9. 전청 순음 𪛗·ㅂ·p - 월어의 음조 1성·2성·3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57	方	방	방	pjuaŋ 開三平	ㅍ/p	ㅏ/jua	ㅇ/-ŋ	fong1	fɔŋ
158	放	방	방	pjuaŋ 開三去	ㅍ/p	ㅏ/jua	ㅇ/-ŋ	fong3	fɔŋ
159	兵	병	병	pjeŋ 開三平	ㅍ/p	ɨ/je	ㅇ/-ŋ	bing1	peŋ
160	丙	병	병	pjeŋ 開三上	ㅍ/p	ɨ/je	ㅇ/-ŋ	bing2	peŋ
161	百	백	·백	pək 開二入	ㅍ/p	ㅣ/e	ㄱ/-k	baak3	pak
162	福	복	·복	pjuk 合三入	ㅍ/p	ㅏ/ju	ㄱ/-k	fuk1	fok
163	博	박	·박	pak 開一入	ㅍ/p	ㅏ/a	ㄱ/-k	bok3	pɔk
164	本	본	본	puən 合一上	ㅍ/p	ㅏ/ua	ㄴ/-n	bun2	pun
165	編	편	변	pien 開四平	ㅍ/p	ɨ/ie	ㄴ/-n	pin1	pʰin
166	必	필	·빕	pjet 開三入	ㅍ/p	ㅣ/je	ㅌ/-t	bit1	pit
167	不	불	·뵤	pjuət 合三入	ㅍ/p	ㅏ/juə	ㅌ/-t	bat1	pet
168	八	팔	·뵤	pæt 合二入	ㅍ/p	ㅏ/æ	ㅌ/-t	baat3	pat
169	別	별	·뵤	bʰjæt 開三入	ㅍ/bʰ	ɨ/jæ	ㅌ/-t	bit3	pit
170	法	법	·뵤	pjuəp 合三入	ㅍ/p	ㅏ/juə	ㅂ/-p	faat3	fat
171	寶	보	뵤	pau 開一上	ㅍ/p	ㅏ/a	ㅍ/-u	bou2	pou
172	報	보	뵤	bʰau 開一去	ㅍ/bʰ	ㅏ/a	ㅍ/-u	bou3	pou
173	非	비	빙	pjuəi 合三平	ㅍ/p	ㅣ/juəi		fei1	fei

142)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8	泥	n	n	n	n	n	n	n	n	n	n	n

174	悲	비	빙	pjēi 開三平	ㅂ/p	ㅣ/jei		bei1	pei
175	俾	비	빙	pje 開三上	ㅂ/p	ㅣ/je		bei2	pei
176	彼	피	빙	pjē 開三上	ㅂ/p	ㅣ/je		bei2	pei
177	廢	폐	벙	pjuēi 合三去	ㅂ/p	ㅚ/juē	ㅣ/-i	fai3	fei
178	譜	보	봉	puo 合一上	ㅂ/p	ㅜ/uo		pou2	p ^h ou
179	布	포	봉	puo 合一去	ㅂ/p	ㅜ/uo		bou3	pou
180	夫	부	봉	pjuo 合三平	ㅂ/p	ㅜ/juo		fu1	fu

『東國正韻』의 초성 ‘ㅂ’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무기음(무성 양순 파열음) [p]에 대응하며,¹⁴³⁾ 한어 중고음의 전칭, 월어의 음조(1·2·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일치하며 중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2> 177의 廢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廢는 蟹攝에 속한다. <표52> 173-176의 非·悲·俾·彼는 모두 止攝에 속하며,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표53> 10. 차청 순음 漂·표·p^h - 월어의 음조 1성·2성·3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중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81	攀	반	판	p ^h an 合二平	ㅍ/p ^h	ㅏ/a	ㄴ/-n	paan1	p ^h an
182	瞥	별	뽕	p ^h iet 開四入	ㅍ/p ^h	ㅚ/ie	ㄷ/-t	pit3	p ^h it
183	破	파	팡	p ^h ua 合一去	ㅍ/p ^h	ㅑ/ua		po3	p ^h ɔ
184	敷	부	풍	p ^h juo 合三平	ㅍ/p ^h	ㅜ/juo		fu1	fu

『東國正韻』의 초성 ‘ㅍ’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유기음 [p^h]에 대응하며,¹⁴⁴⁾ 한어 중고음의 차청, 월어의 음조(1·2·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한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일치하며, 중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4> 11. 전탁 순음 步·뽕·b^h - 월어의 양조 4성·5성·6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중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85	奉	봉	뽕	b ^h juoŋ 合三上	ㅃ/b ^h	ㅜ/juo	ㅇ/-ŋ	fung6	foŋ

143)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9	幫	p	p	p	p	p	p	p	p	p	p	p

144)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10	滂	p ^h	p ^h	ph	p ^h							

186	便	편/변	뵐	b ^h jæn 開三平	뵐/b ^h	ɬ/jæ	ㄴ/-n	bin6	pin
187	拔	밭	·뵐	b ^h uat 合一入	뵐/b ^h	ㅏ/ua	ㅌ/-t	bat6	pət
188	佛	불	·뵐	b ^h juət 合三入	뵐/b ^h	ㅏ/juə	ㅌ/-t	fat6	fət
189	梵	범	뵐	b ^h uem 合三去	뵐/b ^h	ㅏ/jue	ㄹ/-m	faan4	fan
190	浮	부	뵐	b ^h ju 開三平	뵐/b ^h	ㅏ/ju	ㄹ/-u	fau4	feu
191	部	부	뵐	b ^h uo 合一上	뵐/b ^h	ㅏ/uo		bou6	pou
192	父	부	뵐	b ^h juo 合三上	뵐/b ^h	ㅏ/juo		fu6	fu
193	菩	보	뵐	b ^h Ai 開一上	뵐/b ^h	ㅏ/Ai		pou4	p ^h ou

『東國正韻』 초성 ‘뵐’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유기음(유성 양순 파열음)에 대응하며,¹⁴⁵⁾ 한어 중고음의 전탁, 월어의 양조(4·5·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유성 유기음 [b^h]와 유성 무기음 [b]를 두고 견해가 다르지만, 유성음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5> 12. 불청불탁 순음 彌·ㄹ·m -월어의 양조 4성·5성·6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중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94	亡	망	망	mjuan 開三平	ㄹ/m	ㅏ/jua	ㅇ/-ŋ	mong4	mɔŋ
195	妄	망	망	mjuan 開三去	ㄹ/m	ㅏ/jua	ㅇ/-ŋ	mong5	mɔŋ
196	𠵽	망	망	mjuan 開三上	ㄹ/m	ㅏ/jua	ㅇ/-ŋ	mong5	mɔŋ
197	名	명	명	mjeŋ 開三平	ㄹ/m	ɬ/jɛ	ㅇ/-ŋ	meng4	mɛŋ
198	命	명	명	mjeŋ 開三去	ㄹ/m	ɬ/jɛ	ㅇ/-ŋ	meng6	mɛŋ
199	民	민	민	mjen 開三平	ㄹ/m	ㅣ/jɛ	ㄴ/-n	man4	mɛn
200	泯	민	민	mjen 開三平	ㄹ/m	ㅣ/jɛ	ㄴ/-n	man5	mɛn
201	憫	민	민	mjɛn 開三上	ㄹ/m	ㅣ/jɛ	ㄴ/-n	man5	mɛn
202	門	문	문	muən 合一平	ㄹ/m	ㅏ/ua	ㄴ/-n	mun4	mɛn
203	文	문	문	mjuən 合三平	ㄹ/m	ㅏ/juə	ㄴ/-n	man4	mɛn
204	問	문	문	mjuən 合三去	ㄹ/m	ㅏ/juə	ㄴ/-n	man4	mɛn
205	聞	문	문	mjuən 合三平	ㄹ/m	ㅏ/juə	ㄴ/-n	man4	mɛn
206	萬	만	만	mjuen 合三去	ㄹ/m	ㅏ/jue	ㄴ/-n	maan6	man
207	滅	멸	·뵐	mjæt 開三入	ㄹ/m	ɬ/jæ	ㅌ/-t	mit6	mit
208	妙	묘	뵐	mjɛu 開三去	ㄹ/m	ㅏ/jæ	ㄹ/-u	miu6	miu
209	卯	묘	뵐	mau 開二上	ㄹ/m	ㅏ/a	ㄹ/-u	maau5	mau
210	母	모	뵐	mu 開一上	ㄹ/m	ㅏ/?	ㄹ/-u	mou5	mou
211	靡	미	뵐	mjɛ 開三上	ㄹ/m	ㅣ/jɛ		mei5	mei
212	味	매	뵐	muAi 合一去	ㄹ/m	ㅏ/ua	ㅣ/-i	mui6	mui
213	無	무	뵐	mjuo 合三平	ㄹ/m	ㅏ/juo		mou4	mou
214	彌	마	망	mua 合一平	ㄹ/m	ㅏ/ua		mo4	mɔ

145)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11	並	b ^h	b	b	b ^h	b	b	b	b	b	b ^h	b

215	魔	마	망	mua 合一平	ㄹ/m	ㅏ/ua		mo4	mɔ
216	磨	마	망	mua 合一平	ㄹ/m	ㅏ/ua		mo4	mɔ

『東國正韻』의 초성 ‘ㄹ’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무기음(양순 비음) [m]에 대응하며,¹⁴⁶⁾ 한어 중고음의 차탁, 월어의 양조(4·5·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간의 추정음은 일치하며, 중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5> 212의 昧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昧는 蟹攝에 속한다. <표55> 211의 靡는 止攝에 속하고,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하게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표56> 13. 전청 치음 郎·ㄷ·ts/te - 월어의 음조 1성·2성·3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중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217	增	증	증	tsəŋ 開一平	ㅈ/ts	-/ə	o/-ŋ	zang1	tsəŋ
218	曾	증	증	tsəŋ 開一平	ㅈ/ts	-/ə	o/-ŋ	zang1	tsəŋ
219	拯	증	징	tejəŋ 開三上	ㅈ/te	ㅣ/jə	o/-ŋ	cing2	tsʰeŋ
220	證	증	징	tejəŋ 開三去	ㅈ/te	ㅣ/jə	o/-ŋ	zing3	tseŋ
221	宗	종	종	tsuəŋ 合一平	ㅈ/ts	ㅓ/uo	o/-ŋ	zung1	tsəŋ
222	縱	중	중	tsjuəŋ 合三平	ㅈ/ts	ㅓ/juo	o/-ŋ	zung1	tsəŋ
223	終	중	중	tejuŋ 合三平	ㅈ/te	ㅓ/ju	o/-ŋ	zung1	tsəŋ
224	衆	중	중	tejuŋ 合三去	ㅈ/te	ㅓ/ju	o/-ŋ	zəng3	tsəŋ
225	正	정	정	tejeŋ 開三去	ㅈ/te	ㅓ/je	o/-ŋ	zeng3	tseŋ
226	精	정	정	tsjeŋ 開三平	ㅈ/ts	ㅓ/je	o/-ŋ	zeng1	tseŋ
227	則	즉	즉	tsək 開一入	ㅈ/ts	-/ə	ɿ/-k	zak1	tsək
228	囑	촉	·촉	tejuək 合三入	ㅈ/te	ㅓ/juo	ɿ/-k	zuk1	tsək
229	迹	적	·적	tsjek 開三入	ㅈ/ts	ㅓ/je	ɿ/-k	zik1	tsek
230	積	적	·적	tsjek 開三入	ㅈ/ts	ㅓ/je	ɿ/-k	zik1	tsek
231	臻	진	즌	tʃiən 開三平	ㅈ/tʃ	-/iɛ̃	ɿ/-n	zeon1	tsən
232	眞	진	진	tejen 開三平	ㅈ/te	ㅣ/je	ɿ/-n	zan1	tsən
233	軫	진	진	tejen 開三上	ㅈ/te	ㅣ/je	ɿ/-n	zan2	tsən
234	進	진	진	tsjen 開三去	ㅈ/ts	ㅣ/je	ɿ/-n	zeon3	tsən
235	尊	존	존	tsuən 合一平	ㅈ/ts	ㅓ/ua	ɿ/-n	zeon1	tsən
236	讚	찬	잔	tsan 開一去	ㅈ/ts	ㅏ/a	ɿ/-n	zaan3	tsan
237	煎	전	전	tsjæn 開三平	ㅈ/ts	ㅓ/jæ	ɿ/-n	zin1	tsin
238	薦	천	전	tsiæn 開四去	ㅈ/ts	ㅓ/iɛ	ɿ/-n	zin3	tsin
239	節	절	·절	tsiet 開四入	ㅈ/ts	ㅓ/iɛ	ʷ/-t	zit3	tsit
240	執	집	·집	tejep 開三入	ㅈ/te	ㅣ/je	ㅍ/-p	zap1	tsep
241	昭	소	촬	tejæu 開三平	ㅈ/te	ㅓ/jæ	ㅍ/-u	ziu1	tsʰiu
242	焦	초	촬	tsjæu 開三平	ㅈ/ts	ㅓ/jæ	ㅍ/-u	ziu1	tsiu

146)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12	明	m	m	m	m	m	m	m	m	m	m	m

243	資	자	중	tsjei 開三平	ㅈ/ts	·/jei		zi1	tsi
244	之	지	징	tei 開三平	ㅈ/te	l/i		zi1	tsi
245	止	지	징	tei 開三上	ㅈ/te	l/i		zi2	tsi
246	只	지	징	teje 開三平	ㅈ/te	l/je		zi2	tsi
247	旨	지	징	tejei 開三上	ㅈ/te	l/jei		zi2	tsi
248	指	지	징	tejei 開三上	ㅈ/te	l/jei		zi2	tsi
249	宰	재	징	tsAi 開一上	ㅈ/ts	·l/A	l/-i	zoi2	tsɔi
250	災	재	징	tsAi 開一平	ㅈ/ts	·l/A	l/-i	zoi1	tsɔi
251	哉	재	징	tsAi 開一平	ㅈ/ts	·l/A	l/-i	zoi1	tsɔi
252	在	재	징	dz ^h Ai 開一上	ㅈ/dz ^h	·l/A	l/-i	zoi6	tsɔi
253	祚	조	중	dz ^h uo 合一去	ㅈ/dz ^h	·l/uo		zou6	tsou
254	製	제	·쟁	tejæi 開三去	ㅈ/te	ɕ/jæ	l/-i	zai3	tsei
255	制	제	쟁	tejæi 開三去	ㅈ/te	ɕ/jæ	l/-i	zai3	tsei
256	濟	제	쟁	tsiei 開四上	ㅈ/ts	ɕ/ie	l/-i	zai3	tsei
257	際	제	쟁	tsjæi 開三去	ㅈ/ts	ɕ/jæ	l/-i	zai3	tsei
258	者	자	장	teja 開三上	ㅈ/te	ɸ/ja		ze2	tse
259	諸	제	정	tejo 開三平	ㅈ/te	ɕ/jo		zyu1	tsy

『東國正韻』의 초성 ‘ㅈ’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무기음(무성 치경 마찰음) [ts] · [tɕ]에 대응하며,¹⁴⁷⁾ 한어 중고음의 전청, 월어의 음조(1·2·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한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등분포 상황에 따라 대체로 [ts], [tɕ]의 범주이며, 중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6> 249-252, 254-257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l’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l’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宰·災·哉·在·製·制·濟·際는 蟹攝에 속한다. <표56> 244-248의 之·止·只·旨·指는 모두 止攝에 속하고,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l’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하게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표57> 14. 차청 치음 侵·ㄷ·ts^h/te^h - 월어의 음조 1성·2성·3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260	稱	칭	칭	te ^h jəŋ 開三平	ㅈ/te ^h	l/jə	o/-ŋ	cing1	ts ^h ɛŋ
261	愴	창	창	t ^h jəŋ 開三去	ㅈ/t ^h	ɸ/ja	o/-ŋ	cong3	ts ^h oŋ
262	戚	척	·척	ts ^h iek 開四入	ㅈ/ts ^h	ɕ/ie	ɸ/-k	cik1	ts ^h ɛk
263	千	천	천	tshien 開四平	ㅈ/ts ^h	ɕ/ie	ɸ/-n	cin1	ts ^h in
264	詮	전	현	tshjuæn 合三平	ㅈ/ts ^h	ɸ/juæ	ɸ/-n	cyun4	ts ^h yn
265	筌	전	현	tshjuæn 合三平	ㅈ/ts ^h	ɸ/juæ	ɸ/-n	cyun4	ts ^h yn
266	出	출	·출	te ^h juet 合三入	ㅈ/te ^h	ɸ/jue	ɸ/-t	ceot1	ts ^h æt

147)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21	精	ts										

267	切	절	·궐	ts ^h iet 開四入	ㄸ/ts ^h	ㄷ/ie	ㅁ/-t	cit3	ts ^h it
268	七	칠	·궐	ts ^h jet 開三入	ㄸ/ts ^h	ㄷ/je	ㅁ/-t	cat1	ts ^h et
269	寢	침	침	ts ^h jem 開三上	ㄸ/ts ^h	ㄷ/je	ㅁ/-m	cam2	ts ^h em
270	次	차	층	ts ^h jei 開三去	ㄸ/ts ^h	·/jei		ci3	ts ^h i
271	此	차	층	ts ^h je 開三上	ㄸ/ts ^h	·/je		ci2	ts ^h i
272	采	채	칭	ts ^h Ai 開一上	ㄸ/ts ^h	· /A	ㄷ/-i	coi2	ts ^h ci
273	悽	치	칭	ts ^h iei 開四平	ㄸ/ts ^h	ㄷ/ie	ㄷ/-i	cai1	ts ^h ei
274	切	체	칭	ts ^h iei 開四去	ㄸ/ts ^h	ㄷ/ie	ㄷ/-i	cai3	ts ^h ei
275	措	조	층	ts ^h uo 合一去	ㄸ/ts ^h	ㄷ/-uo		cou3	ts ^h ou
276	取	취	층	ts ^h juo 合三上	ㄸ/ts ^h	ㅍ/juo		ceoi2	ts ^h ei
277	處	처	청	te ^h jo 開三上	ㄸ/te ^h	ㄷ/jo		cyu2	ts ^h y

『東國正韻』의 초성 ‘ㄸ’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유기음(무성 치경 마찰음) [ts^h]·[tɕ^h]에 대응하며,¹⁴⁸⁾ 한어 중고음의 차칭, 월어의 음조(1·2·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한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등분포 상황에 따라 대체로 [ts^h], [tɕ^h]의 범주이며, 중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7> 272-274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采·悽·切은 蟹攝에 속한다.

<표58> 15. 전탁 치음 慈·玆·dz^h/dʒ^h - 월어의 양조 4성·5성·6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278	淨	정	정	dz ^h jeŋ 開三去	ㄸ/dz ^h	ㄷ/je	ㅇ/-ŋ	zeng6	tseŋ
279	情	정	정	dz ^h jeŋ 開三平	ㄸ/dz ^h	ㄷ/je	ㅇ/-ŋ	cing4	ts ^h eŋ
280	靜	정	정	dz ^h jeŋ 開三上	ㄸ/dz ^h	ㄷ/je	ㅇ/-ŋ	zing6	tseŋ
281	寂	적	·적	dz ^h iek 開四入	ㄸ/dz ^h	ㄷ/ie	ㄱ/-k	zik6	tsek
282	盡	진	진	dz ^h jen 開三上	ㄸ/dz ^h	ㄷ/je	ㄴ/-n	zeon6	tsæn
283	撰	찬	찬	dʒ ^h uan 合二上	ㄸ/dʒ ^h	ㅈ/ua	ㄴ/-n	zaan3	tsan
284	暫	잠	잠	dz ^h am 開一去	ㄸ/dz ^h	ㅈ/a	ㅁ/-m	zaam6	tsam
285	照	조	쥬	tejæu 開三去	ㄸ/te	ㅈ/jæ	몽/-u	ziu3	tsiu
286	就	취	쥬	dz ^h ju 開三去	ㄸ/dz ^h	ㅍ/j	몽/-u	zau6	tseu
287	字	자	쥬	dz ^h i 開三去	ㄸ/dz ^h	·/i		zi6	tsi
288	自	자	쥬	dz ^h jei 開三去	ㄸ/dz ^h	·/jei		zi6	tsi
289	慈	자	쥬	dz ^h i 開三平	ㄸ/dz ^h	·/i		ci4	ts ^h i

『東國正韻』의 초성 ‘ㄸ’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유기음(유성 치경 마찰음) [dz^h]·[dʒ^h]에 대응하며,¹⁴⁹⁾ 한어 중고음의 전탁, 월어의 양조(4·5·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

148)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14	清	ts ^h	ts ^h	tsh	ts ^h							

149)

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유성 유기음 [dz^h]와 유성 무기음 [dz]를 두고 견해가 다르지만, 유성음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9> 16. 전청 치음 戌·사·s - 월어의 음조 1성·2성·3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중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290	勝	승	싱	ejəŋ 開三平	ㅅ/ɛ	l/jə	o/-ŋ	sing1	seŋ
291	生	생	싱	fɛŋ 開二平	ㅅ/ɟ	·l/ɛ	o/-ŋ	sang1	seŋ
292	霜	상	상	fjaŋ 開三平	ㅅ/ɟ	l/ja	o/-ŋ	soeng1	sæŋ
293	相	상	상	sjaŋ 開三平	ㅅ/s	l/ja	o/-ŋ	soeng1	sæŋ
294	性	성	성	sjeŋ 開三去	ㅅ/s	ɕ/jɛ	o/-ŋ	sing3	seŋ
295	識	식	·식	fjæk 開三入	ㅅ/ɟ	l/jə	ɤ/-k	sik1	sek
296	色	색	·식	fjæk 開三入	ㅅ/ɟ	·l/jə	ɤ/-k	sik1	sek
297	速	속	·속	suk 合一入	ㅅ/s	ɤ/u	ɤ/-k	cuk1	tsʰok
298	釋	석	·석	ejək 開三入	ㅅ/ɛ	ɕ/jɛ	ɤ/-k	sik1	sek
299	昔	석	·석	sjək 開三入	ㅅ/s	ɕ/jɛ	ɤ/-k	sik1	sek
300	伸	신	신	ejen 開三平	ㅅ/ɛ	l/jɛ	ɤ/-n	san1	sɛn
301	新	신	신	sjen 開三平	ㅅ/s	l/jɛ	ɤ/-n	san1	sɛn
302	身	신	신	ejen 開三平	ㅅ/ɛ	l/jɛ	ɤ/-n	san1	sɛn
303	鮮	신	션	sjæn 開三平	ㅅ/s	ɤ/jæ	ɤ/-n	sin1	sin
304	仙	션	션	sjæn 開三平	ㅅ/s	ɕ/jæ	ɤ/-n	sin1	sin
305	先	션	션	sien 開四平	ㅅ/s	ɕ/iɛ	ɤ/-n	sin1	sin
306	宣	션	현	sjuæn 合三平	ㅅ/s	ɤ/juæ	ɤ/-n	syun1	syn
307	悉	실	·실	sjet 開三入	ㅅ/s	l/jɛ	ɤ/-t	sik1	sek
308	述	술	·술	dz ^h juet 合三入	ㅅ/dz ^h	ɤ/jue	ɤ/-t	seot6	sɔt
309	心	심	심	sjem 開三平	ㅅ/s	l/jɛ	ɤ/-m	sam1	sɛm
310	三	삼	삼	sam 開一平	ㅅ/s	l/a	ɤ/-m	saam1	sam
311	攝	섭	·섭	ejæp 開三入	ㅅ/ɛ	ɕ/jæ	ɤ/-p	sip3	sip
312	消	소	훙	sjæu 開三平	ㅅ/s	ɤ/jæ	ɤ/-u	siu1	siu
313	搜	소	훙	fju 開三平	ㅅ/ɟ	ɤ/j	ɤ/-u	sau1	sɛu
314	首	수	훙	ɛju 開三上	ㅅ/ɛ	ɤ/j	ɤ/-u	sau2	sɛu
315	修	수	훙	sju 開三平	ㅅ/s	ɤ/j	ɤ/-u	sau1	sɛu
316	思	사	승	si 開三平	ㅅ/s	·/i		sil	si
317	師	사	승	fjei 開三平	ㅅ/ɟ	·/jei		sil	si
318	使	사	승	fi 開三上	ㅅ/ɟ	·/i		sai2	sɛi
319	賜	사	승	sje 開三去	ㅅ/s	·/je		ci3	tsʰi
320	四	사	승	sjei 開三去	ㅅ/s	·/jei		sei3	sei
321	肆	사	승	sjei 開三去	ㅅ/s	·/jei		sei3	sei
322	始	시	싱	ei 開三上	ㅅ/ɛ	l/i		ci2	tsʰi
323	弛	시	싱	eje 開三上	ㅅ/ɛ	l/jɛ		ci2	tsʰi
324	雖	수	훙	sjuei 合三平	ㅅ/s	ɤ/juei	l/-i	seoi1	sɔy
325	世	세	·생	ejæi 開三去	ㅅ/ɛ	ɕ/jæi	l/-i	sai3	sɛi
326	西	서	생	siei 開四平	ㅅ/s	ɕ/iei	l/-i	sai1	sɛi
327	歲	세	훙	sjuæi 合三去	ㅅ/s	ɤ/juæi	l/-i	seoi3	sɔy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15	從	dz ^h	dz	dz	dz ^h	dz	dz	dz	dz	dz	dz ^h	dz

328	疏	소	송	fjo 開三平	ㅅ/ㅍ	ㅓ-/ㅗ		sol	so
329	所	소	송	fjo 開三上	ㅅ/ㅍ	ㅓ-/ㅗ		so2	so
330	沙	사	상	fa 開二平	ㅅ/ㅍ	ㅓ/a		saal	sa
331	捨	사	상	eja 開三上	ㅅ/ㄷ	ㅓ/ㅗ		se2	se
332	書	서	성	ejo 開三平	ㅅ/ㄷ	ㅓ/ㅗ		syu1	sy
333	庶	서	성	tejo 開三去	ㅅ/ㄷ	ㅓ/ㅗ		syu3	sy

『東國正韻』의 초성 ‘ㅅ’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음(무성 치경 마찰음) [s]·[ç]·[ʃ]에 대응하며,¹⁵⁰⁾ 한어 중고음의 전청, 월어의 음조(1·2·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한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대체로 [s]·[ç]의 범주이며, 중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9> 324-326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표59> 327의 중성은 두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雖는 止攝에 속하고, 世·西·歲는 蟹攝에 속한다. <표59> 322-323의 始·弛는 모두 止攝에 속하고,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하게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표59> 324-326 한자 주음에 활용된 중성은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ㅣ’를 빼면 현재 한글 한자음과 비슷하지만, ‘ㅣ’를 사용한 것은 운미를 맞추고자 한 예로 꼽을 수 있다.

<표60> 17. 전탁 치음 邪·ㅅ·z - 월어의 양조 4성·5성·6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334	乘	승	쌩	dz ^h jəŋ 開三平	ㅅ/dz ^h	ㅣ/jə	ㅇ/-ŋ	sing4	seŋ
335	頌	송	쑹	zjuoŋ 合三去	ㅅ/z	ㅓ/juo	ㅇ/-ŋ	zung6	tsoŋ
336	誦	송	쑹	zjuoŋ 合三去	ㅅ/z	ㅓ/juo	ㅇ/-ŋ	zung6	tsoŋ
337	詳	상	쌩	zjaŋ 開三平	ㅅ/z	ㅓ/ja	ㅇ/-ŋ	coeng4	ts ^h æŋ
338	常	상	쌩	zjaŋ 開三平	ㅅ/z	ㅓ/ja	ㅇ/-ŋ	soeng4	sæŋ
339	上	상	쌩	zjaŋ 開三去	ㅅ/z	ㅓ/ja	ㅇ/-ŋ	soeng5	sæŋ
340	崇	승	쑹	dz ^h juŋ 合三平	ㅅ/dz ^h	ㅓ/ju	ㅇ/-ŋ	sung4	soŋ
341	成	성	쌩	zjeŋ 開三平	ㅅ/z	ㅓ/je	ㅇ/-ŋ	seng4	seng
342	食	식	·씩	dz ^h jək 開三入	ㅅ/dz ^h	ㅣ/jə	ㅇ/-ŋ	sik6	sek
343	植	식	·씩	dz ^h jək 開三入	ㅅ/dz ^h	ㅣ/jə	ㄱ/-k	zik6	tsek
344	神	신	썸	dz ^h jen 開三平	ㅅ/dz ^h	ㅣ/je	ㄴ/-n	san4	sɛn
345	順	순	썸	dz ^h juen 合三去	ㅅ/dz ^h	ㅓ/jue	ㄴ/-n	seon6	sɛn
346	實	실	·썸	dz ^h jet 開三入	ㅅ/dz ^h	ㅣ/je	ㅌ/-t	sat6	sɛt
347	十	십	·썸	zjep 開三入	ㅅ/z	ㅣ/je	ㅍ/-p	sap6	sɛp
348	翳	습	·썸	zjep 開三入	ㅅ/z	ㅣ/je	ㅍ/-p	zaap6	tsap

150)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16	心	s	s	s	s	s	s	s	s	s	s	s

349	受	수	쑹	zju 開三上	ㅅ/z	ㅍ/ju	옹/-u	sau6	səu
350	事	사	상	dʒʰi 開三去	ㅅ/dʒʰ	·/i		si6	si
351	嗣	사	상	zi 開三去	ㅅ/z	·/i		zi6	tsi
352	時	시	쌍	zi 開三平	ㅅ/z	ㅣ/i		si4	si
353	是	시	쌍	zje 開三上	ㅅ/z	ㅣ/je		si6	si
354	示	시	쌍	dzʰjei 開三去	ㅅ/dzʰ	ㅣ/jei		si6	si
355	遂	수	쑹	zjuei 合三去	ㅅ/z	ㅍ/juei	ㅣ/-i	seoi6	səy
356	誓	세	쌍	zjæi 開三去	ㅅ/z	ㅋ/jæ	ㅣ/-i	sai6	səi
357	殊	수	쑹	zjuo 合三平	ㅅ/z	ㅍ/juo		syu4	sy
358	序	서	쌍	zjo 開三上	ㅅ/z	ㅋ/jo		zeoi6	tsəy

『東國正韻』의 초성 ‘ㅅ’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치경 마찰음 [z]·[z]·[dʒʰ]에 대응하며,¹⁵¹⁾ 한어 중고음의 전탁, 월어의 양조(4·5·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董同龢의 추정음 내에서도 유성 유기음 [dʒʰ]과 유성 무기음 [z]·[z]이 모두 나타나지만, 크게 유성음의 범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ㅅ’은 현재 한국 한자음에서 모두 ‘ㅅ’으로 변화했고, 월어에서도 대체로 [s]로 나타나지만, [ts]와 [tsʰ]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한자음과 월어에서 한어 중고음의 邪母가 대체로 [ʃ]와 [s]로 나타나지만,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ʃ]와 [s]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언어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지만,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 있어 중국 내 방언이나, 주변국의 한자음 독음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s]가 후두강 위주로 발생되는 것, 월어의 양조에 해당하는 초분절 자질이 전탁자 邪母의 음가·음색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음의 범주, 즉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한국 한자음으로의 변화 과정을 살피는 것에서도 한어 중고음의 음가가 설명되고, 발생의 특징은 월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60> 355-356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遂는 止攝에 속하고 誓는 蟹攝에 속한다. <표60> 352-354의 時·是·示는 모두 止攝에 속하지만,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고, 止攝이 포괄하는 [i], [je], [jei]와 대응한다.

<표61> 18. 전청 후음 搨·亨·? - 월어의 음조 1성·2성·3성

No	한	현재	동국	중고음	초성	중성	종성	월어	월어
----	---	----	----	-----	----	----	----	----	----

151)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17	邪	z	z	z	z	z	z	z	z	z	z	z

	자	음	정음	(開闔·等·聲調)	/성모	/원음	/운미	병음	IPA
359	擁	옹	·옹	?juoŋ 合三上	ㅇ/?	ㅓ/juo	ㅇ/-ŋ	jung2	j/ø ioŋ
360	扃	액	·혁	?æk 開二入	ㅇ/?	·l/æ	ㄱ/-k	ak1	e/ŋ k
361	益	익	·혁	?jek 開三入	ㅇ/?	ㅋ/je	ㄱ/-k	jik1	j/ø iek
362	櫛	은	·흔	?jən 開三上	ㅇ/?	ㅡ/jə	ㄴ/-n	jan2	j(i)en
363	印	인	·힌	?jen 開三去	ㅇ/?	l/je	ㄴ/-n	jan3	j(i)en
364	因	인	·힌	?jen 開三平	ㅇ/?	l/je	ㄴ/-n	jan1	j(i)en
365	安	안	·한	?an 開一平	ㅇ/?	ㅏ/a	ㄴ/-n	ngon1	ŋ/ø on
366	一	일	·획	?jet 開三入	ㅇ/?	l/je	ㅌ/-t	jat1	j(i)et
367	音	음	·흠	?jəm 開三平	ㅇ/?	ㅡ/je	ㅁ/-m	jaml	j(i)em
368	庵	암	·힘	?Am 開一平	ㅇ/?	ㅏ/A	ㅁ/-m	aml	ŋ/ø em
369	夭	요	·흠	?jæu 開三平	ㅇ/?	ㅓ/jæ	ㅁ/-u	jiu1	jiu
370	要	요	·흠	?jæu 開三平	ㅇ/?	ㅓ/jæ	ㅁ/-u	jiu1	j/ø iu
371	哀	애	·힉	?Ai 開一平	ㅇ/?	·l/A	ㅣ/-i	oil	ŋ/ø ɔi
372	威	위	·힉	?juɛi 合三平	ㅇ/?	ㅓ/juɛ	ㅣ/-i	wail	w/ø (u)ɛi
373	鳴	오	·홍	?uo 合一平	ㅇ/?	ㅓ/uo		wu1	wu
374	於	어	·형	?uo 合一平	ㅇ/?	ㅓ/uo		jyu1	jy

『東國正韻』의 초성 ‘ㅇ’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성문 파열음 [ʔ]에 대응하며,¹⁵²⁾ 한어 중고음의 전청, 월어의 음조(1·2·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한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대체로 [ʔ]로 일치하나, 王力과 李方桂는 한어 중고음의 影母를 零聲母로 추정하고 있다. ‘ㅇ’은 우리말의 음운 관념에서 ‘ㅇ’과 구별이 되지 않고, 보통화에서는 영성모와 반모음 [j]로, 월어에서는 영성모와 聲母 [j]로 통일되는 것으로 보아, 뚜렷한 마찰이 있는 소리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j]와 관련이 깊은 소리이므로 경구개 접근음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만하다. 월어의 성조에서도 『東國正韻』의 搥母 ‘ㅇ’이 사용된 한자음의 성조 값은 대체로 높음(1, 2, 3)을 알 수 있고, 欲母 ‘ㅇ’이 사용된 한자음의 성조 값은 대체로 낮음(4, 5, 6)을 알 수 있다.¹⁵³⁾

중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61> 371-372의 중성은 한 글자

152)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18	影	ʔ	0	·	ʔ	ʔ	ʔ	ʔ	ʔ	ʔ	ʔ	ʔ

153) 편의적으로 1-6의 숫자로 광동어의 성조를 표기한다. 1부터 6까지 순서대로 ① 음평(陰平)(55調) → ② 음상(陰上)(35調) → ③ 음거(陰去)(33調) → ④ 양평(陽平)(21調) → ⑤ 양상(陽上)(13調) → ⑥ 양거(陽去)(22調)이며, 양입(陽入)(22調), 중입(中入)(33調)과 음입(陰入)(55調)은 양거(陽去)(22調), 음거(陰去)(33調), 그리고 음평(陰平)(55調)와의 성조 조치가 같으므로 이들 역시 ①, ③, ⑥다. 성조의 실제 양상은 아래와 같다. 성조의 값은 높으면 높을수록 음가가 높다. 음(陰)에 대응되는 성조는 전부 그 성조 값이 높고, 양(陽)에 대응되는 성조는 성조 값이 낮다. 그 중에 음평(陰平)은 55調와 53調로 분류할 수 있지만 현대 청년층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55調로 발음한다. 양평(陽平)은 11調 또는 21調로 표기하지 만 그 성조 조치는 서로 비슷하다. 양현, 「한국어와 광동어의 어휘·문법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4쪽.

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𪚩는 蟹攝에 속하고, 威는 止攝에 속한다.

<표62> 19. 차청 후음 虛·ㅎ·x - 월어의 음조 1성·2성·3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375	向	향	향	xjaŋ 開三去	ㅎ/x	ㅍ/ja	ㅇ/-ŋ	hoeng3	hœŋ
376	勳	훈	훈	xjuən 合三平	ㅎ/x	ㅌ/juə	ㄴ/-n	fan1	fen
377	訓	훈	훈	xjuən 合三去	ㅎ/x	ㅌ/juə	ㄴ/-n	fan3	fen
378	憲	헌	헌	xjɛn 開三去	ㅎ/x	ㅌ/jɛ	ㄴ/-n	hin3	hin
379	朽	후	홍	xju 開三上	ㅎ/x	ㅌ/j	몽/-u	jau2	r̥eu
380	曉	효	홍	xiɛu 開四上	ㅎ/x	ㅌ/iɛ	몽/-u	hiu2	hiu
381	海	해	형	xAi 開一上	ㅎ/x	ㅣ/A	ㅣ/-i	hoi2	hɔi
382	諱	휘	형	xjuəi 合三去	ㅎ/x	ㅌ/juə	ㅣ/-i	wai3	wei
383	呼	호	홍	xuo 合一平	ㅎ/x	ㄴ/uo		ful	fu

『東國正韻』의 초성 ‘ㅎ’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연구개 마찰음 [x]에 대응하며,¹⁵⁴⁾ 한어 중고음의 차청, 월어의 음조(1·2·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한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대체로 [x], [h]로 일치하며, 중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63> 381-382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海는 蟹攝에 속하고, 諱는 止攝에 속한다.

<표63> 20. 전탁 후음 洪·ㅎ·ɣ - 월어의 양조 4성·5성·6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384	弘	홍	형	ɣuəŋ 合一平	ㅎ/ɣ	ㅌ/ua	ㅇ/-ŋ	wang4	wɛŋ
385	恒	항	형	ɣəŋ 開一平	ㅎ/ɣ	ㅌ/ə	ㅇ/-ŋ	hang4	hɛŋ
386	迥	형	형	ɣiuəŋ 合四上	ㅎ/ɣ	ㅌ/iue	ㅇ/-ŋ	gwing2	kueŋ
387	學	학	학	ɣɔk 開二入	ㅎ/ɣ	ㅌ/ɔ	ㄱ/-k	hok6	hɔk
388	閑	한	한	ɣæn 開二平	ㅎ/ɣ	ㅌ/æ	ㄴ/-n	haan4	han
389	現	현	현	ɣien 開四去	ㅎ/ɣ	ㅌ/iɛ	ㄴ/-n	jin6	jin
390	玄	현	현	ɣiuən 合四平	ㅎ/ɣ	ㅌ/iue	ㄴ/-n	jyun4	jyn
391	曷	할	학	ɣat 開一入	ㅎ/ɣ	ㅌ/a	ㅌ/-t	hot6	hot
392	合	합	합	ɣAp 開一入	ㅎ/ɣ	ㅌ/A	ㅌ/-p	hap6	hap
393	后	후	홍	ɣ(ə)u 開一上	ㅎ/ɣ	ㄴ/?	몽/-u	hau6	heu
394	浩	호	홍	ɣau 開一上	ㅎ/ɣ	ㄴ/a	몽/-u	hou5	hou

154)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19	曉	x	h	x	x	x	x	x	h	h	x	h

395	號	호	홍	ɣau 開一平	ஹ/ɣ	ㄱ-/a	ᄃ/-u	hou6	hou
396	繪	회	횡	ɣuai 合一去	ஹ/ɣ	ㅅ-/ua	ㅣ/-i	kui2	kʰui
398	回	회	횡	ɣuAi 合一平	ஹ/ɣ	ㅅ-/uA	ㅣ/-i	wui4	wui
399	廻	회	횡	ɣuAi 合一平	ஹ/ɣ	ㅅ-/uA	ㅣ/-i	wui4	wui
400	慧	혜	횡	ɣiuei 合四去	ஹ/ɣ	ㅅㅣ/ue	ㅣ/-i	wai3	wɛi
401	乎	호	홍	ɣuo 合一平	ஹ/ɣ	ㄱ-/uo		fu4	fu
402	何	하	향	ɣa 開一上	ஹ/ɣ	ㅏ/a		ho4	hɔ
403	暇	가	향	ɣa 開二去	ஹ/ɣ	ㅏ/a		haa6	ha

『東國正韻』의 초성 ‘ஹ’은 대체로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연구개 마찰음 [ɣ]에 대응하며,¹⁵⁵⁾ 한어 중고음의 전탁, 월어의 양조(4·5·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대체로 [ɣ]로 일치하나 [ŋ]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앞서 살펴본 전탁자 ‘ㄱ, ㄷ, ㅂ, ㅈ, ㅊ’가 일률적으로 유성음이었으므로, ‘ஹ’의 추정음은 유성 연구개 마찰음인 [ɣ]이 타당해 보인다.

중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63> 396-400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繪·回·廻·慧는 모두 蟹攝에 속한다. 『東國正韻』의 23자모 중 전탁자 ㄱ, ㄷ, ㅂ, ㅈ, ㅊ, ㅎ는 모두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음과 대응 관계를 보이는데, 이 중 ㄱ, ㄷ, ㅂ는 董同龢의 추정음에서 유성 무기음과 대응 관계를 보인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전탁의 소리는 “ㄱ, ㄷ, ㅂ”에다 “ㅈ, ㅊ”가 있고 또한 “ㅎ”가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¹⁵⁶⁾ ‘ㄱ, ㄷ, ㅂ’와 ‘ㅈ, ㅊ’, 그리고 ‘ㅎ’의 성격이 다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64> 21. 불청불탁 후음 欲·ㅇ·ㅇ - 월어의 양조 4성·5성·6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중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404	用	용	용	Øjuoŋ 合三去	ㅇ/Ø	ㅍ/juo	ㅇ/-ŋ	jung6	j/ø (i)oŋ
405	陽	양	양	Øjaŋ 開三平	ㅇ/Ø	ㅏ/ja	ㅇ/-ŋ	joeng4	j/ø (i)æŋ
406	養	양	양	Øjaŋ 開三去	ㅇ/Ø	ㅏ/ja	ㅇ/-ŋ	joeng5	j/ø (i)æŋ
407	欲	욕	·욕	Øjuok 合三入	ㅇ/Ø	ㅍ/juo	ㅏ/-k	juk6	j/ø (i)ok
408	亦	역	·역	Øjek 開三入	ㅇ/Ø	ㅋ/je	ㅏ/-k	jik6	j/ø (i)ek
409	譯	역	·역	Øjek 開三入	ㅇ/Ø	ㅋ/je	ㅏ/-k	jik6	j/ø (i)ek
410	寅	인	인	Øjei 開三平	ㅇ/Ø	ㅣ/jei	ㄴ/-n	jan4	j/ø (i)ɛn

155)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20	匣	ɣ	ɣ	ɣ	ɣ	ɣ	ɣ	ɣ	ɦ	ɦ	ɣ	ɦ

156)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全濁之聲叫覃步 又有慈邪亦有洪.

411	焉	언	언	?jen 開三平	o/?	ㅈ/jɛ	ㄴ/-n	jin4	j/ø in
412	濱	연	연	Øjæn 開三上	o/Ø	ㅈ/jæ	ㄴ/-n	jin5	j/ø in
413	原	원	원	njuen 合三平	o/n	ㅈ/jue	ㄴ/-n	jyun4	j/ø yn
414	緣	원	원	Øjuæn 合三去	o/Ø	ㅈ/juæ	ㄴ/-n	jyun4	j/ø yn
415	闊	염	염	Øjæm 開三平	o/Ø	ㅈ/jæ	ㅁ/-m	jim4	j/ø im
416	耀	요	윽	Øjæu 開三去	o/Ø	ㅈ/jæ	ㅁ/-u	jiu6	j/ø iu
417	祐	우	윽	ɣju 開三去	o/ɣ	ㅈ/j	ㅁ/-u	jau6	j/ø (i)eu
418	攸	유	윽	Øju 開三平	o/Ø	ㅈ/j	ㅁ/-u	jau4	j/ø (i)eu
419	猶	유	윽	Øju 開三平	o/Ø	ㅈ/j	ㅁ/-u	jau4	j/ø (i)eu
420	以	이	잉	Øi 開三上	o/Ø	ㅣ/i		ji5	j/ø i
421	異	이	잉	Øi 開三去	o/Ø	ㅣ/i		ji6	j/ø i
422	易	이	잉	Øje 開三去	o/Ø	ㅣ/jɛ		ji6	j/ø i
423	爲	위	윽	ɣjuɛ 開三平	o/ɣ	ㅈ/jue	ㅣ/?	wai4	w/ø (u)ei
424	惟	유	윽	Øjuei 合三平	o/Ø	ㅈ/jue	ㅣ/-i	wai4	w/ø (u)ei
425	遺	유	윽	Øjuei 合三平	o/Ø	ㅈ/jue	ㅣ/-i	wai4	w/ø (u)ei
426	夜	야	양	Øja 開三去	o/Ø	ㅈ/ja		je6	j/ø (i)ɛ
427	與	여	영	Øjo 開三上	o/Ø	ㅈ/jo		jyu4	j/ø y
428	予	여	영	Øjo 開三上	o/Ø	ㅈ/jo		jyu4	j/ø y

『東國正韻』의 초성 ‘ㅇ’은 대체로 한어 중고음 추정음 零聲母 ‘ø’에 대응하며,¹⁵⁷⁾ 한어 중고음의 차탁, 월어의 양조(4·5·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대체로 ‘ø’로 일치하나 경구개 접근음인 [j]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초성 ‘ㅇ’과 ‘ㅎ’은 마찰 및 특정 장애 요소를 가진 음가라고 보기 어렵다. 영성모를 성대 진동음의 범주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성문 파열음 [ʔ]이 후두강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동하는 공명음이라 분석하고, 한어 중고음의 影母에 해당하는 ‘ㅎ’은 성대 진동음의 무게중심이 구강까지 뺏어나가는 공명음이라 분석할 경우, 불청불탁 ‘ㅇ’과 전청 ‘ㅎ’의 관계가 성립되며, ‘ㅇ’의 초성, 중성, 순경음에서의 사용 및 ‘ㅎ’의 以影補來의 사용이 모두 설명이 된다.

중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64> 424, 425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惟·遺는 止攝에 속한다. <표64> 423의 爲의 한자음은 ‘윽’로 ‘ㅈ’다음에 ‘ㅣ’가 쓰였으므로 중성자와 결합한 ‘ㅣ’의 사용인데, 爲의 운목은 支 [jei]이고 섭은 止 [je, jɛ, jei, jɛi, i, jɛi]이므로, 운미 [-i]가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크지만, 董同龢뿐만 아니라 이외의 학자의 추정음에

157)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21	喻	0	j	ji	0	0	0	0	j	j	0	j

서도 운미 [-i]를 확인할 수 없다.¹⁵⁸⁾ 爲의 월어와 보통화 발음은 각각 [wei]와 [uei]로 운미 [-i]를 확인할 수 있고, 爲의 한국 한자음과 일본 한자음은 각각 ‘위’과 ‘이’로 [-i]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리이므로, 『東國正韻』 편찬자가 爲의 운미에서 의도한 소리는 [-i]일 것이다.

<표64> 420-422의 한자는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丨’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以·異·易은 모두 止攝이다.

<표65> 22. 불청불탁 반설음 閩·르·丨 - 월어의 양조 4성·5성·6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429	龔	농/롱	롱	luŋ 合一平	ㄹ/丨	ㄱ/-u	ㅇ/-ŋ	lung4	loŋ
430	龍	용/롱	롱	ljuoŋ 合三平	ㄹ/丨	ㄱ/juo	ㅇ/-ŋ	lung4	loŋ
431	量	양/량	량	ljaŋ 開三平	ㄹ/丨	ㅍ/ja	ㅇ/-ŋ	loeng4	læŋ
432	兩	양/량	량	ljaŋ 開三上	ㄹ/丨	ㅍ/ja	ㅇ/-ŋ	loeng5	læŋ
433	靈	영/령	령	lieŋ 開四平	ㄹ/丨	ㅋ/ie	ㅇ/-ŋ	ling4	leŋ
434	力	역/력	·룩	ljək 開三入	ㄹ/丨	ㅍ/jə	ㄱ/-k	lik6	lek
435	攬	낙/록	·룩	luk 合一入	ㄹ/丨	ㄱ/-u	ㄱ/-k	luk6	lok
436	樂	낙/락	·락	lak 開一入	ㄹ/丨	ㅍ/a	ㄱ/-k	lok6	lɔk
437	略	약/략	·략	ljak 開三入	ㄹ/丨	ㅍ/ja	ㄱ/-k	loek6	læk
438	六	육/륙	·륙	ljuk 合三入	ㄹ/丨	ㅍ/ju	ㄱ/-k	luk6	lok
439	輪	윤/룬	룬	ljuen 合三平	ㄹ/丨	ㅍ/jue	ㄴ/-n	leon4	læn
440	律	율/률	·률	ljuet 合三入	ㄹ/丨	ㅍ/jue	ㅌ/-t	leot6	læt
441	聿	율	·률	Øjuet 合三入	ㄹ/Ø	ㅍ/jue	ㅌ/-t	leot6	læt
442	覽	남/람	람	lam 開一上	ㄹ/丨	ㅍ/a	ㅁ/-m	laam5	lam
443	撈	노/로	롱	lau 開一平	ㄹ/丨	ㄱ/-a	몽/-u	lou4	lou
444	寥	요/료	롱	lieu 開四平	ㄹ/丨	ㄱ/ie	몽/-u	liu4	liu
445	了	요/료	롱	lieu 開四上	ㄹ/丨	ㄱ/ie	몽/-u	liu5	liu
446	流	유/류	롱	lju 開三平	ㄹ/丨	ㅍ/j	몽/-u	lau4	leu
447	留	유/류	롱	lju 開三平	ㄹ/丨	ㅍ/j	몽/-u	lau4	leu
448	離	이/리	링	lje 開三平	ㄹ/丨	ㅣ/je		lei4	lei
449	理	이/리	링	li 開三上	ㄹ/丨	ㅣ/i		lei5	lei
450	來	내/래	링	lAi 開一平	ㄹ/丨	·ㅣ/A	ㅣ/-i	loi4	loi
451	露	노/로	롱	luo 合一去	ㄹ/丨	ㄱ/-uo		lou6	lou
452	羅	나/라	랑	la 開一平	ㄹ/丨	ㅍ/a		lo4	lɔ

『東國正韻』의 초성 ‘ㄹ’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l]에 대응하며,¹⁵⁹⁾ 한어 중고음의 차탁, 월어의 양조(4·5·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l]로 일치하며 중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65> 450의 중성은 한 글자

158) 王力[ɣiwe], 李榮[ɣjue], 邵榮芬 [ɣiue], 鄭張尚芳[hɣiue], 潘梧雲[h*uiɛ], 蒲立本[hjwiä]

159)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22	來	l	l	l	l	l	l	l	l	l	l	l

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來는 蟹攝에 속한다. <표65> 449의 理는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理는 止攝에 속한다. 중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월어에서 인사말 你好는 ‘néihou’로 발음되기도 하고 ‘léihou’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월어 [i]에 불청불탁 공명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다. 월어에서 공명음의 자질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공명음이 9성 6조를 변별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표66> 23. 불청불탁 반치음 穰·△·ㄴ - 월어의 양조 4성·5성·6성

No	한자	현재음	동국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중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453	人	인	신	n.jen 開三平	△/n	ㅣ/je	ㄴ/-n	jan4	jen
454	潤	윤	순	n.juen 合三去	△/n	ㅍ/jue	ㄴ/-n	jeon6	jøn
455	然	연	션	n.jæn 開三平	△/n	ㅋ/jæ	ㄴ/-n	jin4	jɪn
456	日	일	·씹	n.jet 開三入	△/n	ㅣ/je	ㅌ/-t	jat6	jat
457	入	입	·씹	n.jep 開三入	△/n	ㅣ/je	ㅍ/-p	jap6	jɛp
458	而	이	싱	n.i 開三平	△/n	ㅣ/i		ji4	ji
459	兒	아	싱	n.je 開三平	△/n	ㅣ/je		ji4	ji
460	耳	이	싱	n.i 開三上	△/n	ㅣ/i		ji5	ji
461	二	이	싱	n.jei 開三去	△/n	ㅣ/jei		ji6	ji
462	如	여	성	n.jo 開三平	△/n	ㅋ/jo		jyu4	jy
463	汝	여	성	n.jo 開三上	△/n	ㅋ/jo		jyu5	jy

『東國正韻』의 초성 ‘△’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n_ɿ]에 대응하며,¹⁶⁰⁾ 학자 간의 추정음은 [n_ɿ]·[ɾ]·[n_ɿ]·[nz]로 다양하다. <표66> 458-461의 중성은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而·兒·耳·二是 모두 止攝에 속한다. 중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東國正韻』의 ‘△’은 한국 한자음만을 기록하고자 한 『訓蒙字會』에 남아있으므로 중세 국어에서 어느 정도 인식되었던 음가였을 가능성이 있다.¹⁶¹⁾ 후에 ‘△’이 ‘ㅇ’으로 변화한

160)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23	日	n _ɿ z	ɾ	ɾí	n _ɿ	nz	n _ɿ					

161) 『훈몽자회』에는 ‘△’ 초성자가 48개 보이는데, 이 가운데 5개가 ‘ㅇ’ 초성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3개는 ‘ㄴ’ 초성과 ‘ㅅ’ 초성으로 나타난다. 곧 이 8개의 글자는 『동국정운』에 따르면 ‘△’ 초성이어야 하는데, 『훈몽자회』에서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

것으로 보아 ‘△’에 ‘○’과 구별되는 뚜렷한 변별 자질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은 공명의 무게중심이 치경 경구개에 있는 공명음이라 판단할 수 있다. 日母를 [n_r]로 추정할 경우 한어 중고음의 [n_r]이 월어의 [j]로, 『東國正韻』의 ‘△’이 한국한자음에서 ‘○’으로 변화한 것이 모두 설명되지만, 日母를 [n_rz]¹⁶²⁾으로 추정할 경우, 받침음 [n_rz]이 소실된 이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이상 <표44>에서 <표66>까지의 한어 중고음의 운미, 월어의 운미, 『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의 대응 관계를 살펴본 것은 다음과 같다.

<표67> 한어 중고음의 운미, 월어의 운미, 『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 비교

	한어 중고음 운미	월어 운미	『東國正韻』 중성	비고	16攝
1	-ŋ	-ŋ	ㅇ(엠티옹)		通·梗·曾·江·宕
2	-k	-k	ㄱ		
3	-n	-n	ㄴ		臻·山
4	-t	-t	ㄷ	교정: 舌內入聲 /-t/	
5	-m	-m	ㅁ		深·咸
6	-p	-p	ㅂ		
7	-u(w)	-u(w)	ㅇ	교정: 效攝·流攝의 음성운	效·流
8	-i	-i	ㅇ	중성자와 결합한 ‘ㅣ’	止·蟹
9	(단운모) 음성운	(단운모) 음성운	ㅇ		止·遇·假·果

『東國正韻』 한자음으로 주음하고 있는 『釋譜詳節』·『月印釋譜』·世宗御製訓民正音 序에 쓰인 463자의 한자음을 董同龢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 대응시켜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 ‘ㅇ, ㄱ, ㄴ, ㄷ, ㅁ, ㅂ, ㅁ, ㅇ’는 중고음의 운미 ‘-ŋ, -k, -n, -t, -m, -p, -u, -i’와 명확한 대응 관계를 보였다. 463자 중 단운모에 해당하는 글자 107자를 제외한 356자 중 353자의 중성이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였으며, 대응하지 않는 3자는 ‘宜’(止攝)·‘義’(止攝)·‘爲’(止攝)로 한어 중고음에서는 모두 止攝에 속하지만 『東國正韻』 한자음에서는 중성자와 결합한 ‘ㅣ’인 ‘宜’(잉)·‘義’(잉)·‘爲’(잉)로 표기되는 글자이다. 止攝과 蟹攝을 해석함에 있어 『東國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쪽.
162) 칼그렌의 재구음에 대해서 董同龢는 억지스러워서 쓰기 어렵다고 했다.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1쪽.

『東國正韻』 편찬자가 어떤 고민을 하였을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중성자와 결합한 ‘ㅣ’는 한어 중고음 蟹攝의 운미 [-i]와 대응 관계를 보였고, 본고에서 표본으로 정한 한자음의 범위 내에서 중성자와 결합한 ‘ㅣ’와 한어 중고음 蟹攝의 운미 [-i]는 모두 대응했다.

둘째, 『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은 중고음의 開合·等韻과 대응 관계를 보였다. 중성의 특성상 특히 운미의 결합(入聲韻·陽聲韻·陰聲韻)에 따라 추정음이 달라지므로 초성·중성에 비해 명확한 대응 관계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아래아)/e·ə, -/ə·jə, ㅣ/i·je·jei, ·ㅣ/e·æ·uAi, -ㅣ/(jə)i, ㅣ/uAi, ㅍ/ei·æi, ㅓ, ㅍ/juəi, ㅍ/juei, ㅍ/iei·jæi, ㅍ/juæi, ㅍ/u·juo, ㅍ/juo, ㅍ/a·o·e, ㅍ/ja, ㅍ/ua, ㅍ/ju(ə), ㅍ/ju(e), ㅍ/jo·uo, ㅍ/je·ie, ㅍ/jue, ㅍ/iue·juæ’와 같은 대응관계를 보였다.

셋째, 『東國正韻』 한자음의 초성에 해당하는 23字母는 董同龢의 추정음을 근거로 했을 때 한어 중고음의 성모와 대체로 ‘ㄱ/k, ㅋ/kʰ, ㆁ/gʰ, ㅇ/ŋ, ㄷ/t, ㅌ/tʰ, ㄸ/dʰ, ㄴ/n, ㅍ/p, ㅑ/pʰ, ㅑ/bʰ, ㅓ/m, ㅕ/ts·te, ㅕ/tsʰ, ㅕ/dzʰ, ㅕ/s·e, ㅕ/dzʰ·z, ㅕ/? , ㅕ/x, ㅕ/ɣ, ㅇ/ø, ㄹ/l, ㄴ/n’와 같은 대응 관계를 보였다.

『東國正韻』 한자음의 초성·중성·중성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의 聲母·韻母에 대응한다. 청·탁과 운미가 거의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는 『東國正韻』 한자음의 연원이 한어 중고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

Ⅲ. 한어 중고음과 훈민정음의 음운 연구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의 연구를 토대로, 한어 중고음의 喻母·影母와 훈민정음의 ‘ㅇ’·‘ㅎ’의 음가를 추정하며 음가 표기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喻母·影母와 ‘ㅇ’·‘ㅎ’에 대한 음가 추정은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訓民正音』「解例本」에서의 설명을 통해 喻母·影母의 음운 자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하는 ‘ㅇ’·‘ㅎ’은 훈민정음의 창제 당시의 『東國正韻』 23자모의 불청불탁¹⁶³⁾·후음 欲母 ‘ㅇ’과 전청·후음 搥母 ‘ㅎ’을 가리키며, 한자음의 정음의 표기를 위해 목적으로 한 소리만을 가리키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한어 중고음의 疑母와 훈민정음의 ‘ㅇ(옛이응)’의 음가는 자질이 명확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ㅇ’·‘ㅎ’과 대비되어 비강을 울리는 성대 진동음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ㅇ(옛이응)’이 아음 불청불탁으로 비강뿐만 아니라 음성 원리에 있어 아음 전청 ‘ㄱ’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범어의 유성 무기음 ‘ㄱ’(ga)를 음역하는데 사용된 점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또한 음가 추정에 이론이 많은 한어 중고음의 반치음 日母, 훈민정음의 반치음 ‘ㄷ’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1. 喻母·爲母와 ‘ㅇ’

1) 喻母·爲母와 ‘ㅇ’의 음가 추정

훈민정음의 후음 ‘ㅎ, ㅎ, ㅎ, ㅇ’에 관해, 차청 ‘ㅎ’과 전탁 ‘ㅎ’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치된 추정음이 있지만, 전청 ‘ㅎ’과 불청불탁 ‘ㅇ’에 관해서는 일치된 추정음을 확인하기 힘들다. 이에 후음 ‘ㅎ’, ‘ㅎ’의 조음 방식 및 조음 위치에서의 특징을 ‘ㅎ’, ‘ㅇ’에 적용시켜 음가를 추정하고, 이를 한어 중고음과 『東國正韻』의 한자음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추정한 음가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인 終聲復用初聲의 원칙이 지켜지는지도 확인한다. 먼저 喻母에 대해 살펴보면, 喻母는 『廣韻』 41성모에서 喻母(4등)와

163) 본고에서 한어 중고음의 차탁을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논할 때는 ‘차탁’이라 하고,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논할 때는 훈민정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청불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爲母(3등)로 分韻되지만, 『東國正韻』 한자음에서는 欲母 ‘ㅇ’으로만 표기된다.¹⁶⁴⁾

본고에서는 ‘ㅇ’의 ‘無音假說’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⁶⁵⁾ ‘ㅇ’의 무음가설은 음운을 현대의 자음과 모음의 범주로 이해했을 경우에 분석되는 개념으로, 세종은 ‘ㅇ’을 자음과 모음의 범주가 아닌 ‘초성’과 ‘종성’의 범주에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훈민정음의 초성·중성·종성은 자음·모음·자음의 체계보다는 중고 한어의 성모·원음·운미의 체계에 더 가깝다. ‘ㅇ’은 창제자인 세종이 창제원리를 밝히고 있는 만큼 현대의 잣대에서 해석하기 보다는 창제자의 의도에 맞게 당시의 음운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ㅇ’은 모음 혹은 자음과는 달리 ‘초성’의 개념이다. 훈민정음에서 ‘ㅇ’은 뚜렷한 음운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지만, 목구멍소리의 공명음으로 ‘초성’과 ‘종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ㅇ’은 한어 중고음의 청·탁에서 ‘탁음’(차탁)의 자질을 전달하는 발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 있는 음색을 형성하는 신호로 분석할 수 있고, ‘ㅎ’은 청·탁에서 ‘칭음’(전칭)의 자질을 전달하는 발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서 구강으로 접근하는 음색을 형성하는 신호로 분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 추정하고 있는 ‘ㅇ’의 음가 범위는 성문 파열음 [ʔ]을 불청불탁으로 발성하는 것으로, 성대 진동음이 연구개를 넘어서기 전까지다. 목젓을 위주로 한 발성이며, 발성의 무게중심이 턱 위로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성대 진동음은 구강이 아닌 흉

164) 본 소절 3.1. 喻母·爲母와 ‘ㅇ’에서의 논의는 소논문 문성호·김수애·김은희, 「훈민정음 ‘ㅇ’의 초성·종성에 관한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87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기술한 것이다.

165) ‘ㅇ’의 음가에 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와 관해 아래 인용문을 참조한다. ‘ㅇ’의 음가가 무음가설이라는 관점에 동의한 연구들은 최현배(1976), 허웅(1965), 이성연(1980), 이돈주(1988)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훈민정음』의 기술 등에 충실한 연구로 볼 수 있다. 최현배(1976:528-529)는 ‘ㅇ’에 대해 이극로(1932)의 목청 떠는 소리(성대 진동음)라는 주장에 대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목청 떠는 소리는 ‘ㄱ’에 있고, ‘ㅇ’은 다만 소리 없는 빈자리를 채워 주는 이른바 ‘공위표시 존재’로 보았다. 또, 허웅(1965:342)에서는 ‘ㅇ’은 훈민정음 종성해의 ‘聲淡而虛’라는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용례를 보아 無音字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성연(1980)에서는 ‘ㅇ’은 무음가의 字素로 중국 성운학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했다고 하였다. 초성 표기에 ‘ㅇ’을 사용한 이유는 易理에 의해 음절은 반드시 자음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는 ‘ㅇ’ 자체를 음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것은 완전 유음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극로(1932), 박종희(1983), 우민섭(1986), 최임식(1989) 등이 있는데, ‘ㅇ’을 성대 진동음, 성문 폐쇄음, 유성 후두 마찰음 등으로 보고 있다. 이극로(1932)에서는 ‘아, 야’와 같은 음을 모음으로 발음하게 되는데, 공명음 부호 ‘ㅏ, ㅑ’를 제외한 ‘ㅇ’은 성대 진동밖에 없고, 한자의 母音韻에 ‘ㅇ’을 받침 표기한 것은 초·중·종 3성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모음이 제 소리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한 받침은 성대 진동음 ‘ㅇ’밖에 없다고 하여 ‘ㅇ’이 성대 진동음이라고 하였다. 배영환, 「중세국어 후음 ‘ㅇ’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언어학연구』, 제21호, 한국중원언어학회, 2011, 165쪽.

강의 방향을 향한다. 『東國正韻』의 欲母 ‘ㅇ’은 현재 한국어에서 제로 음가인 ‘ㅇ’과는 다른 발음으로 ‘ㅇ’의 설계 목적을 ‘四聲七音’의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ㅇ’은 성대 진동음으로 ‘날’(經·세로)에서 공명강의 최저 기준점이 되고, ‘씨’(緯·가로)에서 공명강의 가장 안쪽이 된다. 운도의 經緯는 조음 기관에서 조음 위치와 개구·합구의 등운이 교차하는 지점을 평면도로 나타낸 것인데, 세종은 운도의 평면에서의 經緯가 뜻하는 바를 인체의 공명강에 적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소 문자로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ㅇ’이 순경음 ‘ㅁ’에 사용될 때, 순음인 ‘ㄱ’에서 후음인 ‘ㅇ’까지 연결되어 입술과 성대가 동시에 진동하는데, ‘ㅁ’의 문자 디자인에서 조음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 후음에 대한 음가추정

『訓民正音』에서 정하는 기본 글자는 총 28자로 초성 17자, 중성 11자이다. 『訓民正音』 예의를 보면, 초성 기본 글자 ‘ㄱ, ㄷ, ㅂ, ㅈ, ㅅ, ㅎ’ 옆에 並書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고는 병서를 단일 음가로 여기고, 기본 글자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한다. 이 경우 후음은 ‘ㅇ, ㅎ, ㆁ, ㅇ’로 네 개다. 이 중 ‘ㅎ’과 ‘ㆁ’의 음가는 각각 [h]와 [x]/[ɣ]로 크게 이견이 없지만, ‘ㅇ’과 ‘ㆁ’의 음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에서 음가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음가는 국제음성기호로 표현한다. 국제음성기호는 음소를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비록 발성 측면에서 서양의 것에 가깝다 하더라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근거하여 음가를 추정한다.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가 있는 문자로서, 창제 원리와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훈민정음으로 注音한 『東國正韻』의 한자음을 살핀다. 『東國正韻』에서 중성은 ‘牙舌脣齒喉’의 순서로 기술되고 있는데, 불청불탁¹⁶⁶⁾으로 살펴봤을 때, 어금니에서의 공명(비강)은 옛이음 ‘ㅇ’, 혀(경구개)에서의 공명은 ‘ㄴ’, 입술에서의 공명은 ‘ㄱ’, 치경 경구개에서의 공명은

166) 중세 국어 ‘ㅇ’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ㅇ’의 음가를 논의하기 위한 음성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논의의 주된 근거로 삼은 음성적 기준은 ‘공명도(sonority)’이며, 이에 기초한 두 제약은 음절연결제약과 음절두음공명도제약으로 중세 국어 ‘ㅇ’의 음가를 논증하고자 한다. ‘ㅇ’은 ‘ㄹ, ㅅ, ㅈ’와 모음 사이에서만 실현된다는 분포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음절연결제약과 음절두음공명도제약을 근거로 ‘ㅇ’의 음성적 가치를 논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두 제약은 ‘공명도’라는 음성적 특징을 근거로 설정된 것이므로 그 타당성과 보편성이 인정되며, 제약 순위에서도 상위의 제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옥영, 「공명도 제약과 중세 국어 후음(喉音) ‘ㅇ’」, 『한국어학』, 제49집, 한국어학회, 2010, 97-98쪽.

‘△’, 성대에서의 공명은 ‘ㅇ’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음의 훈민정음 주음에서 살펴봐도 ‘ㅇ’은 초성과 종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가를 지닌 글자이다.

훈민정음의 음가를 추정할 때, 정음의 비교는 『洪武正韻』과 『洪武正韻譯訓』을 참조할 수 있다. 『洪武正韻』의 五音體系는 중고 한어 36字母에서 ‘知·撤·澄·孃·敷’가 빠진 31字母이다. 『洪武正韻譯訓』을 보면 『洪武正韻』의 성모가 훈민정음의 초성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당시 中原에서 정음이라 여기는 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훈민정음이 한자음의 정음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중세 국어음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여부를 떠나, 훈민정음이 모든 음을 기록할 수 있게 창제된 것을 감안했을 때 음성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훈민정음의 후음 ‘ㄷ, ㅎ, ㄷㄷ, ㅇ’과 관련해서 『洪武正韻』 31字母의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을 국제음성기호로 살펴본다.

<표68> 影, 曉, 匣, 喻의 한어 중고음

	高本漢	王力	董同龢	周法高	李方桂	陳新雄
影	?/ieŋ	ø/ieŋ	?/jeŋ	?/iaŋ	·/jeng	?/iaŋ
曉	x/ieu	h/ieu	x/ieu	x/ieu	x/ieu	x/ieu
匣	ʃ/ap	ʃ/ap	ʃ/ap	ʃ/ap	ʃ/ap	ʃ/ap
喻	ø/ɿu	j/ɿu	ø/juo	ø/iuo,	ji/u	ø/ɿu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에 대해서 학자 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귀납적으로 음가를 추정한다. 『洪武正韻』 31字母의 한어 중고음을 국제음성기호로 살펴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음과 아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중고 한어 36字母와 『洪武正韻』의 31字母, 그리고 『東國正韻』의 23字母는 모두 四聲七音を 바탕으로 성모를 표기하고 있는데, 국제음성기호에서는 七音의 관점에서 봤을 때, 후음과 아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七音의 후음을 국제음성기호에서 나타내면 성대 ‘[ʔ]·[h]’와 연구개 ‘[x]·[ʃ]’ 및 경구개 ‘[j]’를 포함한다. 국제음성기호에서 후음은 목 안쪽부터 성문음·후두개음·인두음과 연구개음·경구개음을 포함한다. 반면 七音에서는 후음과 아음을 구분 짓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는 七音은 소리의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국제음성기호는 음가의 특색이 드러나는 지점(분절자질)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훈민정음에서도 후음과 아음은 비슷하며, 후음은 물이고, 아음은 물(후음)에서 나와 형체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⁶⁷⁾ 七音의 후음은 현재 기준으로 바라보면 성대와 연구개 및 경구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七音으로는 후음이지만, 국제음성기호로는 연구개와 경구개음으로 표기되는 것은 [x]·[ɣ]·[j]이다. 무게중심은 성문에 있지만, 성문에서 구강으로 접근하면서 폭이 커질 때 발생하는 소리이다. 후음과 아음은 국제음성기호로는 경계가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 ‘四聲七音’이라는 체계는 인도의 음성학에서 전래되었다하더라도 중국 전통의 성운학과 결합하여 한자의 단음절 음색인 청·탁을 묘사하는 수단으로 발전되었고, 국제음성기호는 다음절·악센트 언어의 묘사에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훈민정음의 ‘ㅎ’과 ‘ㆁ’의 음가에 관해 일치된 견해가 있지만, ‘ㅎ’과 ‘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학자에 따라 ‘ㅎ’(影)의 성모가 [ʔ] 혹은 영성모 ‘∅’로 분석되기도 하고, ‘ㆁ’(喻)의 성모가 영성모 ‘∅’ 혹은 반모음 [j]로 분석되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ㅎ’(影)의 추정음에서 [ʔ]을 찾아볼 수 있지만, ‘ㆁ’(喻)의 추정음에서는 [ʔ]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 ‘ㅎ’(影)과 ‘ㆁ’(喻)의 음운 자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ㅎ’(影)은 성문 파열음 [ʔ]으로 성모가 있고 ‘ㆁ’(喻)은 성모가 없는 영성모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영성모를 국제음성기호로 단일 음소로 묘사할 경우 성대 진동음을 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호인 성문 파열음 [ʔ] 의에서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喻母와 影母를 분절 자질로 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東國正韻』의 23字母와 『洪武正韻』 31字母에서 한자의 선택 및 字母 수는 다르지만, 『洪武正韻譯訓』에서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 ‘非병, 奉병, 微뫼, 照ㄴ, 穿ㄴ, 牀ㄴ, 審ㄴ, 禪ㄴ’을 제외하면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⁸⁾

167) “喉窾以潤，水也。聲虛而通，如水虛明而流通也。” 목구멍은 깊숙하고 젖어 있으니 오행으로는 물이다. 말소리가 비어 있는 듯이 통하므로 이는 물이 투명하게 맑아 잘 흐르는 것과 같다. “牙錯而長，木也。聲似喉而實，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 ‘어금니’는 어긋나고 기니 (오행으로는) 나무이다. (어금닛) 소리는 목구멍소리와 비슷하나 목이 딱차므로 나무가 물에서 나뉘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김슬옹,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 강독본』, 박이정, 2018, 37쪽.

168) 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 “漢音齒聲은 有齒頭正齒之別하니 中國소리엿니소리는 齒頭와正齒왜글히요미잇느니 ㄱㅈㅅㅆ字는 用於齒頭호고 ㅋㅊㅌㅍ字는 用於正齒호느니 牙舌唇喉之字는 通用於漢音호느니라”라 하여, 중국 어음은 치음에서 치두음과 정치음을 구별함이 있어, ㄱㅈㅅㅆ字는 치두음에 쓰고, ㅋㅊㅌㅍ字는 정치음에 쓰기로 하는데, 아·설·순·후의 글자는 중국 어음에서 두루 통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표69> 『洪武正韻』 31字母 표

오음	오행	칠음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角	木	牙音	見ㄱ	溪ㅋ	群ㄱ	疑ㅇ		
徵	火	舌音	端ㄷ	透ㅌ	定ㄷ	泥ㄴ		
羽	水	重脣音	幫ㅍ	滂ㅍ	並ㅍ	明ㅁ		
		輕脣音	非ㅍ		奉ㅍ	微ㅁ		
商	金	齒頭音	精ㅈ	淸ㅈ	從ㅈ		心ㅈ	邪ㅈ
		正齒音	照ㅈ	穿ㅈ	牀ㅈ		審ㅈ	禪ㅈ
宮	土	喉音	影ㅇ	曉ㅎ	匣ㅎ	喻ㅇ		
半徵	半火	半舌音				來ㄹ		
半商	半金	半齒音				日ㄷ		

‘中原雅音’과 비교했을 때 『東國正韻』의 23자모는 세종이 추구한 정음으로 음성·음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中原雅音에 사용되는 중국 한자음 ‘非, 奉, 微, 照, 穿, 牀, 審, 禪’을 제외하고,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을 동시에 기록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⁹⁾ 당시 한글이라는 표준화된 한민족의 문자가 없던 시점에 어음의 기준을 한자음에 맞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¹⁷⁰⁾

『東國正韻』의 한자음 표기에서 ‘非, 奉, 微, 照, 穿, 牀, 審, 禪’이 빠지고 후음 ‘挹(ㄷ), 虛(ㅎ), 洪(ㅎ), 欲(ㅇ)’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세종은 후음 네 가지를 청취 측면에서 우리 한자음의 범주에서 바라봤다는 뜻이다.¹⁷¹⁾ ‘ㅇ’, ‘ㅎ’, ‘ㅇ’이 우리말에서 음운 자질

169) 훈민정음 23초성 체계(=동국정운 23초성 체계)와 이기문의 15세기 중세국어의 자음체계는 ‘ㅍ’을 제외하고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61쪽.

170) 하물며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산하가 저절로 한 구획을 이루어 지리와 기후 조건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어음의 발음이 어찌 한어의 어음과 서로 부합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즉, 어음이 중국과 다른 까닭은 당연한 이치거니와 한자음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중국의 본토 자음과 부합되어야 하는데, 여러 번 발음하고 발음하는 사이에 성모와 운모의 기틀이 또한 반드시 저절로 어음에 끌리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곧 한자음이 역시 따라서 변한 까닭인 것이다. 비록 그 음은 변하더라도 정탁이나 사성은 예와 같을 수 있을 것이나 일찍이 책을 지어 그 바른 것을 전해주는 것이 없었다. 矧吾東方/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歟! 然則語音之所以與中國異者, 理之然也. 至於文字之音則宜若與華音相合矣, 然其呼吸旋轉之間, 輕重翕關之機, 亦必有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 其音雖變, 清濁四聲則猶古也, 而曾無著書以傳其正. 강신항,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215쪽.

171) 훈민정음 창제자들이 국어의 음운 분석에서 당시에 음소로서 인정할 수 없는 변이음이나 형태 음소를 음소 분석에 반영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문자도 창제했던 것이다. 국어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음운 분석법은 훈민정음 해례의 체계적 기술이라는 언어 외적인 문제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실제적인 문제와 합치됨으로써 창제자의 의도에 이상적으로 부합하는 체계를 형성했던 것이다. 종래에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 중 후음 계열음이 단순히 한자음 표기 그 자체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어의 분석에서도 내재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김무식, 『중세 국어 후음 ‘oo ㄷ ㅎ’에 대한 연구』, 『문학과 언어』, 제13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2, 71쪽.

로 인식되지 못했더라도 음성의 범주에서는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를 문자로 규정
한 것은 四聲七音 체계를 지키기 위함이거나, 한자음을 청·탁에 맞게 구분하여 기록하
기 위함이었을 수 있고, 실제로 한자음을 정확히 발음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東國正韻』 23字母의 후음을 한어 중고음 추정음을 기준으로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70> 『東國正韻』 搨, 虛, 洪, 欲의 한어 중고음 음가추정

	高本漢	王力	董同龢	周法高	李方桂	陳新雄
搨	?/iəp	ø/ĩep	?/jep	?/iip	·/jiəp	?/ĩep
虛	x/ɿwo	h/ʰio	x/jo	x/io	x/jwo	x/ʰio
洪	ɣ/uŋ	ɣ/uŋ	ɣ/uŋ	ɣ/uŋ	ɣ/ung	ɣ/oŋ
欲	ø/ɿwok	j/ʰwok	ø/juok	ø/iuok	ji/wok	ø/ʰuk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東國正韻』의 23字母와 『洪武正韻』의 31字母의 후음의 성모는
일치한다.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다.

<표71> 『東國正韻』과 『洪武正韻』의 성모비교

	高本漢	王力	董同龢	周法高	李方桂	陳新雄
影/搨	?/?	ø/ø	?/?	?/?	· / ·	?/?
曉/虛	x/x	h/h	x/x	x/x	x/x	x/x
匣/洪	ɣ/ɣ	ɣ/ɣ	ɣ/ɣ	ɣ/ɣ	ɣ/ɣ	ɣ/ɣ
喻/欲	ø/ø	j/j	ø/ø	ø/ø	ji/ji	ø/ø

『東國正韻』¹⁷²⁾의 23字母와 『洪武正韻』의 31字母를 비교했을 때, 선택하는 한자는 달라

172) ‘五方之人’이 다 통할 수 있는 음을 ‘정음’이라고 생각하였던 『洪武正韻』 편찬자들은 남북조 시대부터 편
찬해 온 운서들을 ‘吳音’계라 규정하고, 이 음계(음운 체계)를 가지고는 ‘정음’을 삼을 수 없으니 새로운 음계
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명나라 태조가 밝힌 『洪武正韻』의 편찬 목표는 ‘동국정운 서문’에도 그대로 나타
나 있다. 즉 모든 방침은 세종에게서 나왔으며, ‘可併者併之 可分者分之 一併一分一聲一韻(합칠 것은 합치
고, 나눌 것은 나누었는데, 하나로 합치거나 하나씩 나누거나, 하나의 성과 하나의 운을 세울 때)’에도 모두
세종의 재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東國正韻』을 편찬하게 된 동기는 당시 혼란 상태에 빠졌다고 생
각한 한국 한자음을 통일하여 세상에 널리 쓰이도록 하자는데 있었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
교 출판부, 2019, 65~66쪽.

도 성모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의 ‘ㅇ’의 음가는 [ʔ]과 영성모로, ‘ㅇ’은 영성모와 반모음 [j]로 분석된다. [ʔ]은 성문 파열음으로 성문 마찰음 [h]·성문 반찰음 [ɦ]과 구분된다. 서양 발성 기준이라 중국어 혹은 한국어 발성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하지만 음소의 지점 및 조음 방식은 객관적으로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다. [ʔ]은 조음 기관 내의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여 만드는 파열음이다. 목에 힘을 주면 성문이 닫히는데, 그때 목의 힘을 빼면서 공기를 밖으로 나가게 하면 이 소리를 발음할 수 있다. 무성 마찰음인 [h]와 [ɦ]에 대비되는 유성음의 개념, 즉 소리의 무게중심이 성대에 있는 성대 진동음이라 묘사할 수 있다. 국제음성기호를 사용하면서도 [ʔ]을 우리의 청취 측면의 범주에서 확인할 수 없기에 [ʔ]이 뜻하는 바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훈민정음 ‘ㅇ’의 음가 추정

유성·무성 마찰음 洪(哄)·虛(訶)의 추정음은 각각 [ɣ]와 [x]로 학자 사이에 견해가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국제음성기호로 [ɣ]는 유성 연구개 마찰음이고, [x]는 무성 연구개 마찰음이다. 유성·무성 중 어떤 소리의 청취가 강하게 느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洪(哄)은 전탁이고, 虛(訶)는 차청이므로 [ɣ]가 발성될 때 무거운 음색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¹⁷³⁾ ‘ㅇ, ㅇ’의 음가를 추정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의 청·탁에서 『東國正韻』의 搥母 ‘ㅇ’는 전청에 속하고, 欲母 ‘ㅇ’는 차탁에 속한다. 董同龢는 중고음에서 搥[ʔ/jep]의 성모를 [ʔ]로, 欲[ø/juok]의 성모를 영성모 ‘ø’로 추정했는데, 보통 성모가 존재할 때 소리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搥[ʔ/jep]이 지니는 음운 자질은 성모가 영성모인 欲[ø/juok]보다 강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자음을 발음할 경우 [ʔ]을 성모로 발성해도 성대가 진동하고 영성모의 개념으로 발성해도 반모음인 [j]를 발성해야 하기 때문에 성대가 진동하는데, 어떤 자질이 두 소리를 구분하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3) 공명도는 언어 연구의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의 준거로 활용되었다. 먼저 공명도는 음성학적 측면에서 음절의 정의를 내리고 음절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음의 연쇄에서 공명도가 가장 큰 음이 음절의 정점(peak)이 되고 공명도가 약한 음은 음절의 주변이 되며 음절수는 음절 정점의 수와 일치한다 (Bloch/Trager, 1942). 이는 공명도에 의한 음절의 정의이다. 또한 공명도는 음소 체계에서 각 음소의 분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장애음(obstruent)과 공명음(sonorant)으로 분류 가능하다. 여기서 공명음이란 폐에서 올라온 기류가 성대 진동을 거쳐 구강, 비강 등의 공명을 이용하여 나는 소리이다. 구조주의 언어 이론뿐만 아니라 생성 음운론에서도 공명도는 언어 분석의 여러 측면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변별 자질 가운데 공명성[sonorant]는 구강이나 비강 내의 공명의 유무에 의한 자질이다. 김옥영, 「공명도 제약과 중세 국어 후음(喉音) ‘ㅇ’」, 『한국어학』, 제49집, 한국어학회, 2010, 99쪽.

성모 [ʔ]와 반모음 [j]은 같은 성대 진동이지만 무게중심의 차이로 이해하면 두 소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한자음 내에서 살펴보자면 掬[ʔ/jep]을 발음할 때, [ʔ]은 소리가 성문에서 나오고 그 소리가 다시 경구개에서 조음되는 접근음인 경구개 접근음과 만나 증폭된다. 같은 소리이지만 성문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경구개 접근음과 만나게 되면서 구강에서 공명하듯이 들린다. 반면 欲[ø/juok]을 발음할 때, 성모 없이 반모음 [j]으로만 발음될 경우 중국어에서 반모음 [j]은 국제음성기호의 경구개 접근음의 자질만큼 뚜렷하지 않다. 즉 목 깊숙한 곳에서부터 발성되는 성모 [ʔ], 반모음 [j], 개음 [i] 순으로 공명이 뚜렷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¹⁷⁴⁾ 하지만 위와 같이 한자음 내부에서 성모의 자질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성모를 단일 음소로 나타내고자 할 때 掬母 ‘ㅎ’을 성문 파열음 [ʔ]로 표기하고, 欲母 ‘ㅇ’을 영성모 ‘ø’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성문 파열음 [ʔ]과 영성모 ‘ø’을 구분하게 해주는 자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ʔ]은 국제음성기호이지만 ‘ø’는 국제음성기호가 아닌 제로 음가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중국어의 영성모 ‘ø’은 진정한 의미의 제로 음가가 아닌 후두부에서의 미세한 음을 나타내는 음소로, 음가는 있지만 의미변별요소가 아니다. 이러한 영성모의 정의를 국제음성기호로 묘사하면 [ʔ]에 들어맞는다. 한어 중고음에서 影母 [ʔ]의 자리에 영성모 ‘ø’를 쓰고, 喻母 ‘ø’의 자리에 [ʔ]을 써도 무관하다. 무엇이 [ʔ]과 ‘ø’을 구분하게 하는 자질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ʔ]과 ‘ø’을 구분할 경우 음소 표기의 구분이 용이하다는 것 외에 음운 자질에 있어서의 차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성문 파열음 [ʔ]은 깊은 성대 진동음을 뜻하고 영성모 ‘ø’은 덜 깊은 성대 진동음을 뜻하는가? 혹은 그 반대인가? [ʔ]은 성문 파열음으로 유성음이지만, 후색음으로 표현되어 입성 소실을 표기함에 있어 마찰 자질을 묘사하기도 한다. 한·중·일의 어음에서 드러나지 않는 음소 [ʔ]은 사용상의 실체가 모호하므로 성대 진동음을 가리키는지, 성문 마찰음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음성기호의 정의에 따르면 [ʔ]은 성문 파열음이다. [ʔ]을 중국 전통 성운학에 적용시키면 성대 진동음을 나타내는 음소에 대응한다. 현대 음운학에서 음절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

174) ‘약화, 강화’ 등의 분류는 입력부와 출력부 분절음의 공명도나 강도 등을 비교한 것이다. 공명도를 기준으로 한 음성 등급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6도, 모음, a·o·i’, ‘5도, 활음, j·w’, ‘4도, 유음, l·r’, ‘3도, 비음, m·n·ŋ’, ‘2도, 마찰음/파찰음, v·z·ð’, ‘1도, 폐쇄음, p·b·t·d’. 김옥영, 「공명도 제약과 중세 국어 후음(喉音) ‘ㅇ’」, 『한국어학』, 제49집, 한국어학회, 2010, 99쪽.

되기에 성대 진동음을 음소로 표기할 이유가 없지만, 한어 중고음에서 음절은 성모와 운모로 구분되고, 성대 진동음도 성모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대 진동음을 표기할 국제음성기호가 필요하다. 국제음성기호에서 성문 마찰음이 아닌 성문 파열음에 해당하는 것은 [ʔ] 외에는 없다. 즉 [ʔ]과 ‘∅’은 다른 개념이 아니다.

한어 중고음의 影母와 喻母를 각각 [ʔ]과 ‘∅’로 표기하는 것은 성대 진동음이라는 자질 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며, 다만 기호상의 차이로만 성모의 음소를 구분할 따름이다. [ʔ]이 ‘∅’과 명확히 구분되는 소리가 아니라면 [ʔ]과 ‘∅’을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에서 영성모 ‘∅’을 [ʔ]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ʔ]은 성문 파열음이므로 창제 당시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목구멍소리인 초성 ‘ㅇ’을 표기하기 적절하다. 성문 파열음 [ʔ]·영성모 ‘∅’·『東國正韻』 불청불탁 欲母 ‘ㅇ’·한어 중고음 차탁 喻母는 결국 같은 음소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東國正韻』 전청 搥母 ‘ㄱ’과 한어 중고음 전청 影母의 단일 음소는 성문 파열음 [ʔ]·영성모 ‘∅’와는 다른 음소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欲母 ‘ㅇ’과 상보관계인 搥母 ‘ㄱ’은 후두강에서 소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ㅇ’과 유사하지만 소리가 후두강에 머물지 않고 구강으로 뺏어나간다는 점에서 ‘ㅇ’과 다르다. 따라서 ‘ㄱ’의 자질은 국제음성기호로 경구개 접근음과 가장 가깝다. 한편, [j]의 자질은 지역마다 달라, 한국어에서는 제로 음가에 가까울 정도로 증폭 정도가 작지만, 월어에서는 뚜렷한 증폭이 청취 측면에서 느껴질 정도로 자질이 뚜렷하다. 한어 중고음의 影母를 반모음 [j]이 아닌 월어에서처럼 성모 [j]으로 규정할 경우 影母 [j]과 喻母 [ʔ]의 대비가 명확해진다.

마찬가지로 훈민정음의 전청 ‘ㄱ’을 [j]로 표기하고, 불청불탁 ‘ㅇ’을 [ʔ]로 표기하면 음소의 대비가 뚜렷해지면서 각 음소가 지닌 자질을 설명하기에도 용이해진다. 예를 들면 搥을 [j/ep]로 발음하고 欲을 [ʔ/iok]로 발음한다면, 표기상에서 두 한자음의 성모가 겹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자의 청·탁을 표기하기에도 용이하다. [j]는 무게중심이 구강에 있으므로 청음이고, [ʔ]는 무게중심이 후두강에 있으므로 탁음인 것으로 발성 원리에 맞게 청탁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3) 월어에 드러나는 ‘ㄱ’과 보통화에 드러나는 ‘ㅇ’의 자질

한어 중고음의 影母와 喻母는 중고 한어 시기에는 구별되는 자질이었지만, 현재 중국의 여러 병음 방안에서 변별 가능한 음운 자질로 쓰이지 않는다. 월어의 병음 방안에서

影母와 喻母의 자질은 성모 [j]로 정리되고, 보통화 병음 방안에서 影母와 喻母의 자질은 영성모로 정리된다.

월어에서 한어 중고음의 影母와 喻母 및 『東國正韻』의 ‘攄(ㄷ)’과 ‘欲(ㅇ)’을 살펴보면, 두 글자의 성모를 영성모가 아닌 성모 [j]로 분류하여 자음 자질로 보고 있다. 특히 월어 병음 방안의 보충 설명에 [j]를 성모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j]이 실생활에서 보편적으로 구분 가능한 진동 요소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월어에서 성모 [j]의 음가 범위는 [ʔ] → [j], 즉 성문에서 경구개까지 이어지는 접근음의 개념이다. 성모로 뚜렷하게 인식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국제음성기호에서 단일 음소로 표현하면 작게는 반모음 [j]에서 크게는 유성 후치경 마찰음[ʃ]에 근접할 정도의 강한 소리이다. 攄(ㄷ)의 음가 범위는 [ʔ]과 [j]를 포함하고, [ʃ]까지 근접하는 소리이면서 [ʃ]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ʔ]에서 소리가 발생하여 다음 소리인 [j]까지 접근하고, 마찰의 느낌이 강해 [ʃ]까지 근접하지만 [ʃ]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소리이다. ‘四聲七音’으로 표현하면 후음에서 아음으로 이동하는 접근음으로 상대적으로 ‘ㅇ’보다 강한 진동 혹은 마찰음이다. 소리가 뚜렷하여 전청이다.

보통화의 [j]은 월어의 [j]만큼 자질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를 바탕으로 ‘ㅇ’의 음가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보통화에서 攄(ㄷ)과 欲(ㅇ)은 영성모로 운두를 반모음 [j]로 표기할 수 있다. 국제음성기호로 음가 범위를 나타내면 ‘[ʔ](∅)¹⁷⁵⁾ → [j]’이다. 성문 파열음 [ʔ]부터 시작해서 경구개 접근음 [j]까지 접근할 때 발생하는 소리이다.¹⁷⁶⁾ 四聲七音으로 표현하면 후음에서 아음까지 공명하는 범위 내의 진동음이지만 불청불탁으로 소리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전청과 대비된다. 훈민정음의 ‘ㅇ’이 반모음 [j]를 포함하는 범위인지 아니면 포함하기 전까지의 음인지는 현재 판단할 수는 없지만, 『洪武正韻』의 31字母, 『東國正韻』의 23字母에 ‘ㅎ’과 ‘ㅇ’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ㅎ’과 ‘ㅇ’이 변별 가능한 음소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ㅇ’의 음가는 [ʔ] → [j]까지 공명하는 음이면서, 정작 [j]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j]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ㅎ’과 ‘ㅇ’의 음가가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어디까지 보통화에 남은 어음의 흔적 및 운서를 바탕으로

175) 영성모는 국제음성기호로 단일 음소개념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ㅎ’과 마찬가지로 [ʔ]으로 표기한다.

176) 공명도 척도를 기초로 할 때 ‘ㅇ’는 ‘모음>유음>비음>마찰·과찰음>폐쇄음’의 등급 가운데 어느 부분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ㅇ’는 분포상의 제약이 있어서 ‘ㄱ·ㄷ·ㄷ·ㄷ’와 모음 사이에서만 실현되므로 항상 음절연결 제약(SYLLCON)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음절연결제약으로 ‘ㅇ’은 적어도 모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옥영, 「공명도 제약과 중세 국어 후음(喉音) ‘ㅇ’」, 『한국어학』, 제49집, 한국어학회, 2010, 102쪽.

한 이론적 음가 추정이다. ‘ㅇ’과 ‘ㆁ’은 국제음성기호로는 [ʔ]부터 [j]로의 접근음이라는 개념은 같지만, ‘ㅇ’이 七音을 기준으로 불청불탁이므로 마찰이 모호한 공명음의 개념이라면, ‘ㆁ’은 [ʔ]부터 [j]로의 ‘ㅇ’보다 강한 접근음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제음성기호의 공명강 내의 분절 구간으로 표현하면 ‘ㆁ’은 [3]에 다가가는 [j]이고, ‘ㅇ’은 [j]에 다가가는 [ʔ]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東國正韻』의 표기법인 ‘以影補來’가 설명되어진다. ‘以影補來’는 『東國正韻』의 한자음 표기의 한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舌內入聲의 한자의 운미는 한어 중고음에서는 [-t]로 발음되었는데, 우리나라 한자음에서는 ‘ㄷ’로 변했으므로, 이것을 ‘ㄷ’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t]가 한국에서 [-]로 변했는데, 반설음 /-ㄷ/에 비교적 강한 경구개 접근음인 [j]을 더하면 다시 [-t]로 변하게 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ㅇ’은 불청불탁·성문 파열음으로 현재 중국어에서 영성모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보통화와 월어의 ‘欲’음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통화의 ‘欲’의 병음은 /yu/로 [ü] 발음이 시작할 때의 미세한 진동음을 영성모로 분석하지만, 월어에서 ‘欲’은 /juk/으로, [j]를 성모로 바라본다. 이러한 차이는 현대 중국어 음운이 병음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소리에 대한 정의, 즉 음운의 변별에 대한 인식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내에서도 각 지역의 풍토에 따라 한자의 음색이 다른 것이다. 또한 오도표기법의 창안에 따른 성조의 표기도 음운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한다. 이전에 성조를 조치가 아닌 四聲 및 음색의 차이를 바탕으로 구분했을 때, 대략적인 음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음색의 변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현재 한국어에서 ‘아’의 ‘ㅇ’을 제로 음가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 성모 없이 운모만 발성할 때 미세한 진동음 혹은 마찰음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성의 차이로, 모음 발성과 운모 발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글의 ‘ㅇ’은 최세진의 언문 자모에서 우리말 어음이 반영된 음운 체계를 따르며,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소리와는 다른 면이 있다. 언문 자모에서 ‘ㅇ’은 비어있는 소리라고 묘사할 수 있지만, 훈민정음에서 ‘ㅇ’은 비어있는 소리가 아닌 미세한 성대 진동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중국어의 영성모와 부합하는 것으로, 영성모의 발생 원인은 후두강을 중심으로 한 발성에서 찾을 수 있다.

훈민정음의 ‘ㅇ’은 『東國正韻』에서 성모가 없는 운모 앞에 四呼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사용된다. 성모 없이 운모가 발음될 때 성조에 상관없이 발성의 시작점은 목구멍에 있어,

성대에 불청불탁의 진동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ㅇ’으로 문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ㅇ’의 표기는 단순히 성모의 자리를 채워주는 개념이 아니라, ‘ㅇ’이 곧 성모로서 한자음에서 연음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운모는 한자음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개념으로 서양의 자음·모음체계와 다르다. 자음·모음 체계는 ‘유성자음·무성자음’, ‘다음절·강세’ 언어의 묘사에 적합하다. 한자는 ‘1음절·1의미’로 초분절자질인 성조가 있으므로 전통적인 ‘聲’과 ‘韻’의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운모는 모음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운두·운복·운미로 구분되며, 운미는 다시 모음 자질·자음 자질(비음·입성)로 구분된다. 운두·운복·운미가 결합하여 다음절을 구성하여 단독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성모와 결합할 수도 있다.

『東國正韻』의 23字母(=훈민정음 23초성 체계)에서 불청불탁에 속하는 음은 각각 아음(‘ㅇ(옛이응)’), 설음(ㄴ), 순음(口), 후음(ㅇ), 반설음(ㄷ), 반치음(△)으로 총 6개다. 이 중 ‘ㅇ(옛이응)’, ‘ㄴ’, ‘口’, ‘ㅇ’은 모두 공명음이라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ㅇ(옛이응)’은 성문의 진동이 비강까지 전달되는 소리이고, ‘ㄴ’은 경구개 혹은 치조에서의 공명, ‘口’은 입술에서의 공명이다. 마찬가지로 ‘ㅇ’은 성문 혹은 성문에서 연구개를 넘어서기 전까지의 공명이라 할 수 있다.

중세 국어 시기 당시의 발성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응’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한다면, 종성에 ‘ㅇ(옛이응)’이 와야 하며, 현재의 ‘응’은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ㅇ+[?]'이다. 이 [?]을 초성 자리에 가져오고 불청불탁으로 발성하면 영성모가 발생하는 중국어 운모 발성이 된다. ‘ㅇ’을 설계했다는 것은 발성상의 특징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a/(아)를 발음할 경우 성모 자리의 음가를 살려서 발음하면 성모는 성대 진동음이라 할 수 있고, 성대 진동음은 비강·구강·후두강을 기준으로 세 가지 무게중심을 가질 수 있다. 비강으로 발음할 경우, 초성이 옛이응인 ‘아’ [ŋa]가 되고, 구강으로 발음할 경우 ‘하’ 혹은 현재 한국어의 모음 발성 ‘아’와 가까우며,¹⁷⁷⁾ 후두강으로 발음할 경우 훈민정음의 ‘아’가 되어 영성모가 생기는 중국어 발성 [ʔa]와 가깝다. ‘ㅇ’은 한국에서 현재 체로 음가라고 표기하지만, 세종의 관점에서 체로 음가인 초성은 없다. 훈민정음의 원칙에 따

177) 구강으로 발음한다고 해서 모두 ‘ㅎ’이 되는 것이 아니다. ‘ㅎ’이 되려면 후두강에서부터 시작한 소리가 구강으로 접근해야 한다. 소리가 목 안 깊숙한 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성은 한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르면 초성과 중성은 합쳐져야 음운이 된다. 현재 한국어에서 ‘ㅇ’을 제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ㅇ’에서 세종이 의도한 음이 탈락되었다는 뜻이다.

‘ㅇ’은 불청불탁·성문 파열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국제음성기호로는 [ʔ]에 가깝다. 하지만 [ʔ]이 불청불탁(공명음)이 아니므로 [ʔ]과는 다르다. ‘ㅇ’은 성문 파열음 연구개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명음이다. 비음 [ŋ]과는 구분된다. 즉 소리의 무게중심이 목구멍에 있는 성대 진동음이라는 뜻이다. 불청불탁인 ‘ㅇ’에 성문 무성 마찰음이 추가되면 ‘ㅎ’으로 차청이 된다. ‘ㅇ’에 유성 연구개 마찰음이 추가되면 ‘ㄹ’으로 전탁이 된다. ‘ㅇ’에 경구개 접근음이 추가되면 ‘ㄹ’으로 전청이 된다.

(4) 훈민정음 ‘ㅇ’의 중성

훈민정음의 초성 ‘ㅇ’은 비음 운미와는 관련이 없는 불청불탁·성문 파열음으로 중성에 위치할 경우 음운 자질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중성의 끝소리에 성대 진동음을 연결 짓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때 한자음의 음운은 구강 내의 모음 자질이 세로축의 성대와 연결되어 단음절 음색이 갖춰지게 된다.

『訓民正音』「解例本」制字解에서 “盖字韻之要，在於中聲，初終合而聲音”¹⁷⁸⁾이라고 하여 중성은 초성·중성과 결합해야 음이 된다고 하고 있다. 중국 전통 성운학과 훈민정음에서 중성은 단독으로 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음운학에서 정의하는 모음과는 다르다. 세종은 음절을 초성·중성·중성의 체계로 설계했고, 초성과 중성은 자음과 모음의 개념이 아니라 진동의 지점과 진동이 퍼져나가는 모양이라고 보았다.¹⁷⁹⁾ 중국 전통 성운학에서 [f]·[h]·[k]·[p]·[t]·[s]와 같은 무성 자음은 한자음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성운학의 ‘聲’은 자음의 개념이 아닌 字母의 개념으로, 字母가 성대 진동과 만난 지점이고, ‘韻’은 자모가 발생시킨 진동이 퍼져나가는 모양의 개념이다. 『訓民正音』「解例本」初聲解에서 “正音初聲，卽韻書之字母也。聲音由此而生，故曰母。”라고 하여 정음의 초성은 곧 운서의 자모(字母)니, 말소리(聲音)가 이로부터 생겨나므로 이르기를 모(母)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78) 대개 자운(한자음 또는 국어의 음절)의 중심은 중성에 있어서, 초성과 중성이 어울려서 음(음절)을 이루니,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46쪽.

179) 初聲有發動之義，天之事也，終聲有止定之義，地之事也，中聲承初之生，接終之成，人之事也. 초성에는 발동의 뜻이 있으니 하늘(천)이 하는 일이고, 중성에는 그치고 정해지는 뜻이 있으니 땅(지)이 하는 일이다. 중성은 초성이 생겨남을 받아, 중성의 이음을 이어주니 사람(=중성)이 하는 일이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46쪽.

현재 한글의 ‘아’에서 ‘ㅇ’을 제로 음가라고 하는 것은 ‘아’를 현대 음운학의 모음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의 개념으로 ‘아’는 /a/가 아니라, 초성 [ʔ]와 중성 [a]의 결합이다. 초성 [ʔ]은 ‘진동의 시작 지점’이고 중성 [a]는 진동이 퍼져나가는 통과도 같은 것이다. 초성 ‘ㅇ’은 불청불탁·성문 파열음이기 때문에 다른 초성과 달리 자질이 뚜렷하지 않다. 어떤 字母도 단음절로 발음될 때는 성대 진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성 ‘ㅇ’이 중성에 쓰이면 자질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중성은 그치는 소리가기 때문에, 소리가 끝나는 지점에 불청불탁 성문 파열음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성 ‘ㅇ’은 성조 발성에 적합한 성대 진동음으로 四聲七音의 체계 안에서 설계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중성 ‘ㅇ’은 ‘終聲復用初聲’의 창제 원리에 맞게 성대 진동음으로 한자음의 끝소리에 사용되어 운미의 자질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ㅇ’이 초성으로 쓰일 때는 영성모인 진동 혹은 마찰음의 개념이라면, 중성으로 쓰일 때는 중성의 끝소리의 무게중심이 성대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東國正韻』의 第16韻類, 第17韻類에서 ‘ㅇ’은 순경음 ‘몽’을 구성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第18韻類에서 第26韻類까지는 중성에 일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全韻玉篇』의 정·속음에서는 일률적으로 중성 자리에 ‘ㅇ’이 탈락하고 있는데, 탈락한 ‘ㅇ’을 제외하고 『東國正韻』과 『全韻玉篇』의 정음 사이에서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東國正韻』에서 ‘ㅇ’의 사용은 우리말 한자음과 관계없이 한어 중고음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중성 ‘ㅇ’은 순경음 ‘몽’(-u(w))와 달리 실질적인 음운을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초성·중성에 이어 중성에 후음·불청불탁 ‘ㅇ’이 있음을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중성 ‘ㅇ’은 체계상으로 아음·불청불탁 옛이음 ‘ㅇ’과 구별되어 발성의 무게중심이 비강이 아닌 후두강에 있음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성은 우리말 한자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중국 한자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終聲復用初聲의 원칙을 적용하면 한어 중고음의 喻母는 성대 진동음이 되는 것이다.

『訓民正音』「解例本」終聲解에서는 “且ㅇ聲淡而虛，不必用於終，而中聲可得聲音也。”¹⁸⁰⁾，“唯有欲聲所當處 中聲成音亦可通”¹⁸¹⁾이라고 하여 중성 ‘ㅇ’이 ‘虛’하다고 하고 있고, 마땅

180) ‘ㅇ’은 소리가 맑고 비어서 반드시 중성으로 쓰지 않더라도 (국어의) 중성이 음을 이룰 수 있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59쪽.

181) 오직 ‘ㅇ(欲)’자가 있어야 마땅할 자리라도 중성만으로도 그대로 음(음절)을 이루어 통할 수 있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61쪽.

히 ‘欲’자가 있어야 할 자리라도 중성만으로도 음절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ㅇ’을 사용하지 않아도 음절을 이룰 수 있는데, 『東國正韻』에서 ‘ㅇ’을 표기한 이유는 초성·중성·중성 체계를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ㅇ’을 추가하면 정음 발성이 되고 ‘ㅇ’을 빼면 우리말 한자음 발성이 되는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음가표기 고찰

훈민정음의 ‘ㅇ’은 『廣韻』 41성모에서, 喻母(4등)·爲母(3등)의 한자음과 대응하며,¹⁸²⁾ 喻母(4등)·爲母(3등)에 대한 董同龢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은 모두 零聲母이다. 영성모는 현재 보통화뿐만 아니라 방언에서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성모 없이 운모만 발성될 때, 음절의 시작 부분에서 청취 측면에서 확인되는 미세한 진동음으로, 국제음성 기호에서 단독 음소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호 ‘ø’로 표기된다. 영성모의 예로 愛 /ài/, 移 /yí/, 五 /wǔ/, 遇 /yù/을 들 수 있는데,¹⁸³⁾ 영성모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零聲母는 제로 이니셜(zero initial) 또는 제로 휘넘(zero phoneme)의 번역술어로 聲母가 영(zero)인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음소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趙元任(1968)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발음에 있어서는 진정한 제로가 아니고 후두부가 수축하여 자음의 형태를 띠게 된다. [a]·[o]·[ɤ]앞에서는 후색음[ʔ]이나 小舌音(口蓋垂音)의 약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음 i·u·ü 의 앞에서는 각각 j·w·ɥ 등 반자음으로 자음에 가깝게 발음된다. 한어병음방안 표기부칙에서 음절이 단모음 음절 i나 u이면 i와 u를 각각 yi와 wu로 바꾸어 쓰고, 개음 i, u로 시작되는 영성모 음절은 i와 u를 각각 y와 w로 바꾸어 쓰는 방법은 바로 북경어 영성모의 이러한 성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성모가 완전제로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앞음절의 자음운미와 결합되는 법이 절대 없다는 현상으로도 증명된다. 조원임은 중국어 어휘 棉襖(mián'ǎo)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棉襖는 영어 ran out의 두 음절의 음이 연

182)

	廣	喻	以	羊	余	餘	與	弋	夷	予	翼	營	移	悅			
喻	粵	6	5	4	4	4	4	6	4	4	6	4	4	6			
	東	○	○	○	○	○	○	○	○	○	○	○	○	○			
	廣	爲	于	王	雨	爲	羽	云	永	有	雲	筠	遠	韋	洧	榮	遠
爲	粵	4	4	4	6	6	5	4	5	5	4	4	5	4	2	4	5
	東	○	○	○	○	○	○	○	○	○	○	○	○	○	○	○	○

183) a ai ao an ang ; e ei en eng er ; o ou ; wa wai wan wang wo wei wen weng wu ; ya yao yan yang ye yi yin ying yo you yong yu yue yun yuan

결되어 ra-nout으로 되는 것처럼 mia-nao로 발음되는 법이 없다. 실제로는 두 번째 음절 ao 앞에 모종의 자음이 있기 때문에 음의 연결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音樂 in'yuè의 음은 i-nüe가 될 수 없으며, 英文 ing'uen 역시 i-nguen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영성모의 이러한 실제 음가에도 불구하고 의미 변별적이 아니므로 음소 \emptyset 으로 나타낸다.¹⁸⁴⁾

영성모는 실제 음가가 있지만 의미 변별적 요소가 아니므로 음소 '∅'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은 국제음성기호에서 영성모를 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음소라기보다는 소리에 대한 분절 묘사가 배제된 부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영성모는 한어 중고음에는 없는 개념으로, 한어 중고음에서 현대의 영성모는 影母·喻母·爲母로 표기되어 성모의 범주에 속한다.

중국어에서 棉襖(/mián'ǎo/), 방안(/fāng'àn/)등과 같이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운모를 발성할 때, 발성의 무게중심이 성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화는 성조가 4성으로 월어의 음조와 양조가 없기 때문에 'ㅇ'과 'ㄱ'의 구분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ㅇ'과 'ㄱ'은 보통화에서는 영성모에 해당하고, 월어에서 'ㅇ'은 양조에 해당하고, 'ㄱ'은 음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廣韻』의 41자모 喻母·爲母, 影母와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ㅇ'과 'ㄱ'은 초분절자질을 구분하는 음운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음색의 차이를 배제하고 발성 측면에서 보면 'ㅇ'과 'ㄱ'의 발성의 무게중심이 모두 성대에 있다. 'ㅇ'은 후두강에 머무는 소리이고 'ㄱ'은 후두강에서 구강으로 뺏어나간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발성의 무게중심이 성대에 있는 것을 현재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자면 성문 파열음 [ʔ]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고, 후두강에서 구강으로 뺏어나가는 것은 [j]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에서 [j]을 반모음이 아닌 성모로 규정 하면 [j]보다는 자질이 뚜렷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초분절자질을 분절자질로 표기하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접근이다.

중국어에서 성모 없이 운모만 발성할 때 영성모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발성의 무게중심이 성대에 있기 때문이며, 한국인 중국어 학습 초보자가 중국어의 운모를 발성할 때 중국어 음색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발성의 무게중심이 성대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184) 최영애, 『중국어란 무엇인가』, 2003년, 94-95쪽.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이/와 보통화의 병음 /i/는 국제음성기호로 동일하게 [i]로 표기될 수 있지만, 한국어와 보통화의 [i]가 전달하는 음색은 같지 않다. 보통화의 병음 /i/는 성모 없이 발성할 때, /yi/로 표기되는데, 본고에서는 /yi/를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할 경우 [ʔi]로 발음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원리로 보통화의 /wu/는 [ʔu]로 발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한다.

한어 중고음의 喻母(4等)·爲母(3等)는 현대 한어의 영성모에 대응하고, 훈민정음에서는 불청불탁 후음 ‘ㅇ’에 대응하므로, 喻母(4等)·爲母(3等), 영성모, 훈민정음의 ‘ㅇ’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국제음성기호로는 성문 파열음 [ʔ]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ㅇ’은 성문 파열음의 진동이 성대 주위에 있고, ‘ㅎ’은 성문 파열음의 진동이 구강으로 뻗어나가는 것으로 분석한다면, 한어 중고음의 喻母(4等)·爲母(3等)와 影母(1·2·3·4等)의 음가가 일률적으로 설명된다. 한어 중고음의 喻母(爲母)·‘ㅇ’의 음가를 [ʔ]로 추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喉音 ㅇ, 象喉形”이라 하여 후음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상형했다고 했고, “ㅇㄴㅇㅇㄹ△, 爲不清不濁”이라 하여 ‘ㅇ’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공명음) 소리라고 하고 있다. ‘ㅇ’은 곧 성대 진동음이라 할 수 있으며, 성대 진동음은 현대 음운학에서 자음이 아닌 모음을 이루는 특징 중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할 수 없지만, [ʔ]으로 표기하는 것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b) 『訓民正音』 「解例本」 合字解에서 “初中終三聲, 合而成字”라 하여 초성·중성·종성 세 소리가 합하여 글자를 이룬다고 하고 있고, 『訓民正音』 「解例本」 中聲解에서 “中聲字,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이라 하여 중성은 글자 소리의 가운데에 있어, 초성과 종성과 결합하여 음을 이룬다고 했다.

훈민정음에서 글자를 이루는(成字) 음이 된다는 것(成音)은 초성·중성·종성이 결합해야 하는 것으로, 초성 없이 중성만 발생된다는 것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영성모도 전통 중국 성운학에서는 자모로 분류되는 것으로, 자모 없이 ‘韻’만 발음되는 것은 중국 성운학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喻母를 중국 전통 성운학에서 영성모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喻母와 影母는 等韻 뿐만 아니라 청·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c)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且○聲淡而虛，不必用於終，而中聲可得成音也”라 하여 종성에서의 ‘ㅇ’은 허하므로 종성으로 쓰이지 않고 중성만으로도 ‘음’을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초성·중성·종성 중 오직 종성에서 쓰인 ‘ㅇ’만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終聲復用初聲의 원칙을 대입해보면 ‘ㅇ’은 허하여 뚜렷한 장애가 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고, 『東國正韻』 한자음에 사용된 종성 ‘ㅇ’의 쓰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이 실제 어음만을 다뤘을 가능성이 크므로 ‘ㅇ’은 한어의 영성모가 지니는 음가를 뜻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세종은 훈민정음에서 한어 중고음의 喻母·爲母와 影母의 음성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ㅇ’과 ‘ㅎ’으로 설계하고 있다. ‘ㅇ’과 ‘ㅎ’은 성문 파열음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공명강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ㅇ’은 평·상·거의 중성이 되고 ‘ㅎ’은 입성의 중성이 되기 때문이다.

(d)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唯喉音次清爲全濁字，盖以ㄷ聲心不爲之凝，ㅎ比ㄷ聲淺，故凝而爲全濁也”라 하여 오직 후음에서는 차청이 전탁이 되는데, 대개 ‘ㅎ’은 소리가 깊어서 엉기지 않고, ‘ㅎ’은 ‘ㄷ’에 비하여 소리가 얇아 엉기어 전탁이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ㄷ’은 엉기지 않는 소리임을 알 수 있다. 소리가 깊다는 것은 ‘ㄷ’이 성문 파열음이라는 뜻으로, ‘ㅇ’과 구별되는 자질은 공명강의 무게중심 위치로 밖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ㅎ’은 겹치는 소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음운 관념을 고려했을 때, ‘ㄷ’은 성문 마찰음인 ‘ㅎ’과 대비되어 성문 파열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ㅇ’은 후두강을 위주로 공명하는 성문 파열음이고, ‘ㄷ’은 구강을 위주로 공명하는 성문 파열음으로 분석할 수 있다. ‘ㄷ’이 엉기지 않는 소리라는 것은 ‘ㅇ’ 역시 목구멍소리로 엉기지 않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e) 『訓民正音』 「解例本」 合字解에서 “初聲之ㄷ與ㅇ相似，於諺可以通用也”라 하여 초성에서의 ‘ㄷ’과 ‘ㅇ’은 우리말에서는 통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통용된다는 것은 음운자질의 구분이 뚜렷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경우 ‘ㄷ’과 ‘ㅇ’의 구분된 사용은 한자음에 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말에는 영성모 발성이 없고, 월어의 양조와 음조를 구분하는 발성이 없다. 하지만 세종은 청취 측면 및 운서·운도에서 이를 구분할 수 있었고, 한자음의 정음에서 이를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한국인의 음운 관념에서 보통화의 영성모 및 월어의 陽調와 陰調의 음색 차이는 ‘ㅇ’으로 들릴 뿐이다. 즉 ‘ㅇ’과 ‘ㄷ’은 성문 마찰음이 아닌 성문 파열음으로 분석할 수 있다.

(f)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이라 하여 ‘ㅇ’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고 했는데, ‘ㅇ’은 순경음 ‘ㄹ’을 구성하는데 사용되어, 『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에서 한어 중고음의 效攝·流攝의 운미 [-u(w)] 주음에 사용된다. 또한 “以輕音唇乍合而喉聲多也”라고 하여 순경음의 원리에 대해 입술이 잠깐 합쳐지면서 목구멍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ㄹ’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될 수 있는 물리적 이유는 음성의 무게중심이 입술에 몰리지 않고, 성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영어의 [b]와 [w]를 구분해서 발성해볼 때 확인할 수 있다. 영어에서 유성 양순 파열음 [b]를 발성할 때, 조음 위치는 양쪽 입술이지만, 발성과 관련해서는 인후나 입이 아니라 폐에서 발성 기관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폐장 기류음이다. 반면 [w]는 유성 양순 연구개 접근음으로 조음 위치는 양쪽 입술이지만, 발성 방법은 성대 진동음이 연구개까지 접근하는 음이다. 훈민정음에서 순경음 ‘ㄹ’에 대한 정의는 [w]와 가까우며, [w]는 음소문자인 반면, 훈민정음의 ‘ㄹ’은 음소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라 할 수 있다.

(g) ‘ㄱ’은 而影補來라 하여 속습의 한자음 종성 ‘ㄱ’을 舌內入聲 [-t]로 교정하는데 쓰이고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ㄴㅌㅍㅍㅍㅍㅍㅍ六字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라 하여 ㅇ(옛이응), ㄴ, ㅌ, ㅍ, ㅍ, ㅍ의 여섯 글자는 평성과 상성과 거성의 종성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고 했다. 또한 “全清次清全濁之字，其聲爲厲，故用於終則宜於入”이라 하여 전청, 차청, 전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종성에서는 마땅히 입성이 된다고 했는데, ‘ㄱ’은 전청으로 무게중심이 구강에 있기 때문에 종성에 쓰일 경우, 입성 [-p], [-t], [-k] 중에서도 설내입성 [-t]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ㄱ’을 [-t]로 교정할 때, ‘ㄱ’ 옆에 ‘ㄱ’을 사용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h) ‘ㅇ’은 중국어의 영성모에 대응하고, 월어의 陽調에 대응한다. 월어의 陽調는 상대적으로 조치가 낮은음으로, 절대음의 개념이 아니라, 음의 무게중심이 성대에 있는 음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녀를 불문 절대음 혹은 상대적 음계에 상관없이 청취 측면에서 구분이 가능해진다. 언어생활에서는 노래와 달리 음높이의 구분을 명확히 확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청취 측면에서 성조의 차이는 음색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실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성조를 음높이를 구분하는 것은 객관적 표기를 위함이라 판단할 수 있다.

(i) ‘ㅇ’은 중국어의 영성모에 대응하고, 월어의 陰調에 대응한다. 월어의 陰調는 상대적

으로 조치가 높은음으로, 절대음의 개념이 아니라, 음의 무게중심이 구강 혹은 구강 위쪽에 위치하는 음이라 할 수 있다. 조치가 높은음이라는 것은 월어의 성조 체계 내에서 ‘ㅎ’이 후두강을 위주로 공명하는 음보다 높다는 뜻으로, ‘ㅇ’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i)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唯牙之ㅇ,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似,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今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라 하여, 오직 아음 ‘ㅇ(옛이응)’은 비록 설근이 목구멍을 막아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가지만, 그 소리는 ‘ㅇ’과 비슷해서 운서에서도 ‘ㅇ(옛이응)’과 ‘ㅇ’이 많이 혼용된다고 하고 있고, ‘ㅇ(옛이응)’을 목구멍을 상형해 만들었으나, 아음 글자를 만드는 처음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ㅇ(옛이응)’과 ‘ㅇ’이 혼용된다는 것은 초성에서의 사용을 뜻하고, 운서는 『韻會』와 『洪武正韻』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음이면서 ‘ㅇ’을 상형한 것은 ‘ㅇ’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인데, ‘ㅇ(옛이응)’과 ‘ㅇ’은 발음의 원리는 비슷하지만 공명강의 차이로 인해 자질이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음 글자 만드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아음 글자의 처음은 전칭 ‘ㄱ’으로 制字解에서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이라 한 것으로 알 수 있고, 아음의 차청과 전탁이 각각 ‘ㅋ’과 ‘ㆁ’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ㅇ(옛이응)’은 비음으로, ‘ㅇ’·‘ㅎ’과 구별된다. 한어 중고음에서 喻母·影母·疑母는 성대 진동음 이외에 뚜렷한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현대 한어에서 喻母와 影母는 영성모로 분류하는 반면, 疑母 [ŋ]이 성모(자음)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ŋ]이 연구개 비음으로, 성대 진동음이 비강까지 연결되어 음운 자질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반면 喻母와 影母는 국제음성기호에서 대응되는 음소 기호를 찾을 수 없다. 喻母와 影母 혹은 ‘ㅇ’과 ‘ㅎ’이 국제음성기호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喻母와 影母를 제로 음가로 분석하는 것은 喻母와 影母의 분석의 기준을 현대 음운학의 잣대에 맞추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세종이 喻母와 影母를 분석한 ‘ㅇ’과 ‘ㅎ’을 중국 전통 성운학의 잣대에서 분석할 경우 ‘ㅇ’과 ‘ㅎ’은 직관적으로 한어 중고음의 喻母와 影母에 대응한다. 과거의 잣대에서는 서로 대응하는 소리가 현대 음운학에서는 서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대 음운학에서는 국제음성기호를 위주로 소리를 분석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조선 시대는 소리의 기준을 한어에 맞추면 그만이었지만, 현대에서는 과거의 소리의 기준을 분석하는데 1888년 최초로 공식화된 국제음성기호라는 제3의 기준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다.

‘ㅇ(옛이응)’은 보통화에서는 비음 운미로, 한글에서는 중성으로 사용되는데, ‘ㅇ(옛이

응)이 운미 혹은 종성에 쓰이는 것은 어색하지 않으나,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ㅇ’이 종성으로 쓰이는 것이 어색한 것은 ‘ㅇ(옛이응)’은 인식할 수 있지만, ‘ㅇ’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ㅇ’과 ‘ㆁ’은 喻母와 影母에 대응하지만, 직관적으로 그 소리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알아낼 수 없는 차원의 것이다. ‘ㅇ’과 ‘ㆁ’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ㅇ’과 ‘ㆁ’이 조음 위치·조음 방식뿐만 아니라 ‘음색’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음운과 음성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며, 현대 음운학의 관점에서는 초분절자질의 범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ㅇ(옛이응)’이 초성과 종성에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ㅇ’이 초성·종성에 쓰이는 것은 같은 원리이다. 다만 ‘ㅇ’의 자질이 뚜렷하지 않을 뿐이다.

훈민정음에서 한국인의 음운 관념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ㆁ’과 ‘ㅇ(옛이응)’을 우리말의 범주에 포함시킨 이유는 한자음의 정음을 추구하기 위함도 있지만, 후두강, 구강, 비강을 통해 구분되는 음색의 차이는 우리말의 음성의 범주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문자화하여 음운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지 유추해 본다. 음성학자인 세종의 관점에서 후두강, 구강, 비강의 무게중심 조절을 통해 발생하는 입체감 있는 소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염원이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처음 소리 문자를 창제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소리에 대한 철학을 담고자 한 것은 창제자의 창제 의지와도 결부되는 것으로 쉽게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ㅇ’의 음가 범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다.

<표72> 한어 중고음의 喻母와 ‘ㅇ’의 음가 표기

喻母·‘ㅇ’의 [?] 표기의 타당성	도식화
1. ‘ㅇ’은 불청불탁 후음이다.	
2. ‘ㅇ’은 종성과 결합하여 음절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3. ‘ㅇ’은 자질이 뚜렷하지 않아 종성에서 생략할 수 있다.	
4. ‘ㅇ’은 영기지 않는 소리이다.	
5. ‘ㅇ’과 ‘ㆁ’의 자질은 우리말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6. 순경음에서 ‘ㅇ’은 성대진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7. ‘ㅇ’과 ‘ㆁ’은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비되는 자질이다.	
8. ‘ㅇ’은 보통화의 영성모, 월어의 양조에 대응한다.	
9. ‘ㆁ’은 보통화의 영성모, 월어의 음조에 대응한다.	
10. ‘ㅇ’은 ‘ㅇ(옛이응)’과도 비슷하지만, 대비되는 자질이다.	

한어 중고음의 喻母 및 훈민정음 ‘ㅇ’의 음가는 불청불탁·성문 파열음으로 진동의 범위가 비강과 연구개로 넘어가지 않는 진동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성대 진동음이 비강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불청불탁·아음 ‘ㅇ(엠티음)’과는 구분된다. 불청불탁인 ‘ㅇ’에 성문 무성 마찰음이 추가되면 ‘ㅎ’으로 차청이 된다. ‘ㅇ’에 유성 연구개 마찰음이 추가되면 ‘ㆁ’으로 전탁이 된다. ‘ㅇ’의 성대 진동음이 경구개 방향으로 이동하면 ‘ㅇ’으로 전청이 된다. “喉音ㅇ, 象喉形”, “喉乃出聲之門”라고 했던 세종의 말대로 후음 ‘ㅇ’은 목구멍을 상형한 것이고, 목구멍은 소리가 나오는 문이다.

2. 影母와 ‘ㅇ’

1) 影母와 ‘ㅇ’의 음가 추정

‘ㅇ’에 대한 음성적 분석은 ‘ㅇ’과의 자질 비교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훈민정음에서 ‘ㅇ’과 ‘ㅎ’은 우리말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세조 이후 『東國正韻』 한자음 표기에서 우리말 한자음 표기로 방향이 바뀌게 될 때, ‘ㅇ’과 ‘ㅎ’ 중 하나는 사용 목적을 잃게 된다. ‘ㅎ’은 일찌감치 탈락하여,¹⁸⁵⁾ ‘ㅎ’의 사용은 세조 시기까지의 불경언해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후음 ‘ㅇ, ㅎ, ㆁ, ㅇ’ 중 ‘ㅇ’과 ‘ㆁ’은 우리말 한자음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우리말에서 ‘ㅇ’과 ‘ㅇ’이 구분되지 않고, ‘ㅎ’과 ‘ㆁ’이 구분되지 않을 바에야, 경제적으로 획수가 적은 ‘ㅇ’과 ‘ㅎ’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ㅎ’의 음가에 대해서는 앞서 ‘ㅇ’과의 대비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먼저 ‘ㅎ’과 ‘ㆁ’이 탈락하는 과정을 살펴, 우리말에서는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따른 음색의 차이가 음운 자질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또한 ‘ㅎ’의 ‘ㄷ’에서의 쓰임을 살펴 ‘ㅎ’은 성대 진동음이 구강까지 퍼져나가는 자질임을 재차 확인하도록 한다.

185) 15세기 국어 표기법이 보여주는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ㅎ’의 표기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현재 전하는 15세기 국어 표기법을 논한다면, 대체로 1465년 『圓覺經諺解』 이전 문헌에서는 ‘ㅎ’을 쓰는 표기법을 그 이후의 문헌에서는 대체로 喉音 ‘ㅇ’을 쓰지 않는 표기법을 사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圓覺經諺解』 이전에는 ‘ㅎ’이 쓰였는데 이 문헌부터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관형사형 어미 ‘ㄷ’도 ‘ㄱ’로만 표기하게 된 것으로, 15세기 국어표기법 연구에서는 표기법이 바뀌는 커다란 분수령으로 이 문헌을 평가하고 있다. 김명남, 『삼강행실도』 언해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40쪽.

(1) 후음에 대한 음운 인식의 변화

‘ㅎ’의 우리말에서의 탈락은 최세진의 『訓蒙字會』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訓蒙字會』에서 ‘ㅇ(옛이음)’이 초성에서 사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종성에서 명맥을 유지하고,¹⁸⁶⁾ ‘ㅅ’도 탈락하지 않았다.¹⁸⁷⁾ 하지만 ‘ㅎ’과 전탁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세진의 『訓蒙字會』의 언문 자모에서 ‘ㅅ’이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훈민정음은 현재 한글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⁸⁸⁾

최세진은 『洪武正韻譯訓』(1455년)의 음계를 보충하고 있는 『四聲通解』의 저자이기도 한데, 『四聲通解』에서 서문 다음에 『廣韻』 36字母표, 『韻會』 35자모표, 『洪武正韻』 31자모표를 제시하여 청음과 탁음 및 훈민정음의 주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정작 우리말 한자음 저서인 『訓蒙字會』에서는 전탁자를 모두 제외했다. 따라서 우리말의 관념에서 전탁자는 음운 자질로 인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세진은 『四聲通解』에서 중국어 한자음에는 청음과 탁음을 분명히 기재하면서도, 今俗音·今俗呼라 하여 우리말로 뜻풀이를 할 때에는 전탁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후음에 대한 청음과 탁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어 중고음 추정음, 『東國正韻』, 중국어의 어음, 훈민정음으로 주음하고 있는 『四聲通解』, 『老乞大諺解』와, 기록 당시의 우리말 한자음을 기록하고 있는 『全韻玉篇』에서의 기록을 통해 전청 ‘ㅎ’, 차청 ‘ㅎ’, 전탁 ‘ஹ’, 불청불탁 ‘ㅇ’에 대한 우리의 음운 인식 변화를 살펴보자.

<표73> ‘ㅎ’에 대한 음운 인식의 변화

字 例	上古音		中古音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老乞大 諺解』	『全韻 玉篇』	現音	普通話
	王 力	董同 龢	『廣韻』	王力	董 同 龢						
衣	oŋi	ʔjəd	止開三平微 影全清	oŋi	ʔjəi	형(:형)	히	히/이	의	의	i¹

186) “初聲終聲通用八字”라 하여 초성과 종성에 모두 쓰는 8글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을 제시하고 있고, “其尼池梨眉非時異八音用於初聲, 役隱‘末’乙音畝‘衣’擬用於終聲”라 하여 ㄱ·니·디·리·미·비·시·이 8음은 초성에 사용하고, 역·은·근·을·음·읍·웃·웅 8음은 종성에 사용함을 밝히고 있다.

187) 初聲獨用八字(초성에만 쓰는 8글자):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188) 본 소절 3.2. 影母와 ㅎ는 소논문 문성호·김수애·김은희, 「훈민정음 ‘ㅇ’의 초성·종성에 관한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87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전칭자 衣에 대해 왕력은 영성모 ‘ø’로 추정했고, 董同龢는 [ʔ]로 추정했다. 본고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했을 때, 衣는 월어의 음조(ji1)에 해당하고, 『東國正韻』에서 ‘ㅎ’로 주음하고 있기 때문에, 衣의 음운 자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모 [j]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성모 [j]는 유럽어의 경구개 접근음이 아니라, 후두강에서부터 올라온 진동음이 연구개를 지나 구강으로 접근하는 소리로, 현재 중국 남방 방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소리이다.

최세진은 『四聲通解』에서 중국어를 음역할 때는 ‘ㅎ’을 사용했지만, 우리말 한자음에서는 ‘ㅎ’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ㅎ’을 우리말의 범주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老乞大諺解』에서는 중국어를 음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ㅎ’과 ‘ㅇ’이 혼용되어, ‘ㅎ’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의 독서음을 기준으로 衣에 대한 보통화의 국제음성기호는 모음 [i]보다는 [ji]가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통화에서 청·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衣에 대한 보통화의 국제음성기호는 [ʔi]가 타당하다. 유럽어의 모음 [i]와 중국어의 元音 [i]는 같지 않다.

<표74> ‘ㅎ’에 대한 음운 인식의 변화

字 例	上古音		中古音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老乞大 諺解』	『全韻 玉篇』	現音	普通話
	王 力	董同 龢	『廣韻』	王力	董同 龢						
胸	xīw ɔŋ	xjuŋ	通合三平鍾 曉次清	xīwoŋ	xjuoŋ	흥	흥	흥/흥	흥	흥	cyuŋ¹

차칭자 胸에 대한 王力과 董同龢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은 [x]로 일치한다. 『東國正韻』에서 후음 차칭은 ‘ㅎ’으로 주음하고 있다. 이는 『四聲通解』·『老乞大諺解』·『全韻玉篇』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어를 음역하고 있는 『四聲通解』·『老乞大諺解』에서 ‘ㅎ’으로 주음한 것은 차칭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지만, 『東國正韻』의 ‘ㅎ’이 『全韻玉篇』까지 이어진 것은 음운의 자질보다는 문자의 전승이라 판단할 수 있다. 『東國正韻』에서 세종은 ‘ㅎ’을 차칭으로 설계했지만, 『全韻玉篇』에서는 [h]부터 [x]·[ɣ] 모두를 ‘ㅎ’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한국어 발성의 ‘ㅎ’은 정확하게 국제음성기호로 [h]·[x]·[ɣ] 중 어디에 속해야 할지 애매하다. 한국어 발성의 ‘ㅎ’은 영어 혹은 중국어의 후음보다 얇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ㅎ’은 분명 유성 연구개 마찰음 [ɣ]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문 마찰

음 [h]에 대응하는 소리도 아니다. 한국어의 ‘ㅎ’과 영어의 [h]는 분명 다른 소리이다. 음운을 대응시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의 음운은 하나의 소리만을 갖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인은 음색의 輕重에 상관없이 ‘ㅎ’으로 성문 마찰음을 인식하여 [h] 혹은 [x]·[ɣ]를 같은 소리의 범주로 생각한다. 한국인은 후음을 /h/¹⁸⁹로, 普通話 사용자는 [h]·[x]로, 廣州話 사용자는 [h]·[x]뿐만 아니라 [ɣ]까지 음운 자질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언어의 성조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어에 성조는 남아있지 않으며, 보통화는 4성, 월어는 9성 6조이다. 월어의 성조에 음조와 양조의 구분이 남아있다는 것은 공명강의 구분이 뚜렷하다는 뜻으로 진동의 폭이 음운 자질로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표75> ‘ㅎ’에 대한 음운 인식의 변화

字 例	上古音		中古音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老乞大 諺解』	『全韻 玉篇』	現音	普通話
	王 力	董 同 龢	『廣韻』	王 力	董 同 龢						
回	yu əi	yuə d	蟹合一平灰 匣全濁	yudi	yuAi	뿡 (:뿡)	휘	휘/휘	회	회	xuei ²

전탁자 회에 대한 추정음은 王力과 董同龢 모두 [ɣ]로 일치한다. 『東國正韻』에서 전탁 후음은 ‘ㅎ’로 표기되는데, 후두강에서 연구개까지 두터운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최세진은 『四聲通解』에서 중국어를 음역할 때는 ‘ㅎ’을 사용했지만, 우리말 한자음에서는 ‘ㅎ’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ㅎ’을 우리말의 범주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老乞大諺解』에서는 중국어를 음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ㅎ’과 ‘ㅎ’이 혼용되어, ‘ㅎ’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全韻玉篇』부터는 ‘ㅎ’로 주음되는데, 한국인의 음운 관념에서 성문 마찰 자질은 ‘ㅎ’ 이외의 것으로 구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문 마찰음의 음색 차이는 음운 자질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四聲通解』·『老乞大諺解』·『全韻玉篇』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9) 격음인 ‘ㄱ, ㄷ, ㅍ, ㅊ’에 경음의 특징인 [+긴장성(=성대긴장)] 자질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 소리들이 음운론적으로 경음으로 범주화되지 않듯이, 격음으로 범주화되는 /h/에 [+긴장성]이 부여되더라도 이 소리는 결국 ‘격음’으로 범주화될 가능성이 크다. 차재은, 「15세기 우리말의 후음 관련 문제들」, 『한국어학』 제20집, 한국어학회, 2003, 253쪽.

<표76> ‘ㅇ’에 대한 음운 인식의 변화

字 例	上古音		中古音			『東國 正韻』	『四聲 通解』	『老乞大 諺解』	『全韻 玉篇』	現 音	普通話
	王 力	董同 龢	『廣韻』	王力	董同 龢						
與	ʌ ia	djag	遇開三上語 以次濁	j ɿo	øjo	영 (:영)	유	유	여	여	y³

차탁 與에 대한 王力の 추정음은 [j]이고, 董同龢의 추정음은 영성모 ‘ø’이다. 본고에서 與는 월어의 양조(jyu6)에 해당하고, 『東國正韻』에서 불청불탁 ‘ㅇ’으로 주음하고 있기 때문에, 與의 음운 자질을 드러내는 추정음은 [ʔ]이 타당하다고 본다. 與의 『東國正韻』 한자음 ‘영’의 종성 ‘ㅇ’([-ʔ])은 현재 한글의 ‘ㅇ’([-ŋ])과는 다른 음운이며, 종성 ‘ㅇ’이 終聲復用初聲의 원칙에 따라 초성에 사용될 때, 비강을 울리지 않는 성문 파열음 [ʔ]이 된다. 또한 終聲復用初聲의 원칙에 따라 ‘ㅇ’의 종성에서의 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음성기호는 [-ʔ] 외에는 찾기 어렵다. 이 경우 한어 중고음에서 입성 소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ʔ] 혹은 『洪武正韻譯訓』에서 입성 소실을 나타낼 때는 ‘ㅎ’과 겹치게 된다. 입성 소실에 불청불탁이 아닌 전청 ‘ㅎ’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고 141쪽에서 살피고 있다.

『東國正韻』의 ‘ㅇ’은 문자를 창제할 때부터 『四聲通解』·『老乞大諺解』·『全韻玉篇』을 거쳐 현재 한글까지 같은 모습을 유지했지만, ‘ㅇ’에서 의도한 소리는 『東國正韻』의 [ʔ]에서 현재의 제로 음가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東國正韻』에서 ‘ㅇ’을 불청불탁 [ʔ]을 목적으로 창제했다고 해서, 우리말 어음에서 [ʔ]을 사용하는 발성 습관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며, 다만 ‘ㅇ’이 창제 당시의 의도와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상 『東國正韻』에서 사용된 전청 ‘ㅎ’과 전탁 ‘ㅎ’이 현재 한글에는 사용되지 않고, 불청불탁 ‘ㅇ’과 차청 ‘ㅎ’으로만 사용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로 훈민정음은 四聲七音を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나, 중세 국어에는 성조가 있었다고 해도 독립어인 중국어의 성조와는 다른 성격이었을 것이고, 차츰 국어에 성조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청음과 탁음으로 구분되는 ‘음색’을 통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 ‘ㅇ’과 ‘ㅎ’의 명칭에 관한 고찰

훈민정음 창제 당시 훈민정음의 초성 글자에는 이름이 없었다. 대신 훈민정음의 각자

병서를 포함한 초성 23글자는 『東國正韻』의 23자모와 일치하므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음가만을 강조할 때, 예를 들면 ‘ㅇ’을 欲母·‘ㅇ’ 등의 방법으로 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ㅎ’을 挾母·‘ㅎ’으로 칭할 경우, ‘ㅎ’의 음가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한어 중고음의 影母에 대응하는 자모라 판단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중국 성운학이고, 당시까지만 해도 한자음에 정음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음의 기준을 중고 한어 36자모에 근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36자모는 중국 한 지역의 어음이라기보다는 당시 한어 음운의 집합체라 할 수 있었기에 세종은 그중 우리에게 필요한 23자모를 선택한 것이다.

① 異凝(이응)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훈민정음의 초성에 최초로 이름을 부여한 것은 최세진의 언문 자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세진이 언문 자모의 내용을 직접 설계했는지의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언문 자모에서 ‘가갸겨겨고교구구그기ㄱ’의 중성 배열 순서 및 한자로 자모의 이름을 ‘ㄱ(其役)·ㄴ(尼隱)·ㄷ(池末)·ㄹ(梨乙)·ㅁ(眉音)·ㅂ(非邑)·ㅅ(時衣)·ㅇ(異凝)’¹⁹⁰⁾로 지어 현재 한글 ‘기역·니은·디귤·리을·미음·비읍·시옷·이응’에 해당하는 초성 글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모의 이름은 2음절로 하여 첫음절에는 초성의 정보를 두 번째 음절에는 중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중 ‘異凝(이응)’만 다른 자모와 구별되는데, 최세진은 초성에서의 ‘ㅇ’은 輕虛하고, ‘ㅇ(옛이응)’은 코를 사용해서 조음하는데, ‘ㅇ’과 ‘ㅇ(옛이응)’은 첫소리에서 다르지만 대체로 서로 비슷하다고 했다.¹⁹¹⁾ ‘이응’에서 초성은 欲母를 따르고 있고, 중성은 疑母를 따르는 것이다. 이는 세종이 ‘ㅇ’·‘ㅎ’·‘ㅇ(옛이응)’을 구분해 놓은 것을, ‘ㅇ’과 ‘ㅇ(옛이응)’은 합하고, ‘ㅎ’은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 부분이 과연 최세진이 자모에 이름을 붙였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¹⁹²⁾ 최세진은 중인 출신의 역관으로 학문적 성

190) 언문 자모에서 “末 衣 兩字只取本字之釋俚語爲聲”라 하여 末 衣 2글자만 본 글자의 우리말 뜻풀이를 가져다 소리로 삼았다고 하고 있다.

191) 唯ㅇ之初聲與ㅇ字音俗呼相近故俗用初聲則皆用ㅇ音若上字有ㅇ音終聲則下字必用ㅇ音爲初聲也ㅇ字之音動鼻作聲ㅇ字之音發爲喉中輕虛之聲而已故初雖稍異而大體相似也漢音ㅇ音初聲或歸於尼音或ㅇㅇ相混無別, 오직 ‘ㅇ(옛이응)’의 초성과 ‘ㅇ’의 음을 세속에서는 서로 비슷하게 부른다. 따라서 세속에서 초성에서는 ‘ㅇ’만을 사용할 것이다. 만약 앞 글자의 소리가 중성 ‘ㅇ(옛이응)’일 경우, 뒷 글자에는 ‘ㅇ’을 초성으로 쓴다.

192) 정광은 “언문 자모는 정의공주가 계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것은 세조 때에 최항(崔沆)과 한계희(韓繼禧)등이 시작하여 세조 4년(1458)에 이승소(李承召)가 언해를 마친 『초학자회(初學字會)』의 권두에 첨부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종종 때에 최세진이 『훈몽자회(訓蒙字會)』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의 관점으로 보기

취도가 높았지만 훈민정음의 자모에 자의로 이름을 지을 권력이 있었는지는 회의적이다.

‘ㅇ’과 ‘ㅇ(옛이응)’은 초성·종성의 음운 자질이 단번에 드러나는 절묘한 조합으로 ‘異凝(이응)’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후에 ‘ㅇ(옛이응)’이 탈락하게 되면서, 결국 현재의 ‘이응’으로 표기하게 된다. 우리말의 음운 자질을 가장 적절히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종이 훈민정음에서 창제한 ‘ㅇ’·‘ㅇ’·‘ㅇ(옛이응)’의 음성적 분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ㅇ’의 명칭을 누가 ‘이응’으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최세진이 설명하고 있는 ‘ㅇ’과 ‘ㅇ(옛이응)’에 대한 음성적 분석을 통해, 최세진의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최세진은 언문 자모에서 “ㅇ字之音發爲喉中輕虛之聲而已”라고 하여 ‘ㅇ’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로 輕虛한 소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훈민정음에서 ‘ㅇ’은 불청불탁으로 “淡而虛”하다고 했을 뿐, ‘輕’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만약 ‘ㅇ’을 경중으로 따지자면 ‘ㅇ’은 가벼운 소리가 아니라 무게중심이 후두강에 있는 소리고, 순경음에서의 활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질이 뚜렷하지 않아 虛하지만 무거운 음색의 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청불탁은 차탁으로 탁음이므로 ‘輕’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둘째, 최세진은 언문 자모에서 “故初雖稍異而大體相似也”라고 하여 (‘ㅇ’과 ‘ㅇ(옛이응)’이) 첫소리가 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서로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訓民正音』 「解例本」의 제자해에서 ‘ㅇ’과 ‘ㅇ(옛이응)’이 비슷해서 운서에서도 ‘ㅇ’과 ‘ㅇ(옛이응)’이 혼용될 정도라는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과 ‘ㅇ(옛이응)’을 후음과 아음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의 목적은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ㅇ’과 ‘ㅇ(옛이응)’의 종성 사용에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서 찾을 수 있다. ‘ㅇ’은 음성운의 종성이 되고, ‘ㅇ(옛이응)’은 양성운의 종성이 된다.

최세진은 당시 북방 어음에만 능통했으며, 세종과 『東國正韻』 편찬자가 추구한 정음은 현실음과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왕’과 ‘역관’의 정음을 대하는 관점 차이로 할 수 있다. ‘왕’인 세종은 당시 우리말에서 확립된 한자음의 뿌리를 중고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서 찾고자 했을 것이나, ‘역관’인 최세진은 우리말에서 확립된 한자음의 뿌리를 찾는 것보다는 자신의 중국어 혹은 문장 실력을 드높여야 했을 것이다. 최세진이 한어 근대음에 능통하여 외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한자음이 현실음과 동떨어짐을 강조해야 했던 이유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는 『東國正韻』 한자음이 학습하기

도 한다. 정광, 『훈민정음의 사람들』, 박문사, 2019, 68쪽.

어렵고, 백성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여 수정할 이유가 있는 명분에도 부합한다.

셋째, 최세진은 언문 자모에서 “漢音ㅇ音初聲或歸於尼音或ㅇㅇ相混無別”라고 하여, 중국 어음 초성 ‘ㅇ(옛이음)’은 니음(n)에 속하거나, ‘ㅇ’과 ‘ㅇ(옛이음)’이 서로 혼용되어 구별이 없다고 했다. 여기서 최세진이 언급한 漢音은 근대음의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東國正韻』에서 지향한 한자음과는 성격이 다르다. 『東國正韻』에서 지향한 한자음은 근대음이 아니라, 중고음 혹은 그 이전의 한자음에서 정음으로 여겨질 만한 것을 가리킨다. 최세진의 당시 한어 중고음에 대한 지식이 어떠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② 여린히음·된이음, ‘ㅎ’

언문 자모에서 ‘ㅎ’은 탈락했기 때문에 당시 ‘ㅎ’의 이름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당시 ‘ㅎ’의 이름을 지었다면 어땠을까? 본고에서 ‘ㅇ’은 후두강, ‘ㅎ’은 구강, ‘ㅇ(옛이음)’은 비강을 무게중심으로 한 성대 진동음으로 분석하고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를 근거로 했을 때, ‘ㅇ’과 ‘ㅇ(옛이음)’은 불청불탁으로 평성·상성·거성에 쓰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¹⁹³⁾ 전청·차청·전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중성으로 쓰면 입성이 된다고 하고 있다.¹⁹⁴⁾ ‘ㅎ’은 전청이므로 초성에서는 구강을 무게중심을 한 성대 진동음이 나올 것이고, 중성에서는 입성이므로 ‘히흥’과 같이 이름을 지을 수 있다. ‘히흥’의 자질을 한글로 표현하면 ‘이웃’이 될 테지만, ‘이웃’에 현재 보통화 혹은 월어의 1성으로 발음하는 느낌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ㅎ’은 후대 학자에 의해 된이음과 여린히음으로 명명하게 되는데,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ㅎ’이 한어 중고음 影母의 음성적 특징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크므로 ‘ㅎ’의 명칭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종은 ‘ㅎ’과 ‘ㅇ’의 자질을 구분할 수 있었기에, 음성·음운 측면에서 ‘ㅎ’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학습을 통해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한국인의 음운관념에서 ‘ㅎ’과 ‘ㅇ’은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말에서 ‘ㅎ’은 ‘ㅇ’자질과 구분되지 않으므로, 우리말에서 ‘ㅎ’은 곧 ‘ㅇ’ 소리이다. 따라서 ‘ㅎ’의 명칭에서 히음은 타당하지 않다. ‘ㅎ’은 ‘ㅎ’과 같은 후음 계열이지만, 소리가 깊어 소리가 영기지 않으므로 전탁자로 쓰이지 않은 글자로 ‘ㅎ’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소리이다. ‘ㅎ’은 ‘ㅇ’과 관련이 있고, ‘ㅎ’은 ‘ㅎ’과 관련이 있는 소리이다. 이는 한

193) 不清不濁之字, 其聲不厲, 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

194) 全清次清全濁之字, 其聲爲厲, 故用於終則宜於入.

어 중고음의 影母와 喻母, 曉母와 匣母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국어 표기에 사용된 ‘ㅎ’의 예는 세종·세조 때의 문헌에 한했으며 한자음에서의 사용을 제외하면 표기례도 극히 국한되었다. ‘ㅎ’을 후대에 된이음으로 부르게 된 이유 중 하나를 찾아보면, 世宗御製訓民正音의 ‘이니르고져흙배이셔도’(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에서 ‘흙배’의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뒷말의 첫소리가 ‘ㄱ, ㄷ, ㅂ, ㅅ, ㅈ’가 올 때, 된소리되기의 조건¹⁹⁵⁾이 형성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訓民正音』 「解例本」이 발견되기 전의 분석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훈민정음의 전탁자와 현재 한글의 된소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명확히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훈민정음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국어의 음절 초(onset) 자음의 문자 제정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유창균(1966)의 『東國正韻』 23자모에서 전탁자 6개를 뺀 것이 훈민정음 초성 17자라는 견해다. 즉 세종이 당시 우리말의 음운을 분석하여 음절 초에 17개의 자음을 초성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23개의 초성이 존재함을 깨닫고 그에 대응하는 문자를 만들었으며 이 가운데 고유어의 자음 표기에 사용될 초성자는 전탁자 6개를 뺀 17개로 정한 것이라는 견해이며, 당시 음운론적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된소리들은 오히려 글자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만 보아도 훈민정음이 당시 우리말의 음운을 분석하여 문자를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⁹⁶⁾

한글의 된소리는 우리말의 음운 자질을 스스로 정립하여 문자 체계를 풍부하고 명확하게 한 값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¹⁹⁷⁾ 한글 된소리의 발음이 곧 훈민정음의 전탁자

195)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ㅅ, ㅈ’가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ㄱ, ㄷ, ㅂ, ㅅ, ㅈ’로 발음되는 현상을 뜻한다. 된소리되기의 조건에는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앞말의 받침 ‘ㄱ, ㄷ, ㅂ, ㅅ, ㅈ’가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와 만났을 때로, 국밥[국뽕], 민고[민꼬], 밥집[밥쩍], 옷발[은뺨], 젓소[전쏘] 등이 그 예이다. 둘째, 용언의 어간 받침 ‘ㄴ, ㄹ’이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와 만났을 때로, 신고[신포], 넘고[넘꼬] 등이 그 예이다. 셋째, 관형사형 어미 ‘ㄹ’이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와 만났을 때로, 할 것을[할 꺼슬], 갈 데[갈 때] 등이 그 예이다. 넷째, 한자어 받침 ‘ㄹ’이 뒷말의 첫소리 ‘ㄷ, ㅅ, ㅈ’와 만났을 때로, 갈등[갈똥], 말살[말쌀], 갈증[갈쫂], 발전[발쩍] 등이 그 예이다.

196) 정광, 『훈민정음과 파스파문자』, 역락, 2012, 261-262쪽.

197)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선보였고, 된소리 표기에 관한 규정을 제시했다. 1937년의 제1차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보면 제1장, 제2절, 제2항에서, 된소리 글자의 명칭을 ‘ㄱ 쌍기역, ㄷ 쌍디글, ㅂ 쌍비음, ㅅ 쌍시웃, ㅈ 쌍지웃’이라고 정하고 있다. 제2장, 제1절, 제3항에서는 한 단어 안의 두 음절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에

의 어음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訓民正音』 「解例本」 合字解에서 각자병서를 사용하여 우리말 단어의 품사를 설명하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¹⁹⁸⁾ 소리와 관련해서는 각자병서가 전탁자라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확인할 수 없다. 전탁자가 경음에 대응한다고 할 때 주장의 논거는 주로 15세기 국어의 장애음 계열에서 유성과 무성의 대립이 없었음을 꼽고, 전승 한자음에는 탁음이 없는 것을 꼽는데, 본고의 논의를 통해 살펴봤을 때, 전탁음은 범어의 유성음을 체계적으로 음역하기 위해 분류된 한어 중고음의 특징 중 탁음이라는 자질이, 탁음이 곧 유성음이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각자병서는 우리말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자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훈민정음의 각자병서는 『東國正韻』의 23자모의 전탁자에 해당하며, 『東國正韻』 한자음의 전탁자는 『廣韻』 41성모의 전탁자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

한어 중고음 추정음 혹은 현대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된소리에 해당하는 자질이 따로 표기된 전례가 없으므로, 최소한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전탁자는 된소리¹⁹⁹⁾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도 여간해서는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음운 자질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訓民正音』 「解例本」과 『東國正韻』의 발견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1940년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을 통해 음가의 정의를 고찰하고, 『東國正韻』 한자음을 통해 훈민정음의 쓰임 및 한어 중고음의 직접적인 비교도 가능해졌다. ‘ㅎ’을 여린히읃이나 된이읃으로 부르는 것 모두 ‘ㅎ’을 명명하는데 적절한 명칭은 아닌 것 같다. 훈민정음의 창제 당시의 기본글자 23개는 『東國正韻』 23자모와 일치하고,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도 우리말 표기보다는 한자음의 음소 표기가 먼저였으므로, ‘ㅎ’을 『東國正韻』 23자모의 搨母로 부르는 것이 창제원리에 가장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자모의 명칭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서는 甲을 취하고 乙을 버린다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갑/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어깨/엿개, 거꾸로/깃구로, 깨끗하다/깨끗하다, 아끼다/앗기다, 이따금/잇다금, 어떠하다/엇더하다, 으뜸/웃듬.
 198) “各字並書，如諺語혀爲舌而𨮒爲引，괴여爲我愛人而，괴여爲人愛我，소다爲覆物而쓰다爲射之類”라 하여, 각자병서, 이를테면 우리말에서 ‘혀’는 혀라는 뜻이지만, ‘𨮒’는 끌어당김을 뜻하는 말이고, ‘괴여’는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뜻이지만 괴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 되며, ‘소다’는 무언가를 뒤집는 것을 뜻하고, ‘쓰다’는 무언가를 쏜다는 뜻이 된다.
 199) 구강(口腔) 안의 기압(氣壓) 및 조음기관(調音器官)의 긴장도(緊張度)가 높아 강하게 파열되는 음, 또는 강한 후과도(後過渡)를 가지는 음. 연음(軟音: 예사소리, 평음)에 대립되며, 경음 또는 농음(濃音)이라고도 한다. 국어의 된소리 ㄱ·ㄷ·ㅂ·ㅅ·ㅈ이 이에 속한다. 국어의 경우는 흔히 성문파열(聲門破裂)이나 후두긴장(喉頭緊張)을 수반하는 음으로 설명되며, 평음(平音)과 격음(激音)과 삼지적(三肢的)으로 대립한다. 된소리를 음성기호(音聲記號)로는 [k'] [t'] [p'] [s'] [tʰ]와 같이 표시한다. <http://www.doopedia.co.kr/> (두산백과)

2) 음가 표기 고찰

‘ㅇ’과 ‘ㅎ’은 상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동일 영역은 ‘ㅇ’과 ‘ㅎ’이 성대 진동음으로 다른 자모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마찰 자질이 없음을 들 수 있다. 대립 영역은 ‘ㅇ’과 ‘ㅎ’이 서로 구분되는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성대 진동음의 영역 내에서의 구분되는 자질은 ‘ㅇ(엠티음)’과의 대비에서도 찾을 수 있다. ‘ㅇ(엠티음)’도 성대 진동음이지만 무게중심이 비강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ㅇ’과 구분되는 자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명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ㅇ’과 ‘ㅎ’은 성대 진동의 무게중심이 비강에 위치하지 않는 점에서 또한 동일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ㅇ’과 ‘ㅎ’의 자질이 구분될 수 있는 영역은, 성대 진동음의 후두강과 구강에서의 무게중심 차이에 따른 ‘음색’을 통한 구분 이외에서 찾기는 어렵다. 아래에서 『東國正韻』 23字母 欲母·攄母에 대한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에서도 喻母와 影母의 일률적인 대비를 확인할 수 있다.

<표77> 欲母·攄母에 대한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

欲 성모그룹				攄 성모그룹			
한자	동국 정운	한어 상고음	한어 중고음	한자	동국 정운	한어 상고음	한어 중고음
1蠅	웅	d/jəŋ	ø/jəŋ	1膺	홍	?/jəŋ	?/jəŋ
1孕	웅	d/jəŋ	ø/jəŋ	1應	홍	?/jəŋ	?/jəŋ
1膾	웅	d/jəŋ	ø/jəŋ	2罍	횡	?/eŋ	?/æŋ
2弋	익	d/jək	ø/jək	2豐	횡	(*)	?/æŋ
2柅	익	d/jək	ø/jək	3泓	횡	?/uəŋ	?/uæŋ
2鈇	익	(*)	ø/jək	3獲	횡	(*)	?/uek
3容	용	g/juŋ	ø/juŋ	4翁	홍	?/uŋ	?/üŋ
3頌	용	g/juŋ	ø/juŋ	4翁	홍	(*)	?/uŋ
3庸	용	d/juŋ	ø/juŋ	5映	향	?/jaŋ	?/jaŋ
4陽	양	d/jaŋ	ø/jaŋ	5映	향	?/jaŋ	?/jaŋ
4場	양	d/jaŋ	ø/jaŋ	6央	향	?/jaŋ	?/jaŋ
4烱	양	(*)	ø/jaŋ	6映	향	?/jaŋ	?/jaŋ
4養	양	(*)	ø/jaŋ	7汪	황	?/uaŋ	?/uaŋ
4漾	양	g/jaŋ	ø/jaŋ	7枉	황	?/juaŋ	?/juaŋ

<표77>은 『東國正韻』 제1권의 ‘欲’ 성모 그룹과 ‘攄’ 성모 그룹을 상대 비교한 것이다. 제1권²⁰⁰⁾에서 ‘欲’ 성모 한자 그룹은 4번, ‘攄’ 성모 한자 그룹은 7번 나온다. 『東國正韻』

200) 欲: 1‘웅’(11글자), 2‘익’(15글자), 3‘용’(52글자), 4‘양’(58글자) ; 攄: 1‘홍’(20글자), 2‘횡’(24글자), 3‘ㅎ

의 한자음 注音을 董同龢의 추정음과 비교해 봤을 때,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欲(ㄷ)과 搨(?)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欲(ㄷ)과 搨(?)은 청취 측면에서 구분 가능한 범주이거나 최소한 운서에서 구분해야 할 범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비가 일률적일 수 있는 이유는 훈민정음은 절운계 운서를 바탕으로 한자음을 주음하고 있고, 한어 중고음 추정음은 『廣韻』 41성모 반절상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어 중고음은 음소문자로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喻母와 影母의 청취 측면에서 구분되는 음성 자질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후음의 전청, 차청, 전탁, 차탁을 모두 절운계 운서에 일치시키고 있는 훈민정음을 통해, ‘ㅇ’은 후두강을 위주로 한 성대 진동음, ‘ㄱ’은 후두강의 성대 진동음이 구강까지 뺀어나가는 성대 진동음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²⁰¹⁾

(1) ‘ㄷ’의 사용목적

‘ㄷ’의 사용 목적을 『東國正韻』의 서문에서 확인하고, ‘ㄷ’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음이 [-t]인 것에 착안하여 ‘ㅇ’의 음성학적 특징을 살펴본다. ‘ㄷ’을 [-t]로 바꾸는데 활용된 ‘ㅇ’의 사용은 편찬자가 ‘ㅇ’의 음가에 대해 어떤 정의를 갖고 있었는지 알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에 사성(四聲)으로 조정하고 91韻과 23字母로(운서 편찬의) 기준을 삼은 다음 御製訓民正音を 가지고 그 음 (즉 한자음)을 정하였으며, 또 질(質)운과 물(勿)운 같은 운들의 운(여기서는 韻尾音을 말함)은 影母(즉 ㅇ)로 來母(즉 ㄷ)를 보충하여, 속습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잡으니, 옛 습관의 잘못됨이 이에 이르러 모두 고쳐졌다.²⁰²⁾

“以影補來 因俗歸正”은 ‘ㅇ’으로 ‘ㄷ’을 보충하여, 속습에 해당하는 한국 한자음의 운미 [-l]을 [-t]로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주목할 점은 속습의 발음인 [-l]을 버리지 않고, 속습을 바탕으로 [-t]를 표기한다는 점이다. ‘ㄷ’을 버리고 斗音 ‘ㄷ’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ㄷ’을 사용했다는 것은 속습의 발음과 정음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의도한 것일 수 있다.

강’(7글자), 4‘홍’(52글자), 5‘향’(23글자), 6‘향’(22글자), 7‘향’(11글자)
 201) 본 소절은 문성호, 『『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 ‘ㄷ’·‘ㅁ’ 고찰, ‘ㅇ’·‘ㅇ’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33집, 인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에서의 논의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202)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219쪽.

『訓民正音』「解例本」終聲解에서 당시 속습에서 ‘ㄹ’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ㄷ如‘별’爲驚，ㄴ如‘군’爲君，ㅂ如‘업’爲業，ㅁ如‘땀’爲覃，ㅅ如諺語‘옷’爲衣，ㄹ如諺語‘실’爲絲之類

ㄷ은 별이 驚(별의 종성 ㄷ)됨과 같고, ㄴ은 군이 君(君의 종성 ㄴ)됨과 같고, ㅂ은 업이 業업의 종성 ㅂ)됨과 같고, ㅁ은 땀이 覃(땀의 종성 ㅁ)됨과 같고, ㅅ은 우리말로 옷이 衣(옷의 종성 ㅅ)됨과 같으며, ㄹ은 우리말로 실이 絲(실의 종성 ㄹ)됨과 같은 따위다.

且半舌之ㄹ，當用於諺，而不可用於文

또 반혀소리인 ㄹ음은 마땅히 우리말의 종성이나 쓸 것이지 한자(漢字)의 종성)에는 쓸 수 없다.

“ㄷ如 ‘별’ 爲驚”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은 ‘ㄷ’으로 [-t]를 표기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東國正韻』에서 ‘ㄹ’을 ‘ㄷ’로 고칠 수 있었지만, ‘ㄹ’을 사용했다는 것은 당시의 속습을 문자에서 버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訓民正音』「解例本」에서는 당시 속습에서 세종이 생각한 바른 소리인 [-t]가 사용되지 않고 [-l]로 변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若用ㄹ爲驚之終，則其聲舒緩，不爲入也

만일 ㄹ음으로 驚자의 종성을 삼는다면 그 소리가 느려져서(舒緩) 입성이 되지 못한다.

閻宜於諺不宜文 斗輕爲閻是俗習

ㄹ(閻)은 우리말 종성 표기에는 마땅하나 한자음 표기에는 마땅치 않으니 ㄷ(斗)소리가 가벼워져서 ㄹ(閻)소리가 된 것은 곧 일반적인 습관이네.

如入聲之驚字，終聲當用ㄷ，而俗習讀爲ㄹ，蓋ㄷ變而爲輕也

입성(입성)의 驚자와 같은 것도 종성에 마땅히 ㄷ음을 써야(ㄷ음으로 발음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습관으로 ㄹ음으로 읽으니 대개 ㄷ음이 변해서 가볍게 된 것이다.

‘ㄹ’은 우리말 종성 표기에 마땅하고 한자음은 ‘ㄷ(斗)’이어야 하지만, ‘ㄷ’이 가벼워져서

‘ㄹ’로 변했다고 했다. 이에 ‘ㄷ’으로 바꾸면 될 일이지만, 세종은 ‘ㄹ’을 ‘ㄷ’으로 표기하여 ‘ㄷ’을 표기하고 있다. 속음을 살리면서 정음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속음만 알고 있는 대상에게 정음을 학습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ㄹ’과 ‘ㄷ’은 설음으로 조음 위치가 같다. ‘ㄹ’을 ‘ㄷ’으로 내기 위해서는 조음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속음에서 느리고 가벼워진 ‘ㄹ’ 소리(반설음·불청불탁)를 빠르고 무겁게(설음·전청) 하는 방법을 음성학적으로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ㄹ’을 ‘ㄷ’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혀의 양쪽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유음을 차단해야 하므로, ‘ㄹ’ 소리에 경구개로 유입되는 기류가 필요하게 된다.

(2) ‘ㄷ’에 대한 음성학적 분석

‘ㄹ’이 ‘ㄷ’으로 변하려면 ‘ㄹ’소리에 물리적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ㄹ’이 유음이므로 혀에 힘이 실려야 ‘ㄷ’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경구개까지 힘이 전달될 수 있는 음소가 필요하다. ‘ㅎ’이 후음이고 전청이라는 점에서 목에서 발생한 진동의 폭이 경구개까지 접근하는 음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 습자해에서 초성의 ‘ㅎ’과 ‘ㅇ’은 서로 비슷해서 우리말에서는 통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변별 자질이 서로 크지 않은 두 음운을 『東國正韻』에서 ‘ㅎ’과 ‘ㅇ’을 구분한 것은 漢字의 독서음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ㅎ’과 ‘ㅇ’의 구체적인 자질에 대해서는 『訓民正音』 「解例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例義에서 “ㅎ 喉音 如搥字初發聲”이라 했고, 制字解에서는 ㅎ은 “ㄱ比ㄱ, 聲出稍厲, 故加畫”과 같은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²⁰³⁾ 즉 ‘ㅎ’은 ‘ㅇ’보다 거센소리라고 할 수 있고, ‘ㅇ’은 후음·불청불탁으로 ‘ㅎ’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소리라고 할 수 있다.

‘ㅎ’과 ‘ㅇ’은 현재 한국어에서는 모두 제로 음가인 ‘ㅇ’으로 통일 되었고, 보통화에서는 영성모 ‘∅’와 반모음 [j]로,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월어에서는 영성모 ‘∅’와

203) ㄱ은 ㄱ에 비하여 소리나는 것이 조금 센 까닭으로 획을 더하였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32쪽.

不厲	→ → →	厲
ㄱ		ㅋ
ㄴ	ㄷ	ㅌ
ㄷ	ㅈ	ㅊ
ㅅ	ㅆ	ㅉ
ㅇ	ㅎ	ㅎ

성모 [j]로 각각 통일된 것으로 보아 ‘ㅎ’과 ‘ㅇ’에 성대 진동 혹은 성대 진동이 경구개로 이동하는 접근음 외에 다른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ㅎ’은 성대진동이 경구개로 접근하는 음이고, ‘ㅇ’은 성대진동이 연구개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동하는 음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공명강에 작용하는 음성의 무게중심에 따라 음의 음색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음운자질로 작용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칼그렌과 동동화는 『東國正韻』의 搨母에 대응하는 影母에 대해 ‘等’ 분포 상황과 성조의 변화를 통하여 성문 과열음(喉塞音)인 [ʔ]로 추정하고 있는데, 성모 [ʔ]이 閉合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모음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ʔ]의 추정음은 영성모 ‘ø’의 추정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 즉 성대 진동음이라는 정보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렵다. 『東國正韻』의 ‘ㄷ’의 ‘ㅎ’이 목표로 하는 음가 범위를 고려했을 때 影母의 추정음 [ʔ]은 혀소리에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세종의 시기에 음성은 四聲七音を 바탕으로 분석해야 타당하며, 현재의 국제음성기호는 四聲七音과 대응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의 以影補來에 근거하여 ‘ㅎ’의 음가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東國正韻』 한자음을 원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月印釋譜』²⁰⁴⁾ 序에서 ‘ㅇ’과 ‘ㅎ’이 사용된 한자 30개²⁰⁵⁾에 대해 董同龢의 중고음 추정음을 참고하여 한어중고음의 성모를 확인하고 운모와의 결합을 확인했을 때, ‘ㅇ’은 喻母 ‘ø’에 대응하고, ‘ㅎ’은 影母[ʔ]에 대응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로 살펴본 것은 다음과 같다.²⁰⁶⁾

204) 『月印釋譜』는 1459년에 세조가 『釋譜詳節』과 『月印千江之曲』을 합쳐 간행한 책이다. 『月印釋譜』는 총 25권 가운데 제3, 5, 6, 16, 24권을 제외한 20권이 전하고 있다.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에 실린 한자에는 독음이 훈민정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그 직후인 1447년, 세종은 이미 중국어음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한국한자음을 중국어음에 맞게 되돌리려는 목적으로 『東國正韻』을 간행하여, 모든 언해류 서적에 『東國正韻』식 개정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게 하였다. 이 시기의 한자음 자료는 중국 원음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심했던 현대 표준 중국어의 토대가 되는 중국 북방 방언보다 오히려 당시 중국어음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태경, 『『月印釋譜』 진언표기를 통한 중국어음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43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82쪽.

205) 印(인), 耀(용), 焉(연), 於(영), 夜(양), 緣(원), 閻(염), 威(윙), 演(연), 以(이), 擁(용), 攸(윙), 寅(인), 予(영), 譯(역), 益(익), 用(용), 音(음), 易(잉), 扈(후), 惟(윙), 欲(욕), 要(윙), 依(윙), 爲(윙), 遺(윙), 一(윙), 鳴(용), 興(영), 安(한)

206) 한어 중고음은 董同龢의 추정음을 근거로 했고, 월어의 경우 어음을 국제음성기호로 나타낼 경우 지역마다 상이한 이유로, 신화사전에서 택한 월어병음방안을 근거로 했다.

<표78> ‘ㅇ’과 ‘ㅎ’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

欲母 ‘ㅇ’				挹母 ‘ㅎ’			
한자	동운	중고음	월어	한자	동운	중고음	월어
耀	울	ø/ jæu	jiu6	印	힌	?/ jen	jan3
夜	양	ø/ ja	je6	焉	현	?/ jen	jin1
緣	원	ø/ juæn	jyun4	於	형	?/ uo	jyu1
閻	염	ø/ jæm	jim4	威	횡	?/ juæi	wai1
演	연	ø/ jæn	jin5	擁	홍	?/ juoŋ	jung2
以	이	ø/ i	ji5	益	역	?/ jæk	jik1
攸	을	ø/ ju	jau4	音	흠	?/ jëm	jam1
寅	인	ø/ jin	jan4	扈	힝	?/ æk	ak1
予	영	ø/ jo	jyu4	耍	홀	?/ jæu	jiu1
譯	역	ø/ jæk	jik6	依	횡	?/ jœi	ji1
用	용	ø/ juoŋ	jung6	一	횡	?/ jet	jat1
易	잉	ø/ je	ji6	鳴	홍	?/ uo	wu1
惟	윙	ø/ juei	wai4	安	한	?/ an	ngon1
欲	욕	ø/ juok	juk6				
爲	윙	ɣ/ juë	wai4				
遺	윙	ø/ juei	wai4				
與	영	ø/ jo	jyu4				

喻母 ‘ㅇ’와 影母 [ʔ]는 한어중고음의 운모 [i], [j], [æ], [u], [a]와 결합하고, 한어중고음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는 월어에서는 병음 /i/, /j/, /w/, /ng/, /a/와 결합하고 있다. 이는 欲母 ‘ㅇ’과 挹母 ‘ㅎ’이 운서·운도에서는 구분이 되지만²⁰⁷⁾ 국제음성기호로는 일률적으로 대응이 되지 않는 개념이고, 청취 측면에서 개합과 상관없이 사용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개합과 관계없이 쓰일 수 있었다는 것은 ‘ㅇ’과 ‘ㅎ’의 변별 자질을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따라 달라지는 음색 차이 이외에서는 찾기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명강의 음색차이는 중국 방언에서 2개 이상의 평조를 구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초성의 [ʔ]은 입성 소실을 나타내는 후색음과는 별개로 욱모 ‘ㅇ’보다 자질이 뚜렷한 음으로 성대 진동의 힘이 성대에서 구강까지 뺏어나가는 소리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 경우 『東國正韻』에서 교정의 방법을 통해 표기하고 있는 설내입성 [-t]를 표기하기 위해,

207) 影母는 1·2·3·4등운에 모두 자(字)가 있고 또한 3등운의 반절상자는 스스로 일류(一類)를 이루고 있는 경향이다. 이모(以母)와 운모(云母)는 역시 모두 다만 3등운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모상 반드시 같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이다. 董同龢, 공재석 譯, 『漢語音韻學』, 汎學韻書, 1975, 162쪽.

‘ㄹ’ 옆에 사용하고 있는 ‘ㅎ’을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대 진동음이 구강으로 뺏어나가면 성대 진동음보다 상대적으로 소리가 뚜렷하므로 전청이 된다.²⁰⁸⁾ 월어 성조에 서도 『東國正韻』의 搥母 ‘ㅎ’이 사용된 한자음의 성조 값은 대체로 높음(1, 2, 3)을 알 수 있고, 欲母 ‘ㅇ’이 사용된 한자음의 성조 값은 대체로 낮음(4, 5, 6)을 알 수 있다.²⁰⁹⁾ ‘ㅇ’과 ‘ㅎ’은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초분절자질인 성조를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라진 입성 [-t]를 되살린다고 했을 때, ‘ㅎ’을 성문 파열음에서 경구개로 접근하는 소리인 [ʔ] → [j]로 추정한다면, 성문 파열음의 진동이 경구개까지 다가가기 때문에 혀까지 진동의 힘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ㅎ’은 ‘ㅇ’과 구분되어 음가가 겹치지 않게 된다.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경구개 접근음은 국제음성기호에서 정하는 음소 [j]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닌 성대진동의 무게중심이 경구개로 퍼져나가는 공명의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경우 搥母 ‘ㅎ’은 운모의 등운에 관계없이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성대 진동의 공명의 범위에 따라 搥母와 欲母의 음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세종과 집현전 학자는 이러한 음색의 차이를 음운 자질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유하자면 /æ/와 /æ/의 차이를 현재는 모음사각도에서 분석하지만, 『東國正韻』 편찬자는 搥母와 欲母의 공명 정도의 차이에서 구별되는 자질로 인식했을 수 있다.

(3) 입성의 소실 표기

『洪武正韻譯訓』의 속음에서 입성운미 [-p], [-t], [-k]의 소실을 일률적으로 ‘ㅎ’로 표기하고 있는데, 입성 운미의 소실 과정을 ‘ㅎ’로 표기하는 것과, 입성을 회복하고자 할 때의 ‘ㅎ’의 음가는 음성적으로 같은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 소실되는 소리는 특정음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상의 소리에 가까운 반면, 되살리고자 하는 소리는 목표로 하는 음가 범위가 있는 소리다. 소실 과정을 아래 <표79>²¹⁰⁾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08) 지금 짐짓 평성자(平聲字)를 예로 든다면, 일반적으로 중고성모가 청음인 것은 각 방언에서는 모두 음평조(陰平調)이고, 일반적으로 중고성모가 탁음인 것은 모두가 양평조(陽平調)이다. 영모와 두 개의 유모는 어떠한가? 영모는 전일파(前一派)에 속해 있고, 幫·滂·端·透 등과 같고, 두 개의 유모는 모두 후일파(後一派)에 속해 있고, 並·明·定·泥와 같다. 이에 우리들은 다시 한 걸음 더 나가 추단하면, 영모는 중고에 모두 후색음 [ʔ]를 기수로 하였고, [ʔ-]는 청음이며, 그러므로 성조변화는 幫·滂 등 모자(母字)와 같다. 두 유모의 기수(起首)는 모두 탁음이며, 그러므로 성조 변화에 있어서 그들은 모두 並·明 등 모자의 길을 따른 것이다. 董同龢, 공제석 역, 『漢語音韻學』, 汎學叢書, 1975, 162쪽.

209) 음(陰)에 대응되는 성조는 전부 그 성조 값이 높고, 양(陽)에 대응되는 성조는 성조 값이 낮다. 양현, 「한국어와 광둥어의 어휘·문법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4쪽.

<표79> 입성의 소실 표기

한어중고음		『홍무정운역훈』		『사성통해』
ㄱ /-k/	→	ㄱ [?]	→	∅ (zero)
ㄷ /-t/	→	ㄷ [?]	→	∅ (zero)
ㅂ /-p/	→	ㅂ [?]	→	∅ (zero)

입성의 소실을 표기하기 위해 ‘ㅇ’을 사용한 것이 ‘ㅇ’의 음가가 [-?]인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ㅇ’의 음가를 입성 소실 표기에 사용된 후색음으로 추정할 경우, 이는 입성의 소실이 일어난 북방 방언 혹은 몽골어에 어울리는 소리이지, 입성의 소실이 일어나지 않은 한국어와 월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리이다. 입성의 소실에 불청불탁 ‘ㅇ’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四聲七音의 체계를 고려하여 전청인 ‘ㅇ’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이는 김무림에서 약운(藥韻)의 입성운미가 근대음 이후 운미 [-u]로 변했는데, 『홍무정운역훈』에서 운미 [-u]의 정음 표음에는 ‘-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약운의 속음 종성의 표음에 ‘-몽’을 사용하지 않고 ‘병’²¹¹⁾을 사용한 것은 원래의 정음이 입성음으로서 전청음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속음 종성의 표음에 있어서도 전청음으로 분류되는 ‘병’을 사용한 것이다.²¹²⁾

입성소실을 나타낼 때 성모에 따라 종성에서 전청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影母와 ‘ㅇ’의 음가 표기 고찰

挹母 ‘ㅇ’은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影母 1·2·3·4등에 일률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欲母 ‘ㅇ’이 喻母 4등·爲母 3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상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아래 <표80>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210)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60쪽.

211) 그럼 병의 음가는 무엇인가? 순경음중 병과 몽은 초성(성모)과 종성(운미)에 모두 쓰였는데, 초성과 종성에서의 음가가 달랐다. 초성의 위치에서 병은 /f/이고, 몽은 /m/이다. 그런데 종성에서는 병, 몽모두 운미 /-u/를 표기하는데 사용되었다. 장향실, 「중세국어시기 고유어 표기에 쓰인 병의 음가에 대하여」, 『어문논집』 48, 2003, 66쪽.

212)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60쪽.

<표80>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影母와 喻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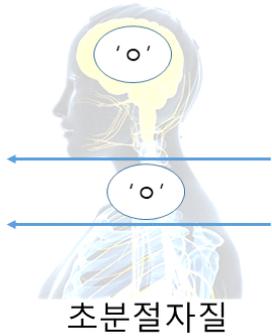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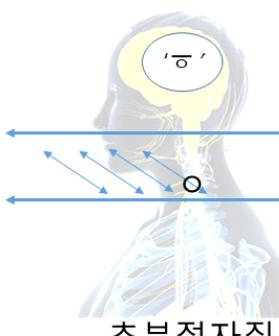
	影(124等), 東, 廣	影(3等), 東, 廣	喻(4等), 東, 廣	爲(3等), 東, 廣
1	烏 ㅎ wu1	於 ㅎ jyu1	以 잉 ji5	于 웅 jyu4
2	伊 ㅎ jil	乙 ㅎ jyut3	羊 양 joeng4	王 왕 wong6
3	一 ㅎ jat1	衣 ㅎ jil ji3	余 여 jyu4	雨 웅 jyu5 jyu6
4	安 한 ngon1	央 ㅎ joeng1	餘 여 jyu4	爲 ㅎ wai4 wai6
5	烟 힌 jin1	紆 ㅎ jyu1	與 여 jyu6	羽 웅 jyu5
6	鷺 ㅎ jil	憶 ㅎ jik1	弋 익 jik6	云 운 wan4
7	愛 ㅎ ngoi3	依 ㅎ jil	夷 이 ji4	永 ㅎ wing5
8	挹 ㅎ jap1	憂 ㅎ jau1	予 여 jyu4 jyu5	有 ㅎ jau5 jau6
9	哀 ㅎ oil	謁 ㅎ jit3	翼 익 jik6	雲 운 wan4
10	握 학 ak1	委 ㅎ wai1 wai2	營 ㅎ jing4	筠 운 wan4
11			移 이 ji4	遠 원 jyun5 jyun6
12			悅 ㅎ jyut6	韋 ㅎ wai4 wai5
13				洧 ㅎ fui5
14				榮 ㅎ wing4
15				蓮 ㅎ jyun5

‘ㅎ’이 전청이고 우리말 한자음의 중성 ‘ㄹ’을 입성으로 만들기 위해 ‘ㅎ’을 병서해 ‘ㄹ’로 사용한 점 및 발성의 무게중심이 구강에 위치한 월어의 음조에 대응하는 것을 근거로, ‘ㅎ’의 음가 표기는 경구개 접근음 [j]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ㅎ’의 음가 표기에 대한 고찰은 한어 중고음의 影母에 관한 고찰이기도 하다. 물론 ‘ㅎ’이 국제음성기호의 [j]과 일치하는 소리는 아니다. 발성 및 호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중·일의 어떠한 소리도 국제음성기호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음소를 객관적으로 표기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이 가장 보편적인 국제음성기호에서 찾을 뿐이다.

군소리처럼 들려도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소리는 현재 어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취 측면에서 상대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는 경우라면 부연 설명은 크게 필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야’를 [ja]로 표기한다고 해서 한국어의 ‘야’가 [ja] 소리와 같지 않음을 한국인 혹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의 경우 실제 청취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어음을 들을 수 있는 경우, 국제음성기호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국제음성기호는 음소에 대한 정보까지는 담을 수 있어도 음색에 대한 정보는 담지 못한다. 한어 중고음의 影母와 훈민정음의 ‘ㅎ’의 음가를 추정할 때는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동원하여 구체적으로 음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 표에서 ‘ㅇ’

과 대비되는 ‘ㅎ’의 음성 자질의 특징을 확인하도록 한다.

<표81> ‘ㅇ’과 ‘ㅎ’의 음성적 원리에 따른 음가 표기

‘ㅇ’의 음가표기	‘ㅎ’의 음가표기
 <p style="text-align: center;">초분절자질</p>	 <p style="text-align: center;">초분절자질</p>

칼그렌과 董同龢는 喻母와 影母에 대해 각각 ‘ø’와 [ʔ]로 추정했지만, ‘ø’와 [ʔ]가 성대 진동음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정보를 알려주지는 못한다. 본고에서는 훈민정음에서의 설명, 현대 보통화, 월어, 한국 한자음의 어음을 근거로, 喻母는 [ʔ]로, 影母는 [j]로 추정한다. [j]는 ‘ㅇ’의 [ʔ]과 마찬가지로 소리의 시작점이 후두강에 위치하여 ‘ㅇ’과 동일 영역을 공유하지만, [j]의 성대 진동음이 후두강에만 머물지 않고 구강에까지 작용하는 점이 다른 것이다.

3. 疑母와 ‘ㅇ(옛이응)’

한어 중고음 疑母와 ‘ㅇ(옛이응)’의 음가 추정은 [ŋ]로 이론이 없다. 『훈몽자회』에서 초성에서의 ‘ㅇ(옛이응)’ 사용은 우리말에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훈민정음에서 ‘ㅇ(옛이응)’을 기본 글자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ㅇ(옛이응)’의 사용은 중국 남방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발음으로, 1인칭 대명사 ‘나(我)’의 발음은 [ŋ]로 시작한다. [ŋ]을 발음할 때, [ŋ]의 울림 정도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비강과 관련 있는 소리임을 알 수 있다. 세종은 훈민정음에서 음성을 분석할 때, 終聲復用初聲 원칙에

입각하여 음운을 설계했다. 우리말의 종성에서 양성운 [ŋ]이 사용되고 있는데, 초성에 [ŋ]을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초성에서의 ‘ㅇ(엣이응)’사용은 한어 중고음의 疑母에 대응하여, 범한대음 諷 [ŋa]를 음역할 수 있게 한다. 우리말의 종성 사용에서 음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ŋ]를 초성 [ŋ]에 활용하여 정음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야심경의 진언 ‘gate gate’를 음역할 때 초성 엣이응의 ‘아제아제’가 아닌 ‘아제아제’로 음역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²¹³⁾

1) 반야심경의 진언 ‘gate gate’의 음역 비교

『東國正韻』의 業母 ‘ㅇ(엣이응)’은 표면적으로는 중국 성운학의 四聲七音 및 훈민정음의 창제원리인 終聲復用初聲 원칙에 부합되고, 내면적으로는 범한대음 한자음을 음역하기 위해 훈민정음에 포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글자다. 『東國正韻』 한자음 표기는 세조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세조 이후 외면당하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불경음역을 위해 창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 글자가 가장 먼저 불경언해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조 시기의 『月印釋譜』(1459년)가 『東國正韻』 한자음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세조 이후 인수대비가 추진한 언해인 『五大眞言』(1485년)과 『六祖法寶壇經諺解』(1496년)는 『東國正韻』 한자음을 따르지 않는 언해로 대표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초기 『眞言集』(1569년)에 반영되어, 불경언해에 활용된 『東國正韻』 한자음은 점차 맥이 끊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東國正韻』 한자음이 일반백성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는데, 언해의 중심이 세조에서 인수대비로 넘어가는 시기가 훈민정음의 정음 표기에서 훈민정음의 우리말 표기로 넘어가게 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세진은 세조가 세상을 등진 해인 1468년에 태어났으니, 최세진이 인식하는 훈민정음은 세종 및 『東國正韻』 편찬자가 의도한 훈민정음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東國正韻』 편찬에 참여하지 않아 훈민정음 창제 의도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이다. 현재 한글 체계는 최세진의 『訓蒙字會』(1527년)에 소개된 언문 자모를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훈민정음의 어음이 대중에 의해 기본적으로 걸러지기까지 약 80 여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볼 수 있다.

213) 본 소절 疑母와 ‘ㅇ(엣이응)’은 소논문 문성호·김은희·안재철, 「『반야심경』 진언의 한국어 음역 고찰, ‘gate gate’, ‘아제아제’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집』, 제120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본 소절에서는 반야심경²¹⁴⁾의 진언 ‘gate gate’를 ‘가테가테’가 아닌 현재의 ‘아제아제’로 음역하게 된 이유를 살피는 과정을 통해 『東國正韻』 한자음이 폐지되었다기보다, 우리 어음에 맞지 않는 자모가 탈락하게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한다. 반야심경의 진언 ‘Gate Gate Para-gate Para-samgate Bodhi Svaha’를 현재 한국에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로 음역한다. 이중 ‘p’와 ‘b’, 혹은 ‘b’와 ‘m’의 표기상의 차이는 각각 조음 부위가 입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음역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지만, ‘ga’를 ‘아’로 음역한 이유에 대해서 현재 한글이 전해주는 음운 관념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제아제’의 ‘아’는 원래 의도된 소리가 아니며 실제로는 훈민정음의 옛이음 ‘ㅇ’과 ‘ㅏ’가 결합된 [ŋa]의 소리이다. [a]가 아닌 [ŋa]이다. 이는 반야심경의 7개 한역본에 기록된 음역의 변화 과정 및 『東國正韻』 한자음이 사용된 불경언해, 인수대비 이후의 불경언해, 언문 자모에 소개된 훈민정음, 안심사본 『眞言集』 및 만연사본 『眞言集』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a’를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ŋa]로 음역한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반야심경 한역본 음역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범어를 한자음을 통해 음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마라집과 현장은 ‘ga’를 각각 端 [giet], 揭 [kiet]로 음역했지만 대략 800년 전후부터는 새로운 음역인 諶 [ŋa]²¹⁵⁾로 음역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대규모 불경번역작업 이후 체계적인 음역에 대한 요구가 생겼고, 그 결과물로 지광의 『悉曇字記』가 편찬되는 등 역사적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지광의 『悉曇字記』에는 [ŋa]음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보겠다.

반야심경 진언의 우리말 음역을 이해하려면 먼저 훈민정음 창제 이전 『高麗大藏經』의 한자 음역을 살펴봐야 하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우리말 한자음으로의 변천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인수대비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초기 진언집 『五大眞言』에서 ‘ㅇ(옛이음)’은 보이지 않고, 오직 ‘ㅇ’만 보인다. 이는 최초 진언집인 안심사본 『眞言集』에 그대로 반영되어 반야심경의 한역본 諶帝諶帝는 ‘아제아제’로 기록된다. 후에 용암화상(龍巖和尚)에 의해 초성 ‘ㅇ(옛이음)’을 사용하여 ‘/ㅇ+/ㅏ/’ 제 ‘/ㅇ+/ㅏ/’ 제로 수정되었지만, 현대 한글에 ‘ㅇ(옛이음)’은 탈락되었으므로, 의도된 소리인 [ŋa]가 아닌 [ŋ]이 탈락된 [a]로 현재 남게 되었다.

214) 문헌자료로서의 반야심경을 『반야심경』으로 표시하고 일반 명사로서의 반야심경은 그대로 표시한다.

215) 槃, 諶, 峨

『반야심경』의 진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의 ‘아’의 음역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훈민정음 창제자인 세종이 훈민정음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과 ‘ㅇ’이 한국인의 발성 습관에 맞는 음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1) 7개의 『般若心經』 한역본

범어를 음역할 때 한역본의 한자음을 근거로 했으므로, 『般若心經』 한역본 음역의 변천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야심경은 인도의 승려 구마라집(鳩摩羅什)이 최초로 번역(402-412년)했고,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한역본은 현장(玄奘)이 번역(648-649년)한 것이다. 주의할 점은 약 800년 이전까지의 음역과 800년 이후의 음역에 변화가 생긴 점이다. 揭 [kiet]를 誡 [ŋa]로, 즉 ‘ga’를 ‘ŋa’로 음역하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般若心經』 한역본으로 7개가 있는데, 각 본에 음역된 ‘gate gate’의 ‘ga’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발췌하고 한어 중고음과 현대 보통화, 남방 방언, 현재 한글 음과의 비교를 통해 음의 변천 과정 및 특징을 살펴본다. 한역본에 관하여 아래 인용문을 참조한다.

『般若心經』은 『般若波羅蜜多心經』을 줄여 지칭하는 이름로서 『大般若波羅蜜多經』의 핵심적인 사상을 가장 짧게 표현해 놓은 경전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불교 종파의 법회나 의식에서 독송되고 있다. 『大般若波羅蜜多經』은 현장(玄奘 602-664년)이 여러 해에 걸쳐 (660-663년) 반야부(般若部)의 여러경전들을 집대성한 경전으로 600권(4처[處] 16회[會] 275품[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총서(叢書)이다. 여기에는 당시까지 번역된 경전들과 현장이 새로이 번역한 경전들이 수록되어 있다. 약명으로 대반야경으로도 불리는 이 거대한 경전의 핵심 사상, 즉 대승불교 교리의 저변을 이루는 반야 사상을 가장 짧게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般若心經』이다. 『般若心經』의 대표적인 한역본들로 7개를 들 수 있으며, 시대별로 배열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마하반야바라밀대명주경(摩訶般若波羅蜜大明呪經)
구마라집(鳩摩羅什, 인도, 요진(姚秦), 402-412년 번역)
- ②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현장(玄奘, 중국, 당(唐), 648-649년 번역).
- ③ 보편지장반야바라밀다심경(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

법월(法月, 인도, 당(唐), 741년 번역).

④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반야(般若-인도)와 이언(利言-중국), 당(唐), 790년 번역

⑤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지혜륜(智慧輪, 인도?, 당(唐), 847-859년 번역)

⑥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법성(法成, 티베트, 당(唐), 847-859년 번역)

⑦ 불설성불모반야바라밀다경(佛說聖佛母般若波羅蜜多心經)

시호(施護, 송(宋), 980년 번역)

『般若心經』의 한역본은 소본(小本)과大本(大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본의 경우 서론에 해당하는 서분(序分), 본론의 정종분(正宗分), 결론의 유통분(流通分) 등 모두를 갖추고 있는 반면, 소본의 경우 정종분만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고 있는 것은 현장역의 소본이다.²¹⁶⁾

다음은 위 7개 한역본에서 주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²¹⁷⁾를 발췌한 것이다. ‘gate’의 ‘ga’에 해당하는 주문의 첫음절 한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① 竭帝竭帝 波羅竭帝 波羅僧揭帝 菩提僧莎訶 402-412 번역
- ② 揭帝揭帝 般羅揭帝 般羅僧揭帝 菩提僧莎訶 648-649 번역
- ③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莎婆訶 741 번역
- ④ 槃諦槃諦 波羅槃諦 波羅僧槃諦 菩提莎婆訶 790 번역
- ⑤ 誡帝誡帝 播囉誡帝 播囉散誡帝 冒地娑縛賀 847-859 번역
- ⑥ 峨帝峨帝 波囉峨帝 播囉僧峨帝 菩提莎訶 847-859 번역
- ⑦ 誡帝誡帝 播囉誡帝 播囉散誡帝 *提莎賀 980

주목할 점은 790년 반야(般若-인도)와 이언(利言-중국)의 번역부터 揭의 [kiet]이 아닌 槃[ŋat], 즉 誡의 [ŋa]로 번역되고 있다. 다시 말해 [g]에서 [ŋ]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216) 진순환,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 지식과교양, 2012. 391-392쪽.

217) 『반야심경』 진언의 로마 문자본은 ‘gate gate pāragate pārasaṃgate bodhi svāha’이다.

(2) ‘g’의 한자음 음가

아래는 ‘gate’의 ‘ga’의 음가 비교이다. 한자, 월어, 객가화, 조주화, 중고음(IPA) , 『東國正韻』 한자음, 『蒙古字韻』²¹⁸⁾음역, 보통화, 한글 한자음 순이다.

<표82> ‘gate’의 ‘ga’의 음가 비교

		월어	객가화	조주화	중고음	동국정운	몽고자운	보통화	한글
①	竭	git3	kiat8	*	[g ɨet]	꺄	ke	jié	갈
②	揭	kit3	giet7	gêg4	[k ɨet]	꺄	ge	jiē	갈
③	揭	kit3	giet7	gêg4	[k ɨet]	꺄	ge	jiē	갈
‘g’에서 ‘ŋ’로의 변화 발생									
④	𪔐	jit6	ngiet7	*	[ŋat]	엷	ngo	niè	얼
⑤	讖	ngo4	ngo2	ngo5	[ŋa]	앙	ngo	é	아
⑥	𪔐	ngo4	ngo2	ngo5	[ŋa]	앙	ngo	é	아
⑦	讖	ngo4	ngo2	ngo5	[ŋa]	앙	ngo	é	아

‘gate’의 ‘ga’의 한자음을 봤을 때, 한어 중고음, 『東國正韻』, 현재 중국 남방 방언 사이에서 대응 관계를 살필 수 있다. 『蒙古字韻』에서 ‘讖’의 [ŋ]를 찾아볼 수 있지만, ‘竭’ 한자음에서 입성이 소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 ‘竭’의 성모가 보통화에서는 설면음이고, 입성은 소실되었다. 한어 중고음 ‘竭’의 성모는 한글에서는 ‘ㄱ’이지만 입성 /-t/는 중성 /-ㄹ/이 되었다.

<표82>를 통해 살펴봤을 때, 구마라집, 현장, 범월의 한역본의 ‘ga’는 성모가 ‘g’인 반면 반야, 지혜륜, 범성, 시호의 한역본은 ‘ŋ’이다. 반야심경의 진언 ‘gate’를 음역할 때 그 주술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청취 측면의 유사성을 최대한 나타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범어는 한어와 달리 단음절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음역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竭 [gɨet]와 揭 [kiɨet]는 운두가 ‘g’, 운미가 ‘-t’인 입성이다. 입성이 있는 한자를 선택한 이유는 입성이 있을 경우, 성조 언어의 발성 특성상 약간의 변형된 ‘g’의 음이 전달

218) 『蒙古字韻』은 원(元)세조(世祖)쿠빌라이 칸이 파스파(八思巴)라마를 시켜 만든 파스파(Phags-pa) 문자로 중국 한자의 표준음을 표기한 운서이다. 몽골어뿐 아니라 중국어·티베트어·산스크리트·튀르크어 등을 표기하는 데 쓰였는데, 원래는 몽골어·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표음문자인 음절문자로 만들어졌다.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보다 170여 년 앞서 만들어진 표음문자이다.

된다. 이때 운미 ‘-t’는 다음에 오는 帝²¹⁹의 성모와 결합하여 두드러지게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이 ‘ga’를 범어의 유성 무기음에 더 가깝게 내기 위함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음역은 소리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체계적인 음역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이 방식의 번역보다는 단음절 단위로 범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한자음을 정하고자 했을 것이다.

『高麗大藏經』에 위와 같은 변화가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 현장의 번역본이 얼마나 유행했는지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gate gate’의 ‘ga’ 음역과 관련하여 시대의 추이에 따라 기록되어진 한자음은 ‘譏’[ŋa]²²⁰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 한민족의 음운을 규정하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학자들은 [ŋa]를 청취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訓民正音』 『解例本』에 ‘ㅇ(옛이음)’으로 남아있다. 적어도 세종은 단순히 한민족의 음으로만 어음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대 한국인의 어음은 한글 음과 한글 음이 아닌 것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체계가 나오기 이전에는 식자층과 일반 백성 사이에서 어음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컸을 것이다.

(3) 훈민정음 창제 이전-『高麗大藏經』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불경 음역은 주로 『高麗大藏經』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高麗大藏經』에 기술된 범자 실담장(悉曇章)에 관해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첫째, 실담장의 음운론적 관점에서, 범자 음운 전체를 47자로 정의한 『현응음의』는 각각의 범자에 대한 한자독음을 표기하면서 5음을 설근성[아음], 설치성[치음]등으로 나타내고 일부 독음에는 반절을 표기하고 있고, 『혜림음의』에서는 범자를 50자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반절 및 세밀한 해석을 부가하고 있으며, 총론에서 이들 25자모를 喉聲·齶聲·斷聲·齒聲·脣吻聲으로 구분하고 있다.²²¹⁾

『高麗大藏經』에 등재된 『玄應音義』, 『慧琳音義』,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의 실담문자 ‘ga’의 한역음을 살펴보면, 현응은 실담장 47자에서 ‘ga’를 ‘伽’로 음역하고, 혜림은 실담장

219) 帝: di5, dai3, di3, di, [tiei] di, 제

220) 현장의 한자 음역본 『唐梵翻對字音般若波羅蜜多心經』 참조

221) 강대현, 「『고려대장경』을 통해 본 실담장(悉曇章)의 세 측면」,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7, 492쪽.

50자에서 ‘ga’를 ‘諫’로 옮기고 있다. 불공은 실담장 50자에서 ‘ga’를 혜림과 마찬가지로 ‘諫’로 옮기고 있다. 이들 글자에 대한 한어 중고음은 각각 伽[gǎ]와 諫[ŋa]이다. 이를 한어 중고음 및 현재 남방방언인 객가화·광동화·조주화 발음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83> 시기에 따른 ‘ㄱ’(ga)의 음역

	한자	중고음	출생-사망	월어	객가화	조주화
현응	伽	[gǎ]	596?-695?	gaa1	ga1	gial
혜림	諫	[ŋa]	737-820	ngo4	ngo2	ngo5
불공	諫	[ŋa]	705-774	ngo4	ngo2	ngo5

위 표에서 주목 할 것은 현응(600년대)이후 혜림 및 불공(약 800년대 전후)은 실담문자 ‘ㄱ’(ga)를 諫 [ŋa]로 음역하고 있는 점이다. 諫의 현재 중국어 발음은 보통화 기준으로 /é/이지만, 현대 보통화는 한어 중고음과 발음 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어 중고음을 참조해야 한다. 한어 중고음의 청취 측면에서의 음운의 느낌을 파악하고자 할 때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유지하고 있는 방언인 월어 혹은 조주화의 음운을 참조할 수 있다. 諫의 중고음은 [ŋa]이고, 월어는 /ngo4/, 조주화는 /ngo5/이다. 월어 및 조주화의 /ngo/발음은 국제음성기호로 [ŋo]이다. 실담어의 무성 무기음 ‘ka’, 무성 유기음 ‘kha’, 유성 무기음 ‘ga’, 유성 유기음 ‘gha’에 훈민정음의 ‘ㄱ’, ‘ㅋ’, ‘ㅇ(옛이음)’, ‘ㄱ’를 대응시키면 같은 음소를 겹치지 않게 음역할 수 있게 된다.

(4) 훈민정음 창제 이후

훈민정음 창제 직후 문자의 보급에 힘을 쓸 필요가 있었는데, 불경언해에 흔적이 남아 있다. 조선 전기의 불경언해는 문자 창제 초기의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문 경전에 대한 최초의 국어역이기도 했다. 간경도감에서는 주도적으로 불경에 대한 언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주로 『東國正韻』 한자음이 사용되었다. 아래 <표48>²²²⁾에서 간경도감에서 펴낸 불경언해서를 확인할 수 있다.

222) 김슬옹,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2015, 75쪽.

<표84> 간경도감에서 펴낸 불경언해서

연 번	간행연도	불경언해본 서명	권책	역자 및 주해자
1	세조8년(146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 諸菩薩萬行首楞嚴經	10권 10책	般刺密帝譯, 戒環解
2	세조9년(1463)	妙法蓮華經	7권9책	鳩摩羅什譯, 戒環解, 一如集注
3	세조10년(1464)	禪宗永嘉集	2권2책	玄覺撰, 衍靖淨源修正, 世祖口 訣
4	세조10년(1464)	金剛般若波羅密經	1권2책	鳩摩羅什譯, 慧能註解
5	세조10년(1464)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	1권1책	玄奘譯, 仲希述
6	세조10년(1464)	佛說阿彌陀經	1권1책	鳩摩羅什譯, 智譜註釋, 世祖譯 解
7	세조11년(1465)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2권10책	宗密所抄, 世祖口訣
8	세조13년(1467)	牧牛子修心訣	1권1책	知訥撰, 丕顯閣訣, 信眉譯
9	세조13년(1467)	四法語	1권1책	信眉譯

훈민정음 창제 초기부터, 현재 한글과 같이 우리말에 부합되는 음운 체계를 단번에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훈민정음은 창제자인 세종의 세계관을 고려했을 때, 우리말의 어음은 한자음의 정음과 분리되어 생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말이 기준이 되면서도, 정음에 부합하고 소리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빠뜨려선 안 될 어음이 ‘ㅇ’, ‘ㅎ’, ‘ㅇ(옛이응)’이었을 것이다. 아래 인용문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언해 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 이후 왕실을 중심으로 불경에 대한 국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경전들을 우리는 언해불경이라 부른다. 언해불경은 문자 창제 초기의 우리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자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어사 연구자들은 우리말의 중세시기에 대한 연구를 대부분 불경언해에 의존할 정도로 언해불경은 당대의 국어자료로 이용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불경언해를 중심으로 개발된 ‘언해’라는 번역 양식은 훈민정음 창제 후 한문불경을 우리말로 옮기기 위한 강렬한 욕구에서 창안된 독특한 번역 양식이요, 인출 양식인 셈이다. 다만 경계해야 할 점은 당시에 간행된 불교 관련 문헌 중 대역의 형식을 띠지 않은 책인 『석보상절』과 같은 의역 위주의 한두 문헌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역 위주로 되어 있어서, 당시의 일상어 반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언해가 우리 나름의 독특한 번역 양식으로 자리 잡기는 했지만, 한자어가 많고 번역 어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새로 창제된 정음이

병기(併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일반민중이나 불교신도들이 어떻게 이용하였을까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문자 창제 초기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언해불경은 우리 문자로 조성된 최초의 한글경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어사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²²³⁾

비록 자유로운 번역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훈민정음 창제 직후인 15세기 중엽 이후 많은 양의 불교 경전들이 정음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이를 언해불경이라고 불러왔다. 현재 전하는 것만도 상당수에 이른다. 16세기에 들어서는 더 이상 중앙이나 국가기관에서의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 지방의 사찰에서 간경불사의 하나로 행해지던 이른바 사각본(私刻本) 불경언해의 시대로 바뀐 것이다. 간경의 경비 부담은 주로 시주자(施主者)들의 몫이었기에 15세기와 같은 대규모의 간경은 가능하지 않았다.²²⁴⁾

세조 이후, 간경도감이 폐지되고 조정에서의 직접적인 간행보다는 사각본(私刻本) 불경언해의 시대로 바뀌게 된다. 훈민정음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우리말 한자음으로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1569년(선조 2년)의 안심사(安心寺)본 『眞言集』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2) 유성 무기음 ‘諷’

(1) 『眞言集』-안심사본, 망월사본

훈민정음 창제 후, 진언을 훈민정음으로 음사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1569년(선조 2년)에 처음으로 안심사에서 『眞言集』이 나오게 되었다. 『眞言集』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배불정책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았지만, 진언은 기복신앙의 방편으로 계속 암송되었으며, 특히 한글이 창제된 후에는 이를 한글로 표기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졌다. 진언의 한글 표기는 본격적인 진언집이 나오기 이전인 『月印釋譜』 중 일부(권10의 72-116장, 권 21의 70-73장, 권 19)를 비롯하여 『五大眞言』(1485

223) 김무봉, 「불교경전(佛敎經典) 한글 번역의 역사와 과제; 불경언해와 간경도감(刊經都監)」, 『동아시아불교문화』, 6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42-43쪽.

224) 김무봉, 「불교경전(佛敎經典) 한글 번역의 역사와 과제; 불경언해와 간경도감(刊經都監)」, 『동아시아불교문화』, 6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13-14쪽.

년), 『眞言勸供·三檀施食文 諺解』(1496)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 중 『月印釋譜』에서는 본문의 내용과 같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五大眞言』과 『眞言勸供·三檀施食文 諺解』 등에서는 당시의 현실음으로 적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문헌은 진언의 음만을 “범어-한글-한자”나 “한자-한글”의 순으로 음사해 놓았기 때문에 범어음을 적던 원칙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한편 불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진언만을 따로 모아 큰 사찰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眞言集』을 편찬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안심사(安心寺)본(1569년간)과 만연사(萬淵寺)본(1777년간), 그리고 망월사(望月寺)본(1800년간)이 주목된다. 이중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眞言集』은 안심사본(1596년)인데, 이 문헌에는 진언을 적던 실담 문자에 대한 ‘실담장(悉曇章)’과 한글 표기의 기준이 되는 ‘언본(諺本)’이 앞부분에 실려 있어 실담 문자에 대한 당시의 표기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다.²²⁵⁾

한글판 『五大眞言』(1485년)²²⁶⁾의 한자음 표기는 『東國正韻』 한자음을 지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五大眞言』은 한자음의 표기에서 『東國正韻』을 따르지 않은 최초의 문헌이라 할 것이다. 이후 훈민정음의 우리말을 위주로 한 변화는 지속되었을 것이며 안심사본 『眞言集』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에 당대 제일의 범자 학승이었던 용암(龍巖)화상에 의해 『東國正韻』 한자음으로 『眞言集』이 수정되기도 하는데, 만연사본 『眞言集』과 망월사본 『眞言集』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85> 안심사본 『眞言集』과 망월사본 『眞言集』의 모음 비교

a 阿	ā 阿	i 伊	ī 伊
:아 :으 :어 :으	· 아 · 으 · 어 · 으	:애 :익 :예 :이	· 애 · 애 · 예 · 이
:하 :ᄒ :허 :ᄒ	· 하 · ᄒ · 허 · ᄒ	· 해 · ᄒ · 헤 · 히	· 해 · ᄒ · 헤 · 히
u 烏	ū 烏	e 曳	ai 愛
:와 :오 :위 :우	· 와 · 오 · 위 · 우	:애 :에 :예 :이	· 애 · 익 · 예 · 의
:화 :호 :휘 :후	· 화 · 호 · 휘 · 후	· 애 · 에 · 예 · 여	· 해 · ᄒ · 헤 · 희
o 汗	au 口汗	am 暗	aḥ 惡

225) 안주호, 「망월사본 『진언집』을 중심으로 한 진언표기의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109권, 한국어교육학회, 2002, 253-254쪽.

226) 다섯 종류의 진언을 범자(梵字)로 적고 한자의 음역을 대조하여 놓은 책이다. 내용은 사십이수진언(四十二手眞言)·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수구즉득다라니(隨求卽得陀羅尼)·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이다. 이 한문본은 조선 초기에 간행되었는데, 여기에 한글의 음역을 추가로 대조하여 간행한 『오대진언』이 따로 있다. 그 책에 있는 학조(學祖)의 발문에 의하면,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명에 따라 일반민중이 진언을 쉽게 익혀 암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책이 간행되었다고 한다.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와 ·오 ·워 ·우	·와 ·오 ·워 ·우	:암 :옴 :엄 :음	·악 ·옥 ·억 ·억
·화 ·호 ·휘 ·후	·화 ·호 ·휘 ·후	·함 ·흠 ·험 ·흠	·학 ·혹 ·혁 ·혁

위로부터 실담 문자의 로마자 표기, 표의 두 번째 줄에는 안심사본의 훈민정음 주음, 세 번째 줄에는 망월사본의 훈민정음 주음 순서이다. 안심사본에서는 12전성²²⁷⁾을 모두 ‘ㅇ’으로 표시했는데, 망월사본에서는 ‘ㅎ’를 쓰고 있다. 이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훈민정음과 『東國正韻』 한자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 받아들이는 훈민정음에 대한 음운 인식 차이를 알려주는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인용문을 살펴 보자.

만연사본(1777년간)의 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근세 선종에서 범자를 이해한 자가 많이 있지만, 모두 모양의 호로에 의거하였을 뿐이다. 단지 나, 龍巖화상은 그 현묘함을 꿰뚫어 잘못됨을 알아 그 이전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했던 점을 드러내었다. 나(龍巖)와 백암이 각종 경의 언해와 『홍무정운』, 『삼운성휘』 등을 널리 수집하여 그것을 참조하였다. 여러 스승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직 龍巖화상만이 열심히 살펴 그 뜻을 드러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글로 한문을 알게 하고, 한문을 통해서 범자를 알게 했다.

만연사본은 당대 제일의 범자 학승이며, 선승이었던 龍巖화상에 의해 편찬된 『眞言集』으로서, 진언 관계의 여러 문헌들을 종합해서 새롭게 편찬한 것이며, 따라서 만연사본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망월사본은 조선 시대까지의 진언을 집대성한 문헌임을 알 수 있다.²²⁸⁾

계속해서 실담장의 자음²²⁹⁾과 관련하여 안심사본과 망월사본에서 선택하고 있는 훈민

227) 범자의 모음에 대해서 『실담장해의총론』에서는 12轉聲과 4助音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한다. 이태승, 「『진언집』 범자(梵字)한글음역대응 한자음의 연원과 해석」, 『인도철학』, 28권, 2010, 175쪽.

그 중 12轉字는 5음, 9會音 등 34자 속에 넣어, 음의 문자가 된다. 자세한 것은 청량의 演義疏抄 중이나 진언집에 나와 있다. 실담장에서는 곧 번거로워 설하지 않았다. 문자가 간략해 이해하기 어려워 지금 대략을 설한 것이 곧 12전자이다. 그 중 앞의 2자인 阿, 啊와 후의 2자 唵, 惡등 4자는 즉 總義가 되고 나머지는 別義가 된다. 안주호, 「망월사본 『진언집』을 중심으로 한 진언표기의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109권, 한국어교육학회, 2002, 257쪽.

228) 안주호,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연구」, 『배달말』, 31권, 배달말학회, 2002, 181-182쪽.

229) 범자의 자음문자에 대해서 〈실담장해의총론〉은 ‘25牙等5音’과 9會音(超音)으로 구분한다. 25아등의 5음이란 牙音, 齒音, 舌音, 喉音, 唇音의 각각에 속하는 5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담자기』등에서는 五類聲, 五五聲, 相隨聲, 五句 등으로도 불린다. 9회음이란 나머지 아홉가지 자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遍口聲, 滿口聲, 超

정음 주음의 차이에 대해 아래 <표86>²³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86> 안심사본 『眞言集』과 망월사본 『眞言集』의 자음 비교

牙音	迦 ka 清	佉 kha 清	誡 ga 濁	伽 gha 濁	仰 na 濁
안심사	가 마 거 그	카 마 커 크	:아 :으 :어 :으	·가 ·마 ·거 ·그	·향 ·흥 ·영 ·웅
망월사	가 마 거 그	카 마 커 크	:아 :으 :어 :으	·까 ·마 ·꺼 ·끄	·향 ·흥 ·영 ·웅
齒音	左 ca 清	差 cha 清	惹 ja 濁	社 jha 濁	攘 na 濁
안심사	자 즈 저 즈	차 츠 처 츠	:사 :스 :서 :스	·자 ·즈 ·저 ·즈	·상 ·송 ·성 ·송
망월사	자 즈 저 즈	차 츠 처 츠	:사 :스 :서 :스	·짜 ·쯔 ·저 ·쯔	·상 ·송 ·성 ·송
舌音	吒 ta 清	佉 tha 清	拏 da 濁	荼 dha 濁	囊 na 濁
안심사	다 드 더 드	타 트 터 트	:나 :느 :너 :느	·다 ·드 ·더 ·드	·낭 ·농 ·녕 ·농
망월사	다 드 더 드	타 트 터 트	:나 :느 :너 :느	·따 ·뜨 ·터 ·뜨	·낭 ·농 ·녕 ·농
喉音	多 ta 清	佉 tha 清	那 da 濁	駄 dha 濁	娜 na 濁
안심사	다 드 더 드	타 트 터 트	:나 :느 :너 :느	·다 ·드 ·더 ·드	·낭 ·농 ·녕 ·농
망월사	다 드 더 드	타 트 터 트	:나 :느 :너 :느	·따 ·뜨 ·터 ·뜨	·낭 ·농 ·녕 ·농
脣音	波 pa 清	頗 pha 清	摩 ba 濁	婆 bha 濁	莽 ma 濁
안심사	바 브 버 브	파 프 퍼 프	:마 :므 :머 :므	·바 ·브 ·버 ·브	·마 ·몽 ·명 ·몽
망월사	바 브 버 브	파 프 퍼 프	:마 :므 :머 :므	·빠 ·쁘 ·퍼 ·쁘	·마 ·몽 ·명 ·몽

‘gate gate’, ‘아제아제’와 관련하여 위 표를 보고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안심사본에서는 ‘ga’를 ‘아’로 표기하고 있고, 망월사본에서는 ‘하’(초성 옛이음)로 표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진언집』에서 실담문자 ‘𑖀’(ga)를 ‘誡’(ga)로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인은 이미 로마자 ‘gate gate’ 혹은 현장의 ‘揭帝’의 영향으로 범어 𑖀𑖀𑖀𑖀 ‘gate gate’의 𑖀 음가를 ‘ga’로 미리 정하고 있을지 모르나 당시 ‘ga’의 청취가 어땠는지 현재로서는 알기 힘들다. 현재 인도인의 발성의 특징을 보면 구강과 비강에서 다른 언어에 비해 더욱 울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당시 음역을 했던 승려가 이 느낌을 살리고자 했거나²³¹⁾, 청취 측면의 두드러진 차이를 하나의 음가로 삼아 ‘𑖀’(ga)를 ‘誡’(ga)로 표기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범어의 무성 무기음 ‘ka’, 무성 유기음 ‘kha’, 유성 무기음 ‘ga’, 유성 유기음 ‘gha’의 청취적인 특징을 살리면서

聲 등으로도 불린다. 이태승, 『『진언집』 범자(梵字) 한글 음역 대응 한자음의 연원과 해석』, 『인도철학』, 인도철학회, 28권, 2010, 177쪽.

230) 이태승, 『『진언집』 범자(梵字) 한글 음역 대응 한자음의 연원과 해석』, 『인도철학』, 28권, 인도철학회, 2010, 171-197쪽.

231) ga 𑖀迦자는 [ga(渠下反)]이다. 경음으로 [ga(其下反)]에 가깝다. 다른 나라에서는 [na(疑可反)]로 발음하기도 한다. 강대현 역해, 『실담자기역해』, 울리브그린, 2017, 62쪽

문자 표기도 겹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87> 아음의 한자음 비교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비음
로마자	ka	kha	ga	gha	ŋa
실담문자					
한자	迦(上)	佉(上)	誡(上)	伽(去引)	仰(鼻呼)
중고음 王力	[k ɿa]	[kʰ ɿa]	[ŋa]	[gia]	[ŋiɑŋ]
중고음 董同龢	[kʰ ja]	[kʰ ja]	[ŋa]	[gʰja]	[ŋjaŋ]
안심사본	가	카	:아	·가	·앙
망월사본	가	카	:아(옛이음)	·까	·앙
현재 음	가	가	아	가	앙

이 밖에, 안심사본 『眞言集』에서 전탁자의 사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망월사본 『眞言集』에서 전탁자 ‘ㄱ, ㄷ, ㄸ, ㅃ’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gate gate’의 ‘𪛙’(ga)를 당시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誡’(ŋa)로 지정했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 ‘誡’(ŋa)를 옛이음 ‘ㅇ’으로 표기할 수 있었지만, 발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 진언집인 안심사본에서는 ‘아’를 선택했다. 후에 용암화상에 의해 ‘ㅇ(옛이음)’으로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현대 한글에는 옛이음 ‘ㅇ’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결국 ‘gate gate’를 ‘아제아제’로 음역하게 된 것이다.

(2) 훈민정음 초성 ‘ㅇ’, ‘ㅇ(옛이음)’, ‘ㄱ’

현대 한글에서 ‘ㅇ’은 특정 음가가 없는 소리이지만, 『訓民正音』 「解例本」에서는 초성으로 분류된다. 즉 특정 음가가 있는 자음의 개념이다. ‘ㄱ’과 ‘ㅇ(옛이음)’ 역시 「解例本」에서 초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을 발췌한 것은 다음과 같다.²³²⁾

ㄱ. 牙音. 女君字初發聲, 並書, 如虬字初發聲

ㄱ는 어금닛소리(아음)이니 ‘군(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초성)와 같다. 나란히 쓰면 ‘규(虬)’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ㅇ. 牙音. 如業字初發聲

232) 본 목에서의 해례본 발췌 및 한글 해석은 김슬옹,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 박이정, 2018을 따른다.

ㅇ(옛이응)는 어금닛소리니 ‘업(業)’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 喉音. 如欲字初發聲

ㅇ는 목구멍소리이니 ‘욕(欲)’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訓民正音』「解例本」制字解의 기록을 살펴봤을 때 ‘ㅇ’과 ‘ㅇ(옛이응)’, ‘ㅇ(옛이응)’과 ‘ㄱ’에서 소리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먼저 ‘ㅇ’과 ‘ㅇ(옛이응)’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ㅇ(옛이응)’의 소리는 ‘ㅇ’과 비슷해서 운서에서도 ‘ㅇ(옛이응)’과 ‘ㅇ’이 많이 혼용된다.’는 구절을 주목할 만하다.

喉音 ㅇ, 象喉形.

목구멍소리글자 ㅇ는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ㄴ而ㄷ, ㄷ而ㄷ, ㄱ而ㄴ, ㄴ而ㄷ, ㄷ而ㄷ, ㄷ而ㄷ, ㄷ而ㄷ, 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ㅇ爲異.

ㄴ에서ㄷ, ㄷ에서ㄷ, ㄱ에서ㄴ, ㄴ에서ㄷ, ㄷ에서ㄷ, ㄷ에서ㄷ, ㄷ에서ㄷ가 됨도 그 소리로 말미암아 획을 더한 뜻은 같으나, 오직 ㅇ(옛이응)만은 다르다.

唯牙之ㅇ,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 ㅇ相似, 故韻書疑 [ㅇ]與喻ㅇ[ㅇ]多相混用, 今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

오직 어금닛소리의 ㅇ(옛이응)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코로 소리 기운이 나가지만 ㅇ(옛이응)의 소리는 ㅇ과 비슷해서 운서에서도 ㅇ(옛이응)과 ㅇ가 많이 혼용 된다. 이제 ㅇ(옛이응)를 목구멍을 본떠 만들었으나 어금닛소리 글자를 만드는 시초로 삼지 않았다.

蓋喉屬水而牙屬木ㅇ雖在牙而與 ㅇ相似 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 尙多水氣也.

대개 목구멍은 물에 속하고 어금니는 나무에 속하는 까닭에 ㅇ(옛이응)는 비록 어금니에 속해 있으면서도 ㅇ와 비슷하여 마치 나무의 싹이 물에서 나와 부드러우며 거의 물기가 많음과 같기 때문이다.

牙取舌根閉喉形 唯業似欲取義別

어금닛소리글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취하였는데, 오직 ㅇ(옛이응)만 ㅇ와 비슷하지만 취한 뜻이 다르네.

‘ㅇ(옛이응)’과 ‘ㄱ’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ㅇ(옛이응)은 ㄱ과 짝이 되어 ㅇ(옛이응)을 빨리 발음하면 ㄱ음으로 변하여 빠르고, ㄱ음을 느리게 내면 ㅇ(옛이응)음으로

변하여 느린 것과 같다.’라는 구절을 주목할 만하다.

如牙之○(옛이응)與ㄱ爲對, 而○(옛이응)促呼則變爲ㄱ而急, ㄱ舒出則變爲○(옛이응)而緩.

이렇게 보면 어금닛소리의 ○(옛이응)는 ㄱ과 짝이 되어 ○(옛이응)을 빨리 발음하면 ㄱ음으로 변하여 빠르고, ㄱ음을 느리게 내면 ○(옛이응)음으로 변하여 느린 것과 같다.

五音緩急各自對 君聲迺是業之促

오음은 각각 느림과 빠름의 짝을 저절로 이루니 ㄱ소리는 ○(옛이응)소리를 빠르게 낸 것이네

1446년 훈민정음 반포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7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말은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실제 언어 습관과 불경 음역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불경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반야심경의 진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gate gate’를 ‘아제아제’로 읽었을 때 유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습관이다. ‘ga’를 ‘아’로 음역한 이유에 대해 오직 한글의 개념만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현대 한글에서 ‘ga’와 ‘a’의 초성에 대한 구분은 각각 ‘가’와 ‘아’의 ‘ㄱ’과 ‘ㅇ’으로 구분되어 있고 ‘ng’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한어 중고음 및 현대 중국 남방 방언에는 ‘g’, ‘ng’, ‘a’이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g’, ‘ng’, ‘a’ 중 ‘ng’은 비음으로 기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범어의 유성무기음을 음역하기에 적절했을 것이다.

(3) [-ŋ]의 청취 특징 - 보통화, 월어, 한국어

[-ŋ]의 청취 측면에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중국어의 운미 /-ng/과 한글 ‘응’의 종성 ‘ㅇ’은 국제음성기호로 모두 [-ŋ]으로 표기되지만, 청취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음색을 지닌다. 중국 보통화의 [-ŋ]에 대한 청취 측면의 느낌을 한글 ‘응’의 종성 [-ŋ]과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병음 /tīng/(1성)과 한국어의 /팅/은 비슷하면서 같지 않은 소리이다. 두 소리를 다르게 만드는 물리적 원인은 초성, 중성, 종성에 각각 있지만 본고에서는 종성 [-ŋ]의 차이에 주목한다. 보통화의 [-ŋ]과 한글 ‘응’의 종성 [-ŋ]은 표기는 같지만 물리적으로 다른 소리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팅/을 보통화의 1성처럼 발음한다고

해서 보통화의 그것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ŋ]을 발음 할 때 소리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화의 [-ŋ]은 소리의 무게중심이 성대 아래로 뺏어나가지만 한국어의 [-ŋ]은 뺏어나가는 모양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ting/을 3성으로 천천히 묵직하게 발음했을 때 [-ŋ]과 [g]가 교차할 듯하면서도 [g]와는 다른 소리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한글 /팅/을 보통화의 3성과 같이 발성했을 때 성대와 흉강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 소리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보통화와 한글 발성의 무게중심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청취 측면의 차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ŋ]을 단순히 비음으로 규정했을 때 청취 측면의 많은 정보를 놓치게 된다.

중고 한어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남방 방언은 성조가 4성 이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성대 진동의 무게중심 조절이 요구된다. 성조를 ‘평·상·거·입’으로 구분하기 이전 중국어에 성조가 없었다는 말보다는 성조가 너무 다채롭거나 지역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묶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음절의 성조는 다양한 음색과 성질로 구전되어 온 것이다. 인위적으로 나누고 구분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분류할 수 있을 뿐이다. 초분절자질인 성조의 느낌을 청취 측면에서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대음이 몸통에서 울리는 과장의 모양, 즉 무게중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 전기에는 근고음 혹은 근대음의 한어를 접했을 테지만, 중고음의 성조를 실질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해야 했던 훈민정음 창제 시기의 한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 남방방언에서는 [ŋ]이 운미뿐만 아니라, 운두에도 사용된다. 1인칭 대명사 ‘我’는 보통화로는 /wo/이지만 남방의 대부분의 방언²³³⁾에서는 /ngo/로 발음된다. 동으로 상해(남경), 서로 사천(중경), 남으로 광둥지역까지 /ngo/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언어생활 습관이다. 주목할 점은 [ŋ]이 보통화의 운미에만 사용되는 [-ŋ]과 달리 운두에서 사용되며, 독립적으로 음절을 이룰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중국 남방방언에서 한어 중고음 /ngo/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이 창제될 시기 중국 강남 지방을 오고 갔던 한학자에게 한어 중고음 我 /ngo/가 자주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대부분의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

233) 객가(客家)화: /ngo/, 광둥(廣東)화: /ngo/, 조주(潮州)화: /ngo/, 상해(上海)어: /ngo/, 중경(重慶)어: /ngo/. 현대 남방방언에 중고음 /ngo/가 남방지역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이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의 한어는 중고음과 근대음의 성격이 교차하는 과정에 있었다라도 명조의 수도였던 남경지방에는 중고음의 입성을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으므로, 당시 한어음과 한글 한자음 사이에 유사성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 남경어에는 입성이 소실되었으므로, 입성이 온전히 남아있는 월어를 예로 들면, 『論語』學而篇에 나오는 ‘學而時習之 不亦說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를 ‘hog⁶ yi⁴ xi⁴ zab⁶ ji¹ bed¹ yig⁶ yud⁶ fu⁴’ (혹이시잡찌 뽀엿윳후)로 발음하여, 한글 한자음과 한자어 독음 발음이 비슷하다. 특히 한국어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의 독음이 일치한다. 무지개 색깔을 순서대로 한자음으로 발음하면 홍색, 주황색, 황색, 녹색, 남색, 자색이다. 이를 보통화로 발음하면 ‘hóng sè, zhū hóng sè, huáng sè, lǜ sè, lán sè, zǐ sè’로 성모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입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한국어의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의 음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월어로 무지개 색깔을 발음해 보면 ‘hung4 xig1, ju1 hung4 xig1, wong4 xig1, lug6 xig1, lam4 xig1, ji2 xig1’은 각각 ‘홍색, 쥐홍색, 웅색, 록색, 남색, 지색’으로 입성이 일치한다. 그리고 현재 중국 강남 지방의 남경, 혹은 양주, 운주 지방의 방언을 듣고 있으면 현대 한국인이 느끼는 보통화로 대표되는 중국어 어음에 대한 심상은 전혀 달라진다.²³⁴⁾

현대 한글에서 탈락된 『東國正韻』의 아음 業(‘ㅇ엿이음’)과 후음 搨(ㄷ), 洪(ㅎ), 欲(ㅇ)의 실제 청취 음을 살펴보는 것은 그리 요원한 것이 아니다. 『東國正韻』은 한어 중고음을 참조하여 편찬된 운서이기 때문에 業(‘ㅇ엿이음’), 搨(ㄷ), 洪(ㅎ), 欲(ㅇ)의 흔적을 현재 중국 남방 방언에서 찾을 수 있다. 각 한자음에 해당하는 발음을 현재 월어 혹은 객가화로 청취 차이를 느끼면서 훈민정음에서 탈락한 어음의 흔적을 들어볼 수 있다.

당시 한학자가 느꼈을 ‘ㅇ(엿이음)’의 청취 특징을 현대 생활에서 비교하자면 중국 남방 방언과 한국어음 두 가지를 동시에 청취하는 것에 빗낼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이전 한자는 중국의 문자이면서 곧 우리의 문자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글은 우리말’, ‘한자는 중국말’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없었을 것이다. 業(‘ㅇ엿이음’), 搨(ㄷ), 洪(ㅎ), 欲(ㅇ)은 당시 한학자에게 청취 측면에서 구분 가능했던 소리였거나 운서를 통해 이론적으로 학습이 되었을 어음으로 당시 일반 백성의 언어생활에서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인의 발성 습관에서 [-ŋ]의 청취 음은 중국어의 [-ŋ]보다는 무게중심이 높다고 표현해 봤다. 이는 영어 [-ŋ]에 대한 한국어 및 일본어의 외래어 표기의 차이점을 확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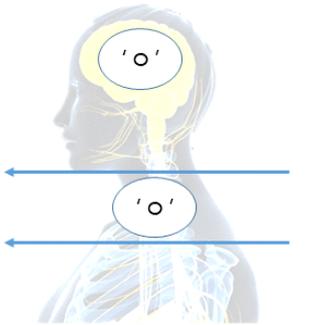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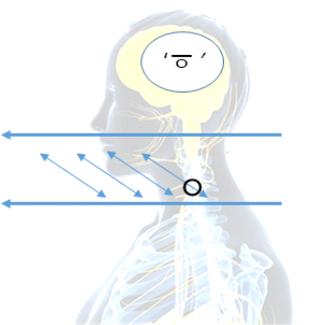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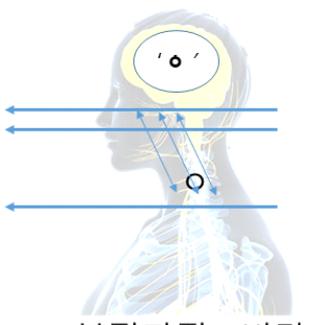
234) 문성호, 「廣州話 研究, 음성학적 관점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쪽.

보면 더욱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sing [sɪŋ]을 한국어로는 /싱/이라고 음역하고 일본어로는 /シング/(싱그)라고 음역한다. /싱/이라고 했을 때 영어 [-ŋ]의 몸통으로 낮게 깔리는 무게중심의 파장 혹은 무게감은 청각적으로 인지되기 힘들다. 한글에는 영어 혹은 중국어에서 드러나는 몸통으로 뻗어나가는 [-ŋ]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어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반대로 /シン/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グ/를 덧붙여 무게중심이 낮은 [-ŋ]의 청취 측면의 느낌을 표기하고자 한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sɪŋ]이 갖는 소리는 /싱/도, /シング/와도 다른 것이다. 비교 정도에 따라 비슷한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소리일 수도 있다. 음성과 음운은 각각 부피가 존재하는 3차원과 평면의 2차원의 영역으로 서로 차원이 다르다. 음성은 부피가 있는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연 물리적 개념이고 음운은 한 사회가 정한 기호의 약속이다. 따라서 하나의 음운은 엄밀히 말해 하나의 물리적 소리만을 표현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 ‘가’와 ‘아’의 ‘ㄱ’과 ‘ㅇ’은 전혀 다른 소리이지만, 중고 한어의 특징이 남아있는 중국 남방 지역의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에게는 ‘/g/ ⇔ /ŋ/ ⇔ /a/’와도 같이 /g/와 /a/ 사이에 /ŋ/이 있어 무게중심의 이동에 따라 소리가 연결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4) ‘ㅇ’·‘ㅎ’·‘ㅇ(옛이응)’의 음운자질 비교

‘ㅇ’·‘ㅎ’·‘ㅇ(옛이응)’의 음운 자질은 상보 관계에 있다. ‘ㅇ’은 후두강을 무게중심으로 한 음색, ‘ㅎ’은 구강을 무게중심으로 한 음색, ‘ㅇ(옛이응)’은 비강을 무게중심으로 한 음색으로 자질을 정리할 수 있다.

<표88> ‘ㅇ’·‘ㅎ’·‘ㅇ(옛이응)’의 무게중심 비교

이응 ‘ㅇ’의 무게중심	된이응 ‘ㅎ’의 무게중심	옛이응 ‘ㅇ’의 무게중심
 <p style="text-align: center;">초분절자질</p>	 <p style="text-align: center;">초분절자질</p>	 <p style="text-align: center;">분절자질 : 비강</p>

<표88>은 음색을 다르게 하는 진동원을 묘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강의 자질은 뚜렷이 청취되는 반면, 후두강과 구강의 자질은 상대적으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강’이 후두강과 구강에 대비되는 자질이듯이, 후두강과 구강은 서로 공명장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강 혹은 비강을 무게중심으로 한 어음은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후두강을 무게중심으로 한 음운자질은 월어의 초분절자질인 양조(4·5·6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日母와 ‘△’

1) 半舌音·半齒音의 ‘半’의 음성적 특징

(1) ‘半’의 음성적 특징

반치음 ‘△’의 음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반치음의 ‘半’이 뜻하는 것을 『訓民正音』 「解例本」의 설명을 통해 음성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半舌音 ㄹ, 半齒音 △,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이라 하여 반설음 ‘ㄹ’과 반치음 ‘△’는 혀와 이를 상형하였으나, 그 모양이 닮지 않았다(形而異其體)하여 (상형자에) 획을 더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혀의 모양을 상형하자니 ‘ㄴ’²³⁵과 겹쳐 ‘ㄹ’로 상형하고, 치아의 모양을 상형하자니 순음 ‘口’과 겹쳐, ‘△’으로 상형하였지만, ‘ㄱ’과 ‘ㅋ’과도 같이 가획의 원리에 따른 소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반설음과 반치음은 발음 기관을 상형했지만, 반설음 ‘ㄹ’은 설음·불청불탁 ‘ㄴ’과 다르고, 반치음은 치음에 불청불탁이 없으므로 치음과는 또 다른 성격의 불청불탁이라 해석할 수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의 설명에 근거했을 때 적어도 세종이 분석한 ‘半’이라는 뜻은, 반설음과 반치음의 조음 위치는 혀와 치아(치경)이지만, 조음 방법의 유기적 관점에서는 설음·치음과는 같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살펴봐도 설음 ‘ㄴ, ㄷ, ㄸ, ㄴ’은 각각 무성 무기 치경 파열음, 무성 유기 치경 파열음, 유성 치경 파열음, 치경 비음으로 전통 성운학의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과 유기적 관련이 있지만, ‘ㄹ’은

235)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舌音 ㄴ, 象舌附上腭之形”이라 하여, 설음 ㄴ은 혀가 上腭(상악: 잇몸, 치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설음이라도 치경 설측 접근음 즉 유음으로 조음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같은 원리로 반치음도 치경 혹은 치아로 접근하는 공명음이라 분석할 수 있는데, 이와 부합하는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으로 董同龢의 치경 경구개 비음 [n̥]이 있다. 월어에서는 반치음 日母가 [n̥]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칼그렌의 추정음 [n̥z]는 실제 어음에서 확인하기 힘들며, 王力の 추정음 권설 탄음 [ɾ]은 『訓民正音』 「解例本」에 근거했을 때, 반치음보다는 반설음의 범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 合字解에서 “半舌有輕重二音”이라 하여 반설음에는 가볍고 무거운 두 소리가 있다고 했고, “若欲備用, 則依脣輕例, ○連書ㄹ下, 爲半舌輕音, 舌乍附上齶”이라 하여 만약 갖추어 쓰고자 한다면 순경음의 예와 마찬가지로, ‘ㅇ’을 ‘ㄹ’ 아래에 이어 쓰면 半舌輕音 ‘ㄹ’이 되니, 혀를 윗잇몸에 잠시 붙여 발음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화의 유성 권설 마찰음 [z]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통화에서 반치음 日母는 [z]로 사용된다. 개괄적으로 말해 중국 북방에서 중고음의 日母는 권설음 [z]로 정립되었고, 광동 지역에서 중고음의 日母는 영성모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閩母(來母) ‘ㄹ’

추정음이 [n]으로 일치하는 반설음 閩母를 통해 ‘ㄹ’의 뜻을 먼저 유추한다. 『東國正韻』의 閩母, ‘ㄹ’은 중고 한어 36자모의 來母에 대응하고, 來母의 추정음은 [l]로 일치한다. 閩母는 유음에 해당하여 혀소리를 뜻하지만 四聲七音으로는 반설음으로 정의된다. 閩母의 음가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음위치와 조음방식이 같은 那母와 상대 비교한다. 閩母 ‘ㄹ’은 반설음·불청불탁으로 설음·불청불탁 ‘ㄴ’과 구분되는 소리이다. 『東國正韻』 23자모에서 ‘ㄴ’은 중고 한어 36자모와 달리, 설두음 ‘泥[n]’·설상음 ‘孃[n̥]’으로 구분되지 않고, 설음으로만 분류되기 때문에 ‘ㄴ’이 [n]을 포괄하는 음가범위임에 이견이 없다. ‘ㄴ’이 四聲七音에서 설음이고 국제음성기호로 치경 비음 [n] 음가를 갖는다고 했을 때, ‘설음·불청불탁’이라는 뜻은 치경에 혀가 닿는 공명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설음·불청불탁’은 혀가 치경을 향하지만 [n]과 구분되어 치경에 닿거나 닿지 않는 위치에서의 공명음을 뜻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혀가 치경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불청불탁으로 조음할 경우 r[z]과 [l]이 음가 범위 내에 있게 된다. 혀가 들리거나 말려 치경에서 멀수록 r[z]의 자질과 가까우며, 혀가 치경

에 가까울수록 [l]의 자질과 가까워지게 된다. 현재 한국어와 월어에는 권설음 r[ʒ]이 없기에, 『동국정운』의 閏母는 한국어의 ‘ㄹ’ 혹은 월어의 [l]과 비슷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현재 한국어의 ‘ㄹ’은 공명음의 자질이 ‘ㄴ’과 혼동될 정도로 강하지 않지만, 월어에서는 [l]에 공명음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섞여 있어서 [n]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²³⁶⁾

2) 日母와 ‘△’의 음가추정

(1) 日母 · 穰母

『東國正韻』의 穰母, 반치음 · 불청불탁 ‘△’은 중고 한어 36字母의 日母에 대응되고, 日母의 추정음은 [n̥z] · [r] · [n̥] · [nz]²³⁷⁾로 다양하다.²³⁸⁾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했을 때, 치경 경구개 비음 [n̥]과 유성 치경 경구개 마찰음 [z]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모 ‘△’는 아 · 설 · 순 · 치 · 후 · 반설 · 반치의 순서로 운류의 끝에 배열되며, 『東國正韻』에서 총 334자²³⁹⁾의 성모로 쓰이고 있다. 이 중 ‘△’이 포함된 17개 운류의 첫 한자음만 살핀 것은 ‘仍, 葺, 穰, 人, 特, 然, 攔, 妊, 冉, 饒, 柔, 兒, 綏, 汭, 惹, 儒, 如’이다.²⁴⁰⁾ 다음 표에서 『東國正韻』, 현재 한국한자음, 한어 중고음²⁴¹⁾, 월어, 보통화(병음)의 한자음을 비교한다.

236) /n/發音時舌尖頂住上牙床, 聲帶振動, 讓氣流從鼻孔出來, 然後滑向韻母, 與普通話發音相同, 所管的字也大致與普通話的/n/相對應。例: 你/néi2/, 難/nan4/, 怒/nou5/, 暖/nūn5/, 懦/no6/. 注: /n/在粵語中通常與/l/相混, 聲母爲/n/的都念爲/l/,如“你”念成“里”, “難”念成“蘭”。這是一種“懶音”現象。/l/發音時舌尖頂住上牙床, 聲帶振動, 讓氣流從舌邊流出, 與普通話發音相同, 所管的字也大致與普通話的l相對應, 如上述普通話讀/n/的字在粵語中也可以讀/l/。例: 爛/lan6/, 了/liu5/, 老/lou5/, 龍/lung4/, 亂/lūn6/. 謝鈺屏, 『國粵語互動速成』, 成都時代出版社, 2010, 6쪽.

237) 高本漢 [n̥z], 王力 [r], 董同龢 [n̥], 陳新雄 [nz]

238) 高本漢 (1940), 李方桂 (1980), 陸志章 (1947) 都把中古後期的日母擬作復輔音[n̥z](níz), 邵榮芬 (1982), 王力 (1957) 與他們略有不同, 不過還是復輔音, 擬作[nz]。高氏等人的理由是日母在現代方言里有的讀鼻音, 有的讀濁擦音, 所以就把兩類音合在一起。另一派學者則把日母擬作單聲母[n̥], 他們是董同龢 (2001), 李榮 (1956), 蒲立體 (1962), 周法高 (1970), 潘悟云 (2000)。潘氏在『漢語歷史音韻學』, 第52頁中詳細闡述了他的依據, 很有說服力: “『切韻』系統中, 只有日母擬作復輔音, 這在音系結構上是很不規則的。”斯氏也擬成單聲母níz。鄭張先生 (2003) 則前期擬爲[n̥], 後期爲[n̥z], 因為他認爲日母經過了這樣的演變: nj→n̥j→n̥z, z是j的強化。到了產生韻圖時則是n̥z→ʎʑ。也許, 高, 李, 陸, 邵, 王等學者擬作復輔音, 其中的z也和鄭張先生的用法一樣, 表示對j的強化。林海鷹, 「斯塔羅斯金與鄭張尙芳古音系統比較研究, 首都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21쪽.

239) 제1권(55글자): 1운류 9글자 · 4운류 24글자 · 5운류 22글자, 제2권(27글자): 6운류 9글자 · 8운류 18글자, 제3권(89글자): 11운류 9글자 · 12운류 47글자 · 13운류 33글자, 제4권(59글자): 15운류 18글자 · 16운류 18글자 · 17운류 23글자, 제5권(65글자): 18운류 50글자 · 21운류 15글자, 제6권(39글자): 22운류 5글자 · 24운류 3글자 · 25운류 18글자 · 26운류 13글자

240) 15운류 · 21운류의 첫 한자음은 검색이 안되는 이유로 그 다음 한자인 冉 · 綏를 참조했다.

241) 董同龢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을 참조했다.

<표89> 『東國正韻』, 현재음, 중고음, 월어, 보통화(병음)의 한자음 비교

한자	동국정운	현재음	중고음	월어	보통화
仍	싱	잉	n _ɾ jəŋ	jiŋ	réng
茸	송	용	n _ɾ juoŋ	jɔŋ	róng
穰	상	양	n _ɾ jaŋ	jæŋ	ráng
人	신	인	n _ɾ jen	jen	rén
潤	순	운	n _ɾ juen	jøn	rùn
然	션	연	n _ɾ jæn	jin	rán
攔	현	연	n _ɾ juæn	jæn	ruán
妊	심	임	n _ɾ jem	jem	rèn
冉	섬	염	n _ɾ jæm	jim	rǎn
饒	송	요	n _ɾ jæu	jiu	ráo
柔	송	유	n _ɾ ju	jæu	róu
兒	싱	아	n _ɾ je	ji	ér
綏	형	유	n _ɾ juei	*	ruí
汨	형	예	n _ɾ juæi	*	ruì
惹	상	야	n _ɾ ja	jɛ	rě
儒	송	유	n _ɾ juo	jy	rú
如	성	여	n _ɾ jo	jy	rú

<표89>를 통해 『東國正韻』의 반치음 ‘△’은 한어 중고음의 [n_ɾ]과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 한자음에서 ‘ㅇ’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²⁴²⁾ 日母에 대한 한어 중고음 추정음 [n_ɾ]도 현재 월어에서 [j]로 정리되었다. ‘△’이 ‘ㅇ’으로 변화하고 [n_ɾ]이 [j]으로 변화한 것에서 반치음 ‘△’은 뚜렷한 음운 자질을 갖지 않는 치경 경구개를 무게중심으로 한 공명음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董同龢의 추정음²⁴³⁾을 보면, 성모 [n_ɾ] 뒤에 반모음 [j]이 일률적으로 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j]가 경구개 접근음으로 중고 한어 시기에는 치경 경구개 [n_ɾ]까지 공명강의 무게중심이 이동하여 변별 자질로 사용되었으나, 후에 경구개 접근음과 변별이 생기지 않게 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흔적은

242) 『訓蒙字會』(1527)까지 일정부분 유지되다가 『全韻玉篇』(1796추정)에서 일률적으로 ‘ㅇ’으로 변화했다. 『訓蒙字會』 3360자에서 초성 ‘△’이 사용된 한자의 예로 壤, 日, 閏, 沕, 槓, 柎, 柎, 荏, 柎, 耳, 兒, 孺, 姪, 餌, 柎, 珥, 槁, 人, 簞, 蠕, 飪, 刃, 攔, 汝, 爾, 攘, 仁, 讓, 任, 二, 貳, 邇가 있다.

243) 董同龢는 현대 한어 방언의 일모자가 거의 모두 울림같이 소리(濁擦音)와 콧소리로 변한 것에 착안하여, 울림같이소리와 콧소리 가운데에서 중고 한어 일모의 소리값을 찾았다. 하지만, 현대 표준 한어(普通話)일모의 소리값을 울림같이소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이 많이 지적되었다. 현대 표준 한어에서 울림은 변별적 소리바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독 혀말이같이소리에서만 울림의 대립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12쪽.

월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東國正韻』의 ‘△’은 한국 한자음만을 기록하고자 한 『訓蒙字會』에 남아있으므로 중세 국어에서 어떤 식으로든 인식되었던 음가였다.²⁴⁴⁾ 한자음에 쓰인 ‘△’만을 기준으로 하면, 후에 ‘△’이 ‘○’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아 ‘△’에 ‘○’과 구별되는 뚜렷한 변별자질이 없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日母를 [n̥]로 추정할 경우 한어 중고음의 [n̥]이 월어의 [j]로, 『東國正韻』의 穰母 ‘△’이 한국 한자음 ‘○’으로 변화한 것이 모두 설명되지만, 日母를 [n̥z]²⁴⁵⁾으로 추정할 경우, 반치음 [n̥z]이 소실된 이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한어 중고음의 차탁 설음 那母·반설음 來母·반치음 日母의 유기적 체계 안에서도 반치음 日母의 음가를 추정할 수 있는데, 那母는 혀가 경구개에 닿는 공명음이고 來母는 혀가 경구개에 닿지 않는 공명음이라 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에서 치음은 차탁으로 발음되지 않는데, 만약 치음 차탁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추정음을 [n̥z] 혹은 [z]로 추정할 수 있다. 치음이 아닌 반치음 日母는 치경 경구개를 향하면서 치경 경구개에는 닿지 않는 공명음이라 했을 때, [z]에 다가가지만 [z]는 포함하지 않는 [n̥]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월어에서 [n̥]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있지만,²⁴⁶⁾ [z]는 일부 중국 북부방언을 제외하고 보통화, 월어, 한국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을 ‘ㅅ’의 유성음화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경우 많은 의문점이 든다.²⁴⁷⁾ 초성에 서 ‘△’은 불청불탁·반치음으로 전청·치음 ‘ㅅ’과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²⁴⁸⁾ ‘ㅅ’은

244) 『훈몽자회』에는 ‘△’ 초성자가 48개 보이는데, 이 가운데 5개가 ‘○’ 초성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3개는 ‘ㄴ’ 초성과 ‘ㅅ’ 초성으로 나타난다. 곧 이 8개의 글자는 『동국정운』에 따르면 ‘△’ 초성이어야 하는데, 『훈몽자회』에서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쪽.

245) 갈그렌의 재구음에 대해서 董同龢는 억지스러워서 쓰기 어렵다고 했다.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1쪽.

246) 日母의 현재 월어 한자음의 예는 다음과 같다. 廣府片: 桂平[n̥ət], 高陽片: 欽州[n̥ət]·北海[n̥ət], 勾漏片: 臨桂[n̥it]·連縣[n̥iet]·連山[n̥uet]·蒙山[n̥ət]·信都[n̥at]·懷集[n̥ət]·百色[n̥ət]·賓陽[n̥ət]·貴港[n̥at]·北流[n̥ət]·橫縣[n̥ət]·博白[n̥at], 吳化片: 靈山[n̥ət]·浦北[n̥ət].

247) 俞昌均, 허용을 비롯한 학자들의 ‘△’의 음가를 [z]로 보는 견해에는 하나의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미 앞에서 全濁音과 관련하여 漢語音의 全濁音이 有聲音임이 인정되어지는데, 우리 語音에서는 비변별적인 관계로 15세기 한자음에서는 全濁音이 없음을 보았다. 그런데 俞昌均이나 허용 등 학자들의 견해대로 ‘△’를 ‘ㅅ’에 대한 有聲音인 [z]로 본다면, 어찌하여 ‘邪’母에 ‘ㅅ’대신 ‘△’으로 對譯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로 할 것이다. 다시 말해 漢語音의 ‘日’母에 대응시킨 ‘穰’母의 ‘△’를 有聲音인 [z]로 본다면, 漢語音의 有聲音에 대응시킨 ‘邪’母의 ‘ㅅ’도 [z]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굳이 ‘邪’母와 ‘穰’母를 분리시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홍용기, 「훈민정음 초성 표기 한자음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24쪽.

248) 반치음이 치음과 조음 위치가 다르다고 하기는 어렵다. 조음 위치의 차이가 아니라면 조음 방법의 차이를

‘ㅈ’과 대응하며, 종성에서 ‘ㅅ’이 ‘ㅈ’과 대응하는 것은 초성에서의 음가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²⁴⁹⁾ ‘ㅅ’은 경구개 접근음과 구분되는 치경 경구개에서의 공명음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리가 四聲七音 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월어의 文白異讀 글자들은 四聲七音 체계 안에서 공명음([ŋ̚]·[ŋ])과 마찰음([j])의 위치를 교차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⁵⁰⁾ 보통화에서는 반치음이 일률적으로 r[ʒ]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는 북방 방언의 특징을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r[ʒ]과 [l]이 서로 다른 자질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²⁵¹⁾ 한어 중고음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음운을 인식하는 관념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남방 방언과 한국어에서는 권설음의 사용을 찾아볼 수 없기에, 적어도 남방 방언을 기준으로 중고 한어 36자모의 반치음 日母는 치경 경구개의 공명음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東國正韻』의 반치음 ‘ㅅ’도 같은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다. 후에 반치음 日母는 월어에서 성모 [j]으로 변화하게 되고, 『東國正韻』의 반치음 ‘ㅅ’은 한국어에서 마찰이 느껴지지 않는 체로 음가의 개념인 ‘ㅇ’으로 정립된 것이다.

(2) ‘ㅅ’의 음가 추정

‘ㅅ’의 음가는 한어 중고음의 日母에 대응하는 것으로 범한대음 한자와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終聲解의 설명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다. 불공과 공해의 실담 자모에 대한 범한대음을 살펴봤을 때, 『東國正韻』 23자모와 겹치는 자모가 단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타내기 위하여, 치음과 설음에 ‘반’을 덧붙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9쪽.

249) 『훈민정음』 「해례본」 중성해, 舌之ㄴ, 脣之ㅁ, 齒之ㅅ, 喉之ㅇ, 其緩急相對, 亦猶是也.

250) 仁jen21(文)·ŋen21(白)·鞞jen22(文)·ŋen22(白), 위의 두 글자는 중고시기 ‘日母’에 해당한다. 文讀의 성모는 반모음인 [j]이고, 白讀의 성모는 舌根鼻音인 [ŋ]이다. 開口三等 細音에 해당하는 이 글자들은 바로 위의 제2절에서 살펴본 中古疑母 글자들과 마찬가지로 文讀을 [j]로, 白讀을 [ŋ]으로 읽는다. 그렇지만 中古시기에 日母는 疑母와는 다르게 [n̚z]로 발음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日母와 疑母가 모두 次濁音이라는 것이다. 次濁音인 日母의 [n̚z]가 같은 次濁音 계열인 [ŋ]으로 변화한 뒤, 또 한 번 반모음인 [j]로 변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中古日母의 음운층위는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n̚z(日母) → ŋ(白讀) → j(文讀), 예시 중 ‘鞞’가 ‘(관절의)인대’라는 뜻의 ‘鞞帶[jen22 tai35]’로 쓰일 때는 文讀인 [jen22]으로 읽고, ‘강인하다, 단단하고 질기다’라는 뜻의 ‘堅鞞[kin55 ŋen22]’으로 쓰일 때는 白讀인 [ŋen22]으로 읽는다. 조운성, 「廣州語文白異讀 글자들의 특징에 관한 고찰」, 『중국어언어연구』, 한국중국어언어학회, 제86집, 2020, 237-238쪽.

251) 지금까지 북방음에서의 일모의 소리값 변화에 대하여 [n̚z](또는[n̚])>[z]>[ʒ]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글에서는 중고 한어 일모의 소리값을 [r]로 보고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王力(1985)의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 곧 일모의 소리값에 대하여 [n̚]>[r]>[ʒ]>[ʒ]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4쪽.

穰母이다. 穰母는 범한대음에서 치경 비음 [ŋ]의 음역에 사용되었는데 칼그렌[n̥z], 王力 [r], 董同龢[n̥]의 추정음 중 董同龢의 추정음이 치경 비음에 합당하다. 『東國正韻』 23자 모에서 유독 치경 경구개 비음에 관해서 범한대음 한자인 穰母를 사용한 것은 우연의 일 치라고 보기 어렵다.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全清次清全濁之字,其聲爲厲,故用於終則宜於入”이라 하여 전청·차청·전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종성에서는 마땅히 입성이 된다고 했으며, “所以○ㄴㅇㄹ△六字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라 하여 ○(옛이음)·ㄴ·ㅇ·ㄹ·△의 여섯자는 평성·상성·거성의 종성이 된다고 했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 따르면 반치음 ‘△’은 불청불탁으로 평성·상성·거성의 종성이 된다. ‘△’의 음가가 [s], [z] 혹은 [n̥z]이라면, ‘△’이 종성으로 쓰일 때 평·상·거의 종성이 아닌, 입성의 종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의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然ㄱㅇㄷㄴㅅㅇㅈㅊㅅㅈ八字可足用也”라 하여, 종성에서는 ‘ㄱㅇㄷㄴㅅㅇㅈㅊㅅㅈ’의 8개 글자면 충분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終聲復用初聲의 제자원이 있지만, 종성은 끝나는 소리로 음운의 자질이 제한적이므로²⁵²⁾ 차청과 전탁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훈민정음에서 그 예로 “如빛꽃爲梨花, 열·의갓爲狐皮,而入字可以通用,故只用入字”라 하여 빛꽃(배꽃)의 ‘꽃’에서의 ‘ㅈ’, 열·의갓(여우 가죽)의 ‘갓’에서의 ‘ㅈ’은 ‘ㅅ’으로 쓸 수 있어, ‘ㅅ’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논의에서 문제되는 점을 꼽자면 ‘열’에서의 ‘△’이다. 열의 ‘△’는 불청불탁으로 ○(옛이음), ㄴ, ㅇ, ㄹ, △의 여섯자는 평성·상성·거성의 종성이 된다고 했으므로 종성에서 전청 입성 ‘ㅅ’과는 관련이 없는 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종성에 쓰이는 8개 글자 ‘ㄱㅇㄷㄴㅅㅇㅈㅊㅅㅈ’ 중 ‘ㄱ·ㄷ·ㅅ·ㅈ’는 전청으로 입성운 [-p]·[-t]·[-k]에 쓰이고, ‘○(옛이음)·ㄴ·ㅇ’은 양성운 [-ŋ]·[-n]·[-m]에 쓰이는 것이다.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옛이음)’과 ‘ㄱ’의 음성적 관계를 언급하고 나서 “舌之ㄴㄷ, 脣之ㅇㅁㅂ, 齒之△ㅅ, 喉之○ㅎ, 其緩急相對, 亦猶是也”라고 하고 있는데, ㄴㄷ, ㅇㅁㅂ, △ㅅ, ○ㅎ의 관계가 ○(옛이음)과 ㄱ의 음성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옛이음)·ㄴ·ㅇ·△·ㅇ은 불청불탁으로 평성·상성·거성의 종성이 되고, ㄱ·ㄷ·ㅅ·ㅈ·ㅎ은 전청으로 입성의 종성이 되는 것이다. 『訓民正音』 「解例本」 終

252) 음성운·양성운·입성운, 한어 중고음 및 『東國正韻』을 기준으로 운미는 8개이다.

聲解의 ‘齒之△入’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終聲解에서의 설명을 制字解에서의 설명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 범한대음, 월어와 한국 한자음에 남은 ‘△’의 흔적, 무엇보다 창제자가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의 음성에 대해 직접 밝히고 있는 만큼 한어 중고음의 日母 및 훈민정음의 ‘△’의 음가는 치경 경구개 비음 [n̥]이 타당하다.

5. 중고음의 陰聲韻尾와 『東國正韻』의 중성·중성

한어 중고음의 입성운 [-p]·[-t]·[-k]와 양성운 [-m]·[-n]·[-ŋ] 중 [-p]·[-k]·[-m]·[-n]·[-ŋ]은 현재 한국 한자음에서 확인할 수 있고, [-t]은 일찍이 우리말 한자음에서 [-i]로 변하였지만, 중성에 위치하여 [-t]와 대응한다는 점에서 설내입성 [-t]의 압운 자리를 알려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한국 한자음에 존재하지 않는 음성 운미 [-i]·[-u(w)]에 대한 인지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이 중 [-u(w)]는 『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에서 ‘몽’으로 표기하고 있어 선행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지만, 음성 운미 [-i]와 훈민정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한어 중고음의 음성 운미 [-i]를 표기하기 위해, 중성자와 결합한 ‘ᄃ’에 주목하여 ‘ᄃ’의 止攝과 蟹攝과의 상관 관계를 살피도록 한다.

1) 운미 [-i]와 중성 ‘ᄃ’

『訓民正音』 「解例本」 中聲解의 “一字中聲之與 〕相合者十, 二字中聲之與 〕相合者四”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성자와 결합하는 ‘ 〕’의 성격에 대해 고찰한다. 『東國正韻』의 제18운류부터 제22운류까지는 지섭(止攝)과 해섭(蟹攝)에 해당하는 한자음이다. 한어 중고음 추정음을 살펴보면 해섭은 복운모의 운미로서 운미가 [-i]로 일정한 반면, 지섭은 운미에서 [-i]가 일관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지섭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과 관련해서 여러 학자의 추정음을 <표90>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90> 지섭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추정음

止攝	支	開三	iɛ	ʎe	jɛ	je	iɪ	ie	jɛ	iə	iɛ	ʎɛ	iɛ
	脂	開三	i	i	ji	jei	ii	i	jɪ	i	iɪ	ʎe	i
	之	開三	i	ʎə	ʎ	i	i	iə	ie	i	i	ʎə	i
	微	合三	jwei	ʎwəi	jwɛi	juəi	iəi	iuəi	iuəi	uj	ɰi	ʎəi	wii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섭에서 운미 [-i]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지섭인 경우에도, 중성자와 결합하고 있는 ‘ᄀ’가 있을 경우, 운미에서 일률적으로 [-i]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성자와 결합한 ‘ᄀ’는 중성의 범주는 아니지만, 복운모의 운미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91>부터 <표95>까지 확인하기로 하는데, 『東國正韻』 한자음 중 『全韻玉篇』에서 정·속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자를 선정했다.²⁵³⁾

<표91> 第18韻類 <중(費) : 중(紫) 중(恣)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攝	王力	董同龢			
ㄷ	ㄷ	緹	사	스俗쇄	:승	所綺	止攝	ʃie	fje	ei ³	si ²
		兕	시	스正시	:쑹	徐姊	止攝	zi	zjei	si ⁴	tsi ⁶
		齋	재	즈俗직	중	即夷	止攝	tsi	tsjei	tei ¹	tsi ¹
		泚	자	즈正즈	:충	雌氏	止攝	tsʰie	tsʰje	tsʰi ³	tsʰi ²
		漬	지	즈正지	:쑹	疾智	止攝	dzie	dzʰj	tsi ⁴	tsi ⁶
ㄱ	ㄱ	伎	기	지俗기	·징	支義	止攝	teie	teje	tsɿ ⁴	tsi ³
		嗜	기	시俗기	·쑹	常利	止攝	zi	zjei	ɿ ⁴	si ³
		螭	리	치俗리	팅	丑知	止攝	tʰie	tʰje	tsʰi ¹	tsʰi ¹
		魑	리	치俗리	팅	丑知	止攝	tʰie	tʰje	tsʰi ¹	tsʰi ¹
		擿	리	치擿리	팅	丑知	止攝	tʰie	tʰje	tsʰi ¹	tsʰi ¹
		魅	매	미俗미	·밍	明祕	止攝	mi	mjɛi	mei ⁴	mei ⁶
		寐	매	미俗미	·밍	彌二	止攝	mi	mjei	mei ⁴	mei ⁶
		彪	매	미俗미	·밍	明祕	止攝	mi	mjɛi	mei ⁴	*
		弛	이	시俗이	:싱	施是	止攝	ɕie	eje	tsʰi ²	tsʰi ²
		黻	이	치俗리	팅	丑知	止攝	tʰie	tʰje	tsʰi ¹	*
氍	지	시俗디	:쑹	神紙	止攝	dzie	dzʰje	ɿ ⁴	*		

253) 『全韻玉篇』에 수록된 正·俗音 620여 개의 한자에 대해 전수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김민경·김서영·문성호·김은희,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俗音의 성격 고찰 下,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동남어문논집, 제49집, 동남어문학회, 2020.

		懷	치	지正치	·딩	脂利	止攝	tei	tejei	tʂɿ ⁴	tsi3
		慣	치	지正치	·딩	陟利	止攝	ʈi	tjei	tʂɿ ⁴	tsi3
		觶	치	지俗치	징	章移	止攝	teie	teje	tʂɿ ⁴	tsi3
잉	잉	*隸	대	티俗테	·땡	於轄	蟹攝			tAi ⁴	*
		顯	시	식俗스	싱	蘇來	蟹攝	svi	sAi	sai ¹	*
		猜	시	치俗스	칭	倉才	蟹攝	tsʰvi	tsʰAi	tsʰai ¹	tsʰai1
		偲	시	치俗스	칭	倉才	蟹攝	tsʰvi	tsʰAi	tsʰai ¹	tsʰai1
		隄	시	식俗스	싱	素回	蟹攝	svi	suAi	suei ¹	soi1
		隄	체	티俗테	·땡	徒耐	蟹攝	dvi	dʰAi	tai ⁴	toi6
잉	잉	埒	계	기俗계	·굉	其冀	止攝	gi	ghjei	tei ⁴	*
		泊	계	기正계	·굉	几利	止攝	ki	kjei	tei ⁴	kei3
		沂	기	의俗기	잉	魚衣	止攝	ŋiəi	ŋjei	i ²	*
		樞	치	치正치	경	側持	止攝	tʃiə	tʃi	tsɿ ¹	tsi1
		姬	희	기俗희	경	居之	止攝	kiə	ki	tei ¹	kei1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잉’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을 살펴보면, 운미에서 [-i]를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중성자 ‘·’와 결합한 ‘|’의 ‘잉’, 중성자 ‘-’와 결합한 ‘|’의 ‘닝’를 보면, 董同龢의 추정음에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표92> 第19韻類 <굉(傀):잉(隗)·굉(儂)* >

NO	자 례	현 음	정 속	동 운	반 절	중고음			보 통 화	월 어	
						廣 韻	王 力	董 同 龢			
잉	잉	樞	뢰	뤼正뢰	·땡	魯回	蟹攝	luvi	luAi	lei ²	lœi4
		澮	희	괴俗희	·굉	古外	蟹攝	kuai	kuai	kʰuai ⁴	kui2
		諷	희	괴俗희	굉	苦回	蟹攝	kʰuvi	kʰuAi	xuei ¹	fui1
		恢	희	괴俗희	굉	苦回	蟹攝	kʰuvi	kʰuAi	xuei ¹	fui1
		郇	희	괴俗희	·굉	古外	蟹攝	kuai	kuai	kʰuai ⁴	kʰui2
		鱣	희	괴俗희	·굉	古外	蟹攝	kuai	kuai	kʰuai ⁴	kʰui2
		獫	희	괴俗희	·굉	古外	蟹攝	kuai	kuai	kʰuai ⁴	kʰui2
		膾	희	괴俗희	·굉	古外	蟹攝	kuai	kuai	kʰuai ⁴	kʰui2
		濊	희	외正희	·굉	呼會	蟹攝	huai	xuai	xuei ⁴	wai3
		盩	희	괴俗희	굉	苦回	蟹攝	kʰuvi	kʰuAi	kʰuei ¹	kwei1
		庖	외	희正외	:굉	胡罪	蟹攝	ɣuvi	ɣuAi	xuei ⁴	wai2
		備	뢰	뤼正뢰	·땡	落猥	蟹攝	luvi	luAi	lei ³	lœi5
		晬	쉬	췌正쉬	·굉	子對	蟹攝	tsuvi	tsuAi	tsuei ⁴	tsœi3
		倅	쉬	췌正쉬	·굉	七內	蟹攝	tsʰuvi	tsʰuAi	tsʰuei ⁴	tsʰœi3
		焠	쉬	췌正쉬	·굉	七內	蟹攝	tsʰuvi	tsʰuAi	tsʰuei ⁴	tsʰœi3
淬	쉬	췌正쉬	·굉	七內	蟹攝	tsʰuvi	tsʰuAi	tsʰuei ⁴	tsʰœi3		
榷	취	최正취	·굉	租外	蟹攝	tsuai	tsuai	tsou ¹	tsœu1		

	闊	꺤	회俗꺤	·꺤	胡對	蟹攝	ɣuɔi	ɣuAi	xuei ⁴	wui6
	潰	꺤	회俗꺤	·꺤	胡對	蟹攝	ɣuɔi	ɣuAi	k ^h uei ⁴	k ^h ui2
	蒼	회	외正회	·회	烏外	蟹攝	Ouai	?uai	xuei ¹	wai3

『東國正韻』 제19운류의 한자음에서는 중성자 ‘ㄱ’와 결합한 ‘ㅣ’의 ‘닝’가 사용되는데,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해섭에 속한다. 董同龢와 王力の 한어 중고음 추정음의 운미에서 일률적으로 운미 [-i]를 확인할 수 있다. 해섭은 모두 복운모와 결합하고 있는 운미 [-i]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93> 第20韻類 <꺤(佳):꺤(解)·꺤(蓋)* >

NO	자례	현음	정속	동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꺤	階	꺤	기俗꺤	꺤	古諧	蟹攝	kei	kei	teie ¹	kai1
	械	꺤	히俗꺤	·꺤	胡介	蟹攝	ɣei	ɣei	eie ⁴	hai6
	階	꺤	기俗꺤	꺤	古諧	蟹攝	kei	kei	teie ¹	kai1
	柴	시	지俗시	꺤	士佳	蟹攝	dʒai	dʒ ^h æi	tʂ ^h ai ²	tsai6
	柴	시	지俗시	꺤	士佳	蟹攝	dʒai	dʒ ^h æi	tʂ ^h ai ²	ts ^h ai4
	豺	시	지俗시	꺤	士皆	蟹攝	dʒei	dʒ ^h ei	tʂ ^h ai ²	ts ^h ai4
	儕	꺤	지俗꺤	꺤	士皆	蟹攝	dʒei	dʒ ^h ei	tʂ ^h ai ²	ts ^h ai4
	效	해	기俗히	·꺤	苦愛	蟹攝	k ^h ɔi	k ^h Ai	k ^h ai ⁴	k ^h ɔi3
	亥	해	기俗히	꺤	古諧	蟹攝	kei	kei	kai ¹	koi1
	睽	해	기俗히	꺤	戶佳	蟹攝	ɣai	ɣæi	eie ²	*
	咳	해	기俗히	꺤	古諧	蟹攝	kɔi	kAi	kai ¹	koi1
	咳	해	기俗히	·꺤	戶來	蟹攝	ɣɔi	ɣAi	xai ²	k ^h ɔi3
	咳	해	기俗히	꺤	古哀	蟹攝	kɔi	kAi	kai ¹	*
	解	해	기俗히	·꺤	古隘	蟹攝	kai	kæi	eie ⁴	hai5
	偕	해	기俗히	꺤	古諧	蟹攝	kei	kei	eie ²	kai1
	諧	해	.	꺤	戶皆	蟹攝	ɣei	ɣei	eie ²	hai4
	咳	해	기俗히	꺤	古哀	蟹攝	kɔi	kAi	kai ¹	koi1
	解	해	기俗히	·꺤	古隘	蟹攝	kai	kæi	eie ⁴	kai3
	咳	해	기俗히	꺤	古諧	蟹攝	kei	kei	teie ¹	kai1
	*咳	해	기俗히	꺤	柯開	蟹攝			kAi ¹	*
楷	해	기俗히	꺤	古諧	蟹攝	kei	kei	teie ⁴	kai1	
咳	해	기俗히	꺤	古哀	蟹攝	kɔi	kAi	kai ¹	koi1	
咳	해	기俗히	꺤	苦哀	蟹攝	k ^h ɔi	k ^h Ai	kai ¹	koi1	
鞋	헤	히俗헤	꺤	戶佳	蟹攝	ɣei	ɣei	eie ²	hai4	
鞞	헤	히俗헤	꺤	戶佳	蟹攝	ɣai	ɣæi	eie ²	*	
꺤	媯	왜	꺤正왜	꺤	古蛙	蟹攝	kwai	kuæi	ua ¹	kwa1
	媯	왜	꺤俗왜	꺤	古蛙	蟹攝	kwai	kuæi	kua ¹	kwa1
	媯	왜	꺤正왜	꺤	古蛙	蟹攝	kwai	kuæi	kua ¹	kwa1

『東國正韻』 제20운류의 한자음에서는 중성자 ‘ㄱ’와 결합한 ‘ㅣ’의 ‘깡’, 두 글자로 된 중성자 ‘과’와 결합한 ‘ㅣ’의 ‘광’가 사용되고,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해섭에 속한다. 董同龢와 王力の 한어 중고음 추정음의 운미에서 일률적으로 운미 [-i]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복운모와 결합하고 있는 운미 [-i]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94> 第21韻類 <굉(媯):굉(軌)·굉(媿)* >

NO	자례	현음	정속	동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20	굉	宄	귀	귀俗귀	:굉	居洧	止攝	kwi	kjuēi	kuei ³	kwai ²
		*媯	귀	괴正기	·굉	居偽	止攝			kuei ⁴	*
		晷	귀	광正귀	:굉	居洧	止攝	kwi	kjuēi	kuei ³	kwai ²
		媿	외	위俗외	:굉	於鬼	止攝	Oiwəi	?juəi	uei ³	fai ³
		媿	외	위俗외	·굉	語韋	止攝	ŋiwəi	ŋjuəi	uei ¹	ŋai ⁴
		畏	외	위俗외	·굉	於胃	止攝	Oiwəi	?juəi	uei ⁴	wai ³
		喟	위	귀俗위	·굉	丘愧	止攝	k ^h wi	k ^h juēi	k ^h uei ⁴	wai ³
		隳	휴	규俗휴	·굉	去為	止攝	k ^h we	k ^h juē	k ^h uei ¹	k ^h wai ¹
21	굉	癸	계	규俗계	:굉	居誅	止攝	kwi	kjuei	kuei ³	kwai ³
		*媯	계	유正계	·굉	於避	止攝	Oiwei	?iuei	uei ¹	kwɛŋ ²
		瑞	서	슈俗서	·굉	是偽	止攝	ziwe	zjue	zuei ⁴	sɛi ⁶
		恚	에	혜俗에	·굉	於避	止攝	Oiwe	?jue	xuei ⁴	wai ³
		媿	위	뇌正위	·굉	女恚	止攝	n ^h we	njue	uei ³	wai ²
		葵	유	슈俗유	·굉	息遺	止攝	swi	sjuei	suei ¹	soi ¹
		悴	취	취俗취	·굉	秦醉	止攝	dzwi	dz ^h juei	ts ^h uei ⁴	sɛi ⁶
		頽	취	취俗취	·굉	秦醉	止攝	dzwi	dz ^h juei	ts ^h uei ⁴	*
		惝	취	취俗취	·굉	之睡	止攝	tɛiwe	tɛjue	tɕuei ⁴	zoi ³
		萃	취	취俗취	·굉	秦醉	止攝	dzwi	dz ^h juei	ts ^h uei ⁴	sɛi ⁶
		瘁	취	취俗취	·굉	秦醉	止攝	dzwi	dz ^h juei	ts ^h uei ⁴	sɛi ⁶
棼	혜	슈俗혜	·굉	徐醉	止攝	zwi	zjuei	xuei ⁴	sɛi ⁶		

『東國正韻』 제21운류의 한자음에서는 중성자 ‘ㄱ’와 결합한 ‘ㅣ’의 ‘깡’, 중성자 ‘ㅍ’와 결합한 ‘ㅣ’의 ‘광’가 사용되고,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지섭에 속한다. 지섭의 경우 董同龢와 王力の 한어 중고음 추정음의 운미에서 일률적으로 운미 [-i]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東國正韻』 한자음에서는 중성자와 결합한 ‘ㅣ’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東國正韻』 편찬자는 제21운류의 한자음의 한어 중고음의 운미에 운미 [-i]가 존재했다고 분석했을 수 있다.

<표95> 第22韻類 <경(雞):경(啓)·경(闕)* >

NO	자 례	현 음	정 속	동 운	반 절	중고음			보 통 화	일 어
						廣 韻	王 力	董 同 龢		
경 경	禊	계	혜俗계	·행	胡介	蟹攝	ɣiei	ɣiei	ei ⁴	hei6
	系	계	혜俗계	·행	胡計	蟹攝	ɣiei	ɣiei	ei ⁴	hei6
	繫	계	혜俗계	행	口奚	蟹攝	k ^h iei	k ^h iei	tei ⁴	hei6
	禰	니	니正네	:녕	奴禮	蟹攝	niei	niei	ni ³ ,mi ²	nei5
	荔	레	리正레	·랭	郎計	蟹攝	liei	liei	li ⁴	lei6
	賈	재	제俗직	쟁	祖稽	蟹攝	tsiei	tsiei	tɕɿ ⁴	*
	獅	제	계正제	·경	居例	蟹攝	kiei	kjæi	tɕɿ ⁴	kei3
	僚	제	채正제	·텡	丑例	蟹攝	t ^h ɰiei	t ^h ɰjæi	tɕɿ ^h ⁴	ts ^h ei3
	移	체	세正테	잉	成鸞	蟹攝	ziei	zjæi	i ²	ji4
奚	해	해俗히	행	胡雞	蟹攝	ɣiei	ɣiei	ei ¹	hei4	
경 경	桂	계	유正계	행	烏攜	蟹攝	ŋwei	?iuei	uei ¹	kweŋ2
	絕	체	제正체	·행	子芮	蟹攝	tɕiwei	tsjuæi	tɕeɤ ²	tsyt3

『東國正韻』 제22운류의 한자음에서는 중성자 ‘ㄱ’와 결합한 ‘ㅣ’의 ‘ㄱ’, 두 글자로 된 중성자 ‘ㄱ’과 결합한 ‘ㅣ’의 ‘ㄱ’이 사용되고,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해섭에 속한다. 董同龢와 王力の 한어 중고음 추정음의 운미에서 일률적으로 운미 [-i]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복운모와 결합하고 있는 운미 [-i]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섭에서는 지섭과 달리 단운모를 찾아볼 수 없다.

해섭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추정음을 아래 <표96>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王力·李方桂·董同龢·周法高·邵榮芬·陳新雄의 추정음에서 운미 [-i]를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복운모와 결합하는 운미 [-i]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96> 해섭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

	개 합 / 등	高	王	李	董	周	李榮	邵	蒲	鄭	陳	潘
		齊	開四	iei	iei	iei	iei	iei	ei	ei	ej	ei
祭	開三	jiei	iei	jäi	jæi	iei	iei	jæi	iaj	iei	iei	iei
泰	開一	ai	ai	âi	ai	ai	ai	ai	aj	ai	ai	ai
佳	開二	ai	ai	aï	æi	æi	ɛ	æi	aij	ɣɛ	æi	uæ
皆	開二	äi	ei	äi	ei	ei	ei	ei	əij	ɣei	ei	uæi
夬	合二	wad	wæi	wai	uai	uai	uɛ	uæi	waij	ɣuɛ	uai	*uæ
灰	合一	uäi	uoi	uâi	uAi	uæi	uAi	uoi	wəj	uAi	iuæi	uoi
哈	開一	äi	oi	âi	Ai	æi	Ai	oi	əj	Ai	æi	æi
廢	合三	jwei	iwei	jwei	juei	iai	iuæi	iuæi	uaj	æei	iuæi	*iei

2) 음성 운미 [-u]와 중성 ‘뫑’ [-u(w)]

(1) 순경음

『訓民正音』 「解例本」 例義에서 순경음을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라 하여 ‘○’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는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者，以輕音唇乍合而喉聲多也’라 하여 ‘○’ 글자를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글자가 되는 것은 순경음은 가벼운 소리로서 입술을 잠깐 다물었다가 바로 열어서 목구멍소리가 많게 조음하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다.²⁵⁴⁾

순경음은 입술소리이면서 목구멍소리가 많은 음이라고 볼 수 있다. 목구멍소리라는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로 “성대를 막거나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목구멍소리는 파열음과 마찰음을 구분하지 않은 개념으로 훈민정음에서 후음(목구멍소리)이 많다고 했을 때, 목구멍소리의 자질이 마찰음인지, 무성음인지, 유성음인지에 관해 조음 원리를 알려주는 四聲七音を 근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순경음은 『東國正韻』 23字母를 기준으로 순음 전칭 ‘ㅂ’, 차칭 ‘교’, 전탁 ‘ㅃ’, 불청불탁 ‘ㅍ’의 아래에 불청불탁 ‘ㅇ’을 사용하는 것으로, 목구멍소리를 가리키는 ‘ㅇ’은 불청불탁으로 마찰음·무성음보다는 성대 진동의 개념인 유성음(공명음)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순경음은 四聲七音의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입술소리와 성대 진동이 동시 혹은 유기적으로 공명하는 특징이 있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음’은 최소한 초성과 중성이 결합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²⁵⁵⁾ 성대 진동이 없는 무성음의 개념으로 후음 ‘ㅇ’을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洪武正韻譯訓』에서 ‘뫑’²⁵⁶⁾를 ‘f’에 대응시키고 있지만, ‘뫑’는 무성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닌 성대진동과 같이 발음되는 ‘f’+‘ㅇ(이음)’이라 판단하는 것이 창제원리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다.

254) 본 소절 3.5.2. 음성 운미 [-u]와 중성 ‘뫑’ [-u(w)]은 소논문 문성호, 『『동국정운(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 ‘ㄷ’·‘뫑’ 고찰, ‘ㅎ’·‘ㅇ’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인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33집, 2020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255) 『훈민정음』 「해례본」 「중성해」에서는 “中聲者，居字韻之中，合初終而成音”라 하여 중성은 글자 소리의 가운데 있고, 초성·중성과 합하여 ‘음’을 이룬다고 하였고, 중성해에서는 “唯有欲聲所當處中聲成音亦可通”이라 하여 마땅히 ‘ㅇ’이 있어야 할 자리라도 중성만으로도 ‘음’을 이루어 통할 수 있다고 하여, 오직 ‘ㅇ’만이 생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56) ‘뫑’는 훈민정음 창제 시기의 문헌에서 한자음 표기와 순수 고유어 표기에 모두 쓰였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한자음 표기에 쓰인 것은 /f/이고, 고유어 표기에 쓰인 것은 /β/였다고 보았다. 장향실, 「중세국어시기 고유어 표기에 쓰인 뫑의 음가에 대하여」, 『어문논집』 48, 2003, 65쪽.

초성에 쓰인 순경음이 중성과 결합할 때 성대 진동을 뜻하는 ‘ㅇ’의 작용으로 중성의 자질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ㅇ’은 초성에 사용될 때와 순경음에 사용될 때 불청불탁·후음인 점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순경음으로 사용될 때는 순음(唇音)과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중성의 자질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 국어에서 순경음의 ‘빙’[β] 사용에 따라 중성의 자질이 달라지는 예를 아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²⁵⁷⁾

음운론적인 층위나 음성적인 층위나를 뒤로 미루고, ‘w’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w’의 존재를 확인하고 ‘wa, wə, wi’의 이중모음들을 15세기 이중모음으로 재구하게 한 결정적 예들은 순경음의 변화에 따른 ‘β>w’로 만들어진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이 변화의 공식을 잘 보여준다.

- ① 바 > 와 : 글밭 > 글왈 (βa>wa)
- ② 버 > 워 : 더버 > 더워 (βə>wə)
- ③ 벵 > 오 : 스ᄃᄃ > 스ᄃᄃᄃ (βΛ>wΛ>o)
- ④ 보 > 우 : 어려본 > 어려운 (βi>wi>u)
- ⑤ 빙 > 위 : 치빙 > 치위, 더빙 > 더위 (βi>wi)
- ⑥ 빙 > 이 : 잣가빙 > 잣가이, 수빙 > 수이 (βi>i)²⁵⁸⁾

이기문도 ‘β>w’의 공식만으로 순경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예외들을 기술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문제가 되는 ‘빙 > 이’의 경우 ‘βi>wi’의 변화보다는 ‘βi>i’의 변화가 일반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보였고 ‘βi>wi’의 변화는 선행모음이 ‘ㅣ’인 경우, 즉 ‘치빙, -디빙’에 국한되는 경우로 보고자 하였다. ‘-디빙’이 ‘-디외, 디위, 디웨’와 같이 다양한 표기로 등장하는 이유는 이중모음 ‘wi’를 표기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다.²⁵⁹⁾ 선행 연구를 통해 기본적으로 순경음은 입술이 붙었다 떼어지는 소리이므로, 원순 반모음 [w]의 자질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순경음은 입술 진동과 불청불탁 성

257) ‘빙’의 한글문헌에서 사용된 역사는 훈민정음 창제 후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 『석보상절』(1447)부터 일부 어휘에서 ‘오/우/ㅇ’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1460년경에 성립 간행된 문헌까지 활발히 사용되었으며 활자본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1461)부터는 ‘빙→오/우/ㅇ’로 전격 교체 표기되었다. 반면에 ‘빙’은 세종 27년(1447)부터 편찬 작업이 본격화된 중국어의 한글 표기 운서 『홍무정운역훈』(1455)의 31자모 중 순경음에 소속된 비모(非母) 표기를 위해, 그리고 여진어·만주어·범어·일본어등 외국어의 표기를 위해 15세기 중반 문헌부터 18세기 후반 문헌까지 사용되었다. 정우영, 「순경음비음(빙)의 연구사적 검토」, 『국어사연구』 7, 2007, 136쪽.

258) 김경아, 「15세기 이중모음 체계와 순경음의 변화」, 『국어교육』, 제168집, 한국어교육학회, 2020, 127쪽.

259) 김경아, 「15세기 이중모음 체계와 순경음의 변화」, 『국어교육』, 제168집, 한국어교육학회, 2020, 133쪽.

대 진동음이 결합하므로 뒤에 오는 중성의 자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성 ‘ㅈ’은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순경음 ‘빙’이 초성에 올 때 거의 예외 없이 ‘β>w’의 공식이 적용되고, ‘ㄱ’과 ‘ㄷ’은 원순모음으로 영향이 적고, ‘ㅣ’도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w]의 소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²⁶⁰⁾

성모가 뒤에 오는 운모에 [w] 자질을 전달하게 하는 경우는 월어의 원순설근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월어의 원순설근음은 gu[kw], ku[k'w]로 성모는 [k], [k']이지만, 성모에 반모음 [w]의 자질이 포함되어, 목젓에서의 진동뿐만 아니라, 입술의 작용까지 아우르는 음가이다. ‘빙’은 입술의 진동이 성대의 공명음과 작용한다는 점에서 gu[kw], ku[k'w]와 비교했을 때 힘이 작용하는 순서는 상반되지만, 뒤에 오는 중성에 [w] 자질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순경음의 디자인에서도 순경음의 음가를 짐작할 수 있다. 빙의 ‘ㅂ’은 전청으로 자질이 뚜렷하다. ‘ㅂ’과 ‘빙’의 차이점은 ‘ㅂ’은 불청불탁 ‘ㅇ’의 공명이 더해지지 않은 순음이고, ‘빙’은 ‘ㅂ’이 발성될 때 ‘ㅇ’의 불청불탁 성대 진동음이 같이 공명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ㅂ’을 발음할 때 ‘ㅈ’이 ‘ㅊ’로 변하는 힘은 입술의 진동이 성대진동과 같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몽’을 얼굴의 옆모습, 혹은 앞모습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가정해보면, ‘ㅁ’은 입술부위의 공명이고, ‘ㅇ’은 성대 부위의 공명이라고 할 수 있다. 순경음의 문자 디자인은 음성정보를 직설적으로 전달하여, ‘ㅁ’과 ‘ㅇ’을 동시에 자극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몽’이 초성에 있으면 입술진동에서 시작하므로 [m]이 되고 효섭(效攝)과 유섭(流攝)에서는 운미에 위치하므로, 입이 다물게 되는 소리로 [-u(w)]가 된다.

(2) 순경음 ‘몽’

순경음 ‘몽’은 중고한어 36자모 『洪武正韻』 31자모에서 경순음 微母에 대응하며, 성모로 사용될 때의 추정음은 [m] 혹은 [ɱ]이다. 『東國正韻』에서 ‘몽’은 중성으로만 사용되고 추정음은 [-u(w)]이다.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東國正韻』 한자음을 한국 한자음만을 기록하고 있는 『全韻玉篇』 한자음과 비교해봤을 때, 『東國正韻』

260) 빙은 고유어 표기에서 ㅂ의 교체형 ‘w’를 표기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ㅂ이 일부 환경에서 w로 교체되는 경우 그것을 ㅂ로 표기한 것이다. 장향실, 「중세국어시기 고유어 표기에 쓰인 빙의 음가에 대하여」, 『어문논집』 48, 2003, 66쪽.

에서 중성 ‘ㅁ’을 제외시킬 경우, 『東國正韻』의 중성은 『全韻玉篇』의 정·속음(正·俗音) 중 정음의 중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 <표97>·<표98>²⁶¹⁾에서 『東國正韻』과 『全韻玉篇』의 정·속음 및 현재 한국 한자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표97> 第16韻類 < 공(高) : 공(果) · 공(誥) * > - 效攝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ㅎ	ㅎ	翱	고	오(俗고 262)	울	五勞	效開一平豪疑次濁	ɥau	ɥau	au ¹	ɥeu ⁵
		醪	료	로(正료)	룽	魯刀	效開一平豪來次濁	lau	lau	lau ²	lau ⁴
		耗	모	호(正모)	·물	呼到	效開一去號曉次清	hau	xau	xau ⁴	heu ³
		課	조	소(俗조)	·솔	蘇到	效開一去號心全清	sau	sau	tsau ⁴	ts ^h eu ³
		臊	조	·	솔	蘇遭	效開一平豪心全清	sau	sau	sau ¹	sou ¹
		洮	조	도(正도)	툽	土刀	效開一平豪透次清	t ^h au	t ^h au	t ^h au ¹	t ^h eu ¹
		燥	조	소(俗조)	:솔	蘇老	效開一上皓心全清	sau	sau	tsau ⁴	ts ^h eu ³
		噪	조	소(俗조)	·솔	蘇到	效開一去號心全清	sau	sau	tsau ⁴	ts ^h eu ³
		縞	호	고(俗호)	:골	古老	效開一上皓見全清	kau	kau	kau ³	keu ²
		皓	호	고(正호)	·홀	古老	效開一上皓見全清	kau	kau	kau ⁴	hou ⁶
犒	호	고(俗호)	·콜	苦到	效開一去號溪次清	k ^h au	k ^h au	k ^h au ⁴	hou ³		
ㅎ	ㅎ	敲	고	교(正고)	룽	口交	效開二平肴溪次清	k ^h au	k ^h au	te ^h iau ¹	heu ¹
		敲	교	요(俗교)	:울	五巧	效開二上巧疑次濁	ɥau	ɥau	iau ³	ɥeu ⁵
		噉	규	교(俗규)	·골	五弔	效開四去嘯見次濁	ɥieu	ɥieu	iau ⁴	kiu ³
		叫	규	교(俗규)	·골	古弔	效開四去嘯見全清	kieu	kieu	teiau ⁴	kiu ³
		竅	규	교(俗규)	·콜	苦弔	效開四去嘯溪次清	k ^h ieu	k ^h ieu	te ^h iau ⁴	k ^h iu ³
		棹	도	조(俗도)	·뿔	直教	效開二去效澄全濁	d ^h au	d ^h au	tsau ⁴	tsau ⁶
		掉	도	도(正도)	:뿔	徒弔	效開四上嘯定全濁	dieu	d ^h ieu	tiau ³	tsau ⁶
		獠	료	조(正료)	:룽	張絞	效開二上巧知全清	t ^h au	t ^h au	lau ³	lou ⁵
		杳	묘	요(俗묘)	:뿔	烏皎	效開四上篠影全清	ɔieu	?ieu	iau ³	jiu ²
		召	소	조(俗소)	·뿔	直照	效開三去笑澄全濁	d ^h ieu	d ^h ieu	tsau ⁴	tsiu ⁶
		炤	소	조(正소)	·쥬	之少	效開三去笑章全清	te ^h ieu	te ^h ieu	tsau ⁴	tsiu ³
		灑	소	초(正소)	쥬	子小	效開三上小精全清	ts ^h ieu	ts ^h ieu	ts ^h au ²	ts ^h au ⁴
		釗	소	조(正소)	쥬	止遙	效開三平肴章全清	te ^h ieu	te ^h ieu	tsau ¹	tsiu ¹
		沼	소	조(俗소)	:쥬	之少	效開三上小章全清	te ^h ieu	te ^h ieu	tsau ³	tsiu ²
		巢	소	초(正소)	:쥬	鉏交	效開二平肴崇全濁	d ^h au	d ^h au	ts ^h au ²	ts ^h au ⁴
		僥	요	교(俗요)	울	五聊	效開四平豪疑次濁	ɥieu	ɥieu	iau ²	jiu ⁴
		徼	요	교(俗요)	·골	古堯	效開四去嘯見全清	kieu	kieu	teiau ⁴	kiu ¹
		澆	요	교(俗요)	골	古堯	效開四平蕭見全清	kieu	kieu	teiau ¹	kiu ¹
堯	요	교(俗요)	룽	口交	效開二平肴溪次清	k ^h au	k ^h au	te ^h iau ¹	hau ¹		
灑	요	교(俗요)	골	堅堯	效開四平蕭見全清			ieu ¹	*		

261) 김민경·김서영·문성호·김은희,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俗音의 성격 고찰 下- 『동국정운』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 『동남어문』, 49, 동남어문학회, 2020, 278-279쪽.

	傲	요	교俗요	궤	古堯	效開四平蕭見全清	kieu	kieu	teiau ¹	kiu1
	稍	초	쇼正초	·솔	所教	效開二去效生全清	fau	fau	šau ¹	sau2
	綯	초	쇼俗초	솔	相邀	效開三平宵心全清	sieu	sjæu	ciau ¹	siu1
	輶	초	요俗초	을	餘昭	效開三平宵以次濁	jieu	Ojæu	iau ¹	jiu4
	杪	초	묘俗초	:물	亡沼	效開三上小明次濁	mieu	mjæu	miau ³	miu5
	鞫	초	쇼俗초	·솔	私妙	效開三去笑心全清	sieu	sjæu	tebiau ⁴	sau1
	趙	탁	작俗탁	*·	丑教	效開二去效徹次清	tʰau	tʰau	tʂʰuo ⁴	tsʰœk3
	臬	효	교俗효	궤	古堯	效開四平蕭見全清	kieu	kieu	ciau ¹	hiu1

<표98> 第17韻類 < 궤(鳩) : 궤(九) · 궤(救) * > - 流攝

NO	자 례	현 음	정수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궤 궤	嘔	구	우俗구	궤	烏侯	流開一平侯影全清	Oəu	?u	ou ¹	hou3
	漚	구	우俗구	·궤	烏候	流開一去候影全清	Oəu	?u	ou ⁴	ɥau1
	* 寇	구	후俗구	·궤	呼漏	流開一去候曉次清	həu	xu	kʰou ⁴	*
	輶	루	구正루	궤	落侯	流開一平侯來次濁	ləu	lu	lou ²	leu4
	姆	모	모正무	·물	莫候	流開一去候明次濁	məu	mu	mu ³	mou5
	孟	모	무俗모	물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eu	mju	mau ²	mœu4
	牟	모	무俗모	물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eu	mju	mou ²	mœu4
	眸	모	무俗모	물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eu	mju	mou ²	mœu4
	謀	모	무俗모	물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eu	mju	mou ²	mœu4
	眸	모	무俗모	물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eu	mju	mau ²	mœu4
	矛	모	무俗모	물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eu	mju	mau ²	mau4
	糴	모	무俗모	물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eu	mju	mou ²	mœu4
궤 궤	鞋	주	두正주	:궤	天口	流開一上厚透次清	tʰəu	tʰu	tʰou ³	tʰeu2
	謬	류	뮤俗류	·물	靡幼	流開三去幼明次濁	miəu	mjəu	miou ⁴	mœu6
	愁	수	추正수	쑤	士尤	流開三平尤崇全濁	dʒiəu	dʒʰju	tʂʰou ²	seu4
	皴	주	쑤正주	쑤	赤周	流開三平尤昌次清	teʰiəu	teʰju	tʂʰou ¹	tsʰeu1
	彪	표	표俗표	궤	甫然	流開三平幽幫全清	piəu	pjəu	piau ¹	piu1

위 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東國正韻』 제16운류, 제17운류에서 한국 한자음을 기준으로 한어 중고음의 효섭과 유섭의 운미 [-u(w)]를 표기하기 위해, 순경음 ‘ㅁ’을 덧대는 방식으로 추가시킨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東國正韻』에서 효섭과 유섭의 운미 [-u(w)]를 교정의 방법을 통해 표기하고 있는 것은 『東國正韻』이 음운체계에 있어 한어 중고음을 정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 『蒙古字韻』에서도 한어중고음의 음성운미 [-u(w)]가 지켜지지만, 입성은 소실된다. 『東國正韻』에서 한자음의 중성을 한어 중고음의 운미 8개에 모두 대응시키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순경음 ‘ㅁ’은 한어 중고음의 음성운미

[-u(w)]를 표기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뭉’의 음성적 특징을 ‘ㄱ’과 ‘ㅇ’의 공명음(불청불탁)이 동시에 자극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뭉’이 운미에 있을 때 초성 [m]과 달리 [-u(w)]로 사용될 수 있는 원리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효섭과 유섭의 운미는 [-u(w)]를 가리키므로 ‘뭉’의 초성 [m]과 달리 중성에서는 입이 열린 상태에서 닫히게 된다. 입이 닫힐 때의 목표지점이 순음 ‘ㄱ’이 되므로 [-u]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고, 후음 ‘ㅇ’도 같이 자극되므로 [-w] 소리와의 가깝게 된다.

(3) 순경음 ‘뭉’의 중성 활용

순경음 ‘뭉’은 『訓民正音』 「解例本」 用字例에서 ‘뭉, 如사뭉爲蝦, 드뭉爲瓠’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순경음 ‘뭉’은 소개되지 않는다. 이기문은 순경음 ‘뭉’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는데,²⁶³⁾ 『東國正韻』에서는 중성 8개의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제4권 16·17운류, 2,252자의 중성으로 쓰이고 있다. 유효홍에서 ‘뭉’은 주로 『東國正韻』 한자음이나 한어 음역 등 한자음과 관련된 표기에만 쓰였을 뿐 한국어 표기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고 했고, 불경언해에서 조사 ‘-는, 를’과 같이 쓰인 점을 들어 ‘뭉’의 음가는 자음이 아닌 모음일 것이라고 했다.²⁶⁴⁾

본고에서는 순경음 ‘뭉’이 『東國正韻』 23字母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한국 한자음 표기와는 별개로 중고음의 효섭과 유섭의 운미 [-u(w)]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근체시의 압운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를 알아야 한다. 『東國正韻』에서 한국 한자음만을 기록한다면 압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운서로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된다. 『東國正韻』 제4권의 16운류(ㄱ, ㄲ), 17운류(ㄷ, ㄸ)의 중성에는 일률적으로 순경음 ‘뭉’이 사용되고 있다. 『東國正韻』 23字母에 포함되지 않은 순경음의 사용은 終聲復用初聲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이다. 23字母에 포함되지 않은 ‘뭉’을 단지 중성에만 사용했다는 것은 한국 한자음과 구분하여 한어 중고음의 운미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순경음에 관해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東國正韻』에서는 성조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크게 26운으로 구분할 수 있는

263) 최영애, 『최영애 교수의 중국음운학 논집』, 학고방, 2011, 340쪽.

264) 유효홍, 「순경음 ‘뭉’의 중성 표기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제10권, 국어사학회, 2010.

데, 성조별로 나누면 91운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 16운은 중성 ‘ㄱ, ㄲ’, 중성 ‘ㅁ’으로 된 것으로 성조에 따라 ‘高(평)果(상)誥(거)’의 세 운목으로 세분할 수 있고, 제 17운은 중성 ‘ㄷ, ㄸ’, 중성 ‘ㅁ’으로 된 것으로 성조에 따라 ‘鳩(평)九(상)救(거)’의 세 운목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중성 표기에 대해 이돈주에서는 『東國正韻』의 ‘ㅁ’ 중성 한자는 훈민정음의 ‘ㄱ, ㄲ, ㄷ, ㄸ’의 4개 중성자에만 한하고 중성 ‘ㄱ, ㄲ’의 한자는 중고 한음에서 ‘효’섭에 해당하고 중성 ‘ㄷ, ㄸ’의 한자는 ‘류’섭에 해당하며 중성 ‘ㅁ’의 음가는 한어의 운미음 [w]와 대응한다고 하였다. 한편 유창균에서는 중성 ‘ㄱ, ㄲ, ㄷ, ㄸ’ 속에 벌써 운미 요소 [w]가 내재한다고 보므로 [ow]·[uw]이든 [o]·[u]이든 한국의 음운 관념으로는 이들이 구별될 리가 없는데 『東國正韻』에서 굳이 중성에 ‘ㅁ’을 쓴 이유는 순전히 압운상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²⁶⁵⁾

본고에서는 유창균에서의 분석과 같은 견해로 논의를 전개한다. 훈민정음의 음가 선택은 정교한데 유섭 ‘ㄷ’(뿔) 뒤에 ‘ㅁ’을 사용하여 [-u(w)]를 추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ㄷ’에 ‘ㅁ’이 사용되면 우섭(遇攝)의 ‘ㅇ’와 음가가 겹치게 되거나 ‘ㄷ’ 발음에 강한 입술 마찰음이 생겨 ‘ㅁ’(β,b) 소리에 가까워지게 된다. 진동이 강한 ‘ㅁ’이 운미에 불청불탁으로 사용된 예를 한국 한자음 혹은 중국 한자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ㅁ’의 사용은 음운 자질을 묘사한다기보다 압운을 알려주는 기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목할 점은 효섭과 유섭의 운미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중성 ‘ㅁ’을 일률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경우 초성·중성이 나타내는 한국한자음과 중성 ‘ㅁ’이 표기하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u(w)]와의 구분이 뚜렷해진다. ‘ㅁ’은 한국 한자음과 별개임을 나타내기 위해 중고 한어 36字母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경우 以影補來(以影補來) ‘ㄹ’와 마찬가지로 압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東國正韻』에서 ‘ㅁ’이 사용된 한국 한자음을 16攝의 효섭과 유섭에 비교했을 때 한국 한자음은 유섭의 ‘ㄷ’만 [-u(w)]에 부합하고, 나머지 ‘ㄱ, ㄲ’, ‘ㄸ’는 [-u(w)]에 부합하지 않는다. 압운할 때는 句尾의 韻尾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東國正韻』에서 효섭과 유섭에 해당하는 한자의 중성을 모두 ‘ㅁ’으로 채워 넣을 경우, 한국 한자음의 중성 ‘ㄱ, ㄲ’, ‘ㄸ’는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운미가 [-u(w)]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유섭의 한국 한자음에

265) 유효홍, 「순경음 ‘ㅁ’의 중성 표기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제10권, 국어사학회, 2010, 235쪽.

이미 ‘ㄷ’가 있는 경우에도 순경음을 사용한 것은 『東國正韻』에서 한국 한자음을 먼저 기록하고 중고음의 운미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자음을 주음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 경우 유섭(流攝)에 속하는 ‘ㄷ’(뫼)는 우섭(遇攝)의 ‘ㄷ’(ᄃ)와 혼동되지 않는다. 우섭에 해당하는 한어 중고음은 ‘遇[ɲjuo]’, ‘拘[kjuo]’, ‘矩[kjuo]’, ‘屨[kjuo]’로 효섭 및 유섭과는 다르다. 따라서 우섭에 속하는 한국 한자음의 발음이 ‘ㄷ’ 일지라도, 중성에 ‘뫼’이 없어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효섭과 유섭의 운미와 같지 않음을 알려주게 된다. 한어 중고음에서 효섭과 유섭의 운미 [-u(w)]는 운미의 개념에 해당하며 단운모 [u]는 효섭과 유섭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99> 中古音 · 『中原音韻』 · 『韻略易通』 · 『韻略匯通』 · 國語의 遇攝

攝	等	聲母	中原音韻	韻略易通	韻略匯通	國語	
遇	uo	1	幫系	u, iu	u	u	u
			端系				
			精系				
			見系				
		2	影系				
			幫系				
			莊系				
			見系				
	juo	3,4	非系	iu, u	u	u	u
			端系		y	y	y
			精系		u	u, y	u
			莊系		u	y	
			知系				
			章系				
見系							
影系	y						

<표99>266)를 보면 우섭의 한어 중고음의 운미는 [-uo]이지만 『中原音韻』 이후부터는 [-u]로, 『韻略易通』 · 『韻略匯通』부터는 3·4등에서 [-y]로 변화했다. 『詩經』 ‘國風·周南·關雎’의 關關雎鳩，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逑에서 鳩·洲·逑는 운미가 [-u(w)]로 압운이 된다. 關雎에서 압운되는 부분은 한국 한자음으로 ‘우’로 압운이 되지만, 단지 한국 한자음의 소리가 같다고 해서 압운이 되는 것이 아니다. 『詩經』의 幽部는 효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효섭의 운미 [-u(w)]는 복운모의 운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단운모의 [u]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뫼’으로 표기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한국 한자음만으

266) 안재철 「『韻略匯通』의 音價 推定, 『韻略易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418쪽.

로 효섭과 유섭의 운미를 알아내기 어렵게 된다.

근체시는 唐代에 완성되었는데 압운 규칙이 비교적 엄격하다. 이는 『唐韻』과 『廣韻』이 있어 운서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東國正韻』의 ‘몽’ 사용은 『東國正韻』이 한국 한자음을 기록함과 동시에 『廣韻』의 역할도 하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추측하게 한다. ‘몽’이 없이, 『東國正韻』의 한국 한자음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유섭의 ‘ㄷ’과 우섭의 ‘ㄷ’의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ㄱ, ㄲ’ · ‘ㅈ’가 효섭과 유섭에 포함되는지 알기 어렵게 된다.

순경음 ‘몽’을 효섭과 유섭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중성에 표기하게 되면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효섭과 유섭의 운미를 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섭과의 혼동도 피할 수 있게 된다. 한국 한자음만을 보존할 때 놓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東國正韻』은 한국 한자음을 중심으로 주음하면서 표준 운서로서의 기능도 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東國正韻』에서 중고음의 효섭과 유섭의 운미 [-u(w)]를 ‘몽’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東國正韻』의 음운체계가 한어 중고음을 반영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

<표100> 中古音 · 『中原音韻』 · 『韻略易通』 · 『韻略匯通』 · 國語의 效攝

攝	等	聲母	中原音韻	韻略易通	韻略匯通	國語	
效	au	1	幫系	au, au ,iau ;(uau)	au	au	au
			端系			iau, ou	
			精系			au	
			見系				
			影系				
	au	2	幫系	iau	iau	iau, au	iau, au
			知系			iau	
			莊系				
			見系				
	jæu, iɛu	3,4	影系	iau:au, au (uau)	iau	iau	iau
			幫系			iau, iou	
			端系			iau	
			精系				
			莊系				
知系	au						
章系							
見系	iau						
影系							

<표100>²⁶⁷⁾을 보면 『中原音韻』부터 효섭의 1·2等에서 중향복운모 [iau]가 사용되고

267) 안재철 「『韻略匯通』의 音價 推定, 『韻略易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보통화에서도 [iau](iao)가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효섭 1·2等에 개음 [-i-]의 사용이 나타나는 것은 『中原音韻』 및 보통화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한어 중고음 및 월어와는 구별된다. 현재 보통화에서 『東國正韻』의 ‘ㄱ’에 해당하는 효섭은 [-(a)o]²⁶⁸⁾로, 『東國正韻』의 ‘ㄲ’에 해당하는 효섭은 [-(i)ao]²⁶⁹⁾로 변하는 예가 보이지만, 월어에서 『東國正韻』의 ‘ㄱ’에 해당하는 효섭은 [-au], [-ou]로, 『東國正韻』의 ‘ㄲ’에 해당하는 효섭은 [-iu]로, 운미가 [-u(w)]로 일정하여 한어 중고음의 특징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월어에서 [iu]의 [i]는 개음이 아니라 주요원음의 개념이다.

董同龢는 『漢語音韻學』에서 월어에 개음 /-i-/가 있는 운모는 비교적 적고, 어떤 사람은 /-i-/를 반원음 [j]로 표기하여 성모에 넣으니, 월어에는 개음 /-i-/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월어는 자체 어음 연구 및 병음방안을 통해 성모와 운모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²⁷⁰⁾ 보통화에 대비되는 월어의 특징을 월어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할 점은 월어에는 개음이 없는 것이다. 대신 [j], [w]가 성모의 범주로 활용되고 있다. 월어에서 보통화의 운두(개음) /i-/·/u-/·/y-/는 주요원음 /i-/·/u-/·/y-/이거나 성모(반모음) [w]·[j]의 범주에 속한다. 월어에서 [i-]가 주요원음일 수 있는 이유는 월어에는 중향복운모 [-iau]²⁷¹⁾, [-iou]가 없기 때문이다. 중향복운모의 개음 /-i-/를 월어에서는 개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모 [j]로 본다. 『東國正韻』의 搥母와 일맥상 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효섭과 유섭의 운미 [-u(w)]는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월어에 온전히 남아있다. 이는 오방언 혹은 민방언의 운미에서 효섭과 유섭의 운미 [-u(w)]에 변화가 발생한 것과 대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²⁷²⁾ 월어에서 입성·비음운미가 아닌 운미는 ‘[ai]·[ei]·[æy]·[oi]·[ui]·[au]·[eu]·[ou]·[iu]’로 [-i]와 [-u]가 있는데 이 중 효섭과 유섭에 해당하는 [au]·[eu]·[ou]·[iu]는 『東國正韻』에서 중성 ‘뫑’의 사용과 대응한다. 월어에서 『東國正韻』의 ‘ㄱ’에 해당하는 효섭은 [-au], [-eu], [-ou]로, 『東國正韻』의 ‘ㄲ’

1994, 411쪽.

268) 고(高), 오(敖), 도(道, 刀), 포(砲), 모(茅, 毛), 조(槽), 초(草), 소(騷), 호(好), 로(勞)

269) 교(驍), 교(蹻), 교(翹), 요(鴞), 도(貂), 토(褫), 도(迢), 노(鑪), 묘(叢), 표(漂), 뽕(瓢), 묘(苗), 초(焦), 초(梢), 쇼(瀟), 쏘(紹), 요(腰), 효(器), 료(聊)

270) Yale Romanization(1970, 황백비·Gerald P.Kok), 廣州話拼音方案 (1980, 饶秉才, 修订後的版本), 粵語拼音方案 (1993, 香港語言學會)

271) 월어에는 복운모 /ao/가 없고, /au/만이 있다. [u]가 [o]로 변화하지 않았다.

272) 高: 월어 [kou], 복주 [kɔ], 상해 [kɔ]

到: 월어 [tou], 복주 [kau]·[tɔ], 상해 [tɔ]

에 해당하는 효섭은 [-iu]로, 운미가 [-u(w)]로 일정하다. ‘ㄱ’의 예로 ‘고(高:[kou]), 오(敖:[ŋau]), 도(道:[tou]), 포(砲:[p^hau]), 모(茅:[mau]), 조(槽:[t^hou]), 초(草:[t^hou]), 소(騷:[sou]²⁷³), 호(好:[hou]), 로(勞:[lou])’가 있고, ‘교’의 예로 교(驍:[hiu]), 쿵(蹺:[hiu]), 쵸(翹:[kiu]), 요(鴉:[hiu]), 도(貂:[tiu]), 툼(褌:[t^hiu]), 또(迢:[tiu]), 뇨(鎧:[niu]²⁷⁴), 묘(森:[piu]), 표(漂:[p^hiu]), 뽕(瓢:[p^hiu]), 묘(苗:[miu]), 조(焦:[t^hiu]), 초(梢:[ts^hiu]), 쇼(瀟:[siu]), 쵸(紹:[fiu]), 요(腰:[jiu]), 효(囂:[hiu]), 료(聊:[liu])가 있다.

월어의 [au]·[eu]·[ou]·[iu]의 운미 [-u]는 주요원음에 따라 자질을 달리한다. 특히 [eu]의 [e]는 짧게 발음되므로, 상대적으로 운미 [-u]는 두드러지게 들린다.²⁷⁵ 보통화의 ao[au]·iao[iau]·iou[iou]의 [-u]와는 구분이 되는 [-u]라 할 수 있다. 월어의 운미 [-u]는 보통화의 전향복운모 ou[ou]의 [-u]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월어의 운미 [-u]는 보통화의 운미 [-u]보다 자질이 뚜렷하다. 하지만 성모 [w]만큼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u]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보통화의 [-u]와 표기가 겹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중국의 방언을 로마자로 병음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가 선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中原音韻』에서 강섭(江攝)의 1·2등에 개음 [-i-]가 나타나는데 『東國正韻』과 월어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中原音韻』에서 함섭(咸攝)의 1·2등에 개음 [-i-]가 나타나고, 3·4등에서는 비음 운미 [-m]이 [-n]으로 변했지만, 『東國正韻』과 월어에서는 개음 [-i-]가 사용되지 않으며 비음운미에서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6. 중고음의 청·탁, 월어의 성조, ‘ㅇ’·‘ㅎ’·‘ㅇ(옛이음)’

한어 중고음의 청·탁, 월어의 성조, ‘ㅇ’·‘ㅎ’·‘ㅇ(옛이음)’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살펴봤다. 현재 성조를 묘사하는 방법으로 오도표기법의 조치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273) [au]·[eu]와 관해서는 월방언내에서도 지역차가 있다. 桂平: [ŋeu], 新興: [seu]

274) 韶關: [jiu], 桂平: [nau], 香港: [nau], 澳門: [lau], 北海: [niu], 開平: [ŋiu], 恩平: [ŋiu] 등 지역에 따라 발음의 차이가 컸다. 성모와 주요원음의 차이는 있지만, 운미는 [-u]로 일치했다. 開平, 恩平等 광동성에서도 서남쪽으로 갈수록 성모에서 [ŋ] 사용이 많이 발견된다.

275) 這個 ‘u’ 張口比[au]中的 ‘u’ 要小, 比較接近純粹的 ‘u’ 音. 謝鈺屏, 『國粵語互動速成』, 成都時代出版社, 2010, 10쪽.

고 있지만, 음높이를 통한 성조의 분석은 성조의 실체라기보다는 성조를 객관적으로 표기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음높이 외에 성조의 실체를 묘사하는데,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힘의 차이로 결정되는 음색을 활용할 수 있다. 음색의 활용은 조음 방법을 청·탁으로 표기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현재까지 공명강의 구분을 통해 중국어의 성조를 분석한 시도는 없었으며, 공명강을 통해 음색을 구분한 가장 근접한 예로 ‘ㅇ’·‘ㅎ’·‘ㅇ(엠티응)’과 각자병석 ‘ㄱ, ㄴ, ㅁ, ㄷ, ㄹ, ㅎ’를 들 수 있다. 성조의 실체를 ‘음색’과 ‘음강(音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어 중고음의 청·탁, 월어의 성조, ‘ㅇ’·‘ㅎ’·‘ㅇ(엠티응)’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청취적 관점에서의 성조

(1) 공명강에 따른 성조 구분

보통화의 ‘1·2·3·4성’은 주로 오도표기법으로 설명되는데, 청취 측면에서의 성조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1성의 조치는 ‘55’, 2성의 조치는 ‘35’, 3성의 조치는 ‘214’, 4성의 조치는 ‘51’이라는 것은 1성은 평평하고, 2성은 상승하고, 3성은 하강 후 상승하고, 4성은 높은음에서 하강하는 수준의 정보이다. 오히려 음높이의 시작과 끝점을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성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도표기법은 표기상의 기법으로 활용하고 성조의 실체에 관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1성을 ‘55’로 나타내는 것은 1성의 음색에 관한 설명은 결여된 것이다. 성조의 평조의 개념은 단순한 일정 음높이의 발성이 아니다. 일정한 음높이의 발성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훈련을 거치지 않은 외국인이 1성을 연마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²⁷⁶⁾ 성조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청취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다.²⁷⁷⁾

276) 중국어는 성조 언어이고 한국어는 비성조 언어이므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어를 교수하거나 학습할 때, 성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단어의 성조를 사전에 있는 그대로 발음한다고 해도 반드시 유창한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성조도 일정한 언어환경에서는 동일한 음높이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이미경, 「중국어 동일 성조 음높이 변화」, 『한국중국어학회』, 제26집, 중국언어연구, 2008, 339쪽.

277) 첫째,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길이를 담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어의 단모음의 길이는 한국어 단모음의 길이보다 충분히 길게 발음해야 한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는 모음의 길이를 5초 이상 과장하여 길게 발음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중략)

둘째, 성조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에 처음부터 단번에 성조를 구현하려고 하지 말고 단모음은 ‘약강’의 지렛

(a) 1성은 성대 진동음이 2성, 3성, 4성을 형성할 정도의 입체감을 갖는 직선과장으로 조치는 '55'이다.

(b) 2성은 1성이 형성해낼 수 있는 파장 폭의 중간지점에서 상승하는 곡선 형태로 조치는 '35'이다.

(c) 3성은 1성이 형성해낼 수 있는 파장 폭의 중간지점에서 하강하는 곡선 형태로 조치는 '31'이다. 3성은 최하로 하강한 곡선²⁷⁸⁾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때 조치는 '214'이다.

(d) 4성은 1성이 형성해낼 수 있는 파장 폭의 최고지점에서 전체적으로 울려주며 하강하는 곡선 형태로 조치는 '51'이다.

보통화의 1성은 성대 진동음이 안면뿐만 아니라 몸통 전체로 골고루 퍼져나갈 때 형성된다. 평평하지만 하나의 육면체와도 같은 입체감을 형성하며 발성해야 한다. 2성과 3성, 4성의 폭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입체감을 지니며 평평한 곡선이 상반신의 위와 아래로 펼쳐져야 한다. 이때 공명강의 폭이 넓을수록 입체감이 큰 1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음색은 더 또렷하고 심미적으로 들린다.²⁷⁹⁾

한국인의 중국어 학습을 예로 살펴보면 한국인이 중국어 발음과 성조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한국인이 만들어내는 중국어에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성대 혹은 성대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없다. 후두강에서의 공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 전통 성운학의 표현을 빌자면 전탁자의 발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반쪽짜리 중국어 음성신호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비음 소리 '은', '응'을 중국어의 'en', 'ng'에 그대로 대입시킬 경우 의사소통에 지장은 없을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발음체계는 몸에 체화되기 힘들며 빨리 발음할 경우 엉터리처럼 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목의 원리를 적용시키고, 복모음도 '약강' 또는 '강약'의 지렛대 원리를 응용해야 한다. 장호득, 「지렛대 원리에 따른 중국어 성조 실현과 교육 방법」, 『비교문화연구 제30집』, 비교문화연구소, 2013, 273쪽.

27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성은 음역의 최저점에서 낮은 음높이 목표점 [L[^]] 을 가진다. 따라서 3성의 교육은 낮은 목표점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손남호, 「중국어의 성조 음높이 변화와 목표점 분석」, 『중국어언어연구』, 제23집, 한국중국어학회, 2006, 529쪽.

279) 이상에서 볼 때, 4성에서 중국인의 음역은 한국인보다 넓고 기울기가 급하였고,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기울기를 보였다. (중략) 4성의 기울기 변화에 대한 분석을 볼 때, 한국인이 중국인에 가까운 4성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4성의 음역을 더 넓혀야 하고, 다음절어에서 음절 경계부분과 비경계부분의 기울기 차이를 크게 표현해야 한다. 이미경, 「중국어 동일 성조 음높이 변화」, 『중국어언어연구』, 한국중국어학회, 제26집, 2008, 338쪽.

중국어 성조의 성대 아래 지점에서 담당하고 있는 음성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영성모로 표현되는 중국어 운모 발성으로 중국어의 성조를 음높이로만 이해했을 때 성조의 발성의 폭과 같은 정보를 놓치게 된다.²⁸⁰⁾

인체의 공명강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공명강 구분에 대한 느낌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음성의 공명강에 작용하는 무게중심에 따른 음색은 실제로 성조를 구분짓는 요소이다. 보통화는 공명강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외국인이 음색을 흉내낼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월어는 공명강의 지점에 따른 음색에 대한 이해 없이는 소화하기 힘들다. 이는 반대로 공명강에 따른 음색 차이가 성조의 실체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보통화와 월어의 음색 차이

보통화는 성조가 4개이고 월어는 성조가 6개(9성 6조)이다. 표준 중국어인 보통화의 성조는 오도표기법을 통해 성조의 대략적인 음높이와 음의 이동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언의 성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획일적으로 오도표기법의 '1-5'의 수치를 사용하는 것은 성조가 지닌 음색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은 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음높이의 수치로 성조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오도표기법의 수치만으로 방언의 성조를 비교한다면 방언과 방언 사이의 수치상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청취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힘들다. 오도표기법은 보통화의 성조의 음높이를 전달하는 것에 적합하지 방언의 음높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 음색의 실제적인 묘사 없이 방언의 음높이의 차이점을 가상의 수치로 비교하여 나타내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점이 없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절대적인 기준은 인체의 공명강의 무게중심이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보통화와 북경어의 음색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화는 북경 어음을 기준으로

280) 본 논문은 중국어에서 동일한 성조로 구성된 단어의 음높이를 음향실험을 통해 대조 분석하였고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에 표기된 성조와 음높이 곡선(pitch contour)은 같지만 동일한 모든 음절의 음높이가 동일하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동일한 성조로 구성된 2음절이상 4음절 이하의 단어는 성조내림 현상으로 인해 후행음절의 시작점과 끝점이 선행음절보다 낮게 실현된다.

셋째, 중국인은 대부분의 음절에서 한국인보다 음역이 넓다. 이미경, 「중국어 동일 성조 음높이 변화」, 『중국언어연구』, 제26집, 한국중국어학회, 2008, 338쪽.

하고 있기에 오도표기법의 수치를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경어와 방언의 음색은 많이 다르다. 이 경우에도 오도표기법의 수치로 상대 비교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보통화와 방언 중에서 월어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다.

보통화와 월어의 1성과 2성의 청취적인 측면의 음색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오도표기법의 조치는 각각 '55'와 '35'로 같다. 이 경우 성조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도표기법 이외에 성조를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 더 필요하다. 음색은 공명장을 울리는 지점의 무게중심의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공명장을 기준으로 성조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통화의 경우 성조가 4개이고 그 중 평조가 1개이므로 평조를 기준으로 오도표기법에 따라 호흡하면 성조에 대한 대략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월어의 조치는 6개이고 그 중 평조가 3개이다. 평조가 3개인 경우 음높이에 관한 정보 위주인 오도표기법은 형식상의 수치만 남게 된다. 오도표기법의 조치는 절대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질의 음이 '55', '33', '22'를 구분하게 하는지 알려주지 못한다.

월어의 단음절 [xi]는 아래와 같이 6개의 서로 다른 조치를 갖는다. 예자와 병음방안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

陰平= 詩 (1성) '55' 혹은 '53'

陰上= 史 (2성) '35'

陰去= 試 (3성) '33'

陽平= 時 (4성) '21' 혹은 '11'

陽上= 市 (5성) '13' 혹은 '23'

陽去= 事 (6성) '22'

월어의 조치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정립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이는 표기상의 약속이며 6개의 다른 음색이 있음을 알려주는 수단에 가깝다. 절대 음감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6개의 조치를 음높이의 개념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월어 사용자가 모두 절대 음감의 소유자는 아니므로 월어의 조치는 오도표기법의 논리적인 허점을 알려주기도 한다. 보통화는 기준 음이 되는 평조가 한 개 밖에 없어서 오도표기법의 논리적 타

당성이 있지만 월어는 평조가 3개이므로 상대적인 음으로 조치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높은음’, ‘낮은음’, ‘중간음’이라는 정보를 숫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다.

오도표기법에 근거할 경우 월어의 평조에 해당하는 1성, 3성, 6성 중 하나의 성조의 정보를 전달하려면 상대적인 음을 구분하기 위해 다른 성조의 음높이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1성, 3성, 6성을 단번에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월어의 3개의 평조를 구분하게 하는 것은 음높이의 정보가 아니라 공명강의 지점과 공명강을 채우는 음색의 모양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 1음절로 발성한 평조가 3개의 평조 중 어느 성조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월어의 성조를 한 번에 빠르게 발성했을 때는 음높이의 개념이 아니라 음절을 형성할 때의 서로 다른 과장의 모양의 개념으로 성조를 구분한다. 이때 과장은 질량에 대한 느낌을 생각하면 쉽게 모양을 그려낼 수 있다. 1성에서 6성으로 이동할수록 가벼운 느낌이 점차 무거운 느낌으로 이동하는 개념이다. 중국 성운학의 표현법으로 청음에서 탁음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본고에서의 논의로 표현하면 공명강의 무게중심이 안면에서 복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6개 조치는 각각의 음색을 갖으며 평조 역시 공명강에 의한 음색을 갖기 때문에 3개의 평조 중 어떤 하나의 평조만 발성해도 성조 변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음성을 들을 때 청취의 측면에서 듣는 음의 높이는 자연 음계의 개념보다는 腔이 만들어 내는 상대적인 음색 차이이다. 이때 음높이는 腔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다. 월어의 성조는 腔의 개념을 이해하고 腔과 腔사이에서 음성의 기운을 이동시키며 음색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구현할 수 있다. 성조의 평성이 한 개 이상인 방언의 발음 분석은 음색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조의 실체는 표기상의 기법과 더불어 실체에 근접한 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이때 보통화 혹은 방언의 발음 체계를 구성하는 음성신호의 원천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이해는 언어와 관련된 보다 깊은 문화와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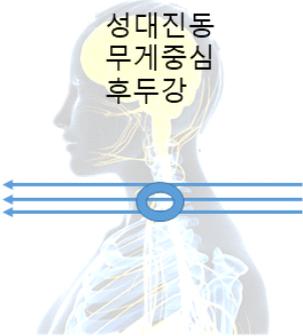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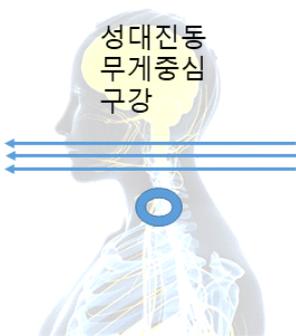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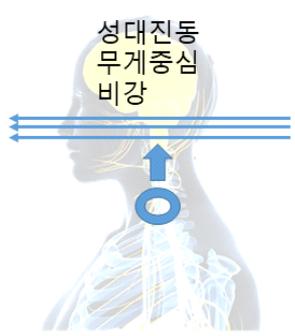
2) ‘ㅇ’·‘ㅎ’·‘ㅇ(옛이응)’으로 살펴본 월어의 6조

(1) [ʔ]과 ‘ㅇ’·‘ㅎ’·‘ㅇ(옛이응)’의 문자 디자인 고찰

‘ㅇ’·‘ㅎ’·‘ㅇ(옛이응)’은 모두 뚜렷한 장애가 없는 소리이다. ‘ㅇ(옛이응)’은 기류가 비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대 진동음의

무게중심이 후두강, 구강과 구별되어 비강에 위치할 때 형성되는 음색을 통해 구별되는 자질이다. ‘ㅇ’·‘ㅎ’·‘ㅇ(옛이응)’은 모두 성대 진동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공명강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음색으로 구분되는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ㅇ’·‘ㅎ’·‘ㅇ(옛이응)’의 문자 디자인에 대해 살펴본다.

<표101> [ʔ]과 ‘ㅇ’·‘ㅎ’·‘ㅇ(옛이응)’의 문자 디자인 고찰

‘ㅇ’ [ʔ] (후두강)	‘ㅎ’ [ʔ] (구강)	‘ㅇ(옛이응)’ [ʔ] (비강)
 <p>성대진동 무게중심 후두강</p> <p>디자인 : ‘ㅇ’ 목구멍</p>	 <p>성대진동 무게중심 구강</p> <p>디자인 : ‘ㅎ’ : 목구멍 위의 무게중심</p>	 <p>성대진동 무게중심 비강</p> <p>디자인 : ㅇ(옛이응) : 무게중심 비강 : 아음</p>
성대진동 [ʔ] ↔ [ʔ]	접근음 [ʔ] ↔ [j]	비음 [ʔ] ↔ [ŋ]

훈민정음 ‘ㅇ’·‘ㅎ’·‘ㅇ(옛이응)’를 문자 디자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ㅇ’은 성대 진동음이 후두강을 위주로 공명하는 음성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고, ‘ㅎ’은 성대 진동음이 구강을 위주로 공명하는 음성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ㅇ(옛이응)’은 성대 진동음이 비강을 위주로 공명하는 음성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ㅎ’은 ‘ㅎ’보다는 알아차청이 되므로 ‘ㅎ’위에 획 하나를 추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청 ‘ㅎ’은 소리가 영길 수 있어 전탁자 ‘ㅎ’이 될 수 있다. ‘ㅎ’은 후음이지만 전탁자 ‘ㅎ’은 현대 음운학에서는 연구개 유성음으로 아음의 범주에 속한다. 후음에서는 소리가 생성되고 아음에서는 소리가 형상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ㅇ(옛이응)’의 문자 디자인은 ‘ㅇ’에 위로 상승하는 획의 형상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성대 진동음이 비강으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ㅇ(옛이응)’은 형상이 갖춰진 소리로 아음에 속하지만, 공명음이므로 불청불탁에 속한다. 『訓民正

音』「解例本」 중성해에서 ‘ㅇ(옛이응)’을 (공명의 발생이 아닌) 촉급하게 발생하면 ‘ㄱ’으로 변하여 급하게 되고(입성이 될 자질을 갖추게 되고), ‘ㄱ’을 서서히 발음하면 ‘ㅇ(옛이응)’이 되어 느리게 된다(공명음이 된다)²⁸¹⁾고 언급하고 있는데, ‘ㅇ(옛이응)’과 ‘ㄱ’이 짝을 이루는 소리임을 물리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현대 음운학의 관점에서 보면 유성 연구개 비음과 유성 연구개 파열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성대 진동음이 비강으로 유입되면 유성 연구개 비음이 되고 성대가 진동할 때 촉급하게 파열하면 유성 연구개 파열음이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했을 때 훈민정음의 ‘ㄱ’은 현대 음운학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정확히 구분되는 개념이 아닌 성대에 촉급한 파열이라는 장애가 발생하는 음으로 ‘ㅇ(옛이응)’과 짝을 이루고, ‘ㄱ’과 대비되므로 유기음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인지하는 ‘ㄱ’에 대한 정의에 부합한다.

(2) ‘ㅇ’·‘ㅎ’·‘ㅇ(옛이응)’ 육면체 입체값·음색

후두강은 그림 ‘ㄴ’으로 상형화해서 ‘ㅇ’에 대입하고, 구강은 ‘ㄹ’로 상형화해서 ‘ㅎ’에 대입하고, 비강은 ‘ㄷ’로 상형화해서 ‘ㅇ(옛이응)’을 육면체 안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다음 <표10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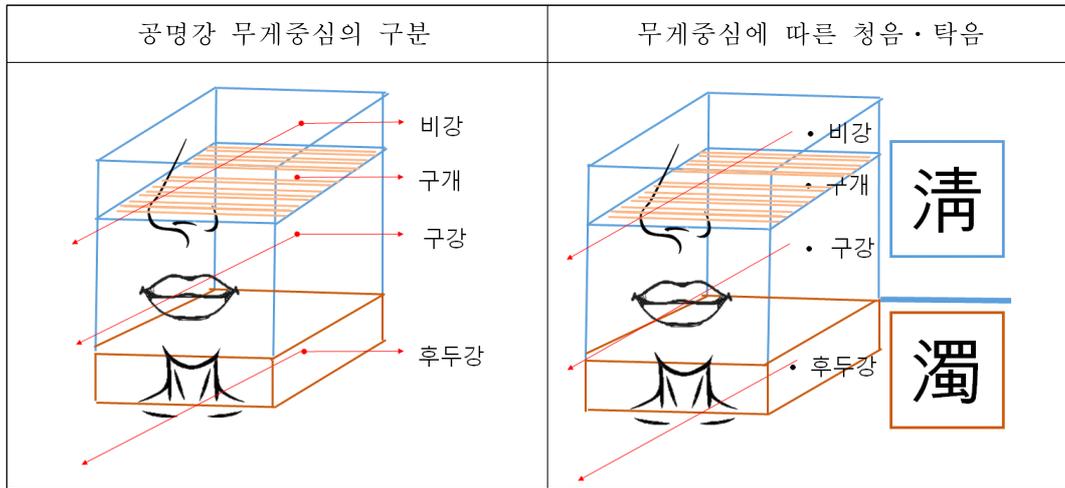
<표102> ‘ㅇ’·‘ㅎ’·‘ㅇ(옛이응)’과 ‘ㄴ’, ‘ㄹ’, ‘ㄷ’

‘ㅇ’ [ʔ] (후두강)	‘ㅎ’ [ʔ] (구강)	‘ㅇ(옛이응)’ [ʔ] (비강)
[ʔ] ↔ [ʔ]	[ʔ] ↔ [j]	[ʔ] ↔ [ŋ]

281) 如牙之ㅇ與ㄱ爲對, 而ㅇ促呼則變爲ㄱ而急, ㄱ舒出則變爲ㅇ而緩

‘ㅇ’·‘ㅎ’·‘ㅇ(옛이응)’ 순서에 따라 그림에서 ‘ㅅㅅ’, ‘ㅍㅍ’, ‘ㄹ’의 음색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ㅅㅅ’, ‘ㅍㅍ’, ‘ㄹ’에 따른 음색 차이가 한어 중고음에서는 청음과 탁음으로 표현되고, 월어에서는 초분절자질인 성조의 실체가 된다. 공명강의 무게중심을 중고음의 청음과 탁음에 대비시켜 살펴본 것은 다음 <표10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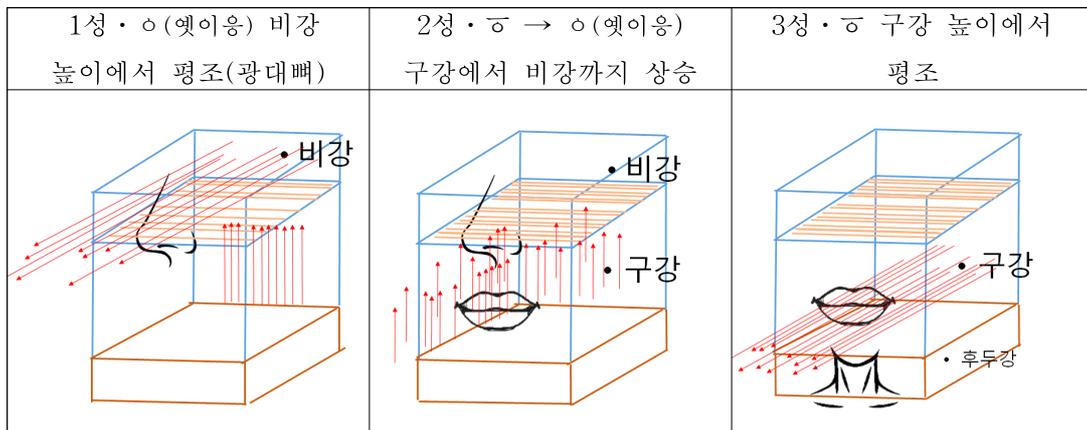
<표103>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따른 청음·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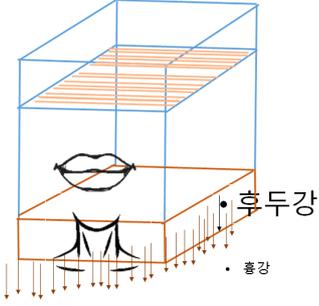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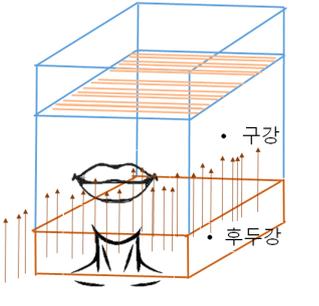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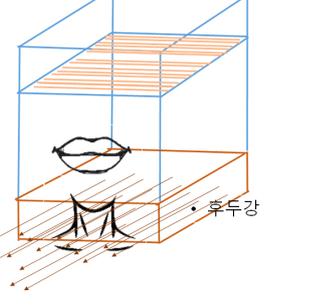


(3) ‘ㅇ’·‘ㅎ’·‘ㅇ(옛이응)’으로 분석한 월어 6조

‘ㅇ’·‘ㅎ’·‘ㅇ(옛이응)’에서 살펴본 조음의 원리를 활용하여, 월어의 6조를 공명강으로 구분하여 묘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표104> ‘ㅇ’·‘ㅎ’·‘ㅇ(옛이응)’으로 분석한 월어 6조



4성 · 〇 → 〇 (후두강 · 하강) 후두강에서 흉강으로 하락	5성 · 〇 → ㄱ 후두강에서 구강까지 상승	6성 · 〇 평조 후두강 높이에서 평조
		

- ① 월어의 1성은 음성의 무게중심이 비강(광대뼈) 높이에서의 직선이다.
- ② 월어의 2성은 음성의 무게중심이 구강에서 비강 높이로 상승하는 곡선이다.
- ③ 월어의 3성은 음성의 무게중심이 구강 높이에서의 직선이다.
- ④ 월어의 4성은 음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서 더 아래로 하강하는 곡선이다.
- ⑤ 월어의 5성은 음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서 구강 높이로 상승하는 곡선이다.
- ⑥ 월어의 6성은 음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 높이에서의 직선이다.

후두강 ‘ㄴ’, 구강 ‘ㄹ’, 비강 ‘ㄷ’의 무게중심에 따른 음소의 구분은 세종에 의해 ‘ㅇ’·‘ㅎ’·‘ㅇ(옛이응)’로 분석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ㅇ’·‘ㅎ’·‘ㅇ(옛이응)’의 체계를 지킬 때 발성의 소리는 정확해질 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 들린다. 중국 성운학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자음의 정음을 추구하면서도 음성의 원리를 꿰뚫어 이를 문자로 형상화한 것이다.

IV. 결론

본고에서의 연구를 통해 범어의 무성음·유성음, 한어 중고음의 청·탁, 월어의 음조·양조, 『東國正韻』 23자모의 청·탁의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전통 성운학의 四聲七音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무성 무기음·무성 유기음·유성음·비음과 더불어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힘에 따라 달라지는 ‘음색’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설·순·치·반설·반치음 뿐만 아니라, 실체가 불분명한 한어중고음의 후음 喻母와 影母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喻母와 影母는 성대 진동음으로, 마찰 자질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공명강에 작용하는 무게중심의 차이로 음색이 달라지는 것으로, 喻母는 성대 진동음이 후두강에 위치하여 두텁고 저음의 음색이며, 影母는 성대 진동음이 구강으로 퍼져나가 상대적으로 자질이 뚜렷하고 고음의 음색이라 할 수 있다. 喻母는 탁음이고 影母는 청음으로 월어의 양조·음조 및 훈민정음 ‘ㅇ’·‘ㅎ’의 문자에서도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ㅇ’은 순경음 ‘ㅁ’에 활용되어, 입술은 가볍고 후음은 강하게 내는 것에서 구체적인 음가를 확인할 수 있고, ‘ㅎ’은 ‘ㄷ’에 활용되어 반설음 [-l]을 舌內入聲 [-t]로 변화시키는데 활용된 것에서 구체적인 음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은 당시 喻母와 影母의 음성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ㅇ’과 ‘ㅎ’으로 형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한자음의 바탕에서 한어 중고음의 운미까지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喻母와 影母는 성대 진동음으로 기타 조음 기관에서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초분절자질이라 할 수 있는 ‘음색’의 차이를 통해서 구분되는 자질이라 할 수 있다. 국제음성기호에서 소리의 장단·고저·강약·역양 등의 초분절음을 표기하기 위해 구별 부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음색’의 차이를 표기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喻母를 영성모 ‘∅’로 표기하고, 影母를 성문 파열음 [ʔ]으로 표기한 것은, 喻母와 影母가 결국엔 성대 진동음이라는 것 외에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영성모 ‘∅’은 음성기호가 아닌 부호로서 정확히 어떤 음소를 표기하고자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성문 파열음 [ʔ]도 影母의 자질을 제대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에서 중고 한어 36字母의 청·탁, 월어의 성조, 『訓民正音』 「解例本」의 ‘ㅇ’과 ‘ㅎ’에 대한 정의 및 『東國正韻』 한자음의 ‘ㅁ’·‘ㄷ’에 사용된 ‘ㅇ’·‘ㅎ’의 대응 관계를 근거로 한어 중고음의 喻母 및 훈민정음의 ‘ㅇ’은 차탁·후음으로 성대 진동음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 위치하므로 국제음성기호로 성문 파열음인 [ʔ]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ʔ]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발성 습관에서 독립된 분절 음소로 확인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표기상의 방편으로 성대 진동음을 묘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의 影母 및 훈민정음의 ‘ㅇ’은 전청·후음으로 성대 진동음이 구강으로 퍼져나가므로, 경구개 접근음인 [j]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影母가 곧 [j]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喻母와의 대비를 고려했을 때, 국제음성기호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음성기호라 할 수 있다. [j]이 성모에 위치할 때는 무게중심이 구강에 위치한 성대 진동음을 나타내고, 입성 소실을 나타낼 경우 [j]가 아닌 성문 파열음인 [ʔ]으로 표기한다고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입성 소실을 나타내는 것은 독립 음소라고 인정하기 보다는 표기상의 방편으로 『洪武正韻譯訓』에서도 입성 소실을 나타낼 때 불청불탁 ‘ㅇ’이 아닌 전청 ‘ㅇ’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어 중고음의 疑母 및 훈민정음의 ‘ㅇ(옛이음)’은 차탁·아음으로 성대 진동음이 비강으로 퍼져나가므로, 국제음성기호로 [ŋ]으로 표기된다. 초성에서의 [ŋ]의 사용은 월어를 포함한 중국 방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조선 전기 우리말의 언어 습관과 어울리지 않는 ‘ㅇ(옛이음)’을 창제한 이유는 중국 성운학의 四聲七音의 원칙을 지키면서, 범한대음 한자를 훈민정음으로 음역하기 위한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한어 중고음의 日母 및 훈민정음의 ‘ㄷ’은 차탁·반치음 [n_r]으로 중국 방언 중 주로 월어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日母는 월어에서 [j]으로 정착되고, 한국 한자음에서 ‘ㅇ’으로 정착되었으며, 범한대음에서 치경 비음 [ɲ]을 음역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마찰 자질이 없는 공명음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범어의 치음·비음 ‘ña’에 대한 불공의 범한대음 한자가 穰인 것과 『東國正韻』의 반치음이 穰母인 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日母의 추정음으로 칼그렌의 [n_rz]가 있는데, [n_rz]는 日母가 남송 이후 중원 혹은 북방 음에서 [z]로 정착화되는 과정의 소리를 추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고에서 한어 중고음의 음운을 고찰함에 있어, 『訓民正音』 「解例本」 및 『東國正韻』 한자음을 근거로 활용하였다. 『東國正韻』 23자모에서 순중·순경(4개), 설두·설상(4개), 치두·정치(5개)의 분화를 구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東國正韻』 23자모는 중고 한어 36자모뿐만 아니라, 『廣韻』 41성모의 반절 상자의 전청·차청·전탁·차탁과 일치했다. 또한 『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 8개를 한어 중고음의 운미 8개에 대응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모에서의 청·탁이 일치하고, 운미에서 교정음을 통해서라도 한어

중고음의 운미를 표기하고자 한 것은 『東國正韻』 한자음의 연원을 한어 중고음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悉曇字記』는 지광이 편찬하고, 파스파문자는 파스파가 창제했듯이, 훈민정음은 세종이 창제한 것이다. 따라서 훈민정음에는 세종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종은 음성학자임과 동시에 권력자였으므로 『東國正韻』 편찬을 지시할 수 있었고, 직접 총지휘를 하였는데, 『東國正韻』에는 세종이 생각한 정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훈민정음을 원형으로 사용한 『東國正韻』 한자음은 세조까지만 유지되고, 인수대비 이후 훈민정음은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우리말 한자음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현재 한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東國正韻』 한자음이든 우리말 한자음이든 훈민정음은 지금의 한글로 발전하여, 우리 스스로의 문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다. 이에 훈민정음에서 의도한 어음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세종이 표현하고자 한 정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東國正韻』 한자음은 강요되지 않았다. 『東國正韻』 한자음은 폐지된 한자음 혹은 이상적인 한자음이었다는 평가보다는 6-8세기에 확립된 우리말 한자음을 우리의 문자로 최초로 구현한 우리 한자음의 원형이라는 평가가 먼저여야 할 것이다. 『東國正韻』 한자음에 보이는 기괴하다고 평가받는 교정음인 ‘ㄹ’과 ‘ㄷ’의 ‘ㄹ’은 분리하여 걷어낼 수 있게 설계된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초성의 ‘ㄹ’·‘ㅇ(옛이음)’·‘ㄷ’ 역시 정확한 독음을 몰라 ‘ㅇ’ 혹은 제로 음가로 읽어도 우리말 한자음 사이에서 혼동이 오지 않는다. ‘ㄷ’을 ‘ㄹ’로 읽어도 역시 혼동이 오지 않는다. 세종은 우리말에 혼동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정음이라고 여기는 자질을 문자로서 제시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어 중고음의 음운을 연구할 때 훈민정음을 참조할 수 있고, 창제 당시 훈민정음의 어음을 연구할 때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을 참조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은 운서 및 운도를 통해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고, 한어 중고음의 청·탁 및 운미의 흔적은 현재 월어에 가장 잘 남아있다. 훈민정음 창제는 범어 및 중국 성운학을 통해 음성의 원리를 배우고, 조음의 원리를 음소 문자로 상형해낼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訓民正音』 「解例本」에 제자 원리가 담겨있다. 한어 중고음 및 훈민정음의 연구에 있어, 비교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넓혀나갈 때 어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면밀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가나다순, 알파벳순 및 연대순

【단행본】

- 강대현, 『실담자기 역해』, 올리브그린, 2017.
- 강신항, 『사성통해연구』, 신아사, 1980.
- 강신항, 『韓漢音韻史研究』, 월인, 2012.
-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 김규현, 『대당서역기』, 글로벌콘텐츠, 2013.
-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 김무봉, 『역주육조법보단경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
- 김주필, 『국어의 음운현상과 음운변화 연구』, 역락, 2011.
- 김슬옹,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2015.
- 김슬옹,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 박이정, 2018.
- 김태경, 『상고중국어 음운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어원』, 학고방, 2017.
- 나찬연, 『월인석보 서』, 경진출판, 2018.
- 나찬연, 『훈민정음의 이해』, 월인, 2012.
- 박지명·이서경, 『산스크리트 반야심경』, 동문선, 2010.
- 박형익, 『한국 자전의 역사』, 역락, 2012.
- 송철의,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오중필, 『훈몽자회3360』, BOOKK, 2018.
- 이돈주, 『한자학총론』, 박영사, 2012.
- 이해우, 『현대중국어음운론』, 신아사, 2013.
- 심소희 편역, 林濤·王里嘉 著, 『중국어 음성학』, 교육과학사, 2013.
- 전순환,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 지식과 교양, 2012.
- 장요한 외, 『『석보상절』권 24와 『월인석보』권 25의 역주 및 비교 연구』, 역락, 2014.
- 정경일, 『규장전운·전운옥편』, 신구문화사, 2008.
- 정광, 『훈민정음과 파스파문자』 역락, 2011.

- 정광, 『한글의 발명』, 김영사, 2018.
- 최영애, 『최영애 교수의 중국음운학논집』, 학고방, 2011.
-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 최영애, 『중국어란 무엇인가』, 통나무, 2003.
- 최종민, 『훈민정음과 세종악보』, 2013.
- 顧義生·楊亦鳴, 한종고 譯,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 董同龢 著, 공재석 譯, 『漢語音韻學』, 汎學韻書, 1975.
- 林濤·王里嘉 著, 심소희 譯, 『중국어 음성학』, 교육과학사, 2013.
- 耿振生, 『聲韻學』, 三民書局林燾, 1997.
- 啓功, 『詩文聲律論稿』中華書局, 2013.
- 杜亞雄·秦德祥, 『中國樂理教程』, 時代出版傳媒股份有限公司, 2012.
- 羅常培·蔡美彪 編, 『八思巴字典元代漢語』,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 潘文國 著, 韻圖考,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7.
- 謝鈺屏, 『國粵語互動速成』, 成都, 成都時代出版社, 2010.
- 徐時儀·陳五雲·梁曉虹 編, 『佛經音義研究通論』, 南京鳳凰出版社, 2009.
- 徐時儀·陳五雲·梁曉虹 編, 『佛經音義研究』, 南京鳳凰出版社, 2011.
- 李新魁, 『漢語等韻學』中華書局, 1983.
- 林濤·王里嘉 著, 『語音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1992.
- 劉寧, 『話劇語言訓練教程』, 文化藝術出版社, 2011.
- 張渭毅, 『中古音論』, 河南大學出版社, 2006.
- 鄭定歐·潘小洛·編者, 『今日粵語』,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6.
- 陳五雲·徐時儀·梁曉虹 著, 『佛經音義與漢字研究』, 鳳凰出版社, 2010.
- 詹伯慧, 『漢語方言及方言調查』, 湖北教育出版社, 1992.
- 詹伯·甘於恩, 『廣府方言』,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2011.
- 黃錫凌, 『粵音韻彙』, 香港, 中華書局, 2014.

【논문】

- 강대현, 「『고려대장경』을 통해 본 실담장(悉曇章)의 세 측면」, 『민족문화연구』, 제75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7.
- 강대현, 「『반야경』 범자 42자문의 반야공성 고찰」, 『한국불교선리연구원』, 19권, 선문화연구, 2015.
- 권혁준, 「『동국정운(東國正韻)』과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의 함(咸), 심섭(深攝) 음운 체계 비교」, 『중국어문논총』, 14권, 중국어문연구회, 1998.
- 권혁준, 「『동국정운(東國正韻)』과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의 지, 해섭 음운 체계 비교」, 『중국어언어연구』, 12권,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00.
- 김경숙, 「해성자에 반영된 상고한어의 방음연구」, 『중어중문학』, 31, 한국중어중문학회, 2002.
- 김경아, 「15세기 이중모음 체계와 순경음의 변화」, 『국어교육』, 제168집, 한국어교육학회, 2020.
- 김기중, 「필사본 『금강경언해』와 『월인석보』의 관계」, 『서지학연구』, 제56집, 한국서지학회, 2013.
- 김명남, 「『삼강행실도』 언해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김무식, 「중세 국어 후음 ‘oo ㅎ ㅎㅎ’에 대한 연구」, 『문학과 언어』, 제13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2.
- 김무봉, 「불교경전(佛敎經典)한글 번역의 역사와 과제; 불경언해와 간경도감(刊經都監)」, 『동아시아불교문화』, 6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 김슬옹, 「“훈민정음” 문자 만든 원리와 속성의 중층 담론」, 『한민족문화연구』, 21권, 한민족문화학회, 2007.
- 김옥영, 「공명도 제약과 중세 국어 후음(喉音) ‘o」, 『한국어학』, 제49집, 한국어학회, 2010.
- 김은희, 「明代 官話 音韻體系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은희·김민경·김서영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俗音의 성격 고찰 上,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中國言語研究』, 제86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20.
- 김민경·김서영·문성호·김은희,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俗音의 성격 고찰 下,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동남어문논집』, 제49집, 동남어문학회, 2020.

- 김태경, 「『月印釋譜』 진언표기를 통한 중국어음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43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 문성호·김수애·김은희, 「훈민정음 ‘ㅇ’의 초성·중성에 관한 연구」, 『중국어언어연구』, 제87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20.
- 문성호·김은희·안재철, 「『반야심경』 진언의 한국어 음역 고찰, ‘gate gate’, ‘아제아제’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집』, 제120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20.
- 문성호, 「성조에 관한 새로운 고찰」, 『인문학연구』, 25권,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 문성호, 「『동국정운(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 ‘ㄸ’·‘ㅃ’ 고찰, ‘ㅎ’·‘ㅇ’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33집, 인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 문성호, 「廣州話 研究, 음성학적 관점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박경송, 「『東國正韻』에 나타난 조선음운학자들의 중고한어 음운 연구」, 『중국어언어연구』, 제15권,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02.
- 박종만, 「한국어와 중국 광둥어의 중성발음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배영환, 「중세국어 후음 ‘ㅇ’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언어학연구』, 제21호, 한국중원언어학회, 2011.
- 사재동, 「纂經 『東國正韻』의 編緯와 活用樣相 史在東」, 『국학연구론총』, 제13권, 태민국학연구원, 2014.
- 섭보매, 「훈민정음의 음절합자 원리와 범어의 연관성에 대하여」, 『한국언어학회학술대회지』,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016.
- 손남호, 「중국어의 성조 음높이 변화와 목표점 분석」, 『중국어언어연구』, 제23권,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06.
- 신규탁, 「불교경전(佛敎經典)한글 번역의 역사와 과제; 한역(한역)불전의 한글번역에 나타난 경향성 고찰-간경도감, 백용성, 이운허, 김월운 스님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 신지영, 「『훈민정음』 해례의 ‘喉(후)’의미 재고」, 『민족문화연구』, 제82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 심소희, 「한국인이 발음하는 중국어 성조의 문제와 개선」, 『중국어문학지』, 제6권, 중국어

- 문학회, 1999.
- 심소희, 「표준 중국어 성조와 음계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9권, 중국어문학연구회, 2002.
- 안재철, 「『韻略匯通』의 音價 推定, 『韻略易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안재철, 「梵漢對音方式 考察」, 『大學院 研究論集』, 제7권,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4.
- 안주호, 「망월사본 『진언집』을 중심으로 한 진언표기의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109권, 한국어교육학회, 2002.
- 안주호,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연구」, 『배달말』, 31권, 배달말학회, 2002.
- 안성호, 진휘, 「『훈민정음』과 강남한음」, 『대동문화연구』, 95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6.
- 양현, 「한국어와 광둥어의 어휘·문법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오길룡, 「36字母와 등운의 관계」, 『중국인문과학』, 제17집, 중국인문학회, 1998.
- 왕옥지, 「『몽고자운』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왕옥지, 「『동국정운』과 『몽고자운』의 실제분운체계 비교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3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8.
- 유창균, 「東國正韻研究-其二, 九十一韻의 成立과 그 背景」, 『진단학보』, 진단학회, 제28호, 1965.
- 유효홍, 「순경음 ‘몽’의 중성 표기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제10권, 국어사학회, 2010.
- 이경철, 「중고한어 재구음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본문화연구』, 제1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4.
- 이미경, 「한국인의 중국어 성조 인지와 음성 특징 고찰」, 『중국언어연구』 제61권, 한국중국언어학회, 2015.
- 이미경, 「중국어 동일 성조 음높이 변화」, 『중국언어연구』 제26권, 한국중국언어학회, 2008.
- 이영월, 「『훈민정음』을 통한 근대한어관화의 음운층위 탐구」, 『중국언어연구』, 31권, 한국중국언어학회, 2010.

- 이옥주, 「표준중국어 경계 성조(boundary tone)의 연구방법론 고찰」, 『중어중문학 제60집』, 2015.
- 이재돈, 「조선초기의 중국어 음운학 연구에 관하여」, 『중어중문학』, 제26권, 한국중어중문학회, 2000.
- 이태승, 「『진언집』 범자(梵字)한글음역대응 한자음의 연원과 해석」, 『인도철학』, 인도철학회, 28권, 2010.
- 이현선, 『『東國正韻』 한자음 연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장향실, 「중세국어시기 고유어 표기에 쓰인 ㅅ의 음가에 대하여」, 『어문논집』 제48권, 2003.
- 장호득, 「지렛대 원리에 따른 중국어 성조 실현과 교육 방법」, 『비교문화연구』 30권, 2013.
- 정우영, 「순경음비읍(병)의 연구사적 검토」, 『국어사연구』 제7권, 국어사학회, 2007.
- 정우영, 「훈민정음과 불교경전의 상관관계 연구」, 『어문연구』 제43권, 2015.
- 정승석, 「번본반야심경의 음역과 원문의 재조명」, 『인도철학』, 23권, 인도철학회, 2007.
- 정연찬, 「동국정운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언어와 정보사회』, 제24권,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5.
- 조연정, 「現代 嶺方言 研究, 廣州語를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조은정, 「廣州語文白異讀 글자들의 특징에 관한 고찰」, 『중국언어연구』, 제86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
- 조은정, 「한국인을 위한 광둥어 발음표기 방안」, 『중국어문논총』, 53권, 중국어문연구회, 2012.
-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조운성, 「『동국정운』의 운류와 『고금운회거요』의 반절하자」, 『인문연구』, 58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 조운성, 「『동국정운』의 업(業)모와 욕(欲)모」, 『구결연구』 제26권, 구결학회, 2011.
- 조운성, 「『동국정운』 한자음의 성모와 운모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차익중,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문헌 속의 동국정운 미수록자(未收錄字)와 그 주음(注

- 音)』, 『관악어문연구』, 제37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2.
- 차익중, 「東國正韻의 중성 배열 원리에 대하여」, 『국어학』 70권, 국어학회, 2014.
- 차익중, 「東國正韻式 漢字音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차익중, 「『동국정운』복수음의 문헌 속 단일화 양상, 『고금운회거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학』, 77권, 국어학회, 2016.
- 최기표, 「현장(玄奘)역(譯) 『반야심경』의 성행 내력」,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회, 2017.
- 홍용기, 「훈민정음 초성 표기 한자음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毛元昌, 「古漢語與粵方言音系淺析」, 茂名學院中文系論文, 2006.
- 陳演, 「淺析粵語吟誦發展歷史及粵語吟誦方法」, 2014.
- 陳紅羽, 「從粵語詞彙中淺析粵方言與古代漢語的淵源」, 2015.
- 林海鷹, 「斯塔羅斯金与鄭張尙芳古音系統比較研究, 首都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기타】

『東國正韻』

『洪武正韻譯訓』

『古今韻會舉要』

『訓蒙字會』

『全韻玉篇』

崔世珍, 『四聲通解』, 학자원, 2017.

南廣祐, 『古今漢韓字典』, 인하대학교출판부, 1995.

崔肇鈺·戴和·王秀燕, 『廣州語正音字典』,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4.

饒秉才, 『廣州音字典』,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10.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tougokudb.jp/> (동국정운 데이터 베이스)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humanum.arts.cuhk.edu.hk/> (粵語審音配詞字庫)

Abstract

A Research on the Phonemes of the “*Hunminjeongeum*(訓民正音)” and Middle Ancient Chinese Speech Sounds “*Jung Goeum*(中古音)”

-Based on the Comparisons of Cantonese (粵語), Sanskrit (梵語) and the Phonemes of the Chinese Characters of the “*Donggukjeongun*(東國正韻)”-

In this paper, attempts were first made to confirm the light(清) and thick(濁) sounds of the Middle Ancient Chinese speech sounds, the light and thick tones of Cantonese, and how the light and the thick sounds of the 23 consonants in the *Donggukjeongun*(東國正韻) correspond to each other. Then based on the Chinese character phonemes found in the *Hyerebon*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and *Donggukjeongun*(東國正韻), the phonetic values of the Middle Ancient Chinese speech sounds’ *yeongmo* (影母) and *yumo* (喻母) as well as the ‘ㄹ’ and the ‘ㅇ’ during the time when the *Hunminjeongeum*(訓民正音) was being created were all analyzed. In addition, the creation purpose and phonetic value of ‘ㅇ(the old ieung)’ and the ‘ㄷ’ which have been eliminated from the current hangeul were also investigated into.

The *yumo* (喻母) of the Middle Ancient Chinese speech sounds and ‘ㅇ’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are sonorant and guttural sounds which make the gravity center of the vocal cord’s fremitus be located in the endolarynx so it seems only appropriate to mark this as [ʔ] which is a glottal plosive in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The *yeongmo* (影母) of the Middle Ancient Chinese speech sounds as well as the ‘ㄹ’ of the *Hunminjeongeum*(訓民正音) are voiced consonants and guttural sounds where the vocal cord’s fremitus spreads out inside the mouth so it seems appropriate to mark this as [j] which is a approximant of the hard palate. The *ilmo* (日母) of the Middle Ancient Chinese speech sounds as well as the ‘ㄷ’ of the *Hunminjeongeum* (訓民正音) should be marked as [ɳ] which is a voiced palatal nasal sound, while it would be feasible to assume that the [ɳz] sound is where the *ilmo*(日母) is assuming the process of sounds where it is becoming established as [z]

changing from the central districts or from the northern regions' sounds after the Southern Song Dynasty era.

The *Hunminjeongeum*(訓民正音) was created by Sejong the Great. Therefore, we can assume that Sejong's world view is reflected in the *Hunminjeongeum*(訓民正音).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ᄃ' and the 'ᄂ' of 'ᄃ' which can be seen in the Chinese character sounds of the *Donggukjeongun*(東國正韻) have been evaluated to be bizarre but that they have been so designed to be isolated and skimmed off. The 'ᄂ'·'ᄂ(the old ieung)' and 'ᄃ' which are initial sounds are also examples where even if one was to read them out loud as 'ᄂ' or as having zero phonetic value with no knowledge of an accurate way to read them, there is no confusion even amongst the Chinese character phonemes within the Korean language. As an example, if the 'ᄃ' was to be read as 'ᄂ', there is still no confusion. As a conclusion, there needs to be a reconsideration about the fact that King Sejong presented qualities that he considered to be correct pronunciations that wouldn't cause confusion within the Korean language.

Key words : Middle Ancient Chinese, 『Hunminjeongeum(訓民正音)』, Cantonese, Sanskrit, 『Donggukjungwoon(東國正韻)』, Palatal approximant and Glottal plosive

【부록】

1. 『東國正韻』 한자음 비교표²⁸²⁾

(현재 한국 한자음, 『全韻玉篇』 정·속음, 한어 중고음, 보통화, 월어)

2. 월어의 각종 병음방안²⁸³⁾

3. 『東國正韻』 한자음과 월어의 ‘음색’ 비교

1. 『東國正韻』 한자음 비교표(현재음, 『全韻玉篇』 정·속음, 한어 중고음, 보통화, 월어)

-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음과 월어의 음조가 일치할 경우, 청음과 음조는 빨간색으로 표기한다. 『東國正韻』 한자음의 탁음과 월어의 양조가 일치할 경우, 탁음과 양조는 파란색으로 표기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색을 칠하지 않고 검정색으로 한다.
- 『東國正韻』의 전탁자가 『全韻玉篇』에서는 일률적으로 탈락함을 확인한다. 전탁자는 『全韻玉篇』의 시기 전탁자의 범주에서 사용되지 않아, 우리말에서는 음운자질로 활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제1운류-제7운류 : 아음, 양성운 ‘ㅇ(옛이음)’, 입성운 ‘ㄱ’

표1) 第1韻類 < 궁(攄) : 쿵(肯) · 궁(巨) · 극(亟) >

NO	자 례	현 음	정 속	동 운	반 절	중고음			보 통 화	월 어	
						廣 韻	王 力	董 同 龢			
ㅇ	ㅇ	曾	층 正 중	중	作 滕	曾 開 一 平 登 精 全 清	tsəŋ	tsəŋ	tsəŋ ¹	tsəŋ ¹	
		樽	중	정 正 중	중	作 滕	曾 開 一 平 登 精 全 清	tsəŋ	tsəŋ	tsəŋ ¹	tsəŋ ¹
		駮	승	층 正 승	중	食 陵	曾 開 三 平 蒸 船 全 濁	dziəŋ	dzʰjəŋ	tsʰəŋ ²	seŋ ⁴
		鄮	중	층 正 중	중	疾 陵	曾 開 三 平 蒸 從 全 濁	dziəŋ	dzʰjəŋ	tsəŋ ¹	tsʰəŋ ⁴
		嶢	중	층 正 중	중	疾 陵	曾 開 三 平 蒸 從 全 濁	dziəŋ	dzʰjəŋ	tsʰəŋ ²	tsʰəŋ ⁴
		蠅	승	응 俗 승	웅	余 陵	曾 開 三 平 蒸 以 次 濁	jiəŋ	ŋjəŋ	iŋ ²	jeŋ ⁴
ㄱ	ㄱ	賊	적	즉 正 적	· 적	昨 則	曾 開 一 入 德 從 全 濁	dzək	dzʰək	tsei ²	tsʰək ⁶
		北	배	페 正 빅	· 빅	博 墨	曾 開 一 入 德 幫 全 清	pək	pək	pei ³	pek ¹
ㅇ	ㅇ	滕	승	층 正 승	생	食 陵	曾 開 三 平 蒸 船 全 濁	dziəŋ	dzʰjəŋ	tsʰəŋ ²	seŋ ⁴
ㅇ	ㅇ	盟	맹	명 正 뎡	명	武 兵	梗 開 三 平 庚 明 次 濁	mieŋ	mjeŋ	məŋ ²	meŋ ⁴
		*撐	탱	징 俗 팅	팅	丑 庚	梗 開 二 平 庚 知 全 清	tʰeŋ	tʰeŋ	tsʰəŋ ¹	tsʰəŋ ³
		梘	정	징 俗 정	뎡	直 庚	梗 開 二 平 庚 澄 全 濁	dʰeŋ	dʰeŋ	tsʰəŋ ²	tsʰəŋ ⁴

282) 김은희·김민경·김서영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俗音의 성격 고찰 上,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中國言語研究』, 제86집, 2020의 표와 김민경·김서영·문성호·김은희,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俗音의 성격 고찰 下,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동남어문논집, 제49집, 2020의 표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283) <http://humanum.arts.cuhk.edu.hk/> 粵語審音配詞字庫에서 인용한 것이다.

		櫓	탱	정俗팅	팅	丑庚	梗開二平庚微次清	ʈʰeŋ	ʈʰeŋ	tsʰəŋ¹	tsʰaŋ1
		脩	창	정正칭	칭	助庚	梗開二平庚崇全濁	dʒeŋ	dʒʰeŋ	tsʰaŋ¹	tsʰaŋ4
		棚	붕	평正부	평	薄庚	梗開二平庚並全濁	beŋ	bʰeŋ	pʰəŋ²	pʰaŋ4
		盟	맹	명正밍	명	武兵	梗開三平庚明次濁	mieŋ	mjeŋ	məŋ²	meŋ4
		脩	창	정正칭	칭	助庚	梗開二平庚崇全濁	dʒeŋ	dʒʰeŋ	tsʰaŋ¹	tsʰaŋ4
		棚	붕	평正부	평	薄庚	梗開二平庚並全濁	beŋ	bʰeŋ	pʰəŋ²	pʰaŋ4
		檣	탱	정俗팅	팅	丑庚	梗開二平庚微次清	ʈʰeŋ	ʈʰeŋ	tsʰəŋ¹	tsʰəŋ4
		誣	경	경正경	경	口莖	梗開二平耕溪次清	kʰæŋ	kʰæŋ	kʰəŋ¹	haŋ1
		莖	경	형俗경	형	戶耕	梗開二平耕匣全濁	ɣæŋ	ɣæŋ	teŋ¹	haŋ4
	捰	경	경正경	·경	口莖	梗開二平耕溪次清	kʰæŋ	kʰæŋ	kʰəŋ¹	haŋ1	
	귀	宅	택	척俗척	·척	場伯	梗開二入陌澄全濁	dək	dʰək	tsai²	tsak6
		澤	택	척俗척	·척	場伯	梗開二入陌澄全濁	dək	dʰək	tsɿ²	tsak6
		擇	택	척俗척	·척	場伯	梗開二入陌澄全濁	dək	dʰək	tsɿ²	tsak6
		圻	탁	척俗탁	·탁	丑格	梗開二入陌微次清	ʈʰək	ʈʰək	tsʰɿ⁴	tsʰak3
拆		탁	척俗탁	·탁	丑格	梗開二入陌微次清	ʈʰək	ʈʰək	tsʰa¹	tsʰak3	

표2) 第2韻類 < 굉(航) :굉(曠) · 횡(橫) · 꺠(號) >

NO	자 례	현 음	정 속	동 운	반 결	중고음			보 통 화	월 어	
						廣韻	王力	董同龢			
고	ㄱ	嶸	영	형正영	형	永兵	梗合三平庚云次濁	ɣiweŋ	ɣjuweŋ	zuŋ²	wəŋ4
		鎧	굉	형俗굉	형	戶盲	梗合二平庚匣全濁	ɣweŋ	ɣueŋ	xuŋ²	wəŋ4
		紘	굉	형俗굉	형	戶萌	梗合二平耕匣全濁	ɣwæŋ	ɣuæŋ	xuŋ²	wəŋ4
		宏	굉	형俗굉	형	戶萌	梗合二平耕匣全濁	ɣwæŋ	ɣuæŋ	xuŋ²	wəŋ4
		翊	굉	형俗굉	형	戶萌	梗合二平耕匣全濁	ɣwæŋ	ɣuæŋ	xuŋ²	wəŋ4
		閎	굉	형俗굉	형	戶萌	梗合二平耕匣全濁	ɣwæŋ	ɣuæŋ	xuŋ²	wəŋ4
		泓	홍	형俗홍	형	烏宏	梗合二平耕影全清	ŋwæŋ	?uæŋ	xuŋ²	wəŋ4
		鈞	굉	형俗굉	형	呼宏	梗合二平耕曉次清	hwæŋ	xuæŋ	xuŋ¹	kwəŋ1
		轟	굉	형俗굉	형	呼宏	梗合二平耕曉次清	hwæŋ	xuæŋ	xuŋ¹	kwəŋ1
	*軋	굉	형俗굉	굉	苦弘	曾合一平登溪次清			xuŋ²		
귀	𨾏	꺠	꺠正꺠	·꺠	古獲	梗合二入麥見全清	kwæk	kuæk	kuo¹	kwək3	
	擱	꺠	꺠正꺠	·꺠	古獲	梗合二入麥見全清	kwæk	kuæk	kuo²	kwək3	
	𨾏	꺠	꺠正꺠	·꺠	古獲	梗合二入麥見全清	kwæk	kuæk	kuo²	kwək3	

표3) 第3韻類²⁸⁴⁾ < 꺠(肱) * · 꺠(國) * >

NO	자 례	현 음	정 속	동 운	반 결	중고음			보 통 화	월 어
						廣韻	王力	董同龢		

표4) 第4韻類 < 공(公) :공(拱) · 공(貢) · 꺠(穀) >

NO	자 례	현 음	정 속	동 운	반 결	중고음			보 통 화	월 어	
						廣韻	王力	董同龢			
꺠	꺠	穀	꺠	·꺠	古祿	通合一入屋見全清	kuk	kuk	ku³	kək1	
		鬻	축	독正독	·독	徒谷	通合一入屋定全濁	duk	dʰuk	tu²	tsək6
		斛	꺠	혹俗꺠	·혹	胡谷	通合一入屋匣全濁	ɣuk	ɣuk	xu²	hək6
		榘	꺠	혹俗꺠	·혹	胡谷	通合一入屋匣全濁	ɣuk	ɣuk	xu²	hək6
		酷	혹	꺠俗혹	·꺠	苦沃	通合一入沃溪次清	kʰuok	kʰuok	kʰu⁴	hək6

284) 『全韻玉篇』에 正·俗音을 표시해놓은 620여 자 중에서 第3韻類 < 꺠(肱) * · 꺠(國) * >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다.

하	아	權	중	중正중	중	即容	通合三平鍾精全清	tɕiwɔŋ	tsjuɔŋ	tsʰuŋ¹	tsɔŋ1
		聳	용	송俗용	:송	息拱	通合三上腫心全清	síwɔŋ	sjuɔŋ	suŋ³	soŋ2
		桴	용	송俗용	송	書容	通合三平鍾書全清	éiwɔŋ	ɛjuɔŋ	tsʰuŋ¹	soŋ1
		愜	용	송俗용	송	書容	通合三平鍾書全清	éiwɔŋ	ɛjuɔŋ	tsʰuŋ¹	tsɔŋ1
		懂	동	송俗동	송	尺容	通合三平鍾昌次清	tɕʰwɔŋ	tɕʰjuɔŋ	tsʰuŋ¹	tsɔŋ1
		春	용	송俗용	송	書容	通合三平鍾書全清	éiwɔŋ	ɛjuɔŋ	tsʰuŋ¹	tsɔŋ1
	하	驕	장	송俗장	송	書容	通合三平鍾書全清	éiwɔŋ	ɛjuɔŋ	tsʰuŋ¹	*
		蜀	촉	속正촉	·속	市玉	通合三入燭禪全濁	zɿwɔk	zjuok	ɕu³	sɔk6
		燭	촉	속正촉	·속	之欲	通合三入燭章全清	tɕiwɔk	tɛjuok	tsu²	tsɔk1

표5) 第5韻類 < 강(江) :강(講) · 강(絳) · 각(覺) >

NO	자례	현음	정속	동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오	오	樓	쌍	상正쌍	쌍	所江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ʃɔŋ	suŋ³	sɔŋ2
		*彪	방	망正방	망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ɔŋ	maŋ²	mɔŋ4
		彪	방	망正방	망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ɔŋ	maŋ²	mɔŋ4
		琿	공	강俗상	강	苦江	江開二平江溪次清	kʰɔŋ	kʰɔŋ	tɕʰyuŋ¹	kʰɔŋ4
		嗔	방	망正방	망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ɔŋ	maŋ²	mɔŋ4
		雙	쌍	장正상	쌍	所江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ʃɔŋ	ɕuaŋ¹	sɔŋ1
		缸	강	항俗강	항	許江	江開二平江曉次清	hɔŋ	xɔŋ	ɛiaŋ¹	kɔŋ1
		饜	쌍	상正쌍	쌍	所江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ʃɔŋ	ɕuaŋ¹	sɔŋ1
		港	항	강俗항	:강	古項	江開二上講見全清	kɔŋ	kɔŋ	kaŋ³	kɔŋ2
		抗	항	강俗항	:강	胡郎	宕開一平唐匣全濁	ɣaŋ	ɣaŋ	kʰaŋ⁴	kʰɔŋ3
		鎗	당	탕正당	탕	吐郎	宕開一平唐透次清	tʰaŋ	tʰaŋ	tʰaŋ¹	tʰɔŋ1
		肮	항	강俗항	:강	胡郎	宕開一平唐匣全濁	ɣaŋ	ɣaŋ	xaŋ²	kɔŋ1
		亢	항	강俗항	강	古郎	宕開一平唐見全清	kaŋ	kaŋ	kaŋ¹	kɔŋ1
		床	상	장正상	쌍	士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iaŋ	dʒʰiaŋ	tsʰuaŋ²	tsʰuŋ4
		牀	상	장正상	쌍	士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iaŋ	dʒʰiaŋ	tsʰuaŋ²	tsʰuŋ4
		오	오	閱	항	강俗항	:강	苦浪	宕開一去右溪次清	kʰaŋ	kʰaŋ
伉	항			강俗항	:강	苦浪	宕開一去右溪次清	kʰaŋ	kʰaŋ	kʰaŋ⁴	kʰɔŋ3
炕	항			강俗항	:강	苦朗	宕開一上蕩溪次清	kʰaŋ	kʰaŋ	kʰaŋ⁴	kʰɔŋ3
踔	탁			착俗탁	·탁	丑教	江開二入覺徹次清	tʰɔk	tʰɔk	tsʰuo¹	tsʰɔk3
馘	복			박俗복	·박	弼角	江開二入覺並全濁	bɿuk	bʰjuk	fu⁴	fɔk6
連	탁			착俗탁	·탁	勅角	江開二入覺徹次清	tʰɔk	tʰɔk	tsʰuo⁴	tsʰɔk3
確	확			각俗확	·각	苦角	江開二入覺溪次清	kʰɔk	kʰɔk	tɕʰye⁴	kʰɔk3
오	오	癘	학	약正학	·약	魚約	宕開三入藥疑次濁	ŋiak	ŋjak	nye⁴	jɔk6
		虐	학	약正학	·약	魚約	宕開三入藥疑次濁	ŋiak	ŋjak	nye⁴	jɔk6
		隴	획	학正획	·학	呵各	宕開一入鐸曉次清	hak	xak	xuo⁴	hɔk3
		驥	양	상俗양	상	息良	宕開三平陽心全清	siaŋ	sjaŋ	ɛiaŋ¹	sɔŋ1
		饜	항	상俗항	상	式羊	宕開三平陽書全清	ɛiaŋ	ɛjaŋ	ɛiaŋ³	hɔŋ1
		襄	양	상俗양	상	息良	宕開三平陽心全清	siaŋ	sjaŋ	ɛiaŋ¹	sɔŋ1
		彰	창	장正창	창	諸良	宕開三平陽章全清	tɕiaŋ	tɕjaŋ	tsaŋ¹	tsɔŋ1
오	오	績	양	상俗양	상	息良	宕開三平陽心全清	siaŋ	sjaŋ	ɛiaŋ¹	sɔŋ1
		餉	항	상俗항	:상	式亮	宕開三去漾書全清	ɛiaŋ	ɛjaŋ	ɛiaŋ³	hɔŋ2
		繳	격	작俗격	·작	之若	宕開三入藥章全清	tɕiak	tɕjak	tsuo²	tsɔk3
오	오	幢	당	장俗당	땅	宅江	江開二平江澄全濁	dɔŋ	dʰɔŋ	tsʰuaŋ²	tsɔŋ6
		撞	당	장俗당	땅	宅江	江開二平江澄全濁	dɔŋ	dʰɔŋ	tsuaŋ⁴	tsɔŋ6
倬	탁	착俗탁	·탁	竹角	江開二入覺知全清	tɔk	tɔk	tsuo¹	tsɔk3		

掇	탁	작俗탁	· 와	竹角	江開二入覺知全清	ʈɔk	ʈɔk	tʂuo ²	*
稱	작	작正작	· 와	側角	江開二入覺莊全清	tʃɔk	tʃɔk	tʂuo ¹	tsɔk1
鴛	작	작正작	· 와	士角	江開二入覺崇全濁	dʒɔk	dʒʰɔk	tʂuo ²	tsɔk6
卓	탁	작俗탁	· 와	竹角	江開二入覺知全清	ʈɔk	ʈɔk	tʂuo ¹	tsɔek3
琢	탁	작俗탁	· 와	竹角	江開二入覺知全清	ʈɔk	ʈɔk	tʂuo ²	tɔek3
涿	탁	작俗탁	· 와	竹角	江開二入覺知全清	ʈɔk	ʈɔk	tʂuo ¹	tɔek3
濁	탁	작俗탁	· 와	直角	江開二入覺澄全濁	dɔk	dʰɔk	tʂuo ²	tsɔk6
濯	탁	작俗탁	· 와	直教	江開二入覺澄全濁	dɔk	dʰɔk	tʂuo ²	tsɔk6
擢	탁	작俗탁	· 와	直角	江開二入覺澄全濁	dɔk	dʰɔk	tʂuo ²	tsɔk6
擢	낙	낙正낙	· 낙	女角	江開二入覺娘次濁	nɔk	nɔk	nuo ⁴	nɔk6
琢	탁	작俗탁	· 와	竹角	江開二入覺知全清	ʈɔk	ʈɔk	tʂuo ²	tɔek3
攫	확	곽俗확	· 곽	居縛	宕合三入藥見全清	kɪwak	kjuak	teye ²	kwɔk3
攫	확	곽俗확	· 곽	居縛	宕合三入藥見全清	kɪwak	kjuak	teye ²	kwɔk3
*攫	확	곽俗확	· 곽	居縛	宕合三入藥見全清	kɪwak	kjuak	teye ²	kwɔk3
攫	곽	곽正곽	· 곽	居縛	宕合三入藥見全清	kɪwak	kjuak	teye ²	kʰwɔk3
啄	탁	작俗탁	· 와	丁木	江開二入覺知全清	tuk	tuk	tʂuo ²	tɔek3
霍	곽	확俗곽	· 와	虛郭	宕合一入鐸曉次清	huak	xuak	xuo ⁴	fɔk3
擴	확	곽俗확	· 곽	乎曷	宕合一去宕匣次清	ɣuap	ɣuap	tʰap ³	kwɔk3

표6) 第6韻類 < 궁(弓) :똥(重) · 쿡(諤) · 국(菊) >

NO	자 례	현 음	정 속	동 운	반 절	중고음			보 통 화	월 어	
						廣 韻	王 力	董 同 龢			
宮	宮	*彬	룽	웅俗룽	웅	余中	通合三平東以次濁	ʃiŋ	oŋ	zŋ ²	joŋ4
		灑	룽	웅俗룽	웅	以戎	通合三平東以次濁	ʃiŋ	oŋ	zŋ ²	joŋ4
		崇	송	중正송	쌘	鋤弓	通合三平東崇全濁	dʒiŋ	dʒʰiŋ	tʂŋ ²	soŋ4
		娥	용	송俗용	송	息弓	通合三平東心全清	siŋ	siŋ	suŋ ¹	soŋ1
		*滌	중	중正중	쌘	鉏弓	通合三平東崇全濁	dʒɔŋ	dʒʰɔŋ	tʂuap ⁴	*
국	국	彤	용	웅俗룽	웅	以戎	通合三平東以次濁	ʃiŋ	oŋ	zŋ ²	joŋ4
		縮	축	숙俗축	· 숙	所六	通合三入屋生全清	ʃiuk	ʃjuk	suo ¹	sɔk1
		蠱	축	축正축	· 숙	初六	通合三入屋初次清	tʃʰjuk	tʃʰjuk	tʂʰu ⁴	tsʰɔk1
		縮	축	숙俗축	· 숙	所六	通合三入屋生全清	ʃiuk	ʃjuk	su ⁴	sɔk1

표7) 第7韻類 < 경(京) :경(景) · 경(敬) · 격(隔) >

NO	자 례	현 음	정 속	동 운	반 절	중고음			보 통 화	월 어	
						廣 韻	王 力	董 同 龢			
경	경	荊	형	경俗형	경	舉卿	梗開三平庚見全清	kɪŋ	kjŋ	teŋ ¹	keŋ1
		脛	경	형俗경	· 형	胡定	梗開四去徑匣全濁	ɣiŋ	ɣiŋ	teŋ ⁴	*
		騁	빙	칭俗빙	· 팅	丑郢	梗開三上靜徹次清	tʰiŋ	tʰjŋ	tʂʰɛŋ ³	tsʰɛŋ2
		枹	영	잉正영	· 영	以整	梗開三上靜以次濁	jiŋ	oŋ	iŋ ³	jɛŋ5
		鷓	청	정正청	정	子盈	梗開三平清精全清	tsiŋ	tsjŋ	teŋ ¹	tsɛŋ1
		蜻	청	정正청	정	子盈	梗開三平清精全清	tsiŋ	tsjŋ	teŋ ¹	tsʰɛŋ1
		脛	경	형俗경	· 형	胡頂	梗開四上迥匣全濁	ɣiŋ	ɣiŋ	teŋ ⁴	hɛŋ5
격	격	革	혁	격俗혁	· 격	古核	梗開二入麥見全清	kæk	kæk	ky ²	kak3
		鯽	즉	적正즉	· 적	資昔	梗開三入昔精全清	tsiek	tsjek	tei ⁴	tsɛk1
		蜴	역	역俗역	· 역	羊益	梗開三入昔以次濁	ʃiek	oŋjek	i ⁴	ʃɛk6
		奕	혁	역俗혁	· 역	羊益	梗開三入昔以次濁	ʃiek	oŋjek	i ⁴	ʃɛk6
		弈	혁	역正혁	· 역	羊益	梗開三入昔以次濁	ʃiek	oŋjek	i ⁴	ʃɛk6
		楨	익	역正익	· 역	五歷	梗開四入錫疑次濁	ŋiek	ŋiek	i ⁴	ʃɛk6

	現	격	혁俗격	·혁	胡狄	梗開四入錫匣全濁	ɣiek	ɣiek	ci²	het6
	檄	격	혁俗격	·혁	胡狄	梗開四入錫匣全濁	ɣiek	ɣiek	ci²	het6
	埴	벽	벽正픽	·벽	芳逼	曾開三入職滂次清	pʰɛk	pʰjɛk	pi⁴	pʰei3
	幅	픽	벽正픽	·벽	芳逼	曾開三入職滂次清	pʰɛk	pʰjɛk	pi⁴	pek1
	焞	픽	벽正픽	·백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bɪɛk	bʰjɛk	pi⁴	*
	逼	핍	벽俗핍	·벽	彼側	曾開三入職幫全清	pjɛk	pjɛk	pi¹	pek1
	復	팍	벽正팍	·백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pʰɛk	pʰjɛk	pi⁴	pek1
	徧	벽	벽正픽 픽俗핍	·벽	彼側	曾開三入職幫全清	pjɛk	pjɛk	pi¹	pek1
	幅	핍	벽俗핍	·벽	彼側	曾開三入職幫全清	pjɛk	pjɛk	fu²	pek1
焞	픽	벽正픽	·백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bɪɛk	bʰjɛk	pi⁴	*	

※ 제8운류-제12운류 : 설음, 양성운 ‘ㄴ’, 음성운 ‘ㄹ’

표8) 第8韻類 < 근(根) :근(懇) · 근(艮) · 근(訖)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ㄴ	ㄴ	誥	선	신俗선	·선	所臻	臻開二平臻生全清	ʃien	ʃ(j)en	ʃən¹	sen1
		巾	건	근俗건	·근	居銀	臻開三平真見全清	kiɛn	kjɛn	tein¹	ken1
		吃	홀	글俗홀	·공	居乞	臻開三入迄見全清	kiət	kjət	tɕʰɿ¹	ket1
		乞	홀	을俗홀	·응	許訖	臻開三入迄曉次清	hiət	xjət	i⁴	ɲat6
		屹	홀	을俗홀	·응	魚迄	臻開三入迄疑次濁	ŋiət	ŋjət	i⁴	ɲat6
		乞	걸	글俗걸	·공	去訖	臻開三入迄溪次清	kʰiət	kʰjət	teʰɿ³	het1
		屹	홀	을俗홀	·응	魚迄	臻開三入迄疑次濁	ŋiət	ŋjət	i⁴	ɲat6
ㄴ	ᄒ	詰	힐	길俗힐	·깁	去吉	臻開三入質溪次清	kʰiɛt	kʰjet	teie²	kʰit3
		紕	질	·	·뎡	直一	臻開三入質澄全濁	dʰiɛt	dʰjet	tɕɿ⁴	tit6
		騰	즐	질正즐	·깁	之日	臻開三入質章全清	teiɛt	tejet	tɕɿ⁴	tset1

표9) 第9韻類 < 곤(昆) :곤(袞) · 곤(論) · 공(骨)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ㄴ	ㄴ	悶	민	문俗민	·문	莫困	遇合一平模明次濁	muən	muən	mən⁴	mun6
		命	륜	문正륜	·문	力迤	臻合三平諄來次濁	liuɛn	ljuen	luən²	loen4
		遁	돈	둔正돈	·뎡	徒損	臻合一上混定全濁	duən	dʰuən	tuən⁴	doen6
		崑	륜	문正륜	·문	盧昆	臻合一平魂來次濁	luən	luən	luən²	loen4
	ᄒ	屹	골	골正골	·공	苦骨	臻合一入沒溪次清	kʰuət	kʰuət	kʰu¹	fet1
		鶻	골	홀俗골	·공	古忽	臻合一入沒見全清	kuət	kuət	ku²	wet6
		蟀	술	술正술	·송	所律	臻合三入質生全清	ʃiuɛt	ʃjuet	ʃuai⁴	soet1
		率	술	술正술	·송	所律	臻合三入質生次清	ʃwi	ʃjuei	ʃuai⁴	soet1
屹	홀	골俗홀	·공	居乞	臻開三入迄見全清	kiət	kjət	ku³	kwat1		

표10) 第10韻類 < 간(干) :간(筭) · 간(肝) · 감(葛)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ㄱ	ㄱ	綻	탄	잔俗탄	·탄	丈莧	山開二去漚澄全濁	d̥æn	d̥hæn	tʂan ⁴	tsan6	
		組	탄	잔俗탄	·탄	丈莧	山開二去漚澄全濁	d̥æn	d̥hæn	tʂan ⁴	*	
		剗	잔	찬俗잔	·찬	初限	山開二上產初次清	tʃhæn	tʃhæn	tʂhan ³	*	
		鐘	산	찬正산	·찬	初限	山開二上產初次清	tʃhæn	tʃhæn	tʂhan ³	tsʰan2	
		袒	탄	잔俗탄	·탄	徒旱	山開一上旱定全濁	dan	dʰan	tʰan ³	tʰan2	
		潭	단	탄俗단	·단	徒旱	山開一上旱定全濁	dan	dʰan	tʰan ¹	tʰan1	
	ㄴ	ㄴ	幹	간	관俗간	·간	古案	山開一去翰見全清	kan	kan	kan ⁴	kon3
			曷	갈	할俗갈	·할	胡葛	山開一入曷匣全濁	at	ɣat	xy ²	hot3
			鞞	갈	할俗갈	·할	胡葛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ɣat	xy ²	hot6
			割	할	갈俗할	·갈	古達	山開一入曷見全清	kat	kat	ky ¹	kot3
			鶻	갈	분俗갈	·할	胡葛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ɣat	xy ²	hot6
			謁	갈	할俗갈	·할	胡葛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ɣat	xy ²	hot6
ㄴ	ㄴ	毘	갈	할俗갈	·할	胡葛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ɣat	xy ²	hot6	
		狷	갈	할俗갈	·할	許竭	山開三入月曉次清	h̥iət	xjət	ei ¹	hot3	
		喝	갈	할俗갈	·할	於轄	山開二去夫影全清	0æi	?ai	ie ⁴	hot3	
		戛	알	갈俗알	·갈	古黠	山開二入黠見全清	kæt	kæt	teia ²	kat3	
		獐	설	열俗설	·할	烏黠	山開二入黠影全清	0æt	?æt	ia ⁴	et3	
		ㄴ	ㄴ	癩	관	관俗환	·관	古還	山合二平刪見全清	kwan	kuan	kuan ¹
	灣			만	완俗만	·환	烏關	山合二平刪影全清	0wan	?uan	uan ¹	wan1
	鰈			환	관俗환	·관	古頑	山合二平山見全清	kwæn	kuæn	kuan ¹	kwan1
	縮			관	완俗관	·환	烏板	山合二上漚影全清	0wan	?uan	uan ³	wan2
	譟			선	전正선	·환	土免	山合三上彌崇全濁	d̥ʂwæn	d̥ʂjuæn	tʂuan ⁴	tsan6
	僕			선	전正선	·환	土免	山合三上彌崇全濁	d̥ʂwæn	d̥ʂjuæn	tʂuan ⁴	tsan6
	ㄴ	ㄴ	浼	완	환正완	·환	胡管	山合一上緩匣全濁	ɣuan	ɣuan	xuan ⁴	wun5
澣			한	환俗환	·환	胡管	山合一上緩匣全濁	ɣuan	ɣuan	xuan ⁴	wun5	
矜			환	관俗환	·관	居陵	曾開三平蒸見全清	kjəŋ	kjəŋ	tein ¹	kwan1	
莞			완	환正완	·관	胡官	山合一平桓匣全濁	ɣuan	ɣuan	kuan ¹	kwan1	
轡			만	란俗만	·관	落官	山合一平桓來次濁	luan	luan	luan ²	lyn4	
ㄴ			ㄴ	掇	철	탈俗철	·관	丁括	山合一入末端全清	tuat	tuat	tuo ¹
	斂	철		탈俗철	·관	丁括	山合一入末端全清	tuat	tuat	tuo ²	tsyt3	
		闊	활	괄俗활	·관	苦括	山合一入末溪次清	kʰuat	kʰuat	kʰuo ⁴	fu3	

표11) 第11韻類 < 군(君) :군(攢) · 군(攢) · 꺾(屈)>

NO	자례	현음	정속	동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ㄱ	꺾	鶻	갈	분俗갈	·할	胡葛	山開一入曷匣全濁	ɣat	ɣat	xy ²	hot6
		*鶻	울	울正울	·웅	王勿	臻合三入迄云全濁	ɣjuət	ɣjuət	y ⁴	*
		紉	발	불俗불	·불	分勿	臻合三入物非全清	pjuət	pjuət	fu ²	fet1
ㄴ	꺾	筠	균	윤俗균	·윤	為贇	臻合三平真(諄)云次濁	ɣiwæn	ɣjuæn	yn ²	wun4
		窳	둔	준正둔	·둔	陟綸	臻合三平諄知全清	tjuæn	tjuæn	tʂuan ¹	tsæn1
		輻	순	춘俗순	·툄	丑倫	臻合三平諄徹次清	tʰjuæn	tʰjuæn	tʂhuan ¹	tsʰæn1
		肫	순	춘俗순	·춘	章倫	臻合三平諄章全清	tʰjuæn	tʰjuæn	tʂuan ¹	tsæn1
		述	둔	준正둔	·둔	陟綸	臻合三平諄知全清	tjuæn	tjuæn	tʂuan ¹	tsæn1
		諄	순	춘正순	·춘	章倫	臻合三平諄章全清	tʰjuæn	tʰjuæn	tʂuan ¹	tsæn1
		隼	준	순正준	·순	思尹	臻合三上準心全清	sjuæn	sjuen	suən ³	tsæn2
		竣	준	순正준	·순	私閏	臻合三去準心全清	sjuæn	sjuen	teyn ⁴	*
		霽	훈	울正훈	·웅	餘律	臻合三入術以次濁	juæt	0juet	teyn ⁴ , cyn ⁴	tsæn3
								y ⁴	*		

ㅍ	茁	출	굴正출	·꺄	鄒律	臻合三入術莊全清	tʃiwet	tʃjuet	tʃuo ²	tsʰyt3
	尢	출	술正출	·꺄	食聿	臻合三入術船全濁	dziuēt	dzʰjuet	ʃu ²	sœt6
	秠	출	술正출	·꺄	食聿	臻合三入術船全濁	dziuēt	dzʰjuet	ʃu ²	sœt6
	恤	홀	술俗홀	·꺄	辛聿	臻合三入術心全清	síuēt	sjuet	ey ⁴	sœt1
	鷓	홀	울正홀	·꺄	餘律	臻合三入術以次濁	jíuēt	Ojuet	y ⁴	jyt6
迺	홀	울正홀	·꺄	餘律	臻合三入術以次濁	jíuēt	Ojuet	y ⁴	jyt6	

표12) 第12韻類 < 건(韃) : 건(塞) · 건(建) · 꺄(訃) >

NO	자 례	현 음	정 수	동 운	반 절	중고음			보 통 화	읽 어			
						廣 韻	王 力	董 同 龢					
ㄱ	꺄	*獻	현	언俗현	:인	語偃	山開三平阮疑次濁	ŋien	ŋjen	ian ³	jin5		
		場	갈	걸俗갈	꺄	烏葛	山開一入曷影全清	Oat	?at	ɤ ⁴	at3		
		訃	알	갈俗알	·꺄	居例	山開三入薛見全清	kiēt	kjæet	teie ²	kit3		
		子	혈	걸俗혈	·꺄	居列	山開三入薛見全清	kiep	kiep	teie ²	kit3		
		碣	갈	걸俗갈	·꺄	其謁	山開三入月羣全濁	gíet	gʰjæt	teie ²	kit3		
ㄴ	꺄	挺	연	선俗연	션	式連	山開三平仙書全清	éien	ejæn	ʃan ¹	san1		
		鋌	연	선正연	션	以然	山開三平仙以次濁	ǰien	Ojæn	tʃʰan ²	sin4		
		羶	전	선俗전	션	式連	山開三平仙書全清	éien	ejæn	ʃan ¹	sin1		
		嗎	언	현俗언	현	胡涓	山合四平先匣全濁	ɣiwen	ɣiuen	cian ¹	hin1		
		*戰	천	전正천	전	將先	山開四平先精全清			teien ¹	*		
		擅	천	선俗천	·션	時戰	山開三去線禪全濁	ziēn	zjæn	ʃan ⁴	sin6		
		殄	전	년正전	:전	乃殄	山開四上銑泥次濁	nien	niēn	nian ³	nin2		
		偏	편	변正편	:변	方典	山開四上銑幫全清	pien	piēn	pian ³	pin2		
		殄	진	던俗진	:뎌	徒典	山開四上銑定全濁	dien	dʰiēn	tʰian ³	tʰin5		
		趁	진	년正진	뎌	尼展	山開三上獮娘次濁			nian ³	tʰen3		
		徧	편	변俗편	:변	方緬	山開三上獮幫全清	piēn	pjæn	pian ³	pin2		
		踰	진	년正진	뎌	澄延	山開三平儂澄全濁			niaen ³	tsin2		
		ㄷ	꺄	搆	철	덜正철	·뎌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ēt	ti ⁴	*
				涅	널	널俗널	·뎌	奴結	山開四入屑泥次濁	niet	niet	nie ⁴	nip6
				埤	질	덜俗질	·뎌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ēt	tie ²	tit6
				𪔐	질	덜俗질	·뎌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ēt	tie ²	tit6
				迭	질	덜俗질	·뎌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ēt	tie ²	tit6
				跌	질	덜俗질	·뎌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ēt	tie ¹	tit3
				荼	날	널俗날	·뎌	奴結	山開四入屑泥次濁	niet	niet	nie ⁴	nip6
𪔐	질			덜俗질	·뎌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ēt	tie ²	tit6		
凸	철			덜正철	·뎌	陀骨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ēt	tʰu ¹	tet6		
捏	날			널俗날	·뎌	奴結	山開四入屑泥次濁	niet	niet	nie ¹	nip6		
𪔐	질			덜俗질	·뎌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ēt	tie ⁴	tit6		
纈	힐			혈俗힐	·꺄	胡結	山開四入屑匣全濁	ɣiet	ɣiēt	cie ²	kit3		
𪔐	질			덜俗질	·뎌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ēt	tie ²	tit6		
頡	힐			혈俗힐	꺄	胡結	山開四入屑匣全濁	ɣiet	ɣiēt	cie ² 、 teie ²	kit3		
ㄹ	꺄	搆	힐	혈俗힐	·꺄	胡結	山開四入屑匣全濁	ɣiet	ɣiēt	cie ²	kit3		
		𪔐	힐	혈俗힐	·꺄	胡結	山開四入屑匣全濁	ɣiet	ɣiēt	cie ²	*		
		𪔐	설	얼俗설	·꺄	五結	山開四入屑疑次濁	ŋiet	ŋiēt	nie ⁴	ŋit6		
		挈	설	결俗설	·꺄	苦結	山開四入屑溪次清	kʰiēt	kʰiēt	teʰie ⁴	kʰit3		
		佚	질	덜俗질	·뎌	夷質	山開四入屑定全濁	jīēt	Ojēt	i ⁴	tit6		
ㄹ	꺄	宛	원	원俗완	:원	於阮	山合三上阮影全清	Oiwēn	?juēn	uan ³	yn1		
		婉	완	원俗완	:원	於阮	山合三上阮影全清	Oiwēn	?juēn	uan ³	wun2		

단	단	船	선	전俗선	·선	食川	山合三平仙船全濁	dʒiwen	dʒʰjuæn	tʂhuan²	syn4		
		漉	완	원俗완	·원	況袁	山合三平元曉次清	hiwen	xjuen	yan¹	yn1		
		塤	훈	훈正훈	·훈	況袁	山合三平元曉次清	hiwen	xjuen	cyn¹	hyn1		
	평	단	涎	연	선正연	·선	夕連	山開三平仙邪全濁	ziæn	zjæen	eian²	jin4	
			椽	연	전俗연	·연	直孃	山合三平仙澄全濁	dʒiwen	dʒʰjuæ n	tʂhuan²	tsʰyn4	
			涓	연	견俗연	·견	古玄	山合四平先見全清	kiwen	kiuen	teyan¹	kyn1	
		평	평	鏹	홀	결俗홀	·결	古穴	山合四入屑見全清	kiwet	kiuet	teye²	kʰyt3
				譟	홀	결俗홀	·결	古穴	山合四入屑見全清	kiwet	kiuet	teye²	kʰyt3
				滂	홀	결俗홀	·결	古穴	山合四入屑見全清	ʃuēt	Ojuet	teye²	kʰyt3
				拙	졸	절俗졸	·절	職悅	山合三入薛章全清	teiwet	tejuæet	tʂuo¹	tsyt3
				埶	랄	렬正랄	·렬	力	山合三入薛來次濁	liwet	ljuæet	lie⁴	lyt6
				颯	월	혈俗월	·혈	許聿	臻合三入術曉次清	hiuēt	xjuēt	eye⁴	*
曰	왈	월俗왈	·월	王伐	山合三入月云次濁	ɣiwet	ɣjuet	ye¹	jyt6				
狻	월	혈正월	·혈	許月	山合三入月曉次清	hiwet	xjuet	eye⁴	jyt6				

※ 제13운류-제15운류 : 순음, 양성운 ‘口’, 입성운 ‘ㅂ’

표13) 第13韻類 < 줍(簪) : 슝(痒) · 줍(譜) · 줍(戢)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ㄹ	ㅁ	欽	흠	금俗흠	·금	去金	深開三平侵溪次清	kʰiēm	kʰjem	tɕʰin¹	jem1
		泣	읍	급俗읍	·급	去急	深開三入緝溪次清	kʰiēp	kʰjep	tɕʰi⁴	jep1
		潛	읍	급俗읍	·급	去急	深開三入緝溪次清	kʰiēp	kʰjep	tɕʰi⁴	jep1
		熠	습	읍俗습	·읍	為立	深開三入緝云次濁	ɣiēp	ɣjep	i⁴	jep6
ㄹ	ㅁ	闕	츄	침正츄	·침	丑禁	深開三去沁徹次清	tʰiēm	tʰjem	tʂʰən⁴	tsʰem3
		沁	심	침正심	·침	七鳩	深開三去沁清次清	tsʰiēm	tsʰjem	tɕʰin⁴	səm3
		箴	잠	침俗잠	·침	職深	深開三平侵章全清	teīēm	tejem	tʂən¹	tsəm1
		忱	침	심正침	·심	氏任	深開三平侵禪全濁	ziēm	zjem	tʂʰən²	səm4
	藩	심	침正심	·침	昌枕	深開三上寢昌次清	teʰiēm	teʰjem	ʃən³	səm2	

표14) 第14韻類 < 감(甘) : 감(感) · 감(紺) · 감(閤)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ㄹ	ㅁ	憾	감	함俗감	·함	胡紺	咸開一去勘匣全濁	ɣɔm	ɣAm	xan⁴	hem6
		撼	감	함俗감	·함	胡感	咸開一上感匣全濁	ɣɔm	ɣAm	xan⁴	hem6
		眈	탐	담正탐	·담	徒含	咸開一平覃定全濁	dɔm	dʰAm	tan¹	tam1
		耽	탐	담正탐	·담	丁含	咸開一平覃端全清	tɔm	tAm	tan¹	tam1
		酖	탐	담正탐	·담	丁含	咸開一平覃端全清	tɔm	tAm	tan¹	tam1
		慙	감	함俗감	·함	呼談	咸開一平談曉次清	ham	xam	xan¹	hem1
		蚺	감	함俗감	·함	呼談	咸開一平談曉次清	ham	xam	xan¹	hem1
	ㅂ	酣	감	함俗감	·함	胡甘	咸開一平談匣全濁	ɣam	ɣam	xan¹	hem4
		狎	압	함正압	·함	胡甲	咸開二入狎匣全濁	ɣap	ɣap	eia²	hap6
		匣	감	함俗감	·함	胡甲	咸開二入狎匣全濁	ɣap	ɣap	eia²	hap6

	獨	갑	검정갑	·갑	起法	咸合三入乏溪次清	kʰwɛp	kʰjuɛp	xy ⁴	hit3
	頷	합	갑俗합	·갑	古杳	咸開一入合見全清	kop	kAp	xy ²	kɛp3
	盍	합	갑俗합	·갑	口荅	咸開一入合溪次清	kʰɔp	kʰAp	kʰy ⁴	hɛp1
	盍	합	갑俗합	·갑	苦盍	咸開一入盍溪次清	kʰap	kʰap	kʰy ¹	hɛp1
	恰	갑	검정갑	·갑	苦洽	咸開二入洽溪次清	kʰɛp	kʰɛp	teʰia ⁴	hɛp1
	筍	차	잡俗차	·답	竹洽	咸開二入洽知全清	ʧɛp	ʧɛp	tʂa ¹	*
	夾	협	검俗협	·갑	古洽	咸開二入洽見全清	kɛp	kɛp	teia ¹	kɛp3
	洽	흡	협俗흡	·협	侯夾	咸開二入洽匣全濁	yɛp	yɛp	teʰia ⁴	hap6
	恰	흡	검정갑	·갑	苦洽	咸開二入洽溪次清	kʰɛp	kʰɛp	teʰia ⁴	hɛp1
	恰	흡	검俗흡	·갑	苦洽	咸開二入洽溪次清	kʰɛp	kʰɛp	teʰia ⁴	hɛp1

표15) 第15韻類 < 검(筍) : 검(檢) · 검(劍) · 검(劫) >

NO	자례	현음	정속	동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일어			
						廣韻	王力	董同龢					
ㄱ	검	泛	핍	범俗핍	·범	孚梵	咸合三去梵敷次清	pʰwɛn	pʰjuɛn	fan ⁴	fan3		
		欠	흙	검俗흙	·검	去劍(劍)	咸合三去梵溪次清	kʰɛm	kʰjuɛm	teʰian ⁴	him3		
		驗	협	업俗협	·업	魚窆	咸開三去黓窆次濁	ŋɛm	ŋjɛm	ian ⁴	jim6		
ㄴ	검	乏	핍	범俗핍	·범	房法	咸合三入乏奉全濁	biwɛp	bʰjuɛp	fa ²	fet6		
		陆	점	엄정점	·엄	余廉	咸開三平鹽以次濁	jiɛm	ŋjɛm	tian ⁴	jim4		
		兼	검	렴俗검	·렴	力鹽	咸開三平鹽來次濁	liɛm	ljɛm	lian ²	lim4		
		粘	점	념정점	·점	女廉	咸開三平鹽娘次濁	niɛm	njɛm	tʂan ¹	tsim1		
		殲	섬	검정섬	·검	子廉	咸開三平鹽精全清	tsiɛm	tsjɛm	teian ¹	tsʰim1		
		*檻	잠	침정침	·침	慈鹽	咸開三平鹽從全濁	dziɛm	dzhjɛm	teʰian ²	*		
		潛	잠	침정침	·침	慈鹽	咸開三平鹽從全濁	dziɛm	dzhjɛm	teʰian ²	tsʰim4		
		檐	잠	검정침	·검	子廉	咸開三平鹽精全清	tsiɛm	tsjɛm	teian ¹	tsim1		
		檐	점	엄俗점	·엄	余廉	咸開三平鹽以次濁	jiɛm	ŋjɛm	ian ²	jim4		
		戩	점	침정점	·침	丑廉	咸開三平鹽徹次清	ʧiɛm	ʧjɛm	tʂʰan ¹	tsʰim1		
		苫	점	검정점	·검	舒瞻	咸開三去黓書全清	ɕiɛm	ɕjɛm	ʂan ⁴	sim1		
		*暫	참	침정참	·침	七黓	咸開三去黓清次清	tsʰiam	tsʰjam	teʰian ⁴	*		
		塹	참	침俗참	·침	七黓	咸開三去黓清次清	tsʰiam	tsʰjam	teʰian ⁴	tsʰim3		
		拈	념	념俗념	·념	奴兼	咸開四平添泥次濁	niɛm	niɛm	nian ¹	nim4		
		恬	념	렴俗념	·렴	徒兼	咸開四平添定全濁	diɛm	dʰiɛm	tʰian ²	tʰim4		
		佔	점	침정점	·침	丁兼	咸開四平添端全清	tiɛm	tiɛm	tian ¹	tsʰim1		
		慊	협	검俗협	·검	苦簞	咸開四上忝溪次清	kʰiɛm	kʰjɛm	teʰian ³	him2		
		僭	참	검정참	·검	子念	咸開四去禡精全清	tsiɛm	tsiɛm	teian ⁴	tsʰim3		
		ㄷ	검	*驕	섬	념俗섬	·념	呢輒	咸開三入葉泥次濁	niɛp	njɛp	nie ⁴	*
				聶	섬	념俗섬	·념	尼輒	咸開三入葉娘次濁	niɛp	njɛp	nie ⁴	nip6
				摺	섬	검俗섬	·검	之涉	咸開三入葉章全清	teɿɛp	tejɛp	tʂy ²	tsip3
				讐	섬	검俗섬	·검	之涉	咸開三入葉章全清	teɿɛp	tejɛp	tʂy ²	tsip3
				懽	섬	검俗섬	·검	之涉	咸開三入葉章全清	teɿɛp	tejɛp	ʂy ⁴	tsip3
				譟	섬	념俗섬	·념	而涉	咸開三入葉日次濁	ʧiɛp	ʧjɛp	nie ⁴	jip6
				鑷	섬	념俗섬	·념	尼輒	咸開三入葉娘次濁	niɛp	njɛp	nie ⁴	nip6
				*輒	섬	념俗섬	·념	呢輒	咸開三入葉泥次濁	niɛp	njɛp	nie ⁴	*
				躡	섬	념俗섬	·념	尼輒	咸開三入葉娘次濁	niɛp	njɛp	nie ⁴	nip6
筭	협			검俗협	·검	古協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kiɛp	teia ²	kap3		
挾	협			검俗협	·협	胡頰	咸開四入帖匣全濁	yɿɛp	yɿɛp	cie ²	hip6		
挾	협			검俗협	·협	苦協	咸開四入帖溪次清	kʰiɛp	kʰjɛp	teʰie ⁴	*		
挾	협			검俗협	·협	古協	咸開四入帖見全清	kiɛp	kiɛp	teia ¹	kap3		
腴	협			검俗협	·협	謙琰	咸開三上琰溪次清	kʰiɛm	kʰjɛm	teʰian ³	kap3		

	鉄	협	겹俗협	·겹	古協	咸開四入帖見全清	kiep	kiep	teia ²	kap ³
	愜	협	겹俗협	·겹	苦協	咸開四入帖溪次清	k ^h iep	k ^h iep	te ^h ie ⁴	hip ³
	蔑	협	겹俗협	·겹	苦協	咸開四入帖溪次清	k ^h iep	k ^h iep	te ^h ie ⁴	kip ²
	莢	협	겹俗협	·겹	古協	咸開四入帖見全清	kiep	kiep	teia ²	kap ³
	浹	협	겹正협	·겹	子協	咸開四入帖精全清	tsiep	tsiep	teia ¹	tsip ³
	頰	협	겹俗협	·겹	古協	咸開四入帖見全清	kiep	kiep	teia ²	kap ³

※ 제16운류-제17운류 : 음성운 ‘몽’

표16) 第16韻類 < 공(高) : 공(果) · 공(誥) *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결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ㅎ ㅎ	翱	고	오俗고 285)	움	五勞	效開一平豪疑次濁	ɣau	ɣau	au ¹	ɣeu ⁵
	醪	료	로正료	률	魯刀	效開一平豪來次濁	lau	lau	lau ²	lau ⁴
	秣	모	호正모	·물	呼到	效開一去號曉次清	hau	xau	xau ⁴	heu ³
	謬	조	소俗조	·솔	蘇到	效開一去號心全清	sau	sau	tsau ⁴	ts ^h au ³
	臊	조	·	솔	蘇遭	效開一平豪心全清	sau	sau	sau ¹	s ^ɔ u ¹
	洮	조	도正도	툴	土刀	效開一平豪透次清	t ^h au	t ^h au	t ^h au ¹	t ^ɔ u ¹
	燥	조	소俗조	:솔	蘇老	效開一上皓心全清	sau	sau	tsau ⁴	ts ^h au ³
	噪	조	소俗조	·솔	蘇到	效開一去號心全清	sau	sau	tsau ⁴	ts ^h au ³
	縞	호	고俗호	:골	古老	效開一上皓見全清	kau	kau	kau ³	keu ²
	皓	호	고正호	률	古老	效開一上皓見全清	kau	kau	kau ⁴	hou ⁶
犒	호	고俗호	·골	苦到	效開一去號溪次清	k ^h au	k ^h au	k ^h au ⁴	hou ³	
ㅎ ㅎ	敲	교	교正교	률	口交	效開二平肴溪次清	k ^h au	k ^h au	te ^h iau ¹	heu ¹
	敲	교	요俗교	:율	五巧	效開二上巧疑次濁	ɣau	ɣau	iau ³	ɣeu ⁵
	嘯	규	교俗규	·률	五弔	效開四去嘯見次濁	ɣieu	ɣieu	iau ⁴	kiu ³
	叫	규	교俗규	·률	古弔	效開四去嘯見全清	kieu	kieu	teiau ⁴	kiu ³
	竅	규	교俗규	·률	苦弔	效開四去嘯溪次清	k ^h ieu	k ^h ieu	te ^h iau ⁴	k ^h iu ³
	棹	도	조俗도	·률	直教	效開二去效澄全濁	d ^h au	d ^h au	tsau ⁴	tsau ⁶
	掉	도	도正도	:률	徒弔	效開四上嘯定全濁	dieu	d ^h ieu	tiau ³	tsau ⁶
	獠	료	조正료	:률	張絞	效開二上巧知全清	t ^h au	t ^h au	lau ³	lou ⁵
	杪	묘	요俗묘	:률	烏皎	效開四上篠影全清	Oieu	?ieu	iau ³	jiu ²
	召	소	조俗소	·률	直照	效開三去笑澄全濁	d ^h ieu	d ^h jæu	tsau ⁴	tsiu ⁶
	炤	소	조正소	·률	之少	效開三去笑章全清	teieu	tejæu	tsau ⁴	tsiu ³
	灑	소	조正소	·률	子小	效開三上小精全清	tsieu	tsjæu	ts ^h au ²	ts ^h au ⁴
	釗	소	조正소	·률	止遙	效開三平宵章全清	teieu	tejæu	tsau ¹	tsiu ¹
	沼	소	조俗소	:률	之少	效開三上小章全清	teieu	tejæu	tsau ³	tsiu ²
	巢	소	조正소	:률	鉏交	效開二平肴崇全濁	d ^h au	d ^h au	ts ^h au ²	ts ^h au ⁴
	僥	요	교俗요	율	五聊	效開四平蕭疑次濁	ɣieu	ɣieu	iau ²	jiu ⁴
傲	요	교俗요	·률	古堯	效開四去蕭見全清	kieu	kieu	teiau ⁴	kiu ¹	

澆	요	교요요	꺄	古堯	效開四平蕭見全清	kieu	kieu	teiau ¹	kiu1
塹	요	교요요	꺄	口交	效開二平肴溪次清	k ^h au	k ^h au	te ^h iau ¹	hau1
灑	요	교요요	꺄	堅堯	效開四平蕭見全清			ieu ¹	*
傲	요	교요요	꺄	古堯	效開四平蕭見全清	kieu	kieu	teiau ¹	kiu1
稍	초	쇼正초	·꺄	所教	效開二去效生全清	ʃau	ʃau	ʃau ¹	sau2
納	초	쇼俗초	꺄	相邀	效開三平宵心全清	sɿeu	sjæu	eiau ¹	siu1
軺	초	요俗초	꺄	餘昭	效開三平宵以次濁	ʃieu	0jæu	iau ¹	jiu4
杪	초	묘俗초	:꺄	亡沼	效開三上小明次濁	mɿeu	mjæu	miau ³	miu5
鞘	초	쇼俗초	·꺄	私妙	效開三去笑心全清	sɿeu	sjæu	te ^h iau ⁴	sau1
越	탁	착俗탁	·*	丑教	效開二去效徹次清	t ^h au	t ^h au	tɕ ^h uo ⁴	ts ^h œk3
臬	효	교효효	꺄	古堯	效開四平蕭見全清	kieu	kieu	eiau ¹	hiu1

표17) 第17韻類 < 꺄(鳩) : 꺄(九) · 꺄(救) *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꺄	꺄	嘔	구	우俗구	꺄	烏侯	流開一平侯影全清	0əu	?u	ou ¹	hou3
		漚	구	우俗구	·꺄	烏候	流開一去候影全清	0əu	?u	ou ⁴	ɥau1
		*𪗇	구	후俗구	·꺄	呼漏	流開一去候曉次清	həu	xu	k ^h ou ⁴	*
		𪗈	루	구正루	꺄	落侯	流開一平侯來次濁	ləu	lu	lou ²	leu4
		姆	모	모正모	·꺄	莫候	流開一去候明次濁	məu	mu	mu ³	mou5
		𪗉	모	무俗모	꺄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ɿəu	mju	mau ²	meu4
		牟	모	무俗모	꺄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ɿəu	mju	mou ²	meu4
		眸	모	무俗모	꺄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ɿəu	mju	mou ²	meu4
		謀	모	무俗모	꺄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ɿəu	mju	mou ²	meu4
		眸	모	무俗모	꺄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ɿəu	mju	mau ²	mau4
		𪗊	모	무俗모	꺄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ɿəu	mju	mou ²	meu4
		𪗋	모	무俗모	꺄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ɿəu	mju	mau ²	mau4
꺄	꺄	𪗌	주	두正주	·꺄	天口	流開一上厚透次清	t ^h əu	t ^h u	t ^h ou ³	t ^h eu2
		謬	류	뮤俗류	·꺄	靡幼	流開三去幼明次濁	miəu	mjəu	miou ⁴	meu6
		愁	수	추正수	꺄	士尤	流開三平尤崇全濁	dɕiəu	dɕ ^h ju	tɕ ^h ou ²	seu4
		𪗍	주	쥬正주	꺄	赤周	流開三平尤昌次清	te ^h iəu	te ^h ju	tɕ ^h ou ¹	ts ^h eu1
	彪	표	표俗표	꺄	甫然	流開三平幽幫全清	piəu	pjəu	piu ¹	piu1	

※ 제18운류-제22운류 : 음성운, 중성자와 결합한 ‘꺄’

285) ‘俗’이나 ‘正’의 구별은 속음(통용음)으로서의 차이라기보다는 교정음으로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대체로 『화동』에서 정속음을 동시에 표시한 자는 ‘俗’을 쓰고, 『삼운』과 『규장』에서 교정한 음이 『화동』과 다를 경우에는 ‘正’으로 나타냈다.(이돈주(1997), 『全韻玉篇의 正·俗漢字音에 대한 연구』, 『국어학』 30, 4쪽.)

표18) 第18韻類 < 중(賁) :중(紫) ·중(恣) *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ㅇ	ㅇ	繼	사	스俗쇄	·중	所綺	止開三上紙生全清	ʃje	ʃje	ei ³	si2
		兕	시	스正시	·중	徐姊	止開三上旨邪全濁	zi	zjei	sɿ ⁴	tsi6
		齋	재	즈俗지	중	即夷	止開三平脂精全清	tsi	tsjei	tei ¹	tsi1
		泚	자	츠正즈	·중	雌氏	止開三上紙清次清	tsʰie	tsʰje	tsʰɿ ³	tsʰi2
		漬	지	즈正지	·중	疾智	止開三去寘從全濁	dzje	dzɿ	tsɿ ⁴	tsi6
ㅇ	ㅇ	伎	기	지俗기	·징	支義	止開三去寘章全清	teje	teje	tsɿ ⁴	tsi3
		嗜	기	시俗기	·쌍	常利	止開三去至禪全濁	zi	zjei	ʃɿ ⁴	si3
		螭	리	치俗리	팅	丑知	止開三平支微次清	ʧje	ʧje	tsʰɿ ¹	tsʰi1
		魑	리	치俗리	팅	丑知	止開三平支微次清	ʧje	ʧje	tsʰɿ ¹	tsʰi1
		擣	리	치擣리	팅	丑知	止開三平支微次清	ʧje	ʧje	tsʰɿ ¹	tsʰi1
		魅	매	미俗미	·밍	明祕	止開三去至明次濁	mi	mjei	mei ⁴	mei6
		寐	매	미俗미	·밍	彌二	止開三去至明次濁	mi	mjei	mei ⁴	mei6
		彪	매	미俗미	·밍	明祕	止開三去至明次濁	mi	mjei	mei ⁴	*
		弛	이	시俗이	·싱	施是	止開三上紙書全清	eje	eje	tsʰɿ ²	tsʰi2
		彫	이	치俗리	팅	丑知	止開三平支微次清	ʧje	ʧje	tsʰɿ ¹	*
		飶	지	시俗디	·쌍	神紙	止開三上紙船全濁	dzje	dzɿ	ʃɿ ⁴	*
		懷	치	지正치	·딩	脂利	止開三去至章全清	tei	tejei	tsɿ ⁴	tsi3
		憤	치	지正치	·딩	陟利	止開三去至知全清	ʧi	ʧjei	tsɿ ⁴	tsi3
解	치	지俗치	징	章移	止開三平支章全清	teje	teje	tsɿ ⁴	tsi3		
ㅇ	ㅇ	*磔	대	티俗테	·뎡	於犴	蟹開一去代定全濁			tʰɿ ⁴	*
		顯	시	시俗시	싱	蘇來	蟹開一平哈心全清	sɿi	sʰɿi	sai ¹	*
		猜	시	치俗시	칭	倉才	蟹開一平哈清次清	tsʰɿi	tsʰɿi	tsʰai ¹	tsʰai1
		僇	시	치俗시	칭	倉才	蟹開一平哈清次清	tsʰɿi	tsʰɿi	tsʰai ¹	tsʰai1
		隄	시	시俗시	싱	素回	蟹合一平灰心全清	sɿui	sʰɿui	suei ¹	soi1
		隄	체	티俗테	·뎡	徒耐	蟹開一去代定全濁	ɿi	ɿi	tai ⁴	toi6
ㅇ	ㅇ	珀	계	기俗계	·굉	其冀	止開三去至羣全濁	gi	gʰjei	tei ⁴	*
		泊	계	기正계	·굉	几利	止開三去至見全清	ki	kjei	tei ⁴	kei3
		沂	기	의俗기	잉	魚衣	止開三平微疑次濁	ŋɿi	ŋjei	i ²	*
		樞	치	치正치	경	側持	止開三平之莊全清	tʃi	tʃi	tsɿ ¹	tsi1
		姬	희	기俗희	·굉	居之	止開三平之見全清	ki	ki	tei ¹	kei1

표19) 第19韻類 < 굉(傀) :굉(隗) ·굉(儁) *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ㅇ	ㅇ	樞	퇴	튀正퇴	·굉	魯回	蟹合一平灰來次濁	lɿi	luɿi	lei ²	lœi4
		澮	회	괴俗회	·굉	古外	蟹合一去泰見全清	kuai	kuai	kʰuai ⁴	kui2
		誼	회	괴俗회	굉	苦回	蟹合一平灰溪次清	kʰuɿi	kʰuɿi	xuei ¹	fui1
		恢	회	괴俗회	굉	苦回	蟹合一平灰溪次清	kʰuɿi	kʰuɿi	xuei ¹	fui1
		鄒	회	괴俗회	·굉	古外	蟹合一去泰見全清	kuai	kuai	kʰuai ⁴	kʰui2
		繪	회	괴俗회	·굉	古外	蟹合一去泰見全清	kuai	kuai	kʰuai ⁴	kʰui2

	膾	회	괴俗회	·굉	古外	蟹合一去泰見全清	kuai	kuai	k ^h uai ⁴	k ^h ui ²
	膾	회	괴俗회	·굉	古外	蟹合一去泰見全清	kuai	kuai	k ^h uai ⁴	k ^h ui ²
	濊	회	외正회	·횡	呼會	蟹合一去泰曉次清	huai	xuai	xuei ⁴	wai ³
	盜	회	괴俗회	굉	苦回	蟹合一平灰溪次清	k ^h ui	k ^h ui	k ^h uei ¹	kwei ¹
	廐	외	회正외	·행	胡罪	蟹合一上賄匣全濁	ɣui	ɣui	xuei ⁴	wai ²
	備	외	외正외	·행	落猥	蟹合一平賄來次濁	lui	lui	lei ³	lœi ⁵
	碎	쉬	쇄正쉬	·쨍	子對	蟹合一去隊精全清	tsui	tsui	tsuei ⁴	tsœi ³
	倅	쉬	쇄正쉬	·쨍	七內	蟹合一去隊清次清	ts ^h ui	ts ^h ui	ts ^h uei ⁴	ts ^h œi ³
	焯	쉬	쇄正쉬	·쨍	七內	蟹合一去隊清次清	ts ^h ui	ts ^h ui	ts ^h uei ⁴	ts ^h œi ³
	淬	쉬	쇄正쉬	·쨍	七內	蟹合一去隊清次清	ts ^h ui	ts ^h ui	ts ^h uei ⁴	ts ^h œi ³
	椀	취	취正취	·쨍	租外	蟹合一去泰精全清	tsuai	tsuai	tsou ¹	tsœu ¹
	闕	괘	회俗괘	·행	胡對	蟹合一去隊匣全濁	ɣui	ɣui	xuei ⁴	wui ⁶
	潰	괘	회俗괘	·행	胡對	蟹合一去隊匣全濁	ɣui	ɣui	k ^h uei ⁴	k ^h ui ²
	薈	회	외正회	·굉	烏外	蟹合一去泰影全清	Ouai	?uai	xuei ¹	wai ³

표20) 第20韻類 < 갡(佳) : 갡(解) · 갡(蓋) * >

NO	자 례	현 음	정 속	동 운	반 절	중고음			보 통 화	월 어
						廣 韻	王 力	董 同 龢		
갡	階	계	기俗계	갡	古階	蟹開二平皆見全清	kei	kei	teie ¹	kai ¹
	械	계	히俗계	·행	胡介	蟹開二去怪匣全濁	ɣei	ɣei	eie ⁴	hai ⁶
	階	계	기俗계	갡	古階	蟹開二平皆見全清	kei	kei	teie ¹	kai ¹
	柴	시	지俗시	쟁	士佳	蟹開二平佳崇全濁	dʒai	dʒ ^h æi	tʂ ^h ai ²	tsai ⁶
	柴	시	지俗시	쟁	士佳	蟹開二平佳崇全濁	dʒai	dʒ ^h æi	tʂ ^h ai ²	tsai ⁴
	豺	시	지俗시	쟁	士皆	蟹開二平皆崇全濁	dʒei	dʒ ^h ei	tʂ ^h ai ²	tsai ⁴
	儕	제	지俗제	쟁	士皆	蟹開二平皆崇全濁	dʒei	dʒ ^h ei	tʂ ^h ai ²	tsai ⁴
	欸	해	기俗해	·갡	苦愛	蟹開一去代溪次清	k ^h ai	k ^h ai	k ^h ai ⁴	k ^h ai ³
	菱	해	기俗해	갡	古階	蟹開二平皆見全清	kei	kei	kai ¹	koi ¹
	脰	해	기俗해	행	戶佳	蟹開二平佳匣全濁	ɣai	ɣæi	eie ²	*
	陔	해	기俗해	갡	古階	蟹開一平哈見全清	koi	kai	kai ¹	koi ¹
	咳	해	기俗해	·갡	戶來	蟹開一平哈匣全濁	ɣoi	ɣai	xai ²	k ^h ai ³
	咳	해	기俗해	갡	古哀	蟹開一平哈見全清	koi	kai	kai ¹	*
	懈	해	기俗해	·갡	古隘	蟹開二去卦見全清	kai	kæi	eie ⁴	hai ⁵
	楷	해	기俗해	갡	古階	蟹開二平皆見全清	kei	kei	eie ²	kai ¹
	諧	해	.	행	戶皆	蟹開二平皆匣全濁	ɣei	ɣei	eie ²	hai ⁴
	垓	해	기俗해	갡	古哀	蟹開一平哈見全清	koi	kai	kai ¹	koi ¹
	懈	해	기俗해	·갡	古隘	蟹開二去卦見全清	kai	kæi	eie ⁴	kai ³
	痄	해	기俗해	갡	古階	蟹開二平皆見全清	kei	kei	teie ¹	kai ¹
	*咳	해	기俗해	갡	柯開	蟹開一平哈見全清			kʌi ¹	*
楷	해	기俗해	갡	古階	蟹開二平皆見全清	kei	kei	teie ⁴	kai ¹	
咳	해	기俗해	갡	古哀	蟹開一平哈見全清	koi	kai	kai ¹	koi ¹	
佻	해	기俗해	갡	苦哀	蟹開一平哈溪次清	k ^h oi	k ^h ai	kai ¹	koi ¹	
鞋	혜	히俗혜	행	戶佳	蟹開二平佳匣全濁	ɣei	ɣei	eie ²	hai ⁴	

		鞅	혜	히(俗혜)	행	戶佳	蟹開二平佳匣全濁	ɣai	ɣæi	ɕie ²	*
행	행	媯	왜	괘(正왜)	괘	古蛙	蟹合二平佳見全清	kwai	kuæi	ua ¹	kwai1
		媯	왜	괘(俗왜)	괘	古蛙	蟹合二平佳見全清	kwai	kuæi	kua ¹	kwai1
		媯	왜	괘(正왜)	괘	古蛙	蟹合二平佳見全清	kwai	kuæi	kua ¹	kwai1

표21) 第21韻類 < 궁(媯) : 궁(軌) · 궁(媯) *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행	행	宄	귀	귀(俗꺠)	꺠	居洧	止合三上旨見全清	kwi	kjuɛi	kuei ³	kwai2
		*辺	귀	귀(正기)	꺠	居偽	止合三去寘見全清			kuei ⁴	*
		晷	귀	꺠(正귀)	꺠	居洧	止合三上旨見全清	kwi	kjuɛi	kuei ³	kwai2
		魄	외	위(俗외)	꺠	於鬼	止合三上尾影全清	Oiwəi	?juəi	uei ³	fai3
		巍	외	위(俗외)	꺠	語韋	止合三平微疑次濁	ŋiwəi	ŋjuəi	uei ¹	ŋai4
		畏	외	위(俗외)	꺠	於胃	止合三去未影全清	Oiwəi	?juəi	uei ⁴	wai3
		喟	위	꺠(俗위)	꺠	丘愧	止合三去至溪次清	k ^h wi	k ^h juɛi	k ^h uei ⁴	wai3
		彙	휘	위(正휘)	꺠	于貴	止合三去未云次濁	ɣiwəi	ɣjuəi	xuei ⁴	wai6
행	행	虧	휴	꺠(俗휴)	꺠	去為	止合三平支溪次清	k ^h we	k ^h juɛ	k ^h uei ¹	k ^h wai1
		癸	계	꺠(俗계)	꺠	居諫	止合三上旨見全清	kwi	kjuei	kuei ³	kwai3
		*桂	계	꺠(正계)	꺠	於避	止合三去寘影全清	Oiwei	?iuei	uei ¹	kwɛŋ2
		瑞	서	꺠(俗서)	꺠	是偽	止合三去寘禪全濁	ziwe	zjue	zuei ⁴	sɕei6
		恚	에	꺠(俗에)	꺠	於避	止合三去寘影全清	Oiwe	?jue	xuei ⁴	wai3
		諉	위	꺠(正위)	꺠	女恚	止合三去寘娘次濁	n ^h we	njue	uei ³	wai2
		婪	유	꺠(俗유)	꺠	息遺	止合三平脂心全清	swi	sjuei	suei ¹	soi1
		悴	꺠	꺠(俗꺠)	꺠	秦醉	止合三去至從全濁	dzwi	dz ^h juei	tshuei ⁴	sɕei6
		頽	꺠	꺠(俗꺠)	꺠	秦醉	止合三去至從全濁	dzwi	dz ^h juei	tshuei ⁴	*
		惝	꺠	꺠(俗꺠)	꺠	之睡	止合三去寘章全清	te ^h we	tɕjue	tɕuei ⁴	zo ^h i3
		萃	꺠	꺠(俗꺠)	꺠	秦醉	止合三去至從全濁	dzwi	dz ^h juei	tshuei ⁴	sɕei6
		瘁	꺠	꺠(俗꺠)	꺠	秦醉	止合三去至從全濁	dzwi	dz ^h juei	tshuei ⁴	sɕei6
棼	혜	꺠(俗혜)	꺠	徐醉	止合三去至邪全濁	zwi	zjuei	xuei ⁴	sɕei6		

표22) 第22韻類 < 경(雞) : 경(啓) · 경(闕) *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행	행	靛	계	꺠(俗계)	꺠	胡介	蟹開四去霽匣全濁	ɣiei	ɣiei	ɕi ⁴	hei6
		系	계	꺠(俗계)	꺠	胡計	蟹開四去霽匣全濁	ɣiei	ɣiei	ɕi ⁴	hei6
		繫	계	꺠(俗계)	꺠	口奚	蟹開四平齊溪次清	k ^h iei	k ^h iei	tei ⁴	hei6
		彌	니	니(正네)	꺠	奴禮	蟹開四上齊泥次濁	niei	niei	ni ³ , mi ²	nei5
		荔	례	리(正례)	꺠	郎計	蟹開四去霽來次濁	liei	liei	li ⁴	lei6
		賁	재	꺠(俗지)	꺠	祖稽	蟹開四平齊心全清	tsiei	tsiei	tɕ ^h ⁴	*
		獅	제	꺠(正제)	꺠	居例	蟹開三去祭見全清	k ^h iei	kjæi	tɕ ^h ⁴	k ^h ei3
		僚	제	꺠(正제)	꺠	丑例	蟹開三去祭微次清	t ^h iei	t ^h jæi	tɕ ^h ⁴	tsh ^h i3
移	체	꺠(正테)	꺠	成鸞	蟹開三平齊禪全濁	zi ^h ei	zjæi	i ²	ji4		

		奚	해	해(俗히)	행	胡雞	蟹開四平齊匣全濁	ɣiei	ɣiei	ei ¹	hei4
평	평	桂	계	유(正계)	평	烏攜	蟹合四平齊影全清	ŋiwei	ʔiuei	uei ¹	kweŋ2
		蕤	체	제(正체)	·평	子芮	蟹合三去祭精全清	tsiwei	tsjuæi	teye ²	tsyt3

※ 제23운류-제26운류 : 음성운

표23) 第23韻類 < 공(孤) :공(古) ·공(顧) * >

NO	자 례	현 음	정 속	동 운	반 절	중고음			보 통 화	월 어	
						廣韻	王力	董同龢			
공	공	枯	고	고(正구)	공	苦胡	遇合一平模溪次清	k ^h u	k ^h uo	k ^h u ¹	fu1
		樵	무	모(正무)	몽	莫胡	遇合一平模明次濁	mu	muo	mo ²	*
		鏘	무	모(正무)	·몽	莫補	遇合一上姥明次濁	mu	muo	mu ³	*
		鉏	서	조(俗서)	쥬	土魚	遇開三平魚崇全濁	dʒio	dʒ ^h jo	tʂ ^h u ²	ts ^h o4
		耒	서	조(俗서)	쥬	土魚	遇開三平魚崇全濁	dʒio	dʒ ^h jo	tʂ ^h u ²	ts ^h o4
		鋤	서	조(俗서)	쥬	土魚	遇開三平魚崇全濁	dʒio	dʒ ^h jo	tʂ ^h u ²	ts ^h o4
		酥	소	소(正수)	송	素姑	遇合一平模心全清	su	suo	su ¹	sou1
		齏	저	조(正주)	·종	牀呂	遇開三上語崇全濁	dʒio	dʒ ^h jo	tey ³	thœi2
	*潤	후	호(正후)	·홍	下各	遇合一去莫匣全濁			xv ²	*	

표24) 第24韻類 < 강(歌) :강(哿) ·강(箇) * >

NO	자 례	현 음	정 속	동 운	반 절	중고음			보 통 화	월 어	
						廣韻	王力	董同龢			
강	강	𪛗	가	라(正가)	·랑	來可	果開一上哿來次濁	la	la	luo ³	lo5
		訶	가	하(俗가)	항	虎何	果開一平歌曉次清	ha	xa	xv ¹	ho1
		暇	가	하(俗가)	·향	胡駕	假開二去禡匣全濁	ɣa	ɣa	eia ²	ha6
		苛	가	하(俗가)	향	胡歌	果開一平歌匣全濁	ɣa	ɣa	k ^h v ¹	ho4
		呵	가	하(俗가)	항	虎何	果開一平歌曉次清	ha	xa	xv ¹	ho1
		茶	다	차(俗다)	땅	宅加	假開二平麻澄全濁	d̪a	d̪ ^h a	tʂ ^h a ²	ts ^h a4
		椽	다	차(俗다)	땅	宅加	假開二平麻澄全濁	d̪a	d̪ ^h a	tʂ ^h a ²	*
		槎	사	차(正사)	쌍	鉏加	假開二平麻崇全濁	dʒa	dʒ ^h a	tʂ ^h a ²	ts ^h a4
		租	사	차(正사)	장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ʃa	tʂa ¹	tsa1
		昨	사	차(俗사)	·장	側駕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tʃa	tʂa ⁴	tsa1
		詐	사	차(正사)	·장	側駕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tʃa	tʂa ⁴	tsa3
		檀	사	차(正사)	장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ʃa	tʂa ¹	tsa1
		楂	사	차(正사)	쌍	鉏加	假開二平麻崇全濁	dʒa	dʒ ^h a	tʂ ^h a ²	ts ^h a4
		詫	타	차(俗타)	·탕	丑亞	假開二去禡徹次清	ʈa	ʈa	tʂ ^h a ⁴	ts ^h a3
		咤	타	차(俗타)	·탕	陟駕	假開二去禡知全清	ʈa	ʈa	tʂa ⁴	*
		吒	타	차(俗타)	·탕	陟駕	假開二去禡知全清	ʈa	ʈa	tʂ ^h a ⁴	ts ^h a3
		𪛗	하	가(俗하)	·강	古疋	假開二上馬見全清	ka	ka	ku ³	ka2
양	양	置	저	차(俗저)	장	子邪	假開三平麻精全清	tsia	tsja	tey ¹	tse1
		担	저	차(俗저)	·장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ʃa	tʂa ¹	tsa1

아		姐	저	자俗저	:장	茲野	假開三上馬精全清	tsia	tsja	teie ³	tse2	
		*她	저	자俗저	:장	子野	假開三上馬精全清			tʰa ¹	tʰa1	
	아	아	籛	과	좌俗과	광	陟瓜	假合二平麻知全清	ɬwa	ɬua	tʂua ¹	kwo1
			踝	과	화正과	:황	胡瓦	假合二上馬匣全濁	ɣwa	ɣua	xuai ²	wa5
			*搯	과	좌俗과	왕	張瓜	假合二平麻知全清			tʂua ¹	tsa1
			櫛	과	좌俗과	왕	陟瓜	假合二平麻知全清	ɬwa	ɬua	tʂua ¹	tsa1
			夥	과	화俗과	:황	胡果	果合一上果匣全濁	ɣua	ɣua	xuo ³	fo2
			輅	과	화正과	:황	胡果	果合一上果匣全濁	ɣua	ɣua	kuo ³	kwo2
			*鹵	위	퇴正위	황	呼瓜	假合二平麻曉次清	hwa	xua	xua ¹	fa1
			瘞	좌	차正좌	왕	昨禾	果合一平戈從全濁	dzua	dzʰua	tsʰuo ²	tsʰo4

표25) 第25韻類 < 궁(拘) :궁(矩) ·궁(履) *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ㅎ	ㅎ	响	구	후俗구	:홍	香句	遇合三去遇曉次清	hju	xjuo	xou ³	heu3
		嫗	구	우俗구	:홍	衣遇	遇合三去遇影全清	ŋju	?juo	y ⁴	ju2
		响	구	후俗구	:홍	香句	遇合三去遇曉次清	hju	xjuo	ey ⁴	hœi3
		歆	구	후俗구	:홍	況于	遇合三平虞曉次清	hju	xjuo	ey ¹	hœi2
		娛	오	우俗오	웅	遇俱	遇合三平虞疑次濁	ŋju	ŋjuo	y ²	ju4
		吁	우	후俗우	홍	況于	遇合三平虞曉次清	hju	xjuo	ey ¹	hœi1
		吁	우	후俗우	:웅	王遇	遇合三去遇云次濁	ɣju	ɣjuo	y ⁴	ju6
		訏	우	후俗우	홍	況于	遇合三平虞曉次清	hju	xjuo	ey ¹	hœi1
		吁	우	후俗우	홍	況于	遇合三平虞曉次清	hju	xjuo	ey ¹	hœi1
		踽	우	구俗우	:궁	驅雨	遇合三上虞溪次清	kʰju	kʰjuo	tey ³	kœi2
		耦	우	구俗우	:궁	俱雨	遇合三上虞見全濁	kju	kjuo	y ³	ju5
		飀	유	슈俗유	슉	山芻	遇合三平虞生全清	ɬju	ɬjuo	ʂu ¹	sy1
		詔	허	후俗허	:홍	況羽	遇合三上虞曉次清	hju	xjuo	ey ³	hœi2
		栩	허	후俗허	:홍	況羽	遇合三上虞曉次清	hju	xjuo	ey ³	hœi2
ㅎ	ㅎ	渝	투	유俗투	웅	羊朱	遇合三平虞以次濁	ju	ŋjuo	y ²	ju4

표26) 第26韻類 < 경(居) :경(學) ·경(據) *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ㅇ	ㅇ	墟	허	거俗허	경	去魚	遇開三平魚溪次清	kʰjo	kʰjo	tehy ¹	*
		墟	허	커俗허	경	去魚	遇開三平魚溪次清	kʰjo	kʰjo	ey ¹	hœi1
	ㅇ	蜡	사	자正사	:청	七慮	遇開三去御清次清	tsʰjo	tsʰjo	tehy ⁴	tsʰa3
		蝮	여	저正여	성	以諸	遇開三平魚以次濁	jo	ŋjo	y ²	tsʰœi4
		煮	자	저俗자	:경	章与	遇開三上語章全清	tejo	tejo	tsu ³	tsy2
攄	터	쳐俗터	팅	丑居	遇開三平魚微次清	ɬjo	ɬjo	ʂu ¹	sy1		

2. 월어의 각종병음방안

<표27> 월어의 각종 병음방안에서 살펴본 성모표

香港語言學學會	耶魯	耶魯(正統)	黃錫凌	萬國音標	廣州	劉錫祥
b	b	b	b	p	b	b
c	ch	ch	ts	tʃ	c	ch
d	d	d	d	t	d	d
f	f	f	f	f	f	f
g	g	g	g	k	g	g
gw	gw	gw	gw	kw	gu	gw
h	h	h	h	h	h	h
j	y	y	j	j	y	y
k	k	k	k	k'	k	k
kw	kw	kw	kw	kw'	ku	kw
l	l	l	l	l	l	l
m	m	m	m	m	m	m
n	n	n	n	n	n	n
ng	ng	ng	ŋ	ŋ	ng	ng
p	p	p	p	p'	p	p
s	s	s	s	ʃ	s	s
t	t	t	t	t'	t	t
w	w	w	w	w	w	w
z	j	j	dz	tʃ	z	j

<표28> 월어의 각종 병음방안에서 살펴본 운모표

香港語言學學會	耶魯	耶魯(正統)	黃錫凌	萬國音標	廣州	劉錫祥
aa	a	a	a	a	a	a
aai	aai	aai	ai	ai	ai	aai
aaU	aaU	aaU	au	au	ao	aaU
aam	aam	aam	am	am	am	aam
aan	aan	aan	an	an	an	aan
aang	aang	aang	aŋ	aŋ	ang	aang
aap	aap	aap	ap	ap	ab	aap
aat	aat	aat	at	at	ad	aat
aak	aak	aak	ak	ak	ag	aak
ai	ai	ai	ei	ei	ei	ai
au	au	au	eu	eu	eo	au
am	am	am	em	em	em	am
an	an	an	en	ɛn	en	an
ang	ang	ang	eŋ	eŋ	eng	ang

ap	ap	ap	ɛp	ɛp	eb	ap
at	at	at	ɛt	ɛt	ed	at
ak	ak	ak	ɛk	ɛk	eg	ak
e	e	e	ɛ	ɛ	é	e
ei	ei	ei	ei	ei	éi	ei
eu				ɛu		
em				ɛm		
eng	eng	eng	ɛŋ	ɛŋ	éng	eng
ep				ɛp		
ek	ek	ek	ɛk	ɛk	ég	ek
i	i	i	i	i	i	i
iu	iu	iu	iu	iu	iu	iu
im	im	im	im	im	im	im
in	in	in	in	in	in	in
ing	ing	ing	iŋ	iŋ	ing	ing
ip	ip	ip	ip	ip	ib	ip
it	it	it	it	it	id	it
ik	ik	ik	ik	lk	ig	ik
o	o	o	ɔ	ɔ	o	oh
oi	oi	oi	ɔi	ɔi	oi	oi
ou	ou	ou	ou	ou	ou	o
on	on	on	ɔn	ɔn	on	on
ong	ong	ong	ɔŋ	ɔŋ	ong	ong
ot	ot	ot	ɔt	ɔt	od	ot
ok	ok	ok	ɔk	ɔk	og	ok
oe	eu	eu	œ	œ	ê	euh
oeng	eung	eung	œŋ	œŋ	ê ng	eung
oek	euk	euk	œk	œk	ê g	euk
eo	eui	eui	œy	øy	ê u	ui
eon	eun	eun	œn	øñ	ê n	un
eot	eut	eut	œt	øt	ê d	ut
u	u	u	u	u	u	oo
ui	ui	ui	ui	ui	ui	ooi
un	un	un	un	un	un	oon
ung	ung	ung	uŋ	ɔ ŋ	ung	ung
ut	ut	ut	ut	ut	ud	oot
uk	uk	uk	uk	ɔ k	ug	uk
yu	yu	yu	y	y	ü	ue
yun	yun	yun	yn	yn	ün	uen
yut	yut	yut	yt	yt	üd	uet
m	m	m	m	m	m	m
ng	ng	ng	ŋ	ŋ	ng	n

3. 『東國正韻』 한자음과 월어의 ‘음색’ 비교

- 漢(漢字), 東(『東國正韻』 한자음), 粵(월어), 色(음색비교)
- 음색 : ① 운미 일치 여부(음성운·양성운·입성운), ② 청음·탁음 일치 여부
- o, x : ①, ②가 모두 일치할 경우 ‘o’표시, 하나라도 일치 하지 않을 경우 ‘x’표시
- 청음 : 『東國正韻』 23자모의 전청, 차청 : ㄱ, ㅋ, ㆁ, ㄷ, ㅌ, ㅍ, ㅈ, ㅊ, ㅍ, ㅎ
월어의 1성·2성·3성
- 탁음 : 『東國正韻』 23자모의 전탁, 불청불탁 : ㄱ, ㅇ(옛이응), ㆁ, ㄴ, ㅁ, ㅌ, ㅍ, ㅈ, ㅊ, ㅍ, ㅎ, ㅅ, ㅆ, ㅇ, ㄹ, ㄷ
월어의 4성·5성·6성
- 청음에 해당하는 한자는 빨간색으로 표시
- 탁음에 해당하는 한자는 파란색으로 표시
-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검정색으로 표시

世宗御製訓民正音

생sai³ 종zung¹ 엉ngaa⁶ 쟁zai³ 훈fan³ 민man⁴ 쟁zeng³ 흠jam¹

<표29> 世宗御製訓民正音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國	꺨	gwok ³	o	之	꺨	zi ¹	o	語	영	jyu ⁵	o	音	흠	jam ¹	o
異	잉	ji ⁶	o	乎	훙	fu ¹	o	中	똥	zung ¹	o	國	꺨	gwok ³	o
與	영	jyu ⁴	o	文	문	man ⁴	o	字	꺨	zi ⁶	o	不	븨	bat ¹	o
相	샹	soeng ¹	o	流	룽	lau ⁴	o	通	통	tung ¹	o	故	공	gu ³	o
愚	응	jyu ⁴	o	民	민	man ⁴	o	有	훙	jau ⁵	o	所	소	so ²	o
欲	욕	juk ⁶	o	言	언	jin ⁴	o	而	싱	ji ⁴	o	終	꺨	zung ¹	o
不	븨	bat ¹	o	得	득	dak ¹	o	伸	신	san ¹	o	其	꺨	gei ⁶	o
情	꺨	cing ⁴	o	者	꺨	ze ²	o	多	당	do ¹	o	矣	잉	ji ⁵	o
予	영	jyu ⁴	o	爲	윙	wai ⁴	o	此	꺨	ci ²	o	憫	민	man ⁵	o
然	션	jin ⁴	o	新	신	san ¹	o	制	꺨	zai ³	o	二	시	ji ⁶	o
十	싹	sap ⁶	o	八	뵤	baat ³	o	字	꺨	zi ⁶	o	欲	욕	juk ⁶	o
使	승	sai ²	o	人	신	jan ⁴	o	人	신	jan ⁴	o	易	잉	ji ⁶	o
習	싹	zaap ⁶	o	便	뵤	bin ⁶	o	於	영	jyu ¹	o	日	싹	jat ⁶	o
用	용	jung ⁶	o	耳	싱	ji ⁵	o								

『釋譜詳節』序

석sik¹ 봉pou² 쌍coeng⁴ 절zit³ 썩zeoi⁶

<표30> 『釋譜詳節』序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佛	꺄	fat ⁶	o	爲	횡	wai ⁴	o	三	삼	saam ¹	o	界	꺄	gaai ³	o
之	징	zi ¹	o	尊	존	zeon ¹	o	弘	횡	wang ⁴	o	渡	퐁	dou ⁶	o
群	꾼	kwan ⁴	o	生	싱	sang ¹	o	無	뭉	mou ⁴	o	量	량	loeng ⁴	o
功	궁	gung ¹	o	德	득	dak ¹	o	人	신	jan ⁴	o	天	턴	tin ¹	o
所	송	so ²	o	不	뵤	bat ¹	o	能	능	nang ⁴	o	盡	쩨	zeon ⁶	o
讚	잔	zaan ³	o	世	셩	sai ³	o	之	지	zi ¹	o	學	학	hok ⁶	o
佛	꺄	fat ⁶	o	者	장	ze ²	o	鮮	션	sin ¹	o	有	옴	jau ⁵	o
知	딩	zi ¹	o	出	출	ceot ¹	o	處	청	cyu ²	o	始	싱	ci ²	o
終	중	zung ¹	o	雖	형	seoi ¹	o	欲	욕	juk ⁶	o	知	디	zi ¹	o
者	장	ze ²	o	亦	역	jik ⁶	o	不	뵤	bat ¹	o	過	광	gwo ¹	o
八	밭	baat ³	o	相	상	soeng ¹	o	而	싱	ji ⁴	o	止	징	zi ²	o
頃	퀸	king ²	o	因	인	jan ¹	o	追	뵤	zeoi ¹	o	薦	쩨	zin ³	o
爰	원	jyun ⁴	o	采	칭	coi ²	o	諸	정	zyu ¹	o	經	경	ging ¹	o
別	뵤	bit ³	o	爲	횡	wai ⁴	o	一	횡	jat ¹	o	書	성	syu ¹	o
名	명	meng ⁴	o	之	지	zi ¹	o	曰	윽	jyut ⁶	o	釋	석	sik ¹	o
譜	봉	pou ²	o	詳	쌍	coeng ⁴	o	節	절	zit ³	o	旣	꺄	gei ³	o
據	꺄	geoi ³	o	所	소	so ²	o	次	층	ci ³	o	繪	횡	kui ³	x
成	셩	seng ⁴	o	世	셩	sai ³	o	尊	존	zeon ¹	o	成	셩	seng ⁴	o
道	똥	dou ⁶	o	之	징	zi ¹	o	迹	적	zik ¹	o	又	옴	jau ⁶	o
以	잉	ji ⁵	o	正	정	zeng ³	o	音	흙	jam ¹	o	就	쑤	zau ⁶	o
加	꺄	gaa ¹	o	譯	역	jik ⁶	o	解	꺄	gaai ²	o	庶	성	syu ³	o
畿	꺄	gei ¹	o	人	신	jan ⁴	o	人	신	jan ⁴	o	易	잉	ji ⁶	o
曉	흙	hiu ²	o	而	싱	ji ⁴	o	歸	꺄	gwai ¹	o	依	잉	ji ¹	o
三	삼	saam ¹	o	寶	뵤	bou ²	o	焉	언	jin ¹	o	正	정	zeng ³	o
統	퐁	tung ²	o	十	씹	sap ⁶	o	二	싱	ji ⁶	o	年	년	nin ⁴	o
七	칠	cat ¹	o	月	윽	jyut ⁶	o	二	싱	ji ⁶	o	十	씹	sap ⁶	o
五	옴	ng ⁵	o	日	실	jat ⁶	o	首	슈	sau ²	o	陽	양	joeng ⁴	o
君	꺄	gwan ¹	o	諱	횡	wai ⁵	o	序	셩	zeoi ⁶	o				

御製 『月印釋譜』 序

엥ngaa6 쟁zai3 윽jyut6 힌jan3 석sik¹ 붕pou² 쟁zeoi6

<표31> 御製 『月印釋譜』 序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夫	붕	fu ¹	o	眞	진	zan ¹	o	源	원	jyun ⁴	o	廓	곽	kwok ³	o
寥	룽	liu ⁴	o	性	성	sing ³	o	智	딩	zi ³	o	湛	딤	daam ¹	x
寂	적	zik ⁶	o	靈	령	ling ⁴	o	光	광	gwong ¹	o	獨	독	duk ⁶	o
耀	윽	jiu ⁶	o	法	법	faat ³	o	身	신	san ¹	o	常	쌍	soeng ⁴	o
住	똥	zyu ⁶	o	色	식	sik ¹	o	相	상	soeng ¹	o	一	힐	jat ¹	o
泯	민	man ⁵	o	能	능	nang ⁴	o	所	송	so ²	o	都	둥	dou ¹	o
亡	망	mong ⁴	o	既	깅	gei ³	o	無	몽	mou ⁴	o	生	싱	sang ¹	o
滅	뎡	mit ⁶	o	焉	연	jin ¹	o	有	윽	jau ⁵	o	去	커	heoi ³	o
來	링	loi ⁴	o	只	징	zi ²	o	緣	원	jyun ⁴	o	妄	망	mong ⁵	o
心	심	sam ¹	o	瞥	뎡	pit ³	o	起	킹	hei ²	o	識	식	sik ¹	o
境	경	ging ²	o	競	경	ging ⁶	o	動	똥	dung ⁶	o	攀	판	paan ¹	o
緣	원	jyun ⁴	o	取	츄	ceoi ²	o	著	막	zoek ⁶	o	恒	헝	hang ⁴	o
繫	계	hai ⁶	x	業	업	jip ⁶	o	報	불	bou ³	o	遂	쨍	seoi ⁵	o
味	밍	mui ⁶	o	眞	진	zan ¹	o	覺	각	gok ³	o	於	영	jyu ¹	o
長	뎡	zoeng ⁶	o	夜	양	je ⁶	o	瞽	궁	gu ²	o	智	딩	zi ³	o
眼	안	ngaan ⁵	o	於	영	jyu ¹	o	永	윽	wing ⁵	o	劫	겹	gip ³	o
輪	륄	leon ⁴	o	回	훙	wui ⁴	o	六	륙	luk ⁶	o	道	똥	dou ⁶	o
而	싱	ji ⁴	o	不	붐	bat ¹	o	暫	잠	zaam ⁶	o	停	뎡	ting ⁴	o
焦	츄	ziu ¹	o	煎	전	zin ¹	o	八	밭	baat ³	o	苦	궁	fu ²	o
而	싱	ji ⁴	o	不	붐	bat ¹	o	能	능	nang ⁴	o	脫	뎡	tyut ³	o
我	앙	ngo ⁵	o	佛	뎡	fat ⁶	o	如	성	jyu ⁴	o	來	링	loi ⁴	o
雖	성	seoi ¹	o	妙	뎡	miu ⁶	o	眞	진	zan ¹	o	淨	쟁	zeng ⁶	o
身	신	san ¹	o	居	거	geoi ¹	o	常	쌍	soeng ⁴	o	寂	적	zik ⁶	o
光	광	gwong ¹	o	土	통	tou ²	o	以	잉	ji ⁵	o	本	본	bun ²	o
悲	빙	bei ¹	o	願	원	jyun ⁶	o	運	운	wan ⁶	o	無	몽	mou ⁴	o
緣	원	jyun ⁴	o	慈	쯩	ci ⁴	o	現	현	jin ⁶	o	神	션	san ⁴	o
通	통	tung ¹	o	力	릭	lik ⁶	o	降	강	gong ³	o	誕	뎡	daan ⁶	o
閻	염	jim ⁴	o	浮	뎡	fau ⁴	o	示	쌍	si ⁶	o	成	쨍	seng ⁴	o
正	정	zeng ³	o	覺	각	gok ³	o	號	훙	hou ⁶	o	天	뎡	tin ¹	o
人	신	jan ⁴	o	師	승	si ¹	o	稱	칭	cing ¹	o	一	힐	jat ¹	o
切	첸	cai ³	o	智	딩	zi ³	o	放	방	fong ³	o	大	뎡	daai ⁶	o
威	윽	wai ¹	o	光	광	gwong ¹	o	破	팡	po ³	o	魔	망	mo ⁴	o
兵	병	bing ¹	o	衆	중	zêng ³	o	大	뎡	daai ⁶	o	啓	켤	kai ²	o
三	삼	saam ¹	o	乘	쨍	sing ⁴	o	廣	광	gwong ²	o	演	연	jin ⁵	o
八	밭	baat ³	o	教	괵	gaau ³	o	潤	순	jeon ⁶	o	之	징	zi ¹	o

六	륙	luk ⁶	o	合	합	hap ⁶	o	沾	덤	zim ¹	o	之	징	zi ¹	o
十	십	sap ⁶	o	方	방	fong ¹	o	言	언	jin ⁴	o	言	언	jin ⁴	o
攝	섭	sip ³	o	無	몽	mou ⁴	o	量	량	loeng ⁴	o	妙	몰	miu ⁶	o
義	의	ji ⁶	o	句	궁	geoi ³	o	句	궁	geoi ³	o	含	함	ham ⁴	o
恒	흥	hang ⁴	o	沙	상	saa ¹	o	法	법	faat ³	o	問	문	man ⁶	o
開	개	hoi ¹	o	解	갱	gaai ²	o	脫	뿔	tyut ³	o	門	문	mun ⁴	o
納	납	naap ⁶	o	淨	쟁	zeng ⁶	o	法	법	faat ³	o	海	형	hoi ²	o
其	끼	gei ⁶	o	撈	룰	lou ⁴	o	攤	룩	luk ¹	o	人	신	jan ⁴	o
天	텐	tin ¹	o	拯	징	cing ²	o	濟	쟁	zai ³	o	四	승	sei ³	o
生	싱	saang ¹	o	功	공	gung ¹	o	德	득	dak ¹	o	可	강	ho ²	o
勝	싱	sing ¹	o	讚	잔	zaan ³	o	哉	징	zoi ¹	o	天	텐	tin ¹	o
龍	룽	lung ⁴	o	所	송	so ²	o	誓	썩	sai ⁶	o	願	원	jyun ⁶	o
以	잉	ji ⁵	o	流	룽	lau ⁴	o	通	통	tung ¹	o	國	국	gwok ³	o
王	왕	wong ⁴	o	所	송	so ²	o	受	썩	sau ⁶	o	囑	죽	zuk ¹	o
以	잉	ji ⁵	o	擁	홍	jung ²	o	護	훙	wu ⁶	o	昔	석	sik ¹	o
在	징	zoi ⁶	o	丙	병	bing ²	o	寅	인	jan ⁴	o	昭	줄	ziu ¹	o
憲	헌	hin ³	o	王	왕	wong ⁴	o	后	훙	hau ⁶	o	庵	덤	am ¹	o
棄	깅	hei ³	o	榮	영	wing ⁴	o	養	양	joeng ⁵	o	通	통	tung ¹	o
言	언	jin ⁴	o	在	징	zoi ⁶	o	疾	궁	gau ³	o	𠄎	망	mong ⁵	o
知	딩	zi ¹	o	攸	응	jau ⁴	o	措	총	cou ³	o	世	생	sai ³	o
宗	종	zung ¹	o	謂	윙	wai ⁶	o	子	영	jyu ⁴	o	薦	견	zin ³	o
拔	뽵	bat ⁶	o	無	몽	mou ⁴	o	如	성	jyu ⁴	o	轉	뒸	zyun ²	o
經	경	ging ¹	o	汝	성	jyu ⁵	o	宜	윙	ji ⁴	o	撰	좌	zaan ⁶	o
譯	역	jik ⁶	o	釋	석	sik ¹	o	譜	봉	pou ²	o	予	영	jyu ⁴	o
受	썩	sau ⁶	o	慈	쥬	ci ⁴	o	命	명	meng ⁶	o	益	력	jik ¹	o
用	용	jung ⁶	o	覃	탐	taam ⁴	o	思	승	si ¹	o	得	득	dak ¹	o
見	견	gin ³	o	祐	응	jau ⁶	o	宣	원	syun ¹	o	二	싱	ji ⁶	o
律	륵	leot ⁶	o	師	승	si ¹	o	各	각	gok ³	o	有	응	jau ⁵	o
編	변	pin ¹	o	譜	봉	pou ²	o	而	싱	ji ⁴	o	詳	쌍	coeng ⁴	o
略	락	loek ⁶	o	不	뽵	bat ¹	o	同	통	tung ⁴	o	爰	원	jyun ⁴	o
合	합	hap ⁶	o	兩	량	loeng ⁵	o	書	성	syu ¹	o	撰	좌	zaan ⁶	o
成	성	seng ⁴	o	釋	석	sik ¹	o	譜	봉	pou ²	o	詳	쌍	coeng ⁴	o
節	절	zit ³	o	就	쥬	zau ⁶	o	譯	역	jik ⁶	o	以	잉	ji ⁵	o
正	정	zeng ³	o	音	흙	jam ¹	o	俾	빙	bei ²	o	人	신	jan ⁴	o
人	신	jan ⁴	o	易	잉	ji ⁶	o	曉	훙	hiu ²	o	乃	내	naai ⁵	o
進	진	zeon ³	o	賜	승	ci ³	o	覽	람	laam ⁵	o	輒	뎃	zip ³	o
製	쟁	zai ³	o	讚	잔	zaan ³	o	頌	송	zung ⁶	o	名	명	meng ⁴	o
日	윙	jyut ⁶	o	月	윙	jyut ⁶	o	印	린	jan ³	o	千	천	cin ¹	o
江	강	gong ¹	o	其	끼	gei ⁶	o	在	징	zoi ⁶	o	于	응	jyu ¹	o
今	금	gam ¹	o	崇	썩	sung ⁴	o	奉	뽵	fung ⁶	o	曷	훙	hot ⁶	o
弛	싱	ci ²	o	頃	퀸	king ²	o	丁	뎃	ding ¹	o	家	강	gaa ¹	o
屮	익	ak ¹	o	長	당	zoeng ²	o	嗣	송	zi ⁶	o	夭	푹	jiu ¹	o

亡	망	mong ⁴	o	父	뽕	fu ⁶	o	母	물	mou ⁵	o	之	징	zi ¹	o
情	정	cing ⁴	o	本	본	bun ²	o	乎	훙	fu ¹	o	天	턴	tin ¹	o
性	성	sing ³	o	哀	잉	oi ¹	o	戚	척	cik ¹	o	之	징	zi ¹	o
感	감	gam ²	o	寧	녕	ning ⁴	o	殊	쑤	syu ⁴	o	久	굴	gau ²	o
近	근	gan ⁶	o	予	영	jyu ⁴	o	惟	윙	wai ⁴	o	欲	욕	juk ⁶	o
啓	경	kai ²	o	三	삼	saam ¹	o	途	퉁	tou ⁴	o	之	징	zi ¹	o
苦	콩	fu ²	o	要	훙	jiu ¹	o	求	쿨	kau ⁴	o	出	훙	ceot ¹	o
離	링	lei ⁴	o	之	징	zi ¹	o	道	똥	dou ⁶	o	捨	샹	se ²	o
此	츠	ci ²	o	何	헝	ho ⁴	o	依	평	ji ¹	o	轉	툐	zyun ²	o
成	성	seng ⁴	o	了	룽	liu ⁵	o	義	윙	ji ⁶	o	雖	썩	seoi ¹	o
則	즉	zak ¹	o	既	기	gei ³	o	多	당	do ¹	o	念	념	nim ⁶	o
此	츠	ci ²	o	月	윽	jyut ⁶	o	印	린	jan ³	o	釋	석	sik ¹	o
譜	부	pou ²	o	先	션	sin ¹	o	考	콜	haau ²	o	所	송	so ²	o
製	제	zai ³	o	依	희	ji ¹	o	然	션	jin ⁴	o	霜	상	soeng ¹	o
露	룽	lou ⁶	o	慨	갱	koi ²	o	增	증	zang ¹	o	悽	칭	cai ¹	o
愴	창	cong ³	o	仰	양	ngong ⁵	o	思	승	si ¹	o	聿	룽	leot ⁶	o
追	똥	zeoi ¹	o	必	빔	bit ¹	o	先	션	sin ¹	o	述	슌	seot ⁶	o
事	상	si ⁶	o	萬	먼	maan ⁶	o	幾	기	gei ¹	o	縱	중	zung ¹	o
浩	훙	hou ⁵	o	豈	킹	hei ²	o	無	몽	mou ⁴	o	閑	한	haan ⁴	o
暇	헝	haa ⁶	o	廢	벵	fai ³	o	寢	침	cam ²	o	亡	망	mong ⁴	o
食	식	sik ⁶	o	窮	궁	kung ⁴	o	年	년	nin ⁴	o	繼	계	gai ³	o
日	릿	jat ⁶	o	上	쌍	soeng ⁵	o	爲	윙	wai ⁴	o	父	뽕	fu ⁶	o
母	물	mou ⁵	o	仙	션	sin ¹	o	駕	강	gaa ³	o	兼	겸	gim ¹	o
爲	윙	wai ⁴	o	亡	망	mong ⁴	o	兒	싱	ji ⁴	o	速	속	cuk ¹	o
乘	씽	sing ⁴	o	慧	뽕	wai ⁶	o	雲	운	wan ⁴	o	迴	훙	gwing ²	x
出	훙	ceot ¹	o	諸	정	zyu ¹	o	塵	뎌	can ⁴	o	直	떡	zik ⁶	o
了	룽	liu ⁵	o	自	쑤	zi ⁶	o	性	성	sing ³	o	頓	둔	deon ⁶	o
證	징	zing ³	o	覺	각	gok ³	o	地	뎡	dei ⁶	o	乃	냉	naai ⁵	o
講	강	gong ²	o	刪	망	mo ⁴	o	研	연	ngaan ⁴	o	精	정	zeng ¹	o
於	영	jyu ¹	o	舊	골	gau ⁶	o	券	권	gyun ³	o	槩	흔	jan ²	o
括	광	kut ³	o	更	깁	gang ¹	o	添	뎡	tim ¹	o	於	영	jyu ¹	o
新	신	san ¹	o	編	편	pin ¹	o	出	훙	ceot ¹	o	入	십	jap ⁶	o
十	십	sap ⁶	o	二	싱	ji ⁶	o	部	뽕	bou ⁶	o	之	징	zi ¹	o
修	슈	sau ¹	o	多	당	do ¹	o	羅	랑	lo ⁴	o	曾	중	zang ¹	o
靡	밍	mei ⁵	o	遺	윙	wai ⁴	o	力	릭	lik ⁶	o	增	증	zang ¹	o
減	감	gaam ²	o	一	힝	jat ¹	o	兩	량	loeng ⁵	o	句	궁	geoi ³	o
之	징	zi ¹	o	去	경	heoi ³	o	取	츱	ceoi ²	o	期	평	gei ⁶	o
致	딩	zi ³	o	盡	전	zeon ⁶	o	心	심	sam ¹	o	有	윽	jau ⁵	o
所	소	so ²	o	疑	윙	ji ⁴	o	處	청	cyu ²	o	必	빔	bit ¹	o
資	즈	zi ¹	o	博	박	bok ³	o	問	문	man ⁶	o	庶	성	syu ³	o
幾	경	gei ¹	o	搜	슈	sau ¹	o	剔	틱	tik ¹	o	玄	훙	jyun ⁴	o
根	근	gan ¹	o	敷	풍	fu ¹	o	究	굴	gau ³	o	一	힝	jat ¹	o

乘	쌩	sing ⁴	o	之	징	zi ¹	o	妙	똥	miu ⁶	o	旨	징	zi ²	o
磨	망	mo ⁴	o	龔	룽	lung ⁴	o	理	링	lei ⁵	o	窟	룽	fat ¹	o
疏	송	so ¹	o	達	따	daat ⁶	o	萬	먼	maan ⁶	o	法	법	faat ³	o
之	지	zi ¹	o	深	심	sam ¹	o	原	원	jyun ⁴	o	蓋	갱	goi ³	o
文	문	man ⁴	o	非	빙	fei ¹	o	爲	윙	wai ⁴	o	經	경	ging ¹	o
經	경	ging ¹	o	非	빙	fei ¹	o	爲	윙	wai ⁴	o	佛	뽕	fat ⁶	o
詮	첸	cyun ⁴	o	道	똥	dou ⁶	o	者	쟝	ze ²	o	是	쌩	si ⁶	o
經	경	ging ¹	o	體	텅	tai ²	o	道	똥	dou ⁶	o	者	쟝	ze ²	o
是	쌩	si ⁶	o	佛	뽕	fat ⁶	o	讀	똥	duk ⁶	o	是	쌩	si ⁶	o
典	딘	din ²	o	者	쟝	ze ²	o	所	송	so ²	o	貴	괩	gwai ³	o
廻	훙	wui ⁴	o	光	광	gwong ¹	o	以	잉	ji ⁵	o	自	쫑	zi ⁶	o
照	쫑	ziu ³	x	切	첸	cit ³	o	忌	깁	gei ⁶	o	執	집	zap ¹	o
指	징	zi ²	o	而	싱	ji ⁴	o	留	룽	lau ⁴	o	筌	첸	cyun ⁴	x
鳴	똥	wu ¹	o	呼	훙	fu ¹	o	梵	뽕	faan ⁴	x	軸	똥	zuk ⁶	o
崇	쫑	sung ⁴	o	積	적	zik ¹	o	觀	관	gun ¹	o	者	쟝	ze ²	o
猶	유	jau ⁴	o	難	난	naan ⁴	o	於	영	jyu ¹	o	讀	똥	duk ⁶	o
誦	쫑	zung ⁶	o	方	방	fong ¹	o	言	언	jin ⁴	o	膽	똥	tang ⁴	o
布	부	bou ³	o	聞	문	man ⁴	o	者	쟝	ze ²	o	悉	쌩	sik ¹	o
得	득	dak ¹	o	以	잉	ji ⁵	o	景	깁	ging ²	o	仰	양	ngong ⁵	o
西	쌩	sai ¹	o	天	틴	tin ¹	o	字	쫑	zi ⁶	o	經	경	ging ¹	o
讀	똥	duk ⁶	o	誦	쫑	zung ⁶	o	肆	승	sei ³	o	與	영	jyu ⁴	o
宗	쫑	zung ¹	o	宰	징	zoi ²	o	勳	훈	fan ¹	o	戚	척	cik ¹	o
百	백	baak ³	o	官	관	gun ¹	o	四	승	sei ³	o	衆	쫑	zung ³	o
結	깁	git ³	o	願	원	jyun ⁶	o	軫	진	zan ²	o	於	영	jyu ¹	o
不	뽕	bat ¹	o	朽	훙	jau ²	o	植	씩	zik ⁶	o	德	득	dak ¹	o
本	본	bun ²	o	於	영	jyu ¹	o	無	똥	mou ⁴	o	窮	궁	kung ⁴	o
冀	깁	kei ³	o	神	씬	san ⁴	o	安	한	ngon ¹	o	民	민	man ⁴	o
樂	락	lok ⁶	o	境	깁	ging ²	o	靜	깁	zing ⁶	o	祚	쫑	zou ⁶	o
固	공	gu ³	o	時	쌩	si ⁴	o	泰	텅	taai ³	o	而	싱	ji ⁴	o
歲	쌩	seoi ³	o	有	유	jau ⁵	o	福	부	fuk ¹	o	臻	즌	zeon ¹	o
而	싱	ji ⁴	o	災	징	zoi ¹	o	消	술	siu ¹	o	以	이	ji ⁵	o
向	향	hoeng ³	o	所	송	so ²	o	修	술	sau ¹	o	功	공	gung ¹	o
德	득	dak ¹	o	廻	훙	wui ⁴	o	向	향	hoeng ³	o	實	쌩	sat ⁶	o
際	제	zai ³	o	願	원	jyun ⁶	o	共	깁	gung ⁶	o	一	윙	jat ¹	o
切	첸	cai ³	o	有	유	jau ⁵	o	情	깁	cing ⁴	o	速	속	cuk ¹	o
至	징	zi ³	o	菩	뽕	pou ⁴	o	提	똥	tai ⁴	o	彼	빙	bei ²	o
岸	안	ngon ⁶	o	天	틴	tin ¹	o	順	쫑	seon ⁶	o	三	삼	saam ¹	o
年	년	nin ⁴	o	己	깁	gei ²	o	卯	똥	maau ⁵	o	七	칠	cat ¹	o
月	윙	jyut ⁶	o	七	칠	cat ¹	o	日	윙	jat ⁶	o	序	쌩	zeoi ⁶	o

이상 중복되지 않는 한자 463자 중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음·탁음, 운미’와 월어의 ‘음조·양조, 운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繪·횡·kui³, 湛·땀·daam¹, 繫·계·hai⁶, 迥·횡·gwing², 照·쥬·ziu³, 梵·뺨·faan⁴, 筓·훤·cyun⁴’으로 총 7 글자가 있었다. 世宗御製訓民正音·『釋譜詳節』序·『月印釋譜』序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음·탁음, 운미’와 월어의 ‘음조·양조, 운미’의 일치율은 98.5%이다.